

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001172-01

2019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2020. 5.



목 차

■ 제1장 ■ 조사개요	2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2
1. 배경	2
2. 목적	2
제2절 조사의 범위와 내용	4
1. 범위	4
2. 내용	4
제3절 조사의 방법 및 추진체계	6
1. 방법	6
2. 추진체계	7
■ 제2장 ■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11
제1절 수산물 공급구조 변화	11
1. 어업별 생산	11
2. 어업별·부류별 생산	13
제2절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	26
1. 1인당 수산물 소비량	26
2.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산물 소비	28
제3절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화	42
1. 세계 수산물 생산과 소비	42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45
제4절 수산물 산지 및 도소매 환경 변화	53
1. 계통 출하	53
2. 수산물 소매	55
3. 수산가공품 원료조달	57

■ 제3장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부문별 실태 ————— 62

제1절 수산물 수급현황	63
1. 수산물 수급의 이론적 배경	63
2. 수산물 생산 현황	64
3. 수산물 수출입 현황	69
4. 수산물 재고 현황	72
5. 수산물 감모·폐기 현황	73
6. 수산물 수급 현황	74
제2절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	79
1. 비축사업	79
2. 수산물자조금지원	80
3. 수산물수매지원	81
제3절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83
1. 주요 수산물 유통경로 현황	83
2. 수산물 도소매업 현황	97
3. 수산물 유통종사자 현황	101

■ 제4장 ■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 ————— 109

제1절 수산물 유통실태의 조사개요	109
1. 필요성 및 목적	109
2. 기존 사례 조사 검토	109
3. 수산물 품목별 유통 실태 조사 체계(안)	115
4. 품목별 주요 경로 및 조사 내용	117
제2절 고등어 유통실태조사	133
1. 고등어 생산 및 유통현황	133
2. 고등어 유통구조	148
3. 고등어 유통비용	152
제3절 명태 유통실태조사	166
1. 명태 생산 및 유통 일반현황	166

2. 명태 유통구조	176
3. 명태 유통비용	181
제4절 오징어 유통실태조사	184
1. 오징어 생산 및 유통 일반현황	184
2. 오징어 유통구조	201
3. 오징어 유통비용	207
제5절 갈치 유통실태조사	216
1. 갈치 생산 및 유통현황	216
2. 갈치 유통구조	232
3. 갈치 유통비용	238
제6절 참조기 유통실태조사	242
1. 참조기 생산 및 유통현황	242
2. 참조기 유통구조	255
3. 참조기 유통비용	257
제7절 양식전복 유통실태조사	264
1. 양식전복 생산 및 유통현황	264
2. 양식전복 유통구조	279
3. 양식전복 유통비용	283
제8절 양식넙치 유통실태조사	285
1. 양식넙치 생산 및 유통 일반현황	285
2. 양식넙치 유통경로	294
3. 양식넙치 유통비용(제주 기준)	296
 ■ 제5장 ■ 결론 및 시사점	301
제1절 품목별 유통비용 조사결과	301
1. 품목별 유통비용	301
2. 평균 유통비용	303
제2절 품목별 유통비용 구조	306
1. 고등어	306
2. 명태	307

3. 오징어	308
4. 갈치	309
5. 참조기	310
6. 양식전복	311
7. 양식넙치	312
8. 종합평가	313

■ 참고문헌 ■	316
----------------	-----

■ 부 록 ■	322
------------------	-----

표 목 차

<표 1-1> 주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7
<표 2-1> 수산물 부류별·연도별 생산량 현황	13
<표 2-2>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15
<표 2-3> 우리나라 천해양식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19
<표 2-4>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22
<표 2-5>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24
<표 2-6>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이	26
<표 2-7> 주요 식품군의 1인당 순식용 공급량 현황	27
<표 2-8> 한국의 가구원 수 추계	28
<표 2-9> 최근의 수요 트렌드의 다양화와 소비행태	29
<표 2-10> 가계의 외식 비중 및 가정 내 수산물 구입 추이	30
<표 2-11>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2018년 기준)	31
<표 2-12> 가구원 수별 어류 구입 빈도	34
<표 2-13> 가구주 연령별 어류 구입 빈도	35
<표 2-14> 가구원 수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37
<표 2-15> 가구주 연령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38
<표 2-16> 수산물 주요 가정간편식 출시 제품(즉석섭취·편의식품류 외)	39
<표 2-17> 수산가공품(조미, 건조) 구매 시 중요 요소	40
<표 2-18> 수산가공품(조미, 건조) 소비자 선호도	41
<표 2-19> 전 세계 주요 식품군별 수급 현황	42
<표 2-20> 세계의 Food Price Index	44
<표 2-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46
<표 2-22> 2019년 수산물 수출입 국가별 현황	47
<표 2-23> 종류별 수산물 수출액 현황	47
<표 2-24> 종류별 수산물 수입액 현황	48
<표 2-25> 수산물 상위 15개 수출품목 실적(순위는 금액 기준)	49
<표 2-26> 수산물 상위 15개 수입품목 실적(순위는 금액 기준)	51

<표 2-27> 수산물 계통출하율 추이	53
<표 2-28> 도매시장 수산부류 거래실적 현황	54
<표 2-29>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	55
<표 2-30> 온라인 쇼핑 매체·품목별 매출액 추이	56
<표 2-31>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수산물 원료사용 비중 현황(2018년 기준)	58
<표 2-32> 식품제조업체의 수산물 원료 국산 사용 비중(2016년 기준)	58
<표 2-33> 식품제조업체의 수산물 국산 원료 조달경로(2018년 기준)	59
<표 2-34> 식품제조업체의 수산물 국산 원료 조달경로(2016년 기준)	60
<표 3-1>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65
<표 3-2> 일반해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66
<표 3-3> 천해양식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67
<표 3-4>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68
<표 3-5> 내수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69
<표 3-6> 식품류 수출입 추이	70
<표 3-7> 국가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71
<표 3-8> 국가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71
<표 3-9> 수산물 재고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72
<표 3-10> 식품별 감모율표	73
<표 3-11> 연도별 수산물 수급현황 추이	74
<표 3-12> 연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동향	75
<표 3-13> 조사대상 7개 품종의 수급 현황	77
<표 3-14> 2019년도 수산물 비축사업 수매실적	80
<표 3-15> 수산물 비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80
<표 3-16>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81
<표 3-17> 수산물수매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82
<표 3-18> 지역별 위·공판장 현황(2019년 기준)	89
<표 3-19> 수협계통판매 지역별 현황(2019년 기준)	90
<표 3-20>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위판실적 규모(2019년 기준)	91
<표 3-21> 전국 도매시장 현황(2018년 기준)	91
<표 3-22> 전국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현황(2018년 기준)	92

<표 3-23>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현황(2018년 기준)	93
<표 3-24> 도매시장 전체 및 수산부류 거래실적	94
<표 3-25> 도매시장 수입수산물 거래 실적	95
<표 3-26> 도매시장 출하선별 출하물량	96
<표 3-27> 최근 10년간 도매시장의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 현황	97
<표 3-28>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98
<표 3-29>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98
<표 3-30> 수산물 도소매업 매출액 현황	99
<표 3-31>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8년 기준)	99
<표 3-32> 수산물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8년 기준)	100
<표 3-33> 주요 식품군별 도소매업 규모 비교(2018년 기준)	101
<표 3-34>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수산부문 종사자수 현황(2017년 기준)	102
<표 3-35>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상의 수산물 유통업 분류체계	103
<표 3-36>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현황(전국사업체조사)	104
<표 3-37> 산지 수산물시장의 유통종사자 현황	104
<표 3-38> 수산물 유통업 단순 노무인력 현황(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105
<표 3-39> 도매시장 수산부류 유통종사자 현황	106
<표 3-40> 수산물 유통종사자수 추정결과 비교(2017년 기준)	106
<표 4-1> 일본 식품유통 단계별 가격 형성 조사 내용	111
<표 4-2> aT센터의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품목	112
<표 4-3>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의 단계별 내용	116
<표 4-4> 고등어(선어)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118
<표 4-5> 고등어(선어→동결), 고등어(수입)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119
<표 4-6> 명태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121
<표 4-7> 국산 오징어(활어, 선어)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123
<표 4-8> 수입 오징어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124
<표 4-9> 갈치(선어)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126
<표 4-10> 참조기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128
<표 4-11> 양식 전복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130
<표 4-12> 양식 넙치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132

<표 4-13>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33
<표 4-14>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금액 동향	134
<표 4-15> 연도별·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35
<표 4-16>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36
<표 4-17>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계통출하 동향	136
<표 4-18> 연도별 지역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37
<표 4-19> 연도별 어법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37
<표 4-20> 연도별 고등어 수출입 동향	138
<표 4-21> 제품형태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139
<표 4-22> 연도별 고등어 수급구조	140
<표 4-23>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동향(대형선망수협)	141
<표 4-24> 연도별·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동향	142
<표 4-25>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동향	143
<표 4-26>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동향	144
<표 4-27>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동향	146
<표 4-28>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동향	147
<표 4-29> 고등어(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149
<표 4-30> 2019년 야간부녀반 작업 노임	153
<표 4-31>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소비지 도매시장)	156
<표 4-32>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158
<표 4-33>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부산 공동어시장→소비지 도매시장)	161
<표 4-34>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165
<표 4-35>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량 동향	167
<표 4-36>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금액 동향	167
<표 4-37> 연도별·월별 명태 생산량 동향	168
<표 4-38> 연도별 부류별 명태 생산량 동향	169
<표 4-39> 연도별 명태 수출입 동향	170
<표 4-40> 제품유형별 명태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171
<표 4-41> 연도별 명태 수급구조	172
<표 4-42> 연도별·월별 명태 산지가격 동향(냉동 기준)	173
<표 4-43> 연도별·월별 명태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174

<표 4-44> 연도별·월별 명태 소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175
<표 4-45> 북양 명태 통수별 사용 용도	179
<표 4-46> 냉동명태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180
<표 4-47> 명태(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노량진수산물시장)	183
<표 4-48>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185
<표 4-49>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금액 동향	186
<표 4-50>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187
<표 4-5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188
<표 4-52>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계통출하 동향	189
<표 4-53> 연도별 지역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190
<표 4-54> 연도별 어법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일반해면어업)	190
<표 4-55> 연도별 오징어 수출입 동향	191
<표 4-56> 제품유형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192
<표 4-57> 연도별 오징어 수급구조	193
<표 4-58>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동향(선어 기준)	195
<표 4-59>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196
<표 4-60>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198
<표 4-61>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199
<표 4-62>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200
<표 4-63> 오징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207
<표 4-64> 활오징어의 유통비용(경북 울진 후포 → 소매상(횃집))	208
<표 4-65>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211
<표 4-66>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대형소매업체)	213
<표 4-67>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가락시장)	215
<표 4-68>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량 동향	216
<표 4-69>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금액 동향	217
<표 4-70> 연도별·월별 갈치 생산량 동향	218
<표 4-71>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량 동향	220
<표 4-72> 연도별 부류별 갈치 계통출하 동향	220
<표 4-73> 연도별 지역별 갈치 산지판매량 동향	221
<표 4-74> 연도별 어법별 갈치 생산량 동향	222

<표 4-75> 연도별 갈치 수출입 동향	222
<표 4-76> 제품유형별 갈치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223
<표 4-77> 연도별 갈치 수급구조	224
<표 4-78>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생산단가 동향	225
<표 4-79>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동향	226
<표 4-80>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동향	227
<표 4-81>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동향	228
<표 4-82>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동향	229
<표 4-83>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소매가격 동향	230
<표 4-84>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231
<표 4-85>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236
<표 4-86>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8년 기준)	237
<표 4-87> 스티로폼 어상자 품목별 규격 및 단가(2019년 기준)	238
<표 4-88>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239
<표 4-89>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241
<표 4-90>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43
<표 4-91> 연도별·월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44
<표 4-92>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45
<표 4-93> 연도별 참조기 계통출하 동향	245
<표 4-94> 연도별 지역별 참조기 산지판매량 동향	246
<표 4-95> 연도별 어법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47
<표 4-96> 연도별 참조기 수출입 동향	248
<표 4-97> 제품유형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248
<표 4-98> 연도별 참조기 수급구조	249
<표 4-99>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생산단가 동향	251
<표 4-100>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산지가격 동향(한림수협 기준)	251
<표 4-101>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도매가격 동향	253
<표 4-102> 월별 냉동 참조기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254
<표 4-103>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목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259
<표 4-104>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업체)	261
<표 4-105>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목포 → 대형소매업체)	263

<표 4-106>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265
<표 4-107>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268
<표 4-108> 연도별 양식전복 계통출하 동향	268
<표 4-109> 연도별 지역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269
<표 4-110> 연도별 양식전복 수출입 동향	270
<표 4-111> 제품유형별 전복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271
<표 4-112> 연도별 전복 수급구조	272
<표 4-113>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동향	274
<표 4-114>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동향(kg당 15마리 기준)	274
<표 4-115>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동향(kg당 15마리 기준)	276
<표 4-116>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동향	278
<표 4-117> 양식전복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282
<표 4-118> 양식전복(활어)의 유통비용(완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284
<표 4-119> 연도별 양식넙치 생산량 및 생산금액 현황	286
<표 4-120> 월별 양식넙치 생산현황	288
<표 4-121> 부류별 양식넙치 생산현황	288
<표 4-122> 부류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현황	289
<표 4-123> 연도별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290
<표 4-124> 산지 위판장별 양식넙치 생산현황	290
<표 4-125> 연도별 양식넙치 수출입 현황	291
<표 4-126> 연도별 양식넙치 수급현황	292
<표 4-127>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추이	293
<표 4-128>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추이	294
<표 4-129>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횃집 기준)	297
<표 4-130>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점 기준)	298
<표 5-1> 국산 조사대상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비교	302
<표 5-2> 조사대상 주요 수입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비교	303
<표 5-3> 7개 품목 수산물의 생산자수취율 및 유통비용을 평균(2019년)	304
<표 5-4> 조사대상 7개 품목의 유통비용 구조와 가격	305
<부록 표 1> 농수산물 유통비용 현황	322

그림 목 차

<그림 1-1> 동 조사의 추진체계	8
<그림 2-1> 수산물 생산동향	11
<그림 2-2> 수산물 부류별 생산량 추이	12
<그림 2-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28
<그림 2-4> 수요자(=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수산물 유통과의 관계	29
<그림 2-5>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 추이	32
<그림 2-6>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36
<그림 2-7> 수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38
<그림 2-8> 국내 간편식시장 출하현황	39
<그림 2-9> 온라인 식품 구입 실태	41
<그림 2-10> 세계 수산물 어획·양식의 비중 전망(생산, 소비)	43
<그림 2-11> FAO의 식품가격지수 변화 추이	45
<그림 2-12> 수산물 종류별 교역액 추이	48
<그림 2-13> 온라인 쇼핑몰별 수산부문 페이지	57
<그림 3-1> 식품수급의 구조 및 자급률 도출 과정	64
<그림 3-2> 수산물 수급(생산-소비-수출입) 추이	75
<그림 3-3> 조사대상 7개 품종의 수급 및 자급률 추이	78
<그림 3-4> 수산물 비축사업 추진절차	79
<그림 3-5>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2019년 기준)	85
<그림 3-6> 양식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활어 중심)	87
<그림 3-7> 원양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87
<그림 3-8> 연근해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88
<그림 3-9> 양식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89
<그림 4-1> 일본 수산물 유통실태조사의 조사 흐름도	110
<그림 4-2>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흐름도	113

<그림 4-3> 고등어의 유통경로	117
<그림 4-4> 명태의 유통경로	120
<그림 4-5> 오징어(활어)의 유통경로	122
<그림 4-6> 오징어(선어)의 유통경로	122
<그림 4-7> 갈치(선어)의 유통경로	125
<그림 4-8> 갈치(냉동)의 유통경로	125
<그림 4-9> 참조기의 유통경로	127
<그림 4-10> 양식전복의 유통경로	129
<그림 4-11> 양식 넙치의 유통경로	131
<그림 4-12> 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추이	135
<그림 4-13> 국가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139
<그림 4-14> 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추이(대형선망수협)	142
<그림 4-15> 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추이	143
<그림 4-16> 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추이	144
<그림 4-17> 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추이	145
<그림 4-18> 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추이	146
<그림 4-19> 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147
<그림 4-20> 고등어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151
<그림 4-21> 양배반 및 야간부녀반의 작업 모습	152
<그림 4-22>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소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모습	155
<그림 4-23> 대형소매점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모습	157
<그림 4-24> 동결저장을 위해 포장 및 운송되는 고등어 모습	160
<그림 4-25> 노르웨이 고등어의 냉동냉장창고 보관 모습	164
<그림 4-26> 연도별 명태 생산량 추이	166
<그림 4-27>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168
<그림 4-28>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전체)	169
<그림 4-29> 국가별 명태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171
<그림 4-30> 월별 명태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174
<그림 4-31> 월별 명태 소매가격 추이(냉동)	175
<그림 4-32> 부산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모습	177
<그림 4-33> 국내 선사 및 해외 선사의 냉동 배열 형태 차이	178

<그림 4-34> 냉동명태의 유통경로 및 배분 비중	181
<그림 4-35> 연도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	184
<그림 4-36>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186
<그림 4-37>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전체)	188
<그림 4-38> 국가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192
<그림 4-39>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	194
<그림 4-40> 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선어 기준)	195
<그림 4-41>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197
<그림 4-42>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198
<그림 4-43>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200
<그림 4-44>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201
<그림 4-45> 활어 오징어의 유통 현황	202
<그림 4-46>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트롤에서 조업된 선어 오징어 유통 현황 ..	203
<그림 4-47> 냉동오징어 유통 형태	204
<그림 4-48> 선어오징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206
<그림 4-49> 최근 5년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217
<그림 4-50> 2019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219
<그림 4-51> 국가별 갈치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223
<그림 4-52>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단가 추이	225
<그림 4-53> 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추이	226
<그림 4-54> 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추이	227
<그림 4-55> 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추이	228
<그림 4-56> 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추이	229
<그림 4-57> 월별 냉장 갈치 소매가격 추이	230
<그림 4-58> 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231
<그림 4-59>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233
<그림 4-60>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234
<그림 4-61>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242
<그림 4-62> 최근 5년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243
<그림 4-63> 2019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244
<그림 4-64> 국가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249

<그림 4-65>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단가 추이	250
<그림 4-66> 참조기 산지가격 추이(선어 기준)	252
<그림 4-67> 월별 참조기(선어) 도매가격 추이	253
<그림 4-68> 월별 참조기(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254
<그림 4-69> 참조기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256
<그림 4-70>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264
<그림 4-71> 최근 5년간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266
<그림 4-72> 2019년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267
<그림 4-73> 국가별 전복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271
<그림 4-74>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추이	273
<그림 4-75> 2019년 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추이(kg당 15마리 기준)	275
<그림 4-76> 2019년 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추이(kg당 15마리 기준)	277
<그림 4-77> 2019년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추이	278
<그림 4-78> 양식전복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281
<그림 4-79> 월별 양식넙치 입식량 추이	285
<그림 4-80> 양식넙치 생산 관련 사진	285
<그림 4-81> 최근 5년 평균 양식넙치 월별 생산량 추이	287
<그림 4-82> 양식넙치(활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295
<그림 5-1> 고등어의 유통비용 구조	306
<그림 5-2> 명태의 유통비용 구조	307
<그림 5-3> 오징어의 유통비용 구조	308
<그림 5-4> 갈치의 유통비용 구조	309
<그림 5-5> 참조기의 유통비용 구조	311
<그림 5-6> 양식전복의 유통비용 구조	312
<그림 5-7> 양식넙치의 유통비용 구조	312

■ 제1장 ■ 조사개요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범위

제3절 조사방법 및 추진체계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1. 배경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 시행되었고, 동법에 수산물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
 - 동법 제8조(실태조사)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기본계획(5년 주기)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수행토록 규정함
- 이에 수산물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수산물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산물 유통정책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나 통계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수산물 유통산업 및 시장의 미래 메가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목적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동 조사는 수산물 유통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수산물유통법’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가 목적임
 - 특히, 수산물 가격정보 조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물 유통 조사 표준모델 마련, 1~2차(2017년, 2018년)에서 실시한 주요 실태조사 대상 수산물의 유통실태 조사

결과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1~2차 수산물 유통실태 대상 수산물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의 5종이었으며, 이 외에 양식어업의 생산비중 등을 고려하여 양식 넙치와 양식 전복을 추가하여 총 7종의 수산물을 실태조사 대상 품종으로 확정하여 조사

제2절 조사의 범위와 내용

1. 범위

-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제2항에 근거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 수산물유통법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표시현황
 -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 폐기량 등의 수산물 수급현황
 -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주요 품종별 유통실태 조사는 총 7개 품종을 대상으로 함
 - 대중성 품종: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넙치(양식), 전복(양식)

2. 내용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의 부분별 일반 현황: 수산물 생산, 수출입, 재고, 감모 및 폐기, 수급 등
 - 수산물 유통산업 및 종사자 현황: 업체 수(수산물 관련 도소매업 등), 매출액, 종사자 현황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표준 모델 제시
- 조사대상 주요 품종의 유통실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품종: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넙치(양식), 전복(양식)
 - 조사대상 품종의 일반현황: 가격과 수급 여건 등
 - 조사대상 품종별 시장구조 분석: 계통 및 비계통 출하, 유통경로 및 비중 등
 - 조사대상 품종별 주요 유통경로별 유통마진 조사와 분석

- 수산물 실태조사의 결과 요약정리와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함
 - 조사 내용의 요약
 - 조사 내용의 종합적인 평가

제3절 조사의 방법 및 추진체계

1. 방법

- 동 조사 수행을 위해서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 방법 등을 활용함
- (문헌조사)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유통실태 조사, 수산물 수급 등 본 조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헌을 검토함
 - 2019년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KMI
 - 2017년 및 2018년 수산물 유통산업 실태조사(1~2차), 해양수산부
 - 2017년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양수산부
 - 2014년 수산물 유통산업 체계 개선사업, 해양수산부 등임
- (통계조사) 수산물 유통산업 및 실태조사를 위해 이용한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수산물 수급(생산, 수출입, 재고, 감모·폐기 등):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 관세청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산물 수출입 통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냉동선어류입출하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 등
 -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수산물의 계통·비계통 출하현황(통계청, 수협중앙회(회원조합)), 도매시장 반입량 분석, 유통단계별 조사가격(aT KAMIS), 산지유통 종사자(수협 위공판장 현황 및 향운노조 조사), 도매유통 종사자(도매시장 통계연보) 등
- (현장조사) 수산물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됨
 - 산지조사: 기본적으로 산지수협 관계자, 산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양식 전복은 산지에 수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협회, 양식어가, 산지 수집상 등을 대상으로 조사함
 - 소비지 조사: 소비지 법정(공영)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관계자 및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고, 양식 넙치나 전복은 인천(연안부두), 하남, 부산(민락) 등 주요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함
 - 소매 조사: 소매 조사는 대량구매처인 대형소매점이나 백화점의 수산바이어 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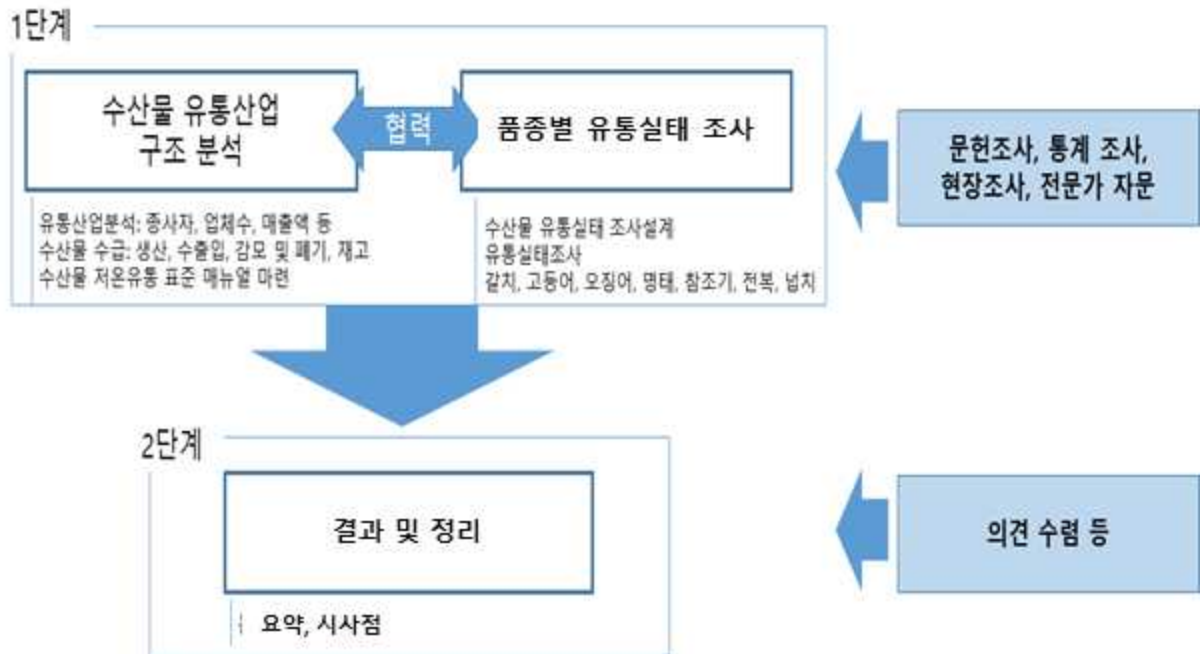
<표 1-1> 주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조사 내용
산지		- 조사대상 7개 품종 유통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 산지: 산지수협, 산지중도매인 및 매참인, 산지가공업체, 냉동창고 등의 관계자 - 갈치(선어, 냉동): 부산공동어시장, 제주(서귀포, 성산포수협) 등 - 고등어(선어, 동결): 부산공동어시장 - 명태(냉동):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 오징어(활어, 선어, 냉동): 부산국제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구룡포·후포·속초수협 - 참조기: 제주한림수협, 목포수협 - 양식전복: 전복협회, 완도 양식어가, 산지수집상 등 - 양식넙치: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제주 양식어가 등
소비지	도매	노량진, 가락, 부산 등의 공영(법정)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소비지 도매시장 중도매인 양식수산물의 경우에는 하남, 인천, 부산 등
	소매	대형소매업체·백화점 등의 수산바이어, 수산전통시장 소매상 면담조사

- (전문가 자문) 수산물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에서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1:1 면담법을 수행하였음
 - 산지 전문가: 조사 대상 7개 품종과 관련하여 품종별로 취급물량이 많은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을 비롯하여 해당 산지수협 위판장의 실무자(판매과장 등)를 대상으로 함
 - 소비지 전문가: 대형소매업 및 백화점의 수산바이어를 현장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함

2. 추진체계

- 동 조사의 추진단계는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음
 - 1단계: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분석과 유통실태조사 사례분석을 하나의 단계에 포함하여 병행적으로 수행함
 - 2단계: 1단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그림 1-1> 동 조사의 추진체계

■ 제2장 ■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제1절 수산물 공급구조 변화

제2절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

제3절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화

제2장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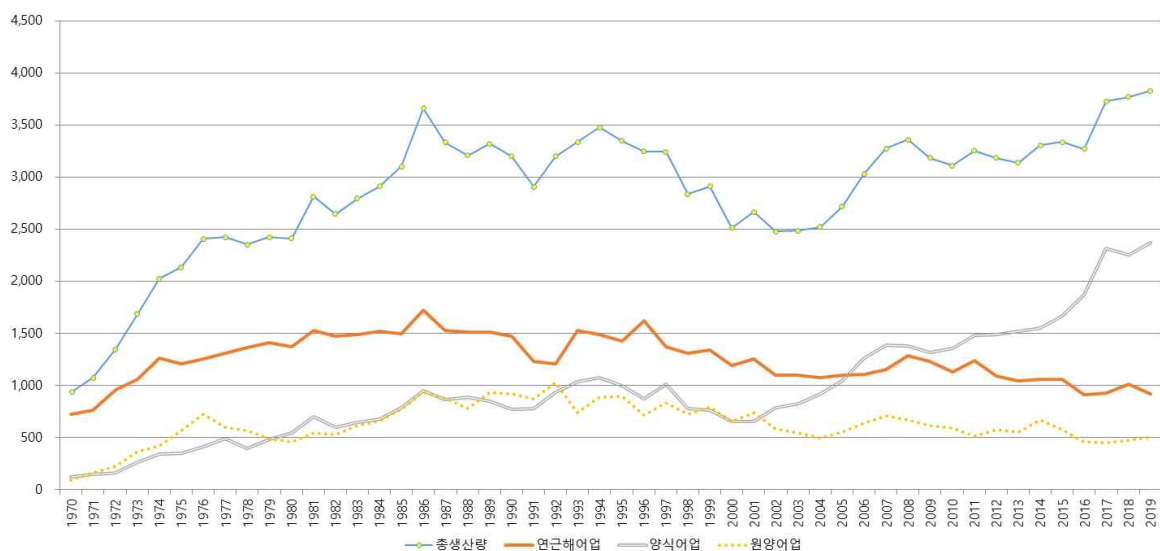
제1절 수산물 공급구조 변화

1. 어업별 생산

- 우리나라의 어업은 일반해면어업(연근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이¹⁾ 있으며, 2019년 생산량은 약 383만 톤이었으며,²⁾ 양식어업과 원양어업의 생산량 증가로 2018년 대비 약 1.6% 늘어남
- 일반해면어업: 2019년 생산량 91.5만 톤(2018년 대비 약 9.6% 감소)
- 원양어업: 2019년 생산량 50.8만 톤(2018년 대비 약 7.2% 증가)
- 양식어업: 2019년 생산량 237만 톤(2018년 대비 약 5.4% 증가)
- 내수면어업: 2019년 생산량 3.5만 톤(2018년 대비 약 0.2% 감소)

<그림 2-1> 수산물 생산동향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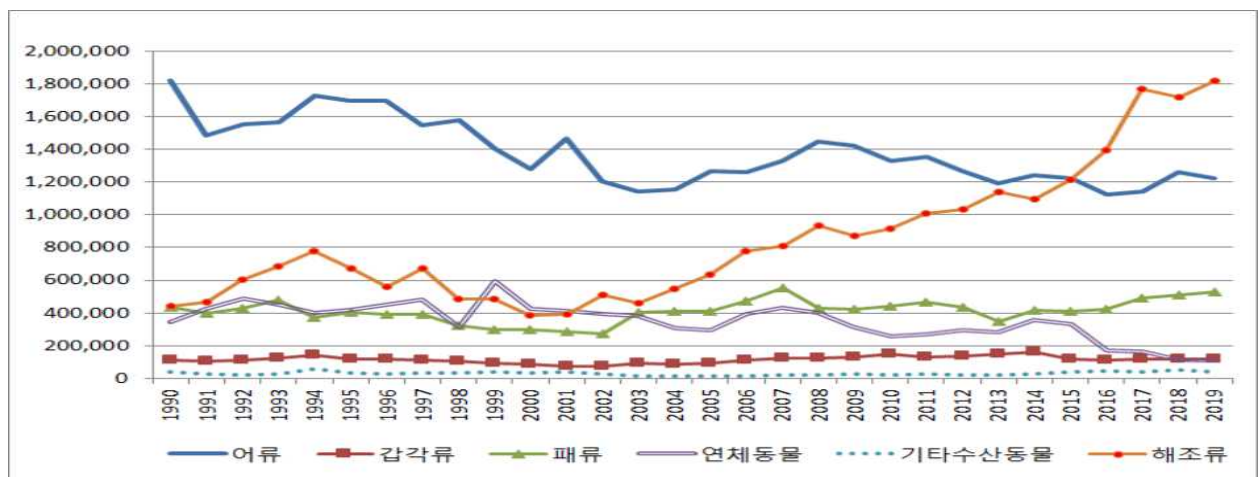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1) 내수면 어업은 생산량이 미미하여 그래프 상으로는 가시적이지 못해 나타나지 못함
2) 2019년 생산량은 통계청에서 아직 **잠정치**로 분류하고 있음

- 양식어업 생산량을 부류별로 보면, 해조류(김, 다시마) 중심으로 생산량이 늘고 있음
 - 2019년 양식어업 생산량 237만 톤 중 해조류의 비중이 76.4%로 가장 높고, 패류 18.3%, 어류 3.5%, 갑각류는 0.3%를 차지함
 - 2019년 양식 해조류의 생산량은 181만 톤으로 2018년에 비해 약 6.0% 늘었음
 - 김 양식 생산량은 2019년에 약 61만 톤으로 2018년 대비 약 7.1% 증가하였고, 이는 태국 등으로의 마른김 수출 증가 등에 따라 면허건수(면적)가 2018년의 792건(62,448ha)에서 2019년의 806건(63,526ha)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³⁾
 - 다시마 양식 생산량은 2019년에 66만 톤으로 2018년 대비 약 15.7% 증가하였고, 이는 대부분이 양식 전복의 먹이용으로 공급되고 있음
 - 단, 다시마의 양식어업권 면허건수(면적)은 2018년의 361건(5,780ha)에서 2019년의 344건(5,71ha)으로 줄어들었지만, 전복 먹이용(비식용) 생산이라는 점에서 품질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단위면적당 생산시설을 늘린 것으로 추정됨 (단위면적당 연승을 늘리는 방법)⁴⁾
 - 미역 양식 생산량은 2019년에 49만 톤으로 2018년 대비 약 4.1% 감소하였음

<그림 2-2> 수산물 부류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3) 통계청 KOSIS(품종별 양식어업권 면허)

4) 식용 다시마의 경우는 식용으로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단위면적당 연승 줄을 양식전복의 먹이용보다는 적게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임

2. 어업별·부류별 생산

- 수산물 부류별 생산 구조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해조류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어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어류: 2018년 대비 2.8% 감소한 122만 톤 생산함
- 갑각류: 2018년 대비 1.0% 감소한 12만 톤 생산함
- 패류: 2018년 대비 3.0% 증가한 53만 톤 생산함
- 연체동물: 2018년 대비 6.8% 감소한 10만 톤 생산함
- 기타수생동물: 2018년 대비 23.6% 감소한 3.7만 톤 생산함
- 해조류: 2019년 대비 5.8% 증가한 182만 톤 생산함

<표 2-1> 수산물 부류별·연도별 생산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	해조류	합계
2010년(A)	1,331	147	440	256	22	915	3,111
비중	42.8	4.7	14.2	8.2	0.7	29.4	100.0
2011년	1,356	130	467	269	28	1,007	3,256
비중	41.6	4.0	14.3	8.3	0.9	30.9	100.0
2012년	1,268	135	433	293	23	1,032	3,183
비중	39.8	4.2	13.6	9.2	0.7	32.4	100.0
2013년	1,195	149	346	282	23	1,140	3,135
비중	38.1	4.8	11.0	9.0	0.7	36.4	100.0
2014년	1,245	160	419	357	27	1,097	3,305
비중	37.7	4.8	12.7	10.8	0.8	33.2	100.0
2015년	1,226	117	409	335	37	1,213	3,337
비중	36.7	3.5	12.2	10.0	1.1	36.3	100.0
2016년	1,125	113	421	170	45	1,395	3,269
비중	34.4	3.5	12.9	5.2	1.4	42.7	100.0
2017년	1,143	116	490	165	41	1,770	3,725
비중	30.7	3.1	13.2	4.4	1.1	47.5	100.0
2018년	1,259	116	512	112	49	1,722	3,770
비중	33.4	3.1	13.6	3.0	1.3	45.7	100.0
2019년(B)	1,224	115	527	105	37	1,821	3,830
비중	32.0	3.0	13.8	2.7	1.0	47.6	100.0
전년대비 증감	-2.8	-1.0	3.0	-6.8	-23.5	5.8	1.6
평년대비 증감	2.0	-7.4	17.2	-54.1	-6.2	30.2	12.4
연평균 증감(B/A)	-0.9	-2.7	2.0	-9.5	6.1	8.0	2.3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가. 일반해면어업의 품목별 생산량 증감

- 일반해면어업의 2019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9.6%가 줄어든 91.5만 톤이었으며, 다음의 요인에 의해 감소한 것으로 보임⁵⁾
 - 태풍 등 기상여건의 악화: 2019년 여름~초가을까지 다수의 태풍 영향으로 조업활동이 위축
 - 저수온 영향: 2019년 6~9월 사이 동중국해 저수온의 영향으로 고등어와 갈치 등의 회유가 감소
 - 오징어 조업의 부진 심화: 일반해면어업에서 생산비중이 높은 오징어의 가을철 어획 부진
- 어류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11.0% 감소했는데, 이는 갈치, 고등어, 멸치 등과 같은 생산 비중이 높은 품종의 생산량이 감소(잡은 태풍, 동중국해 저수온)
 - 주요 감소 품종: 갈치(2018년 대비 2019년 -12.1%), 고등어(-28.6%), 멸치(-9.0%) 등
 - 주요 증가 품종: 삼치(2018년 대비 2019년 17.9%), 전갱이(59.2%)
- 갑각류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13.6% 감소하였는데, 생산비중이 높은 붉은대게의 자원상태 악화(어린개체와 암컷 불법포획 등)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⁶⁾
 - 주요 감소 품종: 대게(2018년 대비 2019년 -1.3%), 붉은대게(-22.0%), 민꽃게(-52.7%), 젓새우류(-4.7%), 기타 새우류(20.1%) 등
 - 주요 증가 품종: (2018년 대비 2019년 4.6%), 꽃새우(4.8%), 중하(89.4%)
- 패류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9.0% 감소하였는데, 서해안 자연산 굴 및 바지락의 자연폐사(인천 옹진 등) 등 자연서식 환경의 불안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됨⁷⁾
 - 주요 감소 품종: 굴류(2018년 대비 2019년 -16.4%), 소라(-6.0), 바지락(-24.8) 등
 - 주요 증가 품종: 고등류(2018년 대비 2019년 59.0%), 새꼬막(30.7%), 키조개(24.6%) 등
- 연체동물류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9.8% 증가하였는데, 일반해면어업의 연체동물 생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살오징어의 생산량 회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5) 해양수산전망대회 2020, 수산분야 연근해어업동향의 내용을 발췌

6) 뉴스핌, 5월 연근해 '수산물잡이' 5만 4천 톤 증가...붉은대게·꽃게는 감소, 2019년 7월 4일 개재

7) 장홍석 외, '옹진군 수산업 종합발전계획, 옹진군, 2019

- 주요 감소 품종: 꿀뚜기류(2018년 대비 2019년 -11.3%), 한치류(-41.2%), 기타연체동물 등(-17.8%) 등
- 주요 증가 품종: 갑오징어(2018년 대비 2019년 45.2%), 낙지류(3.4%), 문어류(0.76%), 주꾸미(1.5%), 살오징어(120%) 등
- 특히, 살오징어의 생산량 증가는 첫째, 2018~2019년 겨울 동안 평년 대비 온난한 환경 조건에 의해 살오징어에 적정한 산란장이 형성, 둘째, 오징어 남하기(1~3월)과 북상기(5~6월) 회유기시에 각각 고수온(1~3월)과 저수온(5~6월) 현상으로 어장 형성기간이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음)

<표 2-2>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부류별·품종별	2018 (톤)	2019년		증감율 (18년 대비 19년, %)
		생산량(톤)	비중(%)	
총생산량	3,770,057	3,829,708	100.0	1.6
일반해면	1,011,536	914,570	23.9	-9.6
어류	749,656	667,390	17.4	-11.0
가오리류	1,144	1,134	0.0	-0.9
가자미류	12,292	14,674	0.4	19.4
기름가자미	3,009	3,497	0.1	16.2
갈치	49,450	43,479	1.1	-12.1
강달리류	2,647	1,754	0.0	-33.7
고등어	141,530	101,121	2.6	-28.6
망치고등어	74,403	20,252	0.5	-72.8
꽁치	708	272	0.0	-61.6
학공치	610	650	0.0	6.6
넙치류	4,762	4,107	0.1	-13.8
농어류	2,012	1,941	0.1	-3.5
눈볼대	3,949	3,859	0.1	-2.3
능성어	54	50	0.0	-7.4
참다랑어	619	701	0.0	13.2
기타다랑어류	2,823	4,243	0.1	50.3
도루묵	4,183	3,066	0.1	-26.7
대구	7,511	9,520	0.2	26.7
감성돔	1,053	952	0.0	-9.6
옥돔	1,222	1,291	0.0	5.6
자리돔	419	545	0.0	30.1
참돔	2,809	2,210	0.1	-21.3
돌돔	238	312	0.0	31.1

8)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http://www.mof.go.kr>), 통계소식, 상반기 연군해어업 생산량 38만 톤, 지난해보가 7.2% 증가(2019년 8월 5일 개제)

기타돔류	1,549	1,852	0.0	19.6
망둑어류	614	414	0.0	-32.6
멸치	188,684	171,677	4.5	-9.0
반지	1,184	656	0.0	-44.6
명태	9	0	-	-100.0
민어	2,805	3,411	0.1	21.6
방어류	13,434	15,934	0.4	18.6
밴댕이	1,827	2,168	0.1	18.7
병어류	8,268	8,678	0.2	5.0
보구치	2,740	3,471	0.1	26.7
복어류	3,976	4,421	0.1	11.2
조피볼락	2,259	2,136	0.1	-5.4
기타볼락류	1,750	2,028	0.1	15.9
노래미류	1,079	1,043	0.0	-3.3
부세	693	321	0.0	-53.7
삼치류	32,089	37,841	1.0	17.9
상어류	184	197	0.0	7.1
서대류	1,891	2,038	0.1	7.8
성대류	1,506	1,660	0.0	10.2
송어류	5	0	-	-100.0
삼세기	492	309	0.0	-37.2
송어류	4,961	5,293	0.1	6.7
아귀류	13,448	18,458	0.5	37.3
까나리	7,048	14,252	0.4	102.2
양태류	2,064	1,901	0.0	-7.9
연어	202	100	0.0	-50.5
임연수어	740	2,226	0.1	200.8
갯장어	984	993	0.0	0.9
먹장어	121	103	0.0	-14.9
붕장어	11,766	12,447	0.3	5.8
전갱이류	27,050	43,053	1.1	59.2
전어	11,523	10,564	0.3	-8.3
정어리	7,271	2,218	0.1	-69.5
참조기	23,274	25,741	0.7	10.6
기타조기류	382	506	0.0	32.5
준치	4	41	0.0	925.0
쥐치류	2,195	2,650	0.1	20.7
청어	24,035	25,771	0.7	7.2
참홍어	700	1,287	0.0	83.9
홍어류	2,269	1,977	0.1	-12.9
꼼치류	4,118	3,208	0.1	-22.1
기타어류	21,023	14,717	0.4	-30.0
갑각류	74,506	64,340	1.7	-13.6

꽃게	11,770	12,306	0.3	4.6
대게	2,162	2,134	0.1	-1.3
붉은대게	20,344	15,874	0.4	-22.0
민꽃게	8,429	3,990	0.1	-52.7
기타게류	1,096	1,186	0.0	8.2
꽃새우	2,689	2,819	0.1	4.8
닭새우류	3	0	-	-100.0
대하	143	115	0.0	-19.6
보리새우	543	297	0.0	-45.3
젓새우류	13,478	12,844	0.3	-4.7
중하	1,149	2,176	0.1	89.4
기타 새우류	11,784	9,411	0.2	-20.1
기타 갑각류	917	1,189	0.0	29.7
패류	93,841	85,396	2.2	-9.0
굴류	37,176	31,092	0.8	-16.4
소라	2,444	2,298	0.1	-6.0
고동류	8,162	12,976	0.3	59.0
오분자기	1	4	0.0	300.0
전복류	112	114	0.0	1.8
가리비류	135	205	0.0	51.9
가무락	805	284	0.0	-64.7
개량조개류	16	46	0.0	187.5
꼬막	12	42	0.0	250.0
새꼬막	528	2,126	0.1	302.7
동죽	1,227	737	0.0	-39.9
맛류	736	1,284	0.0	74.5
바지락	31,611	23,773	0.6	-24.8
백합류	28	18	0.0	-35.7
새조개	150	49	0.0	-67.3
키조개	5,854	7,296	0.2	24.6
피조개	827	154	0.0	-81.4
홍합류	1,009	803	0.0	-20.4
개조개	1,727	1,578	0.0	-8.6
기타 패류	1,281	518	0.0	-59.6
연체동물류	75,619	83,010	2.2	9.8
갑오징어류	6,039	8,762	0.2	45.1
꼰뚜기류	1,209	1,072	0.0	-11.3
낙지류	5,725	5,918	0.2	3.4
문어류	9,744	9,808	0.3	0.7
주꾸미	3,773	3,828	0.1	1.5
살오징어(오징어)	46,274	51,817	1.4	12.0
한치류	2,316	1,362	0.0	-41.2
기타연체동물류	539	443	0.0	-17.8

기타 수산동물	5,918	5,986	0.2	1.1
미더덕	1	1	0.0	-
성게류	2,555	2,477	0.1	-3.1
우렁챙이	936	953	0.0	1.8
해삼	2,102	2,362	0.1	12.4
오만둥이	0	5	0.0	0.0
기타 수산동물류	325	189	0.0	-41.8
해조류	11,995	8,448	0.2	-29.6
김류	166	73	0.0	-56.0
꼬시래기류	29	15	0.0	-48.3
개꼬시래기	0	0	-	-
다시마류	85	0	-	-100.0
도박류	1	5	0.0	400.0
모자반(말)류	-	139	0.0	0.0
모자반(물)	4	0	-	-100.0
미역류	6,305	4,952	0.1	-21.5
우뚝가사리	1,107	654	0.0	-40.9
청각	48	249	0.0	418.8
툏	3,374	552	0.0	-83.6
파래류	196	287	0.0	46.4
매생이	3	23	0.0	666.7
기타해조류	678	1,499	0.0	121.1

주: 비중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

- 해조류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29.6% 감소하였으며, 특히, 일반해면어업의 해조류 생산에서 비중이 높은 미역류, 우뚝가사리, 툏의 생산량 급감이 주요 원인임
- 주요 감소 품종: 다시마류, 모자반(말)류, 청각, 파래류, 매생이, 기타 해조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조류가 감소

나. 양식어업의 품목별 생산량 증감

- 양식어업의 2019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5.4%가 늘어난 237만 톤이었으며, 다음의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어류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5.8% 증가했으며, 생산 비중이 높은 넙치류, 참돔,

9) 해양수산전망대회 2020, 수산분야 연근해어업동향의 내용을 발췌

송어류의 생산량 증가가 양식어업 어류의 생산량 증가에 일조함

- 주요 감소 품목: 양식어류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조피볼락 생산량이 2019년에 2018년 대비 10.4% 감소한 20,348톤이었는데, 감소의 원인은 첫째, 2018년 고수온 피해에 따라 양성 중이던 물량 감소가 2019년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고, 둘째, 2019년 10월 이후 경남의 조피볼락 품질 저하로 경남 생산자들이 출하를 회피한 것을 들 수 있음¹⁰⁾
- 주요 증가 품목: 넙치류(18년 대비 19년 16.3%), 송어(41%) 등 상대적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양식어류의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송어는 주산지였던 하동 외에 여수지역에 가두리 시설이 늘어났고,¹¹⁾ 넙치류는 제주의 육상양식장에서 고수온 피해가 천해양식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2019년 하반기 적체물량 증가로 출하량이 많았음¹²⁾

<표 2-3> 우리나라 천해양식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부류별·품종별	2018 (톤)	2019년		증감율 (18년 대비 19년, %)
		생산량(톤)	비중(%)	
총생산량	3,770,057	3,829,708	100.0	1.6
천해양식	2,249,605	2,371,999	61.9	5.4
어류	80,519	85,217	2.2	5.8
가자미류	3,373	3,669	0.1	8.8
고등어	280	230	0.0	-17.9
넙치류	37,241	43,320	1.1	16.3
농어류	1,024	774	0.0	-24.4
능성어	292	145	0.0	-50.3
참다랑어	6	19	0.0	216.7
감성돔	1,452	954	0.0	-34.3
참돔	5,103	5,502	0.1	7.8
돌돔	902	1,262	0.0	39.9
기타돔류	92	80	0.0	-13.0
민어	71	47	0.0	-33.8
방어류	440	668	0.0	51.8
복어류	8	21	0.0	162.5
조피볼락	22,702	20,348	0.5	-10.4
기타볼락류	211	207	0.0	-1.9
노래미류	2	-	-	-
송어류	71	161	0.0	126.8
송어류	6,382	6,644	0.2	4.1
연어	-	1	0.0	-
붕장어	8	9	0.0	12.5

10) 수산업관측센터 넙치 담당자 회의 결과.

11) 영식수입보장보험 2019-2020년 도상연습 대상품종인 송어(하동수협) 출장 회의 결과.

12) 수산업관측센터 넙치 담당자 회의 결과 및 양식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 품목(넙치) 제주 출장회의 결과.

전어	445	390	0.0	-12.4
참조기	8	47	0.0	487.5
쥐치류	408	719	0.0	76.2
갑각류	5,492	7,543	0.2	37.3
대하	-	1	0.0	-
흰다리새우	5,492	7,542	0.2	37.3
패류	410,921	435,163	11.4	5.9
굴류	303,183	326,190	8.5	7.6
전복류	20,053	18,436	0.5	-8.1
가리비류	5,329	5,082	0.1	-4.6
가무락	1	184	0.0	18,300.0
꼬막	55	37	0.0	-32.7
새꼬막	4,439	8,375	0.2	88.7
바지락	19,853	22,254	0.6	12.1
새조개	44	-	-	-
키조개	-	11	0.0	-
피조개	8,476	3,034	0.1	-64.2
홍합류	49,485	51,560	1.3	4.2
기타패류	3	-	-	-
기타수산동물	42,847	31,312	0.8	-26.9
미더덕	403	1,178	0.0	192.3
우렁챙이	37,312	26,040	0.7	-30.2
해삼	14	93	0.0	564.3
오만둥이	5,116	4,000	0.1	-21.8
기타수산동물류	1	-	-	-
해조류	1,709,825	1,812,765	47.3	6.0
김류	567,162	606,873	15.8	7.0
꼬시래기류	-	0	-	-
개꼬시래기	862	1,769	0.0	105.2
다시마류	572,600	662,557	17.3	15.7
모자반(물)	263	176	0.0	-33.1
미역류	515,666	494,947	12.9	-4.0
청각	3,349	3,258	0.1	-2.7
톳	36,170	33,477	0.9	-7.4
파래류	6,783	6,321	0.2	-6.8
매생이	6,969	3,386	0.1	-51.4
기타해조류	-	1	0.0	0.0

주: 비중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

- 갑각류 생산량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37.3% 증가했으며, 이는 생산 비중이 높은 흰다리새우의 생산량 증가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임
- 주요 증가 품종: 흰다리새우의 2019년 생산량은 2018년 대비 37.3% 늘어난 7,542톤이었으며, 주요 질병인 흰반점 바이러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작황이 전년도에 비해 양호했으며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가 집중 출하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¹³⁾

- 패류 생산량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5.9% 증가했는데, 이는 생산 비중이 높은 굴, 바지락의 생산량이 각각 전년대비 7.6%, 12.1%씩 늘어났기 때문임
 - 주요 증가 품종: 굴(2018년 대비 2019년 7.6%), 바지락(12.1%) 등임
 - 굴의 생산량 증가는 양식 작황 양호와 김장철 조기출하에 의한 것으로 통계청은 공표했음¹⁴⁾
 - 주요 감소 품종: 전복류(-8.1%), 가리비(-4.6%), 피조개(-64.2%) 등이며, 전복의 생산량 감소는 2018년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와 대중 수출 호조로 출하가 늘면서 2019년 양성 물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든 점과 전복 먹이용 미역의 생산량 감소가 줄어든 양성물량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파악됨¹⁵⁾
 - 가리비의 생산량 감소는 4~5월에 충분한 종묘가 공급되지 못해 2019년 출하될 입식량이 적었기 때문이고,¹⁶⁾ 살포식 위주의 피조개는 고수온 및 어장환경 악화 등을 생산량 감소로 추정하고 있음
- 기타 수생동물의 생산량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26.9%가 줄었는데, 이는 생산 비중이 높은 우렁쟁이와 오만둥이의 생산량 감소에 의한 것임
 - 주요 증가 품종: 미더덕(2018년 대비 2019년 192.3% 증가)은 미더덕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오만둥이로 전환했던 양식업자들이 다시 미더덕 양식을 재개하는 경우가 나타났음
 - 주요 감소 품종: 우렁쟁이(2018년 대비 2019년 -30.2%)와 오만둥이(-21.8%)는 2018에 비해 2019년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우렁쟁이는 고수온 등에 의한 물렁증이 확산되어 작황이 좋지 못했고,¹⁷⁾ 오만둥이는 태풍과 적조에 의해 자연 유생물 부착이 미진하여 출하 가능량이 감소했기 때문임¹⁸⁾
- 해조류의 생산량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6.0% 늘어난 181만 톤이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 47.3%를 차지하고 있음

13)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월보, 2019년 10월

14)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월보, 2019년 10월

15) KMI 수산업관측센터 전복 담당자 협의 및 전복협회 전화미팅

16) MBC경남 뉴스데스크, 체질 맞은 가리비...생산량 줄어 가격 상승, 2019년 10월 22일자

17) 양식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 품목인 우렁쟁이 현장 출장조사에 의함

18)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9년 11월.

- 주요 증가 품종: 김(2018년 대비 2019년 7.0%)과 다시마(15.7%)는 생산량 늘었는데, 김은 태국 등의 수출 호조와 국제적인 조미김 수요 증가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이 늘면서 국내 시장가격도 올라 생산시설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다시마는 전복 먹이용으로 생산량이 증가함¹⁹⁾
- 주요 감소 품종: 미역(2018년 대비 2019년 -4.0%), 미역의 생산 감소는 시설량 감소와 2019년 10월~11월 기간 동안의 작황이 좋지 않았음²⁰⁾

다. 원양어업의 부류별 생산량 증감

- 원양어업의 2019년 생산량은 2018년에 비해 7.2% 늘어난 51만 톤이었으며, 이는 생산비중이 높은 가다랑어, 황다랑어, 민대구류, 남빙양 크릴의 생산량이 늘어난 결과임
- 주요 증가 품종: 가다랑어(2018년 대비 2019년 16.1%), 황다랑어(30.3%), 대구(10.0%), 민대구류(63.2%) 등이며,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생산량 증가는 우리 국적선사들이 기존의 어장에서 주변으로까지 어장을 확대했고,²¹⁾ 민대구류는 남서대서양 어장의 오징어 어황이 좋지 않아 민대구로 목표품종을 바꾸면서 생산량이 늘었음²²⁾
- 주요 감소 품종: 오징어(2018년 대비 2019년 -43.1%)는 포클랜드 어장의 어황이 좋지 않아 채낚기원양어선 등이 조기 철수했고,²³⁾ 꽁치(-64.7%)는 2018년의 어황이 최근 들어 매우 좋았던 영향으로 2019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생산량이 감소함²⁴⁾

<표 2-4>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부류별·품종별	2018 (톤)	2019년		증감율 (18년 대비 19년, %)
		생산량(톤)	비중(%)	
총생산량	3,770,057	3,829,708	100.0	1.6
원양어업	473,589	507,883	13.3	7.2

19) 다시마 면허면적은 감소했지만, 단위면적에 대한 연승을 놓는 것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시설면적과 시설건수가 줄어도 전복 먹이용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음

20) 다시마 주요 산지 수협인 금일수협 등 전화 인터뷰

21) 가다랑어는 주로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어장에서 조업했으나 2019년에는 나우루, 파푸아뉴기니까지 어장을 확대

22) 한국원양산업협회 전화 인터뷰, 관련 국적선사 담당 인터뷰 등

23) 한국원양산업협회 전화 인터뷰, 관련 국적선사 담당 인터뷰 등

24) 한국원양산업협회 전화 인터뷰, 관련 국적선사 담당 인터뷰 등

어류	400,869	443,367	11.6	10.6
가오리류	1,320	1,419	0.0	7.5
갈치류	64	37	0.0	-42.2
고등어류	395	21	0.0	-94.7
꽁치	23,701	8,375	0.2	-64.7
능성어류	-	77	0.0	-
가다랑어	246,719	286,450	7.5	16.1
날개다랑어	2,166	2,706	0.1	24.9
남방참다랑어	1,118	1,083	0.0	-3.1
눈다랑어	23,571	22,496	0.6	-4.6
북방참다랑어	179	203	0.0	13.4
황다랑어	43,510	56,707	1.5	30.3
기타다랑어류	108	79	0.0	-26.9
달고기류	5	2	0.0	-60.0
대구	4,000	4,400	0.1	10.0
민대구류	8,312	13,567	0.4	63.2
붉은대구	36	12	0.0	-66.7
기타대구류	195	195	0.0	-
금눈돔류	140	13	0.0	-90.7
샛돔류	6	0	-	-100.0
통돔류	153	-	-	-
기타돔류	8	1	0.0	-87.5
명태	23,993	23,915	0.6	-0.3
메로(이빨고기)류	3,252	3,245	0.1	-0.2
물치다래	0	-	-	-
민어류	1,107	1,090	0.0	-1.5
꼬리민태류	917	772	0.0	-15.8
붉은메기	979	1,230	0.0	25.6
복어류	25	28	0.0	12.0
볼락류	9	4	0.0	-55.6
삼치류	-	26	0.0	-
상어류	427	348	0.0	-18.5
녹새치	1,782	1,884	0.0	5.7
돋새치	61	53	0.0	-13.1
백새치	2	13	0.0	550.0
청새치	109	92	0.0	-15.6
황새치	1,212	950	0.0	-21.6
흑새치	54	76	0.0	40.7
기타새치류	97	95	0.0	-2.1
서대류	190	326	0.0	71.6
성대류	14	-	-	-
전갱이류	4,289	7,444	0.2	73.6
조기류	106	112	0.0	5.7

청어	14	64	0.0	357.1
홍어류	588	931	0.0	58.3
기타장어류	169	-	-	-
기타어류	5,765	2,724	0.1	-52.7
갑각류	36,081	42,904	1.1	18.9
남빙양크릴	36,005	42,864	1.1	19.1
기타새우류	75	40	0.0	-46.7
연체동물	36,640	21,612	0.6	-41.0
갑오징어류	102	11	0.0	-89.2
문어류	3	0	-	-100.0
오징어류	35,074	19,940	0.5	-43.1
한치류	1,461	1,660	0.0	13.6

주: 비중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

라. 내수면어업의 부류별 생산량 증감

- 내수면어업의 2019년 생산량은 35,255톤으로 2018년 대비 0.2% 감소했는데, 어류와 갑각류가 각각 전년 대비 0.6%와 59.1% 상승한 27,810톤과 2209톤이었던 것에 반해 패류(-5.3%)와 기타수산동물(-4.4%)이 감소함
- 주요 증가 품종: 내수면어업의 품종 중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뱀장어는 전년 대비 3.3% 상승한 10,942톤, 이 외에 송어류(3,285톤, 3.3% 증가), 붕어(2,057톤, 5.7% 증가), 잉어(1,125톤, 24.3% 증가) 등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늘었음
- 주요 감소 품종: 메기(4,269톤, 11.9% 감소), 향어(1,523톤, 2.5% 감소), 왕우렁이(5,379톤, 7.6% 감소) 등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줄었음

<표 2-5>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품종별	2018 (톤)	2019		증감율 (18년 대비 19년, %)
		생산량(톤)	비중(%)	
총생산량	3,770,057	3,829,708	100.0	1.6
내수면어업	35,326	35,255	100.0	-0.2
어류	27,641	27,810	78.9	0.6
가물치	261	191	0.5	-26.8
농어류	77	72	0.2	-6.5
동자개류	435	517	1.5	18.9

메기	4,846	4,269	12.1	-11.9
미꾸라지류	668	645	1.8	-3.4
틸라피아(민물돔)	146	140	0.4	-4.1
뱀장어	10,589	10,942	31.0	3.3
블루길	734	643	1.8	-12.4
큰입우럭(베스)	108	120	0.3	11.1
금붕어	38	30	0.1	-21.1
붕어	1,946	2,057	5.8	5.7
떡붕어	192	191	0.5	-0.5
빙어	257	144	0.4	-44.0
산천어	150	191	0.5	27.3
송어류	3,179	3,285	9.3	3.3
송어류	539	455	1.3	-15.6
쏘가리	140	138	0.4	-1.4
연어류	44	48	0.1	9.1
웅어	2	1	0.0	-50.0
은어	37	41	0.1	10.8
비단잉어	42	37	0.1	-11.9
잉어	905	1,125	3.2	24.3
향어	1,579	1,523	4.3	-3.5
피라미	117	99	0.3	-15.4
황복	3	9	0.0	200.0
철갑상어류	36	42	0.1	16.7
기타어류	569	855	2.4	50.3
갑각류	257	409	1.2	59.1
게류	144	174	0.5	20.8
새우류	99	235	0.7	137.4
기타갑각류	14	0	0.0	-100.0
패류	7,269	6,884	19.5	-5.3
논우렁이	24	63	0.2	162.5
왕우렁이	5,823	5,379	15.3	-7.6
재첩	656	496	1.4	-24.4
다슬기류	742	945	2.7	27.4
기타패류	24	-	0.0	-
기타수산동물	160	153	0.4	-4.4
자라	160	153	0.4	-4.4

주: 비중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

제2절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

1.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2017년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²⁵⁾ 65.9kg으로 육류 56.7kg를 넘어서며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임
- 1인당 수산물 소비량에서 해조류 소비 비중이 42.1%(27.7kg)로 가장 높고 어류는 35.0%(23.1kg), 패류 22.9%(15.1kg)로 나타남
- 특히,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확대된 주요 요인은 해조류로서 2010년 14.7kg에서 2017년 27.7kg으로 13.0kg 증가했기 때문임
- 반면, 어류의 1인당 소비량은 평년대비 2%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패류는 평년대비 4.1% 감소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수산물 소비량 변화는 정체 수준임

<표 2-6>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이

단위: kg/1인/1년, %

구분	어류	비중	패류	비중	해조류	비중	합계 (100%)
2000년	20.2	55.1	10.5	28.5	6.1	16.5	36.7
2005년	27.0	54.5	12.9	26.1	9.6	19.4	49.5
2010년(A)	22.7	44.3	13.9	27.1	14.7	28.7	51.2
2011년	20.6	38.9	16.5	31.3	15.7	29.8	52.8
2012년	22.1	40.7	16.2	30.0	15.9	29.3	54.2
2013년	22.4	41.1	14.7	27.0	17.4	31.9	54.5
2014년	23.9	40.9	17.7	30.3	16.9	28.9	58.5
2015년	23.8	41.7	14.7	25.7	18.6	32.6	57.1
2016년	20.9	36.4	15.5	26.9	21.1	36.7	57.4
2017년(B)	23.1	35.0	15.1	22.9	27.7	42.1	65.9
전년대비 증감	10.4	-3.8	-2.2	-14.8	31.6	14.6	14.8
평년대비 증감	2.0	-12.8	-4.1	-18.0	54.2	31.9	17.0
연평균 증감(B/A)	0.2	-3.3	1.2	-2.3	9.5	5.6	3.7

주: 평년은 2012년~2016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도 식품수급표」, 2019. 6

25) 식품수급표에서는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 순식용공급량을 수산물 소비량으로 대체하여 사용함

- 수산물 및 주요 식품군의 1인당 순식용 공급량 추이를 비교해 보면, 육류, 종실류, 수산물은 2010년 대비 연평균 3% 이상 증가하여, 타 식품군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단백질 공급원천인 육류와 수산물의 소비만을 놓고 볼 때, 수산물의 단백질 소비량은 연간 1인당 38.2kg인데²⁶⁾ 반해, 육류는 56.7kg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는 육류에 뒤처지고 있음

<표 2-7> 주요 식품군의 1인당 순식용 공급량 현황

구분	국민 1인당 연간 순식용 공급량(kg/1년)										
	1990	2000	2010 (A)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B)	연평균 증감률 (B/A, %)
곡류	175.4	166.8	145.1	144.5	146.8	138.2	135.5	133.1	132.8	137.7	-0.7
서류	11	11.8	13.8	12.6	11.7	14.8	12.4	12.5	11.9	11.1	-3.1
설탕류	15.3	17.9	22.7	22.7	22.4	23.7	23.6	22.4	22.5	22.8	0.1
두류	10.3	10.7	10.4	9.9	10.0	9.8	10.3	10.1	9.9	8.5	-2.8
견과류	0.5	1.5	1.5	1.5	1.8	1.8	1.9	1.8	1.9	1.7	1.8
종실류	0.7	0.7	0.7	0.8	0.7	0.8	0.8	0.8	0.9	0.9	3.7
채소류	132.6	165.9	132.2	154.6	139.2	146.2	153.7	142.8	133.6	142.5	1.1
과실류	29	40.7	44.2	46.7	46.2	47.5	49.8	48.5	42.9	42.9	-0.4
육류	23.6	37.5	43.5	44.4	46	49.2	51.5	53.5	56.1	56.7	3.9
계란류	7.9	8.6	9.9	9.9	10.3	10.3	11.1	10.9	11.6	9.6	-0.4
우유류	31.8	49.3	57	59.3	54.9	61.4	61.7	63.6	64.3	68.6	2.7
유지류	14.3	15.9	20.1	21.1	22.2	18.2	20.4	20.8	21.2	22.9	1.9
수산물	36.2	36.8	51.2	52.8	54.2	54.5	58.5	57.1	57.4	65.9	3.7

주: 수산물은 어패류와 해조류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식품수급표」, 201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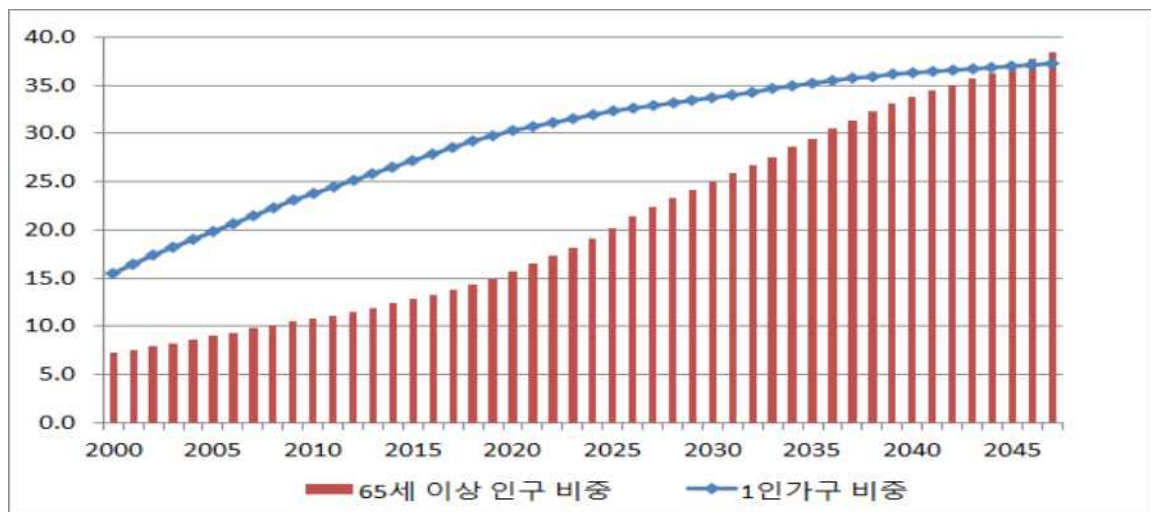
26)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 소비공급량임

2.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산물 소비

가. 인구구조의 변화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인 가구, 고령인구 비중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산물 소비 경향도 1인 가구 및 고령인구의 소비 행태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2-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및 추계가구.

<표 2-8> 한국의 가구원 수 추계

연도	총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2017	19,523,587	5,562,048	5,260,718	4,173,015	4,527,806
2018	19,751,807	5,738,931	5,411,397	4,212,197	4,389,282
2019	19,971,359	5,907,077	5,560,463	4,252,171	4,251,648
2020	20,174,317	6,067,878	5,712,706	4,282,242	4,111,491
2021	20,366,414	6,212,313	5,864,618	4,313,521	3,975,962
2022	20,545,775	6,350,574	6,002,598	4,341,145	3,851,458
2023	20,714,305	6,478,761	6,142,266	4,366,979	3,726,299
연평균증감율	1.0	2.6	2.6	0.8	-3.2
2030	21,640,586	7,196,471	6,967,402	4,473,341	3,003,372
2040	22,306,364	7,953,010	7,632,153	4,432,591	2,288,610
2045	22,317,526	8,098,369	7,800,348	4,412,271	2,006,538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jsp>)

- 소비자들의 생활형태가 변하면서 수산물 소비에서 외식비중의 증가,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위생안전, 웰빙, 윤리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추세로 전환 중임
- 특히, 1인 가구의 수산물 소비 특성은 소단위 포장, 조리·반조리 형태(HMR: Home Meal Replacement) 등 가공형태의 수산물 구입 비중이 높다는 점임

<표 2-9> 최근의 수요 트렌드의 다양화와 소비행태

수요 계층	소비행태	특징
독신세대	혼술, 혼밥	소량다품 포장, 수산물+농산물 융합
핵가족화	소용량·소포장, 간편조리식품	
요우커	체험적 소비, Exotic 소비	명품소비 → 체험적인 소비를 중시
실버세대	건강·웰빙 식품, 가성비 좋은 식품	-
커리어우먼	미용 및 다이어트식품, 간편화	식품의 기능화, 레토르트
네오비트족 ¹⁾	체험적 소비	외식과의 연계

주: 1) 네오비트족이란 TV에 소개된 맛집을 직접 찾아가 보고 쿡방의 레시피대로 직접 요리해보는 세대
 자료: 장홍석 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양수산부, 2018. 01.

<그림 2-4> 수요자(=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수산물 유통과의 관계



자료: 장홍석 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양수산부, 2018. 01.

나. 가계의 수산식품 소비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가구의 식품 관련 지출에서 외식비 지출 비중은 1990년의 23.0%에서 2000년의 42.6%로 늘어났으며, 2016년 48.8%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47.8%로 소폭 하락함
- 한편, 가계 식품 지출 중 수산식품의 비중은 2000년 14.4% 수준에서 2015년에 11.2%대로 떨어진 이 후 2018년까지 11~12%대를 유지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수산식품 구입과 관련하여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 가계의 외식 비중 및 가정 내 수산물 구입 추이

단위: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계 식품 지출 중 외식비 비중 ¹⁾	23.0	42.6	47.4	48.2	48.8	48.6	47.8
가계 식품 지출 중 수산식품 비중 ²⁾	15.1	14.4	12.3	11.2	11.1	12.0	11.4

주: 1) 가계의 식품 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과 식사비 지출의 합계임

2) 수산식품에는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장기적으로 가정 지출에서 수산식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외식비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수산식품의 가정 외 소비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외식비 지출 비중이 수산식품의 외식비 비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직접적인 통계적 수치는 현재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단, 동 보고서에서는 현재 수집 가능한 국내 식품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식품소비 성향이 주는 일반론에 입각하여 수산식품도 그러한 배경 하에 있다는 가정에 따라 논리를 전개함

다. 부류별 수산물 구입

- 2018년을 기준으로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는 어류, 해조류, 연체류, 패류, 갑각류 순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매일 구입한다는 응답은 해조류 0.3%, 어류 0.1%이며, 주 2~3회는 어류 3.1%, 해조류 3.0%, 패류 0.8%, 연체류 0.3%, 갑각류 0.2%로 나타남

- 어류의 구입빈도는 2주 1회가 35.3%로 가장 높고, 주 1회 28.4%, 월 1회 19.8%, 월 1회보다 드물게 11.5% 순으로 응답함
- 해조류는 월 1회 30.5%, 월 1회보다 드물게 27.7%, 2주 1회 24.0% 순이며, 패류와 연체류 구입 빈도 비중은 월 1회보다 드물게, 월 1회, 2주 1회, 주 1회 순으로 나타남

<표 2-11>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2018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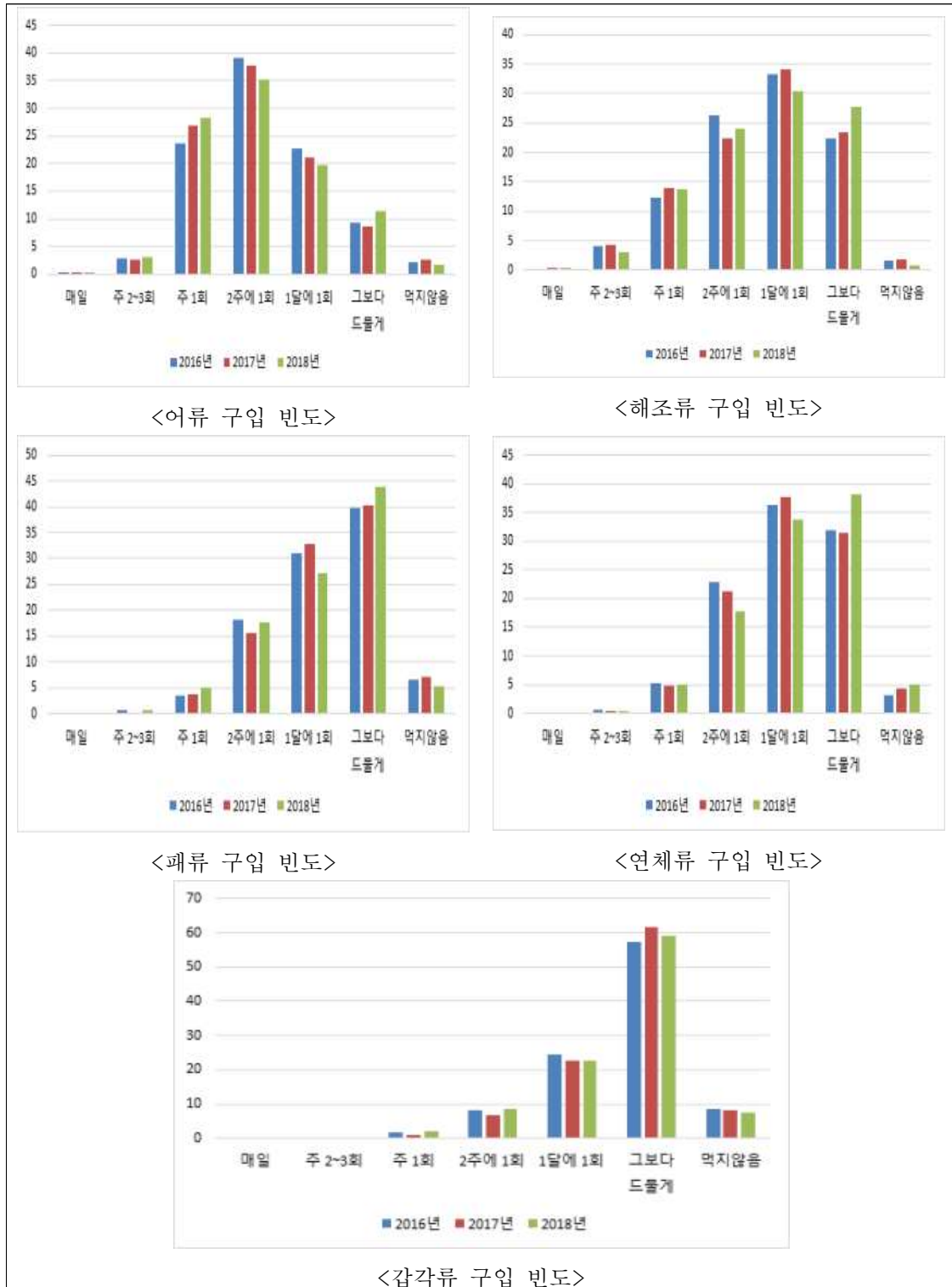
구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어류	0.1	3.1	28.4	35.3	19.8	11.5	1.7
해조류	0.3	3.0	13.7	24.0	30.5	27.7	0.8
패류	0.0	0.8	5.0	17.7	27.1	44.0	5.4
연체류	0.0	0.3	5.1	17.8	33.8	38.2	4.9
갑각류	0.0	0.2	2.0	8.5	22.8	59.1	7.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2019. 5

- 2016~2018년 동안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체류를 제외하고 어류, 해조류, 패류, 갑각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반적으로 수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가구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그림 2-5>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어류는 주 1회, 주 2~3회 섭취한다는 응답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2주에 1회, 1달에 1회는 감소하였고, 이보다 드물게 섭취한다는 응답은 증가함
- 해조류는 매일, 주 2~3회, 2주에 1회, 1달에 1회의 응답비율은 비교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월 1회보다 드물게 구입한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를 보임
- 2016~2018년 동안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체류를 제외하고 어류, 해조류, 패류, 갑각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반적으로 수산물 구입 경험에 있는 가구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수산물의 구입빈도는 대부분의 수산부류들이 주 1회 이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연관이 있다고 추측됨
- 하나, 수산물은 주로 부식물로 섭취 과정에서 수산물이라는 인식이 낮을 수 있다는 것임
 - 조미 김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 부식에서 거의 매일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이라는 인식 없이 섭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젓갈이나 국에 들어나 패류 역시 수산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할 수 있음
 - 연육(어묵 등)으로 만들어진 부식류의 경우에도 섭취 시에 수산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음
- 둘째, 가정 내에서 수산물 조리의 기피성이 반영될 수 있음
 - 다양한 형태의 1인 세대의 증가는 가정 내에서 수산물을 조리하고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수산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가정 내에서 조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수산물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외식 분야에 있어서 농축산물에 비해 수산물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음
 - 젊은 세대의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 선호 성향으로 외식 점포 역시 이러한 식소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배달 음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은 배달을 하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배달에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수산물의 구입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 대체제와의 가격 상대성,

수산물에 대한 홍보 등을 인구구조 및 사회 트렌드에 맞도록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접근성: 조리 편의성, 섭취의 편의성, 처리의 편의성 등
- 가격 상대성: 농축산물 외식가격의 수준에서의 소비
- 홍보: 수산물의 다양한 이용형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섭취하고 있는 것이 수산물이라는 인식 강화

라. 가구원수별 수산물 구입

- 가구원 수별 어류의 구입 빈도는, 1인 가구에서 주 1회 수산물 구입 비율이 2016년의 9.3%에서 2018년의 25.3%로 증가하였으며, 먹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4.6%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12> 가구원 수별 어류 구입 빈도

단위: %

구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1인	2016년	0.0	2.3	9.3	32.8	29.2	20.2	6.2
	2017년	0.2	0.7	15.4	27.0	28.9	18.8	9.0
	2018년	0.1	2.2	23.3	27.4	20.2	22.2	4.6
2인	2016년	0.0	3.2	24.1	41.5	23.8	6.4	1.0
	2017년	0.3	3.6	30.1	39.5	20.2	5.9	0.3
	2018년	0.0	4.5	30.0	35.5	20.5	8.9	0.6
3인	2016년	0.2	3.3	31.3	43.7	18.1	3.1	0.2
	2017년	0.0	1.9	32.7	45.5	14.5	5.2	0.1
	2018년	0.2	3.3	30.6	44.7	16.4	4.0	0.8
4인	2016년	0.1	2.7	33.7	40.3	17.2	6.0	0.0
	2017년	0.0	4.5	32.2	41.1	19.4	2.8	0.0
	2018년	0.0	2.1	31.7	35.5	21.0	9.2	0.6
5인 이상	2016년	0.4	1.1	37.1	35.6	22.7	3.0	0.0
	2017년	1.3	5.0	29.7	40.5	20.4	3.2	0.0
	2018년	0.0	5.1	19.7	33.8	30.5	9.2	1.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 2주에 1회, 1달에 1회 어류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고, 40대 이상부터는 2주에 1회, 주 1회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가구원 수별 어류 구입 빈도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구입 빈도가 낮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데,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하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어류의 구입 단위가 커지고, 이에 따른 수산물 조리과 처리의 불편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정주부의 구매 회피성을 고려해야 함
 - 둘, 세대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어린 세대의 축산물 선호 등이 수산물 구매 빈도를 낮아지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류 등의 수산물 구매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리 및 처리의 편의성, 가공식품화 등이 필요함
 - 비가식 부분을 유통과정에서 배제함으로서 가정 내에서 구매 후에 조리과 처리의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유통 과정의 물류비 절감, 비가식(부산물) 부분의 수익화 등을 수산물 유통 정책에 포함할 수 있음
 - 다양한 가공식품화를 통해 어린 세대의 구미를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함

<표 2-13> 가구주 연령별 어류 구입 빈도

단위: %

구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39세 이하	2016년	0.1	1.3	22.2	32.9	24.0	13.8	5.7
	2017년	0.1	0.5	23.4	31.4	20.7	14.7	9.0
	2018년	0.0	2.0	19.3	31.6	23.2	19.8	4.1
40대	2016년	0.2	2.8	28.6	43.2	18.8	4.8	1.5
	2017년	0.1	3.0	32.4	41.5	17.0	4.4	1.5
	2018년	0.0	2.4	34.7	37.0	16.8	7.5	1.5
50대	2016년	0.1	4.1	26.5	39.3	21.7	7.6	0.7
	2017년	0.1	4.4	28.3	40.6	21.2	5.3	0.1
	2018년	0.2	4.3	29.2	37.0	20.4	8.3	0.6
60세 이상	2016년	0.0	3.0	18.9	40.8	25.8	10.7	0.8
	2017년	0.3	2.6	24.3	37.3	25.1	10.0	0.4
	2018년	0.0	3.9	30.8	35.5	18.7	10.0	0.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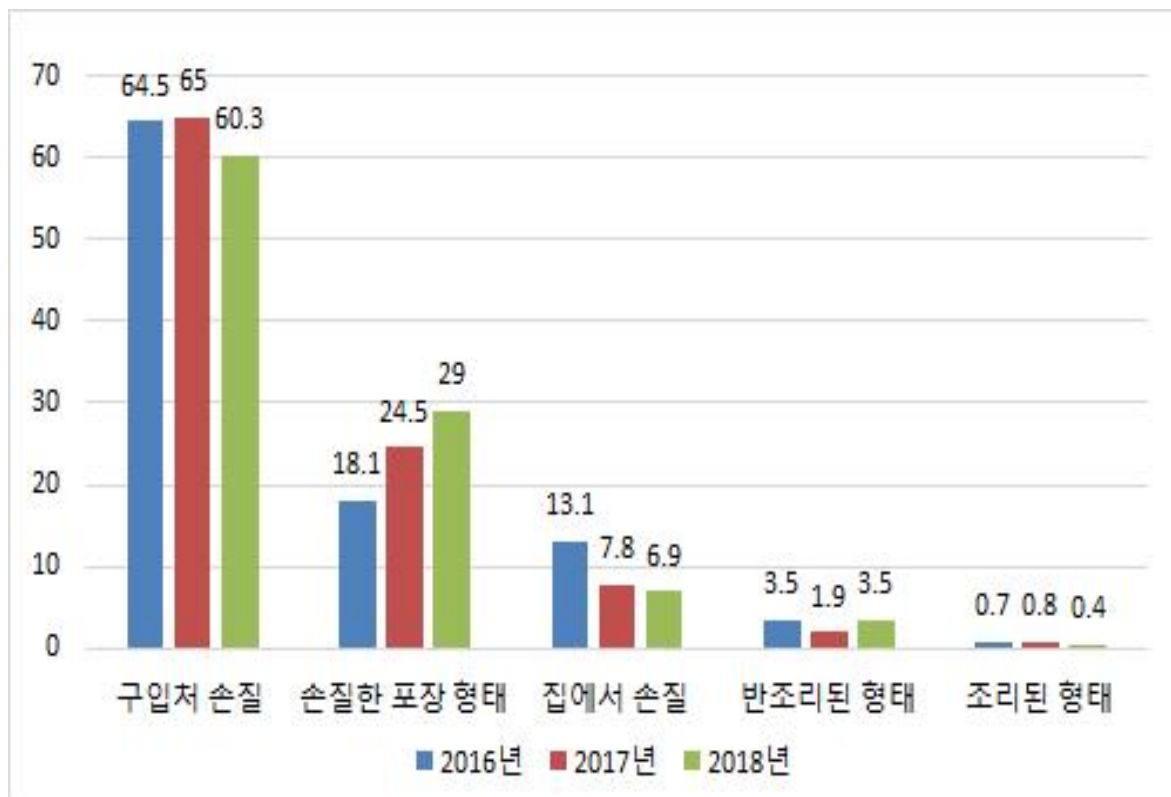
마. 수산물 구입 형태 및 요인

1) 구입 형태

- 수산물 구입 형태에 관한 가구별 응답에서는 구입처에서 손질한 형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고, 포장한 형태, 집에서 손질, 반조리된 형태 순으로 나타남
- 구입 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구입처에서 손질한 형태를 구입하는 비중은 가장 높으나 2016~17년에는 65%대에서 2018년에 60%로 감소하였고 집에서 손질한다는 응답도 2016년 13.1%에서 2018년 6.9%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손질한 포장 형태로 구입하는 비율은 2016년 18.1%에서 2018년 29%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6>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1인 가구의 수산물 구입 형태는 손질한 포장 형태로 응답한 비율이 기타 가구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구입처 손질은 2017년까지 응답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나 2018년에는 48.1%로 감소함
- 손질한 포장 형태로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 가구원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4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손질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구입처 손질 제품 구매 응답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표 2-14> 가구원 수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단위: %

구분		집에서 손질	구입처 손질	손질한 포장 형태	반조리된 형태	조리된 형태
1인	2016년	15.9	55.3	18.5	8.2	2.2
	2017년	8.1	51.6	33.0	5.1	2.2
	2018년	5.3	48.1	37.5	8.0	1.1
2인	2016년	16.6	66.0	16.0	1.2	0.2
	2017년	7.9	66.9	23.9	1.1	0.2
	2018년	7.2	63.8	26.5	2.5	0.0
3인	2016년	11.7	64.2	20.9	3.0	0.3
	2017년	7.0	71.7	20.5	0.7	0.1
	2018년	6.9	63.4	28.1	1.3	0.3
4인	2016년	6.3	73.3	19.0	1.4	0.0
	2017년	8.0	72.2	19.2	0.1	0.5
	2018년	8.9	66.8	22.6	1.6	0.1
5인 이상	2016년	9.2	80.7	10.1	0.0	0.0
	2017년	7.9	75.3	16.9	0.0	0.0
	2018년	4.0	73.1	22.8	0.0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 구입처에서 손질한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손질한 포장 형태는 2018년 39.3%로 가장 비중이 높은 세대로 나타남
- 60세 이상의 경우 구입처 손질이 68.2%로 전 연령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손질한 포장 형태의 구입 비중은 10%대에서 20%로 상승함

<표 2-15> 가구주 연령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단위: %

구분		집에서 손질	구입처 손질	손질한 포장 형태	반조리된 형태	조리된 형태
39세 이하	2016년	6.8	55.9	25.6	9.5	2.3
	2017년	2.3	51.1	39.5	4.9	2.2
	2018년	3.0	46.7	39.3	9.8	1.1
40대	2016년	10.3	65.9	20.7	2.5	0.6
	2017년	4.9	68.3	25.2	1.5	0.1
	2018년	6.5	60.4	30.7	2.0	0.5
50대	2016년	12.3	68.5	16.2	2.9	0.1
	2017년	8.4	70.5	19.2	1.4	0.5
	2018년	9.0	66.0	23.1	1.9	0.0
60세 이상	2016년	18.5	67.3	13.8	0.4	0.0
	2017년	14.1	69.0	16.3	0.3	0.4
	2018년	9.2	68.2	22.5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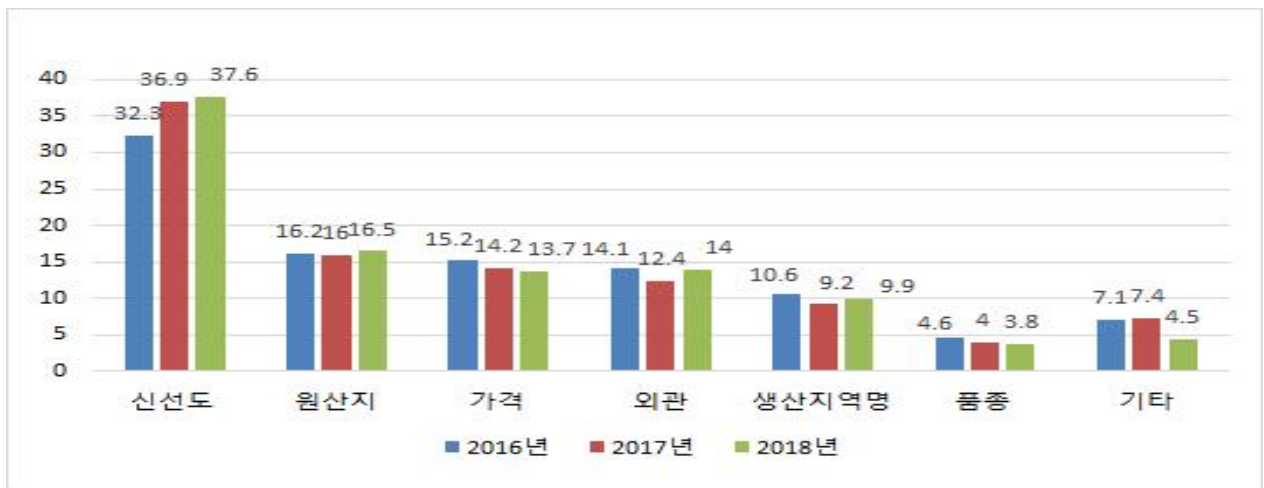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2) 구입 요인

- 가게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는 37.6%의 응답 비율을 보인 '신선도'로 원산지, 가격, 외관, 생산지역 등 다른 정보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특히, 신선도 응답 비율은 2016년 32.3%에서 2018년 37.6%로 증가하여 수산물 구입 시 소비자들의 신선도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7> 수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2018. 12

- 최근 식품 구매 편의성(convenience)을 고려하는 트렌드가 정착하면서 간편식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 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1인 가구 증가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트렌드의 정착, 시간절약, 조리 편의성, 저렴한 가격 등의 요인으로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출하 실적은 2013년 1조 6천억 원에서 2017년 2조 7천억 원 규모로 5년간 1조원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2-8> 국내 간편식시장 출하현황

단위: 억 원



주: 협의의 간편식=즉석섭취·편의식품류 출하실적

광의의 간편식=즉석섭취·편의식품류+만두+카레+튀김식품+빵류(핫도그, 피자)+파스타류 출하실적의 합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간편식시장」, 2019. 8

- 수산물 또한 냉동으로 제공되는 알탕, 매운탕, 아귀찜 세트, 주꾸미 볶음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 형태의 제품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로 활용하여 고등어구이, 가자미구이 등 어류 구이 형태까지 출시되고 있음

<표 2-16> 수산물 주요 가정간편식 출시 제품(즉석섭취·편의식품류 외)

오뚜기	대상	GS리테일	신세계푸드
렌지에 돌려먹는 고등어구이	청전원 일상가정식 유자 고등어구이	바로먹는 고등어구이	올반 가자미구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간편식 시장」, 2019. 8

- 한편, 2018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가공식품 품목으로 건조수산가공품(98.9%)과 어육가공품(98.3%)이 라면류(99.7%), 두부류(99.2%), 우유(98.9%)와 같이 상위 5개 품목안에 포함되며 소비자들의 구입 경험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자리 잡음²⁷⁾
- 소비자들이 수산가공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유통기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외 브랜드 상표, 원산지, 가격, 용량,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통기한의 경우 전 가구원, 전 연령대에서 수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며, 브랜드 상표는 1인 가구 및 20대 연령에서 비중이 높음
- 수산가공품(조미, 건조) 소비자 선호도를 살펴보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응답은 67%대, 간편화는 55%대를 상회하며 식품안전과 간편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수산가공품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구 내 식품 구입을 주로 하는 식품구입자와 일반 소비자의 항목별 응답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수산가공품(조미, 건조) 구매 시 중요 요소

단위: %

구분		용량	유통 기한	원산지	영양 성분	식품 첨가물	브랜드 상표	가격	포장	품질 인증	기능성 효능
전체		10.8	22.5	15.7	8.3	9.6	16.0	11.1	2.1	1.8	2.0
가구원 수	1인	12.3	21.5	13.5	7.3	9.0	17.1	12.6	2.3	2.1	2.3
	2인	10.4	22.1	17.9	8.5	10.1	14.9	10.3	1.8	1.8	2.1
	3인	9.7	22.5	15.6	9.5	10.7	15.8	11	1.8	1.6	1.9
	4인	10.4	23.8	15.8	8.4	8.7	16.4	10.5	2.4	1.8	1.8
	5인 이상	18.3	28.3	17.3	4.6	7.0	13.9	9.3	1.3	0.0	0.0
가구주 연령	20대	9.2	23.3	15.8	6.4	9.0	19.5	12.6	1.6	1.6	1.1
	30대	10.4	23.6	15.8	9.6	8.9	16.8	8.7	2.5	1.5	2.7
	40대	10.6	22.2	14.8	8.8	10.7	16.1	10.7	2.5	2.1	1.6
	50대	11.3	22.5	15.7	7.4	10.0	16.5	11.3	1.9	1.6	1.8
	60대 이상	11.4	21.6	17.2	8.6	8.8	13.9	12.6	1.5	2.0	2.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통계보고서」, 2018.12.

27)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018.12.

<표 2-18> 수산가공품(조미, 건조) 소비자 선호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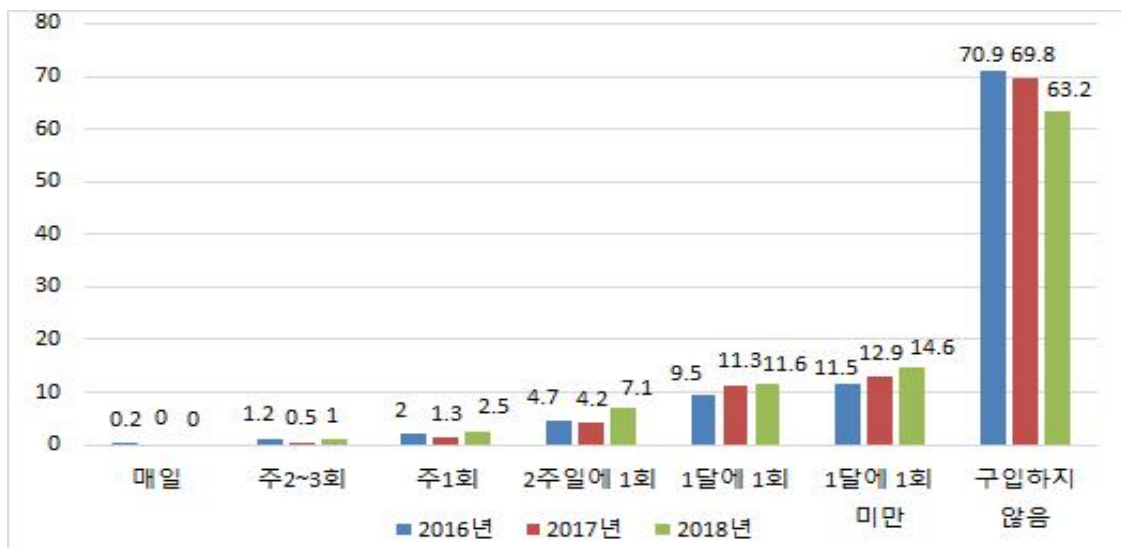
구분		가격이 비싸도 아래의 조건에 구입하겠다				저렴한 가격만 구입
		프리미엄 제품	새로운 맛	안전성확보	간편화	
식품 구입자	조미수산가공품	44.0	42.9	68.4	58.6	39.6
	건조수산가공품	49.6	39.2	67.3	59.3	43.4
일반 소비자	조미수산가공품	49.6	44.0	69.9	56.4	50.4
	건조수산가공품	48.4	44.5	68.6	54.9	5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018.12.

- 식품 구매에 있어서 유통·물류여건 개선 및 언컨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나 시장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식품 구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은 2016년에는 29.1%에서 2018년 36.8%로 증가함
- 특히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온라인 식품 구입 실태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8.12

제3절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화

1. 세계 수산물 생산과 소비

- 세계적으로 식품 수급은 자연재해, 경기변동, 질병 확산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료생산, 수출입, 소비, 재고 비축 등 수급 전 분야에 걸쳐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곡물의 생산량과 교역량은 연평균 각각 2.0%, 4.3%씩 증가해 왔으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0.3%씩 감소하였음
- 육류의 생산 및 교역규모도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육류 소비량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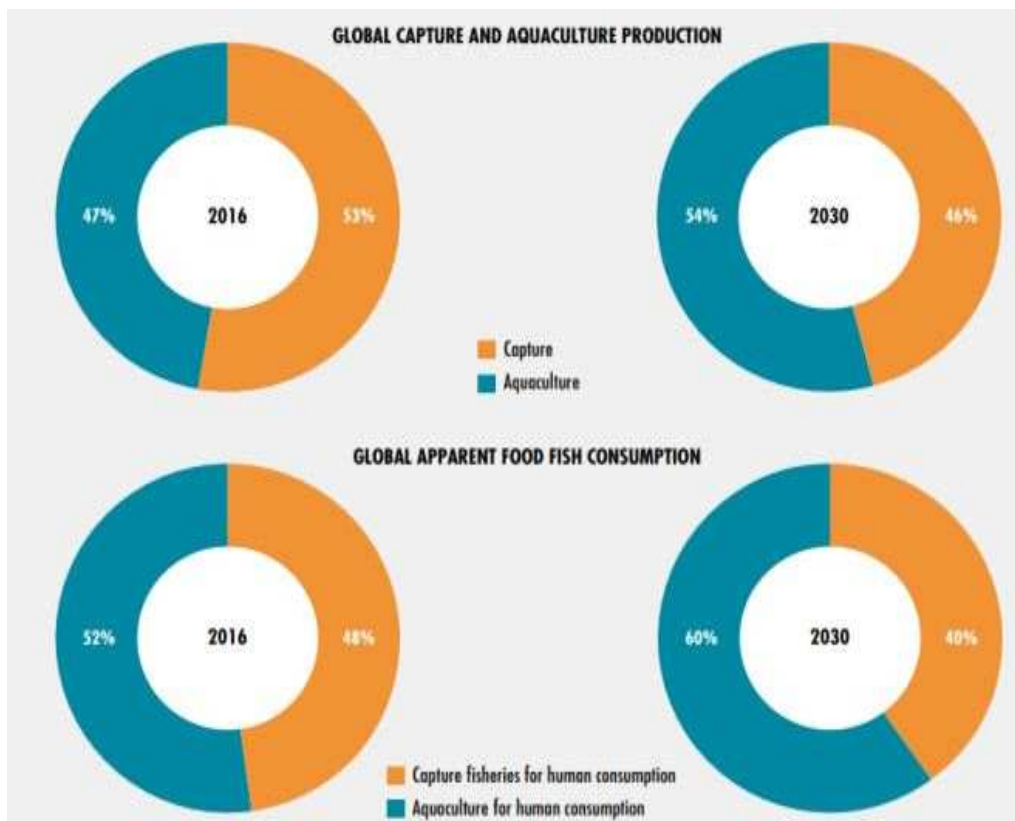
<표 2-19> 전 세계 주요 식품군별 수급 현황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추정치)	2019 (전망치)	연평균 증감률 ('10~'19)
곡물 (밀, 쌀 등)	세계 생산량(백만 톤)	2,258.8	2,534.3	2,613.2	2,703.1	2,657.3	2,703.9	2.0
	식용 소비량(백만 톤)	1,058.1	1,089.4	1,103.5	1,127.2	1,139.5	1,152.0	0.9
	세계 교역(수출)량(백만 톤)	285	393.3	405.4	422.4	412.2	415.1	4.3
	1인 연간 소비량(kg/yr)	153.1	148.2	147.9	149.2	149.2	149.4	-0.3
육류	세계 생산량(백만 톤)	294.2	320.5	326.8	333.6	338.6	335.2	1.5
	세계 교역(수출)량(백만 톤)	26.7	29.9	31.9	32.7	33.8	36	3.4
	1인 연간 소비량(kg/yr)	42.5	43.5	43.7	44	44.2	43.3	0.2
수산물	세계 생산량(백만 톤)	148.5	169.2	170.9	172.6	177.7	177.8	2.0
	어획 생산량	88.6	92.6	90.9	92.5	94.5	91.3	0.3
	양식 생산량	59.9	76.6	80	80.1	83.2	86.5	4.2
	식용 소비량(백만 톤)	128.3	148.8	151.2	153.4	155.7	158.2	2.4
	세계 교역(수출)량(백만 톤)	56.7	59.4	59.5	64.9	65.1	64.3	1.4
	1인 연간 소비량(kg/yr)	18.6	20.3	20.3	20.3	20.4	20.5	1.1
	어획물 소비량	9.9	9.9	9.5	9.7	9.5	9.3	-0.7
	양식물 소비량	8.7	10.5	10.7	10.6	10.9	11.2	2.8

자료: FAO, Food Outlook, 각 연도.

-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 증가가 이를 견인하고 있음
 - 2016년 어획 어업과 양식 어업의 생산량 비중은 각각 53%와 47%였으나 2030년에는 각각 46%와 54%로 양식어업이 생산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0년의 18.6kg에서 2015년의 20.3kg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에 20.4kg로 전망되어 최근에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음²⁸⁾
 - 어획 수산물의 소비량은 2015년 9.9kg에서 2019년 9.3kg로 감소가 전망되고, 양식 수산물의 소비량은 2015년 10.5kg대에서 2019년에는 11.0kg대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림 2-10> 세계 수산물 어획·양식의 비중 전망(생산, 소비)



자료: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8

28) FAO에서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에 대한 실측치는 2017년이 최근의 통계이며, 2019년 수산물 소비는 전망치로 다루는 보고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전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FAO의 식품가격지수(Food price index)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산물 가격 변동 폭은 곡물과 육류에 비해 낮음
 - 2000년을 기준으로 국제 수산물 가격지수 추이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임
 - 어업별로 보면, 어획 수산물의 가격 지수는 상승하는 반면에 양식 수산물의 가격 지수는 하락하고 있음
 - 이는 어업별로 수산물의 공급량에 변동이 있기 때문인데, 어획 수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이 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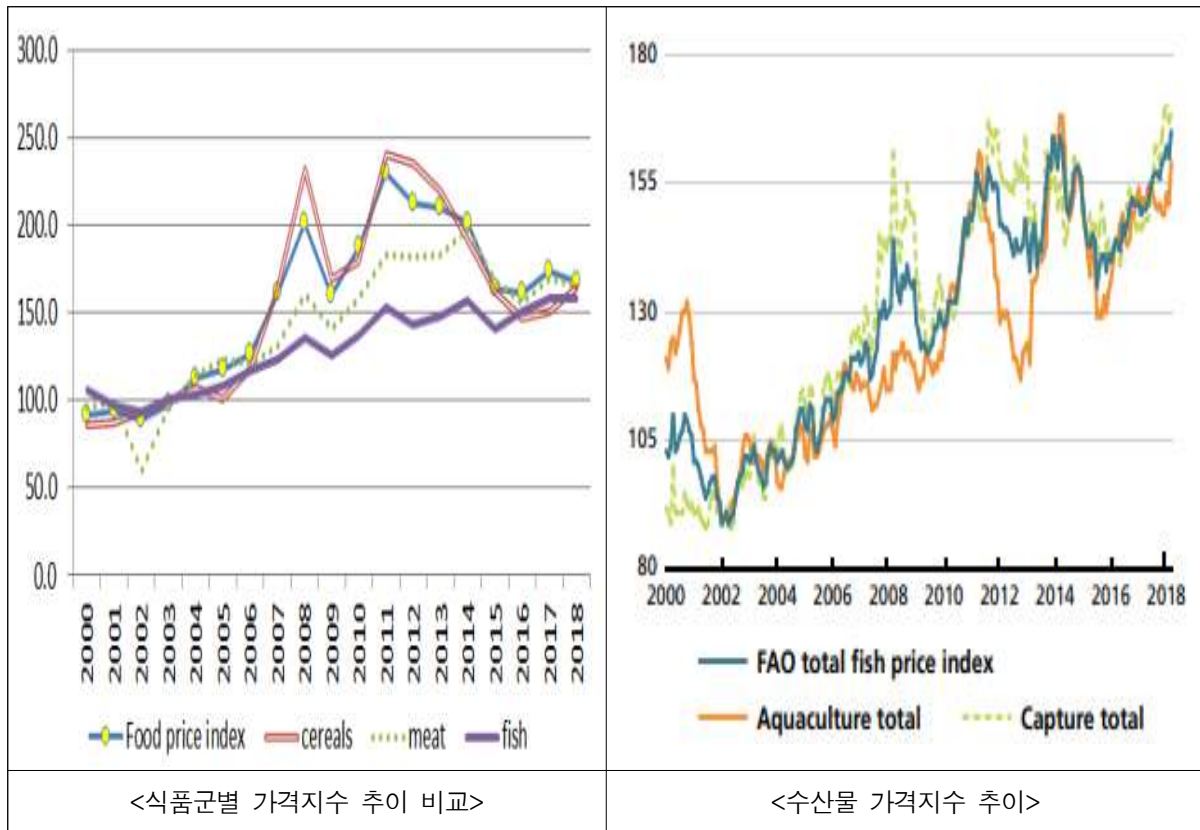
<표 2-20> 세계의 Food Price Index

연도	Food price index	cereals	meat	fish
2000	91.1	85.8	96.5	106
2001	94.6	86.8	100.1	97
2002	89.6	93.7	59.9	94
2003	97.7	99.2	95.9	101
2004	112.7	107.1	114.2	104
2005	118.0	101.3	123.7	109
2006	127.2	118.9	120.9	117
2007	161.4	163.4	130.8	124
2008	201.4	232.1	160.7	136
2009	160.3	170.2	141.3	126
2010	188.0	179.2	158.3	137
2011	229.9	240.9	183.3	154
2012	213.3	236.1	182	144
2013	209.8	219.3	184.1	148
2014	201.8	191.9	198.3	157
2015	164.0	162.4	168.1	141
2016	161.5	146.9	156.2	151
2017	174.6	151.6	170.1	158
2018	168.4	165.3	166.3	158
2019	171.5	164.4	175.8	-
연평균증가율	3.6%	3.4%	3.1%	2.2%
표준편차	48.0	55.5	38.7	21.5

자료: FAO, Food price index,

<그림 2-11> FAO의 식품가격지수 변화 추이

단위: 2002~2004년 평균=100



자료: FAO, Food price index,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가. 수산물 수출입 총괄

- 국내 수산물 수출입을 보면, 지난 5년 평균 수출량은 62만 4천 톤에 수출액 22억 5천만 불이며, 수입량(소금 제외)은 148만 2천 톤에 51억 5천만 불이었음
- 수출액은 2010~2019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5억불을 달성함
- 수입액(소금제외) 은 동기간 연평균 6.3%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56억불을 기록함

<표 2-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소금포함	소금제외	소금포함	소금제외
2000년	534	1,504	-	749	-	1,411
2001년	436	1,274	-	1,056	-	1,648
2002년	430	1,160	-	1,186	-	1,884
2003년	425	1,129	-	1,239	-	1,961
2004년	406	1,279	-	1,281	-	2,261
2005년	412	1,193	-	1,256	-	2,384
2006년	367	1,089	-	1,377	-	2,769
2007년	536	1,226	-	1,392	-	3,056
2008년	614	1,455	4,187	1,152	3,097	2,958
2009년	652	1,511	4,080	1,176	2,895	2,717
2010년(A)	793	1,798	4,716	1,244	3,459	3,234
2011년	687	2,308	4,846	1,363	4,192	3,969
2012년	708	2,361	4,832	1,296	3,977	3,782
2013년	687	2,151	5,387	1,212	3,895	3,685
2014년	702	2,067	5,233	1,360	4,506	4,323
2015년	651	1,924	5,504	1,408	4,556	4,398
2016년	612	2,128	5,374	1,444	4,791	4,649
2017년	540	2,329	5,492	1,478	5,268	5,136
2018년	632	2,377	6,419	1,555	6,125	5,963
2019년(B)	688	2,505	5,606	1,528	5,794	5,627
5개년 평균	624	2,253	5,679	1,482	5,307	5,155
전년대비 증감	8.8	5.4	-12.7	-1.7	-5.4	-5.6
평년대비 증감	9.6	15.7	0.0	5.4	14.7	15.0
연평균증감률(B/A)	-1.6	3.8	1.9	2.3	5.9	6.3

주: 1) 수출은 소금을 포함한 값, 2008년부터 소금이 수출입 통계에서 집계됨. 수입의 경우 소금이 차지하는 중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분하여 제시함

2) 5개년 평균은 2015~2019년 평균, 평년은 2014~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나.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 2019년 국가별 수산물 수출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많았으며, 수산물 수입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순으로 많았음

- 수출실적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76.3%, 수입실적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의 64.8%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2> 2019년 수산물 수출입 국가별 현황

단위: 백만 불, %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위	일본	732	29.2	1위	중국	1,333	23.0
2위	중국	523	20.9	2위	러시아	924	15.9
3위	미국	298	11.9	3위	베트남	802	13.8
4위	태국	201	8.0	4위	노르웨이	422	7.3
5위	베트남	158	6.3	5위	미국	271	4.7
1~5위 소계		1,911	76.3	1~5위 소계		3,752	64.8
전체 수출 합계		2,505	100.0	전체 수입 합계		5,794	100.0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다. 품목별 수산물 수출입

- 수산물 품목별 수출액 추이를 보면, 어류의 경우 2012년에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2015년까지 하락하고 2018년까지 다시 상승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해조류 수출은 김 수출 증가에 힘 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 수산물 수출액 종류별 비중은 어류가 48.3%로 가장 비중이 높고, 해조류 27.0% 패류 등은 19.6%, 기타 5.1%를 차지함

<표 2-23> 종류별 수산물 수출액 현황

구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어류	1,096	995	1,076	1,178	1,221	1,210	48.3	1,136
패류 등	425	453	527	460	442	492	19.6	475
해조류	182	383	441	601	615	676	27.0	543
기타	95	93	83	90	100	128	5.1	99
계	1,798	1,924	2,128	2,329	2,377	2,505	100.0	2,253

주: 패류 등에는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이 포함, 기타에는 소금, 수산부산물, 비식용수산물 포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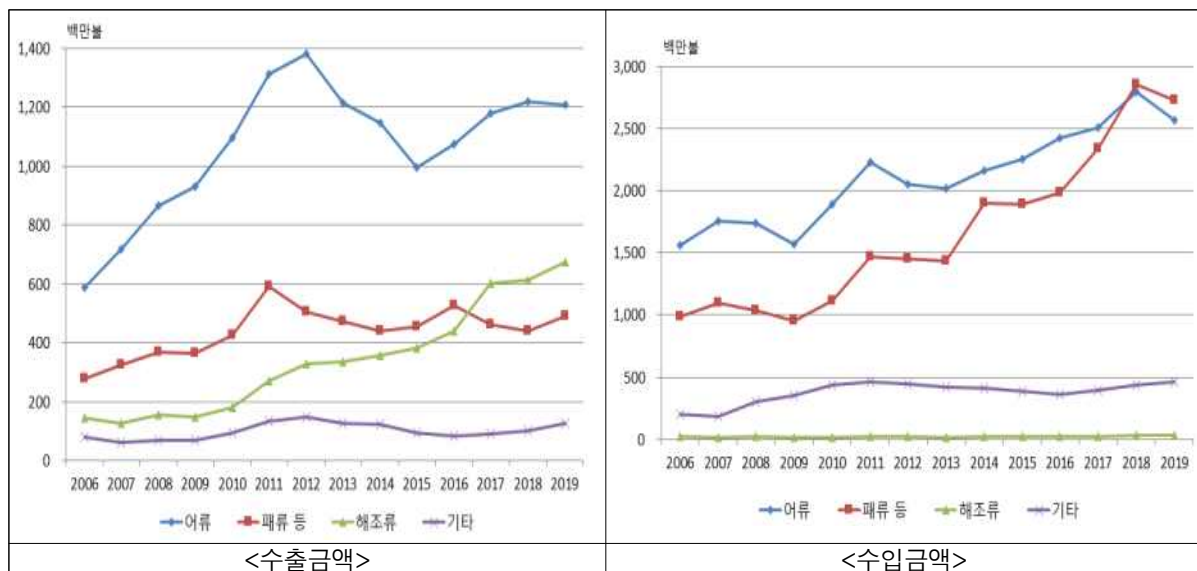
- 수입액은 어류가 201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감소하였고, 패류 등은 2018년 이전까지는 어류 수입액보다 적었으나 2018년에는 어류 수입액을 상회하여 2019년까지 이어짐
- 2019년 수산물 수입액 종류별 비중은 패류 등이 47.1%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류 44.3%, 기타 8.0%, 해조류는 0.6%를 차지함

<표 2-24> 종류별 수산물 수입액 현황

구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어류	1,894	2,251	2,422	2,507	2,795	2,566	44.3	2,508
패류 등	1,110	1,894	1,987	2,338	2,855	2,731	47.1	2,361
해조류	19	26	22	25	35	35	0.6	28
기타	436	385	361	397	441	462	8.0	409
계	3,459	4,556	4,791	5,268	6,125	5,794	100.0	5,307

주: 패류 등에는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이 포함, 기타에는 소금, 수산부산물, 비식용수산물이 포함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그림 2-12> 수산물 종류별 교역액 추이



주: 패류 등에는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이 포함, 기타에는 소금, 수산부산물, 비식용수산물이 포함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라. 품종별 수산물 수출입

- 수산물 품종별 수출입 현황은 상위 15개 수출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함

1) 상위 15개 수출 수산물

- (상위 15개 수출품종의 누적 비중) 2019년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의 누적 비중은 80.3%로 2018년의 81.8%에 비해 약 1.5%p 줄어들어 다소의 수출 품종 다양화의 추세를 보였음

<표 2-25> 수산물 상위 15개 수출품목 실적(순위는 금액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품종	2018년				품종	2019년			
	종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종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참치	216,920	617,682	26.0	26.0	김	27,245	580,539	23.2	23.2
김	22,097	525,527	22.1	48.0	참치	238,978	571,645	22.8	46.0
기타게	2,394	99,143	4.2	52.2	기타게	3,315	131,002	5.2	51.2
기타어류	23,768	97,366	4.1	56.3	기타어류	25,759	104,756	4.2	55.4
어류가공품	17,443	83,452	3.5	59.8	어류가공품	20,125	94,782	3.8	59.2
굴	10,489	69,156	2.9	62.7	굴	11,018	76,664	3.1	62.2
고등어	70,207	68,462	2.9	65.6	대구	19,995	64,728	2.6	64.8
넙치	6,297	64,511	2.7	68.3	전복	2,174	61,529	2.5	67.3
전복	2,388	63,018	2.6	70.9	삼치	17,164	55,910	2.2	69.5
이빨고기	2,063	53,904	2.3	73.2	넙치	7,947	55,002	2.2	71.7
붕장어	3,738	51,546	2.2	75.4	고등어	44,778	49,521	2.0	73.7
게살	2,968	46,138	1.9	77.3	붕장어	3,610	44,165	1.8	75.5
미역	15,615	36,945	1.6	78.9	기타 수산물분	49,549	42,229	1.7	77.1
대구	9,844	36,657	1.5	80.4	미역	16,279	39,574	1.6	78.7
삼치	9,163	33,758	1.4	81.8	이빨고기	1,754	39,199	1.6	80.3

주: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 순위는 금액 기준, 소급 포함, 비중과 누적비중은 총 수출액 대비 임.

자료: 수산정보포털(<https://www.fips.go.kr>)

- (상위 15개 수출품종의 순위 변화) 2019년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을 2018년의 순위와 비교해서 보면, 김이 역대 1위를 차지한 참치를 누르고 1위로 등극한 것임
 - 2018년 대비 순위 상승 품목: 김(2위→1위), 대구(14위→7위), 전복(9위→8위), 삼치(15위→9위), 기타 수산물분(순위 외→13위)
 - 2018년 대비 순위하락 품목: 참치(1위→2위), 고등어(7위→11위), 넙치(8위→10위), 이빨고기(10위→15위), 봉장어(11위→12위), 게살(12위→순위권 외), 미역(13위→14위)
- (상위 15개 수출품종 수출액 변화) 2019년 상위 15개 수출 수산물의 수출액은 20.1억 달러로 2018년의 19.5억 달러에 비해 3.1% 늘어남
- 상위 15개 품목 중 수출액이 늘어난 품목은 김, 기타 게, 대구, 기타어류, 어류 가공품, 굴, 미역, 삼치, 기타 수산물분 등임
 - 줄어든 품종은 참치, 고등어, 넙치, 전복, 이빨고기, 봉장어 등임
 - 수출이 줄어든 품종은 고등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대일 수출에 비중이 높은 품종으로 일본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받으면서 2019년 동안 한일 외교 관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참치는 태국의 통조림용 원료 수출과 대일 횡감용 수출이 주요 시장인데, 일본의 참치 횡감 시장 수요 감소가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됨

2) 상위 15개 수입 수산물

- (상위 15개 수입품종의 누적 비중) 2019년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의 누적 비중은 65.8%로 2018년의 66.2%에 비해 약 0.4%p 줄어들어 다소의 수입 품종 다양화 추세를 보였음
- (상위 15개 수출품종의 순위 변화) 2019년 수산물 수입 상위 품종 중에서는 오징어가 1위를 고수하는 가운데, 명태 순위가 내려가는 반면에 고가의 수산물(새우, 바다가재 등)의 순위가 오르고 있음
 - 2018년 대비 순위 상승 품목: 새우(3위→2위), 기타어류(5위→3위), 기타 게(9위→8위), 소금(11위→10위), 바다가재(15위→13위), 어란(순위 외→15위)
 - 2018년 대비 순위하락 품목: 명태(2위→4위), 연어(4위→5위), 참치(8위→9위), 주꾸미(10위→11위), 실뱀장어(13위→순위 외)

- (상위 15개 수입품종 수입액 변화) 2019년 상위 15개 수입 수산물의 수출액은 38.1억 달러로 2018년의 40.5억 달러에 비해 5.9% 감소함
- 상위 15개 품목 중 수입액이 늘어난 품목은 오징어, 기타어류, 기타 게, 소금, 대게이며, 이 외의 상위 15개 품목은 모두 수입액이 감소함
 - 수입액이 줄어든 품종은 새우, 명태, 연어, 낙지, 새우살, 참치, 주꾸미, 바다가재, 조기 등임
 - 수입이 늘어난 품목 중에서 오징어(연근해와 포클랜드 원양산 대체 수입)와 기타 게(꽃게 대체 수입)는 국산 생산량 감소로 인한 대체 효과로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표 2-26> 수산물 상위 15개 수입품목 실적(순위는 금액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품종	2018년				품종	2019년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오징어	141,043	477,748	7.8	7.8	오징어	133,287	421,135	7.3	7.3
명태	253,952	428,736	7.0	14.8	새우	68,564	408,407	7.0	14.3
새우	67,993	421,567	6.9	21.7	기타어류	183,315	373,441	6.4	20.8
연어	38,318	375,155	6.1	27.8	명태	180,354	371,560	6.4	27.2
기타어류	180,905	367,536	6.0	33.8	연어	38,003	362,469	6.3	33.4
낙지	35,598	339,789	5.5	39.4	낙지	31,034	276,642	4.8	38.2
새우살	30,752	274,323	4.5	43.8	새우살	30,937	255,150	4.4	42.6
참치	25,945	256,310	4.2	48.0	기타게	11,673	253,569	4.4	47.0
기타게	9,363	210,389	3.4	51.5	참치	23,871	245,647	4.2	51.2
주꾸미	30,601	189,955	3.1	54.6	소금	4,078,785	166,807	2.9	54.1
소금	4,864,824	162,496	2.7	57.2	주꾸미	27,691	166,302	2.9	57.0
대게	7,434	153,288	2.5	59.7	대게	7,311	156,273	2.7	59.7
실장어	31	140,251	2.3	62.0	바다가재	5,494	123,256	2.1	61.8
조기	27,798	128,291	2.1	64.1	조기	27,450	122,677	2.1	63.9
바다가재	5,865	126,735	2.1	66.2	어란	28,069	109,077	1.9	65.8

주: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 순위는 금액 기준, 소금 포함, 비중과 누적비중은 총 수출액 대비 임.
 자료: 수산정보포털(<https://www.fips.go.kr>)

- 수입이 감소한 품종으로는 새우, 명태, 연어, 낙지, 새우살, 참치, 주꾸미, 바다가재, 조기 등이며, 명태는 러시아 정부의 쿼터 정책 변화로 인해 현지 우리 합작선사의 쿼터 확보가 늦어진 것이 수입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됨
- 낙지는 중국에서의 자원감소로 인해 금어기가 연장되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내로의 수입량 및 수입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됨
- 주꾸미는 주로 베트남산(수입량의 약 75%)이며, 2019년 국산 주꾸미 생산량이 늘면서 산지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함

제4절 수산물 산지 및 도소매 환경 변화

1. 계통 출하

가. 산지 계통(산지 수협)

- 어업별로 계통출하(수협 위판장)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39.9%가 계통 출하를 하고 있음
- (일반해면어업) 일반해면어업의 계통출하율은 2000년대 이후 2013년에 87.9%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 79.9%였음
- (양식어업) 양식어업의 계통출하율은 30% 중반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계통출하비중은 33.7%로 나머지 66.3%가 비계통(사매매 등) 출하임

<표 2-27> 수산물 계통출하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일반해면어업(A)		양식어업(B)		일반해면·양식어업(A+B)		수산업 전체	
	생산량	계통출하율	생산량	계통출하율	생산량	계통출하율	생산량	계통출하율
2000년	1,189	86.8	653	46.8	1,842	72.6	2,514	53.2
2005년	1,097	82.8	1,041	26.2	2,138	55.3	2,714	43.5
2006년	1,109	82.7	1,259	25.6	2,368	52.3	3,032	40.9
2007년	1,152	80.5	1,386	25.0	2,538	50.2	3,275	38.9
2008년	1,285	82.6	1,381	23.1	2,666	51.8	3,361	41.1
2009년	1,227	81.9	1,313	24.3	2,540	52.1	3,182	41.6
2010년(A)	1,133	81.2	1,355	27.1	2,488	51.7	3,111	41.4
2011년	1,235	83.8	1,478	30.7	2,713	54.9	3,256	45.7
2012년	1,091	85.7	1,489	35.9	2,580	57.0	3,183	46.2
2013년	1,045	87.9	1,515	35.0	2,560	56.6	3,135	46.2
2014년	1,059	86.1	1,547	39.0	2,605	58.1	3,304	45.8
2015년	1,058	87.0	1,668	35.7	2,726	55.6	3,337	45.4
2016년	908	87.3	1,872	33.7	2,780	51.2	3,269	43.5
2017년	927	87.3	2,316	28.8	3,243	45.5	3,725	39.6
2018년	1,012	81.8	2,250	34.6	3,261	49.3	3,770	42.4
2019년(B)	915	79.9	2,372	33.7	3,287	46.5	3,830	39.9
5개년 평균	964	84.7	2,096	33.3	3,059	49.6	3,586	42.2
전년대비 증감률	-9.6	-	5.4	-	0.8	-	1.6	-
평년대비 증감률	-7.9	-	22.9	-	12.4	-	10.0	-
연평균증감률(B/A)	-2.3	-	6.4	-	3.1	-	2.3	-

주: 1) 5개년 평균은 2015~2019년 평균, 평년은 2014~2018년 평균을 의미함

2) 수산물 전체는 일반해면어업, 양식어업과 더불어 비계통출하 비중이 높은 원양어업 및 내수면어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원양어업과 내수면어업) 원양어업과 내수면 어업은 거의 대부분이 비계통 출하임
- 특히, 일반해면어업의 계통비율 감소는 계통비율이 높은 대중성 어종의 생산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나. 소비자 계통(법정(공영)도매시장)

- 수산물 소비자 법정(공영)도매시장(강서공판장 제외)에서의 수산부류 취급 물량은 평균 40만 톤 전후를 유지 중이며, 2018년에는 38.4만 톤으로 2017년의 40.0만 톤에 비해 4.0% 감소함
- 거래액은 2018년에 1조 5천억 원 수준이었으며, 2017년의 1조 6천억 원에 비해 6.2% 정도 줄었는데, 장기적으로는 거래액은 늘고 있으며, 이는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됨
- 전체 도매시장 대비 수산부류거래 비중은 지난 5개년 평균 5.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액 비중은 11.1%로 나타남

<표 2-28> 도매시장 수산부류 거래실적 현황

단위: 천 톤, 억 원, %

구분	도매시장 총괄		수산부류		수산부류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0년	6,130	61,549	409	9,019	6.7	14.7
2005년	6,628	85,203	357	10,187	5.4	12.0
2006년	6,743	89,977	354	10,168	5.2	11.3
2007년	6,993	93,230	355	10,176	5.1	10.9
2008년	7,257	97,216	345	10,741	4.8	11.0
2009년	7,142	104,091	384	12,341	5.4	11.9
2010년	6,873	123,196	395	13,657	5.7	11.1
2011년	7,095	116,224	422	14,504	5.9	12.5
2012년	7,124	125,386	429	13,935	6.0	11.1
2013년	7,467	129,456	393	13,261	5.3	10.2
2014년	7,813	122,940	398	14,269	5.1	11.6
2015년	7,716	131,686	410	14,058	5.3	10.7
2016년	7,630	139,362	414	14,731	5.4	10.6
2017년	7,587	137,402	400	16,007	5.3	11.6
2018년	7,393	138,786	384	15,414	5.2	11.1
5개년 평균	7,628	134,035	401	14,896	5.3	11.1
전년대비 증감률	-2.6	1.0	-4.2	-3.7	-1.6	-4.7
평년대비 증감률	-3.3	5.0	-4.8	6.6	-1.6	1.4

주: 5개년 평균은 2014~2018년 평균, 평년은 2013~2017년 평균을 의미함, 강서공판장 물량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2. 수산물 소매

가. 소매업태별

- 주요 수산물 소비 경로 중 하나인 대형소매점은 최근 들어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2019년 대형소매점 업계의 판매액은 전년대비 3.1%, 연평균(2014년 기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19년 편의점 판매액은 2014년부터 연평균 15.1%로 상승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5.3% 증가하여 25조원을 기록함
- 백화점, 대형소매점, 슈퍼마켓, 편의점에서의 수산물 판매액은 통계로 알 수는 없지만, 이들 소매업태의 추세를 봄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산물 혹은 수산식품의 구매 시에 영향을 주는 소매업태를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함
 - 따라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 혹은 수산식품의 소매와 관련하여 대형소매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반면에 슈퍼마켓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표 2-29>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B)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B/A)
백화점	29,096	29,029	29,911	29,324	29,968	30,386	1.4	0.9
대형소매점	47,480	32,778	33,234	33,798	33,454	32,425	-3.1	-7.3
슈퍼마켓	35,853	43,481	44,368	45,593	46,457	44,178	-4.9	4.3
편의점	12,744	16,456	19,481	22,238	24,407	25,692	5.3	15.1

주: 대형소매업은 소매업태임
자료: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각 연도.

나. 온라인 채널

- 식품 소매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최근 온라인 쇼핑 채널의 성장이 매우 가파르다는 점임
 - 온라인 식품시장(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19년에 16조 9천 원이며,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은 2019년에 3조 5,342억 원이었음
 - 이는 2018년 대비 음·식료품 28.0%, 농축수산물 20.2% 증가한 것으로 전 품목 증가세인 19.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농축수산물 판매액은 모바일 쇼핑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인터넷 쇼핑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7.6%인데 반해 모바일쇼핑은 26.8%로 나타남

<표 2-30> 온라인 쇼핑 매체·품목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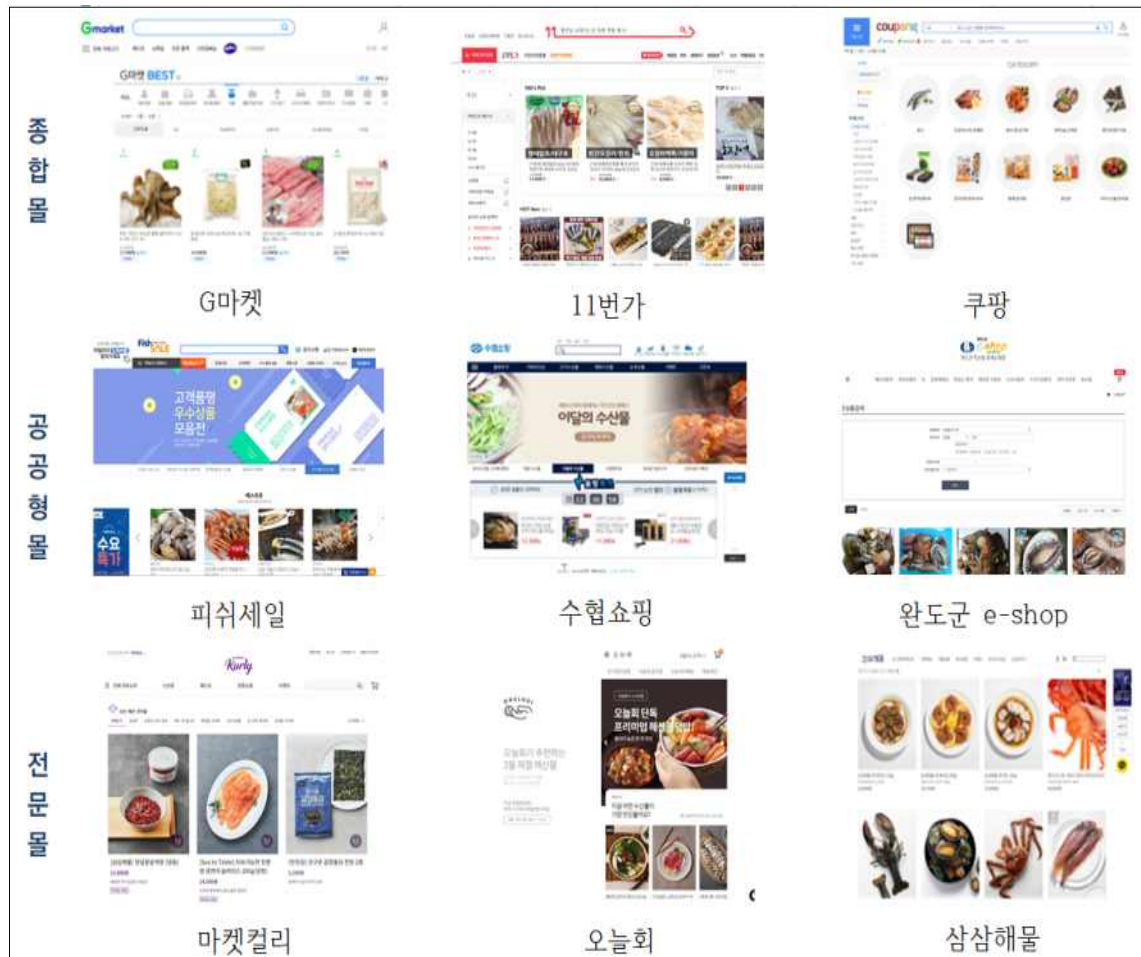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구분	합계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전품목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전품목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전품목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2017년	94,186	7,997	2,425	41,276	3,036	927	52,909	4,962	1,498
2018년	113,314	10,494	2,941	44,109	3,604	1,013	69,205	6,890	1,928
2019년	135,264	13,429	3,534	47,990	4,335	1,090	87,274	9,094	2,444
전년대비 증감	19.4	28.0	20.2	8.8	20.3	7.6	26.1	32.0	26.8

자료: 통계청, 온라인 쇼핑몰 판매매체별/상품군별거래액. 각 연도

- 온라인 식품 거래가 확산되면서, 수산 분야에서도 원물(냉장), 냉동, 가공, 회, 조리식품 등 여러 형태의 품목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온라인 종합 쇼핑몰 외에도 식품 전문몰 및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이 구축한 온라인몰이 출현하면서 수산물 온라인 판매 채널이 다양화 됨

<그림 2-13> 온라인 쇼핑몰별 수산부문 페이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동향분석 제 167호, 2020.03.31

3. 수산가공품 원료조달

- 국내 수산가공업체가 국산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사용량 기준으로 64.7%, 금액 기준으로는 62.8%임
 - (사용량 기준) 국산 원료의 사용량은 2018년에 64.7%로 2016년의 63.8%에 비해 0.9%p 늘어남(44만 톤에서 49만 톤으로 5만 톤 증가)
 - (구매액 기준) 국산 원료의 구매액 비중은 동기간에 9,843억 원에서 1조 2,186억 원으로 23.8% 증가(액수로는 2,352억 원 증가)
- 국산 원료 구매액이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20% 이상 증가한 이유는 마른김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료의 공급 부족에 따른 원료가격 상승에서 기인함

- 특히, 생산 불안정성이 큰 어획품종인 오징어, 명태 등은 국내 공급만으로는 원료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오징어는 상반기 원양(포클랜드 등)과 하반기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이 원료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이나 최근 들어서 오징어의 조황이 국내외 모두 좋지 못한 상황임

<표 2-31>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수산물 원료사용 비중 현황(2018년 기준)

(단위: 톤, %, 백만원)

구분	사용량				구매금액		
	총량	국산	수입산	국산비중	총액	국산	국산비중
천일염	88,078	54,380	33,698	61.7	90,288	32,678	36.2
명태(동태, 황태)	29,656	445	29,211	1.5	130,927	3,883	3.0
(물)오징어	105,144	66,694	38,450	63.4	518,849	352,535	67.9
김(원초)	215,296	215,296	0	100.0	244,989	244,989	100.0
마른김	43,360	43,360	0	100.0	476,380	476,380	100.0
정제소금	118,689	92,281	26,408	77.8	75,493	62,194	82.4
어육살	137,811	14,381	123,430	10.4	307,940	27,820	9.0
어류부산물	21,750	4,706	17,044	21.6	95,579	18,126	19.0
합계	759,783	491,543	268,240	64.7	1,940,444	1,218,604	62.8

주: 1)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는 전년도 기준임

2) 통계수치는 소수점 단위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내용과 총계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2019.12.

<표 2-32> 식품제조업체의 수산물 원료 국산 사용 비중(2016년 기준)

(단위: 톤, %, 백만원)

구분	사용량				구매금액		
	총량	국산	수입산	국산비중	총액	국산	국산비중
천일염	103,005	62,328	40,677	60.5	68,745	44,246	64.4
명태(동태, 황태)	28,668	2,122	26,547	7.4	66,915	6,961	10.4
(물)오징어	100,985	57,169	43,815	56.6	270,204	168,554	62.4
김(원초)	167,741	167,741	0	100.0	172,559	172,559	100.0
마른김	39,092	39,092	0	100.0	502,160	502,160	100.0
정제소금	110,322	97,793	12,529	88.6	59,607	53,476	89.7
어육살	125,594	11,419	114,175	9.1	260,862	23,449	9.0
어류부산물	17,565	4,425	13,141	25.2	66,436	12,032	18.1
소계	692,971	442,088	250,883	63.8	1,467,487	983,436	67.0

주: 1)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는 전년도 기준임

2) 통계수치는 소수점 단위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내용과 총계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2017.12.

- 명태는 러시아 쿼터 및 한·러 합작선사의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데, 쿼터 배분 방식의 변화로 국적선사 조업이 활발하지 못한 점과, 국내 가공업체들이 코다리 등 러시아 선사들이 주로 취급하지 않는 크기의 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산 원료를 조달받는 경로를 살펴보면, 천일염은 산지 구매 비중이 14.4%, 오징어는 44.2%, 김(원초)은 80.1%, 마른김 62.7% 등임
- 중간도매/벤더 조달 비중이 높은 품목은 정제소금 68.4%, 천일염 46.8%임
- 명태와 어육살의 경우 원료제조업체로부터 조달받는 비중이 전체의 84.0%, 52.8%로 나타남

<표 2-33> 식품제조업체의 수산물 국산 원료 조달경로(2018년 기준)

구분	산지 직구매							도매시장	수산물유통센터	재래시장	중간도매/벤더	원료제조업체	원청업체	기타	합계
	자체생산	산지유통시설	개별어가	어업법인	산지수집상	기타	소계								
천일염	2.1	4.7	2.9	2.3	2.3	0.2	14.4	17.3	4.8	7.5	46.8	6.7	1.9	0.6	100
명태	-	-	-	1.4	-	-	1.4	-	3.2	-	11.4	84.0	-	-	100
오징어	-	20.9	-	0.9	14.2	8.2	44.1	7.5	13.6	16	13.1	5.7	-	-	100
김(원초)	7	40.3	23.5	1.2	3.5	4.6	80.1	9.3	0.6	-	7.4	0.5	1.6	0.5	100
마른김	0.7	11.7	12.7	15.7	18.5	3.5	62.7	0.5	0.1	-	9.0	26.8	0.8	0.1	100
정제소금	-	0.6	-	4.7	-	4.3	9.6	2.5	1.6	0.1	68.4	14.7	2.1	1	100
어육살	-	-	-	-	1.6	7.9	9.5	0.8	5.1	-	23.5	52.8	-	8.2	100
어류부산물	-	-	-	-	-	-	-	67.4	27.0	-	3	2.6	-	-	100

주: 1)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는 전년도 기준임

2) 통계수치는 소수점 단위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내용과 총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2019.12.

<표 2-34> 식품제조업체의 수산물 국산 원료 조달경로(2016년 기준)

단위: %

구분	산지 직구매							도매시장	수산물유통센터	재래시장	중간도매/벤더	원료제조업체	원청업체	기타	합계
	자체생산	산지유통시설	개별어가	어업법인	산지수집상	기타	소계								
천일염	0.2	3.3	0.5	1.1	9.1	0.1	14.2	5.8	8.9	1.2	54.6	14.2	0.9	0.1	100
명태	0	3.8	0	0	25.4	33.7	62.9	5	0	0	2.8	29.3	0	0	100
오징어	0.4	12	0	1.5	16.5	14.4	44.8	15.1	5.8	0	31.7	0.8	0.3	1.5	100
김(원초)	26.2	29	17.8	4.3	13.3	1.6	92.3	0.8	6.9	0	0	0	0	0	100
마른김	1.1	15.5	1.4	11.2	8.4	0.9	38.5	8.8	3.2	0	11.9	35.6	0.9	1.1	100
정제소금	0.4	0.6	2.7	0.2	5.8	0.3	10	5.3	3.5	0.9	61.4	16.5	1.2	1.2	100
어육살	0	0	0	0	0	0	0	0	0	0	98.5	1.5	0	0	100
어류부산물	0	20.7	0	0	3.6	0	24.4	24.8	5	0	21.5	24.3	0	0	100

주: 1)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는 전년도 기준임

2) 통계수치는 소수점 단위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내용과 총계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2017.12.

■ 제3장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부문별 실태

제1절 수산물 수급현황

제2절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

제3절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제3장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부문별 실태

제1절 수산물 수급현황

1. 수산물 수급의 이론적 배경

- 현행 식품수급표를²⁹⁾ 기반으로 공급 및 수요측면의 세부 항목별 구성과 총공급, 총수요, 자급률이 도출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음
 - 생산, 수입, 수출, 재고(이입 및 이월)는 각종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집계되는 반면, 국내소비는 ‘수요=공급’이라는 항등식 관계를 통해 추정됨
 - 국내 생산, 수입, 이입재고를 합한 연간 총공급량에서 이월재고, 수출, 사료·종자·감모·가공용으로 이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것이 식용공급량임³⁰⁾
 - 식용공급량에서 통상 비가식 부위³¹⁾로 폐기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사람이 섭취하는 ‘순식용 공급량’이 도출되며, ‘순식용 공급량’이라는 용어가 다소 직관성이 떨어져 편의상 ‘수산물 소비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순식용 공급량’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임
 - 총공급 = 총수요의 항등식 관계에 따라 ‘국내소비량³²⁾ = 총공급량 - 수출 - 이월’로 계산됨
 - 앞서 유도된 식에 따라 ‘총공급량 = 식용공급량+이월+수출+사료+종자 +감모+가공용’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국내소비량 = 식용공급량+사료+종자 +감모+가공용’이 유도됨
 - 따라서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용 수산물뿐만 아니라 비식용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30) 현재 식품수급표에는 식용공급량 산정 과정에서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으로 유통되는 물량을 0으로 처리하고 있음. 실제 사료용, 종자용 수산물 이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식품수급표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1) 비가식 부위는 통상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머리, 뼈, 내장 등)를 의미하며, 가식부분 중에 손상되거나 병충해를 입은 부분 등 고유의 품질이 변질되었거나 제조 공정 중 부적절한 가공처리로 손상된 부분을 포함을 의미함

32) 국내소비량은 영어로 Domestic Supply로 표기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국내로 공급된 양”을 의미하며, 이 국내공급량이 모두 소비되었다는 가정 하에 국내소비량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내 소비용 공급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총공급과 총수요의 세부 항목이 유도되면, 이를 토대로 해당 식품의 자급률(= 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100)이 도출됨

<그림 3-1> 식품수급의 구조 및 자급률 도출 과정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생산	수입	이입	총공급량	이월	수출	사료	종자	감모	가공용		식용공급량	폐기율	순식용공급량
									식용	비식용			
↓				↓									
총공급 = 생산 + 수입 + 이입				식용공급량 = 총공급량 - (이월+수출+사료+종자+감모+가공용) 순식용공급량 = 식용공급량에 폐기율 적용하여 산출 국내소비량 = 식용공급량+가공용+사료용+종자용+감모용 총수요 = 국내소비량+수출+이월 ※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순식용공급량 / 우리나라 전체 인구									
				↓									
총공급량 생산량 (연근해, 양식, 원양) 수입량 재고 (이입) = 총수요량 국내소비량 (추정치) 수출량 재고 (이월)													
				↓									
자급률(%) = 국내생산량 / 국내소비량 ×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를 바탕으로 작성.

2. 수산물 생산 현황

- 1970~2019년의 약 50년간 우리나라의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역사적 특징이 있음
 - 1970년대: 일반해면어업 중심의 수산물 생산
 - 1980년대: 기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을 중심으로 양식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의 증가
 - 1990년대: 일반해면어업 생산 중심에서 양식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 급성장
 - 2000년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의 감소와 양식어업 생산량 급증
 - 2010년대: 양식어업 생산량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 생산은 과거에 비해 저미에서 보합세 유지

- 2019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잠정치)은 383만 톤으로 2018년 대비 1.5%(6만 톤) 증가
 - (일반해면어업) 2019년 91.5만 톤으로 2018년의 101.2만 톤에 비해 약 10만 톤(9.9%)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양식어업) 2019년 237.2만 톤으로 2018년의 225.0만 톤에 비해 12.2만 톤(5.4%)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음
 - (원양어업) 2019년 50.8만 톤으로 2018년의 47.4만 톤에 비해 3.4만 톤(7.1%) 증가함
 - (내수면어업) 2019년 약 35천 톤으로 201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함

<표 3-1>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총 생산량		일반해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1970년	934	100.0	724	77.6	119	12.8	90	9.6	0	0.0
1980년	2,408	100.0	1,370	56.9	541	22.4	458	19.0	39	1.6
1990년	3,198	100.0	1,472	46.0	773	24.2	919	28.7	34	1.1
2000년	2,514	100.0	1,189	47.3	653	26.0	651	25.9	21	0.8
2010년	3,111	100.0	1,133	36.4	1,355	43.6	592	19.0	31	1.0
2011년	3,256	100.0	1,235	37.9	1,478	45.4	511	15.7	32	1.0
2012년	3,183	100.0	1,091	34.3	1,489	46.8	575	18.1	28	0.9
2013년	3,135	100.0	1,045	33.3	1,515	48.3	550	17.5	25	0.8
2014년	3,305	100.0	1,059	32.0	1,547	46.8	669	20.2	30	0.9
2015년	3,337	100.0	1,058	31.7	1,668	50.0	578	17.3	33	1.0
2016년	3,269	100.0	908	27.8	1,872	57.3	454	13.9	35	1.1
2017년	3,725	100.0	927	24.9	2,316	62.2	446	12.0	36	1.0
2018년	3,770	100.0	1,012	26.8	2,250	59.7	474	12.6	35	0.9
2019년	3,830	100.0	915	23.9	2,372	61.9	508	13.3	35	0.9
5개년 평균	3,586	-	964	-	2,096	-	492	-	35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개년(2015~2019년) 일반해면어업의 품종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멸치, 고등어, 살오징어, 갈치, 삼치류 등의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음
- 일반해면어업의 상위 10대 품종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를 주도하였고, 특히 2019년 살오징어, 붉은대게의 생산량은 2015년 대비 60%이상 감소함
- 일반해면어업 전체 생산량 중 상위 10대 품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69.1%에서 2019년 58.7%로 감소하여 10%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 일반해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 위	품종명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5개년 평균	증감률 (B/A)	전년대비 증감률
1	멸치	211,574	140,958	210,943	188,684	171,677	184,767	-18.9	-9.0
2	고등어	131,735	133,200	103,870	141,530	101,121	122,291	-23.2	-28.6
3	살오징어	155,743	121,691	87,024	46,274	51,817	92,510	-66.7	12.0
4	갈치	41,049	32,331	54,481	49,450	43,479	44,158	5.9	-12.1
5	삼치류	37,872	35,886	38,306	32,089	37,841	36,399	-0.1	17.9
6	전갱이류	43,362	21,620	21,294	27,050	43,053	31,276	-0.7	59.2
7	붉은대게	41,647	36,180	29,686	20,344	15,874	28,746	-61.9	-22.0
8	망치고등어	8,889	22,244	11,390	74,403	20,252	27,436	127.8	-72.8
9	청어	25,903	24,207	32,519	24,035	25,771	26,487	-0.5	7.2
10	참조기	33,254	19,271	19,398	23,274	25,741	24,188	-22.6	10.6
1~10위 소계(C)		731,028	587,588	608,911	627,133	536,626	618,257	-26.6	-14.4
일반해면어업 생산량(D)		1,058,319	907,580	926,941	1,011,536	914,570	963,789	-13.6	-9.6
비중(C/D)		69.1	64.7	65.7	62.0	58.7	64.1	-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3-3> 천해양식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위	품종명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5개년 평균	증감률 (B/A)	전년대비 증감률
1	다시마류	442,637	433,246	542,285	572,600	662,557	530,665	49.7	15.7
2	김류	386,646	409,408	523,648	567,162	606,873	498,747	57.0	7.0
3	미역류	333,061	496,290	622,613	515,666	494,947	492,515	48.6	-4.0
4	굴류	265,146	268,841	315,255	303,183	326,190	295,723	23.0	7.6
5	홍합류	51,642	54,642	76,161	49,485	51,560	56,698	-0.2	4.2
6	넙치류	45,759	41,620	41,207	37,241	43,320	41,829	-5.3	16.3
7	돔	28,157	32,762	54,624	36,170	33,477	37,038	18.9	-7.4
8	우렁챙이	21,326	31,353	26,273	37,312	26,040	28,461	22.1	-30.2
9	조피볼락	18,774	18,032	22,344	22,702	20,348	20,440	8.4	-10.4
10	바지락	10,276	14,566	10,435	19,853	22,254	15,477	116.6	12.1
1~10위 소계(C)		1,603,424	1,800,760	2,234,845	2,161,374	2,287,566	2,017,594	42.7	5.8
천해양식어업 생산량(D)		1,667,872	1,872,400	2,315,775	2,249,605	2,371,999	2,095,530	42.2	5.4
비중(C/D)		96.1	96.2	96.5	96.1	96.4	96.3	-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천해양식어업의 수산물 품종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시마, 김, 미역, 굴, 홍합, 넙치 등의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는데, 이중에서 다시마는 주로 전복먹이용으로 생산하고 있음
- 다시마, 김, 미역, 굴 등 주요 품종의 생산량 증가로 2019년도 상위 10대 품목의 생산량은 2015년 대비 42.7% 증가하였으며, 생산 비중은 지난 5년간 96%대를 유지하고 있어 천해양식어업 전체 생산량 증가 추세를 견인하고 있음
- 한편, 2019년 미역, 돔, 우렁챙이, 조피볼락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넙치 생산량은 5년전과 비교하여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 위	품종명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5개년 평균	증감률 (B/A)	전년대비 증감률
1	가다랑어	238,732	244,303	204,123	246,719	286,450	244,065	20.0	16.1
2	황다랑어	52,940	60,594	66,189	43,510	56,707	55,988	7.1	30.3
3	오징어류	150,835	20,032	47,028	35,074	19,940	54,582	-86.8	-43.1
4	남빙양크릴	20,264	23,073	34,506	36,005	42,864	31,342	111.5	19.1
5	명태	20,012	20,123	23,497	23,993	23,915	22,308	19.5	-0.3
6	눈다랑어	22,398	22,057	20,842	23,571	22,496	22,273	0.4	-4.6
7	꽁치	11,204	16,962	14,801	23,701	8,375	15,009	-25.2	-64.7
8	민대구류	5,996	3,666	5,124	8,312	13,567	7,333	126.3	63.2
9	전갱이류	6,981	6,766	1,300	4,289	7,444	5,356	6.6	73.6
10	기타어류	7,357	4,412	4,468	5,765	2,724	4,945	-63.0	-52.7
1~10위 소계(C)		536,719	421,988	421,878	450,939	484,482	463,201	-9.7	7.4
원양어업 생산량(D)		578,137	454,053	445,726	473,589	507,883	491,878	-12.2	7.2
비중(C/D)		92.8	92.9	94.6	95.2	95.4	94.2	-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5~2019년 원양어업의 수산물 품종별 생산량 순위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오징어, 남빙양크릴, 명태, 눈다랑어 등의 순임
- 원양어업 생산량에서 가장 많은 가다랑어는 5년 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황다랑어, 남빙양크릴, 명태, 민대구류 등의 품목도 동기간 생산량이 증가함
- 오징어 생산량은 2015년 15만 톤 수준에서 2019년 1만 9천톤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지난 5년간 생산량 합계에서는 3번째로 높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6번째에 위치함

- 최근 5년 동안 내수면어업의 연간 생산량은 3만 톤 내외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순위를 집계한 결과, 뱀장어가 1만 3백 톤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기, 왕우렁이, 송어류, 붕어, 향어 등의 순으로 집계됨

- 총 10개 품종의 생산량은 내수면어업 총 생산량의 84.6%를 차지함

<표 3-5> 내수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 위	품종명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5개년 평균	증감률 (B/A)	전년대비 증감률
1	뱀장어	9,089	9,904	11,144	10,589	10,942	10,334	20.4	3.3
2	메기	4,267	4,953	5,330	4,846	4,269	4,733	-	-11.9
3	왕우렁이	-	4,270	4,516	5,823	5,379	3,998	0.0	-7.6
4	송어류	3,064	3,066	3,358	3,179	3,285	3,190	7.2	3.3
5	붕어	1,960	1,714	1,657	1,946	2,057	1,867	4.9	5.7
6	향어	1,419	1,724	1,658	1,579	1,523	1,581	7.3	-3.5
7	잉어	1,269	1,370	991	905	1,125	1,132	-11.3	24.3
8	재첩	1,457	1,488	1,004	656	496	1,020	-66.0	-24.4
9	논우렁이	3,997	489	191	24	63	953	-98.4	162.5
10	기타어류	1,014	988	801	569	855	845	-15.7	50.3
1~10위 소계(C)		27,536	29,966	30,650	30,116	29,994	29,652	8.9	-0.4
내수면어업 생산량(D)		33,055	35,400	36,270	35,326	35,255	35,061	6.7	-0.2
비중(C/D)		83.3	84.6	84.5	85.3	85.1	84.6	-	-0.2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3. 수산물 수출입 현황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과 농수산물식품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수출은 2015년 대비 2.9%, 농림수산물식품 18.7%, 농산물 17.8% 증가하였으며, 수산물은 30.1% 증가로 농림수산물식품류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수산물 수출이 농림수산물식품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4.0%였으나,

2019년에는 26.3%로 비중이 2.3%p 증가하였음

-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은 2015년 대비 15.3% 증가한 가운데, 농림수산물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개별 품목으로는 동기간 농산물 11.0%, 축산물 35.9%, 수산물 27.1% 증가함
- 수산물 수입이 농림수산물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1%였으나, 2019년에는 14.4%로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음

<표 3-6> 식품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불, %

구분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5개년 평균	증감률 (B/A)	전년대비 증감률
수 출	우리나라 전체	526,757	495,426	573,694	604,860	542,233	548,594	2.9	-10.4
	농림수산물(C)	8,028.4	8,592.6	9,153.4	9,300.3	9,531.2	8,921.2	18.7	2.5
	농산물	5,220.6	5,581.2	6,046.6	5,984.6	6,148.3	5,796.3	17.8	2.7
	축산물	496.8	458.4	341.4	417.5	460.7	434.9	-7.3	10.4
	임산물	386.6	425.4	438.5	523.7	418.7	438.6	8.3	-20.0
	수산물(D)	1,924.4	2,127.6	2,326.9	2,374.6	2,503.5	2,251.4	30.1	5.4
	비중(D/C)	24.0	24.8	25.4	25.5	26.3	25.2	-	-
수 입	우리나라 전체	436,499	406,193	478,478	535,202	503,343	471,943	15.3	-6.0
	농림수산물(E)	34,776.7	34,462.4	37,555.4	41,421.5	40,092.7	37,661.7	15.3	-3.2
	농산물	17,901.6	17,666.4	18,593.5	19,903.2	19,876.0	18,788.1	11.0	-0.1
	축산물	5,728.9	5,806.9	6,603.4	7,522.1	7,786.0	6,689.4	35.9	3.5
	임산물	6,591.7	6,199.6	7,096.6	7,876.7	6,642.9	6,881.5	0.8	-15.7
	수산물(F)	4,554.5	4,789.6	5,261.8	6,119.4	5,787.8	5,302.6	27.1	-5.4
	비중(F/E)	13.1	13.9	14.0	14.8	14.4	14.0	-	-

주: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 2019년 기준 국가별 수산물 수출실적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이 85.8%를 차지함

<표 3-7> 국가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5개년 평균	증감률 (B/A)	전년대비 증감률
1 일본	664,677	737,015	771,570	760,266	731,421	732,990	10.0	-3.8
2 중국	313,149	376,962	373,349	390,736	522,722	395,384	66.9	33.8
3 미국	231,763	241,261	279,610	278,047	297,125	265,561	28.2	6.9
4 태국	139,953	179,833	238,639	225,628	201,185	197,047	43.8	-10.8
5 베트남	89,295	97,319	106,239	137,453	157,764	117,614	76.7	14.8
6 홍콩	52,570	58,358	52,303	52,804	60,396	55,286	14.9	14.4
7 프랑스	45,889	47,535	62,721	52,444	46,001	50,918	0.2	-12.3
8 대만	34,810	36,293	50,972	57,433	57,164	47,334	64.2	-0.5
9 이탈리아	25,096	38,660	46,060	39,744	36,967	37,306	47.3	-7.0
10 캐나다	28,116	29,668	34,306	35,337	38,371	33,159	36.5	8.6
소계(C)	1,625,318	1,842,904	2,015,769	2,029,893	2,149,115	1,932,600	32.2	5.9
수산물 수출(D)	1,924,370	2,127,590	2,326,948	2,374,560	2,503,457	2,251,385	30.1	5.4
비중(C/D)	84.5	86.6	86.6	85.5	85.8	85.8	-	-

주: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 국가별 수산물 수입액은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미국, 노르웨이 순으로 높았으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비중은 77.5%를 차지함

<표 3-8> 국가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5개년 평균	증감률 (B/A)	전년대비 증감률
1 중국	1,156,906	1,225,984	1,240,352	1,514,759	1,331,268	1,293,854	15.1	-12.1
2 러시아	705,400	700,461	864,209	912,914	923,984	821,394	31.0	1.2
3 베트남	582,901	621,080	745,495	857,025	801,669	721,634	37.5	-6.5
4 노르웨이	219,086	299,967	338,817	411,148	421,689	338,141	92.5	2.6
5 미국	247,101	243,692	246,690	279,319	270,596	257,480	9.5	-3.1
6 태국	172,010	149,800	169,655	180,815	143,433	163,143	-16.6	-20.7
7 칠레	145,514	135,524	158,280	199,925	132,432	154,335	-9.0	-33.8
8 일본	119,352	144,052	144,437	147,259	136,009	138,222	14.0	-7.6
9 페루	108,115	95,212	111,420	172,969	216,604	140,864	100.3	25.2
10 대만	102,553	99,643	106,626	117,243	107,069	106,627	4.4	-8.7
소계(C)	3,558,938	3,715,416	4,125,982	4,793,376	4,484,754	4,135,693	26.0	-6.4
수산물 수입(D)	4,554,534	4,789,578	5,261,807	6,119,441	5,787,823	5,302,636	27.1	-5.4
비중(C/D)	78.1	77.6	78.4	78.3	77.5	78.0	-	-

주: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4. 수산물 재고 현황

- 현재 수산물 수급통계 산정 시 이용되는 재고(이입·이월) 통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계하는 ‘냉동선어류 입출하 동향’ 조사에 근거함
- 고등어(식용), 명태, 조기, 갈치(국내산, 수입산), 오징어(연안산, 원양산), 꽁치, 전갱이, 삼치, 꽃게, 마른멸치, 병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종은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현재 전국 14개 분기별 1회씩 240개의 수산물 냉동보관창고를 대상으로 전화나 FAX조사를 수행 중임

<표 3-9> 수산물 재고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톤, %

구분		2015년(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B)	5개년 평균	증감률 (B/A)	전년대비 증감
고등어	식용	97,267	75,814	50,309	68,722	49,656	68,354	-48.9	-27.7
명태		110,099	102,962	99,399	104,343	67,946	96,950	-38.3	-34.9
조기		21,412	22,962	14,322	15,014	18,798	18,502	-12.2	25.2
갈치	국내산	4,918	7,075	7,203	6,956	4,174	6,065	-15.1	-40.0
	수입산	9,673	12,077	12,489	10,374	6,304	10,183	-34.8	-39.2
오징어	연안산	68,173	18,716	15,073	15,972	16,747	26,936	-75.4	4.9
	원양산	83,738	22,457	22,192	27,809	23,558	35,951	-71.9	-15.3
꽁치		56,684	41,519	42,303	45,630	26,302	42,488	-53.6	-42.4
전갱이		3,180	1,292	653	2,309	1,380	1,763	-56.6	-40.2
삼치		11,702	10,393	8,429	10,444	12,528	10,699	7.1	20.0
꽃게		13,614	15,853	13,242	14,973	14,362	14,409	5.5	-4.1
마른멸치		3,059	2,077	1,428	2,320	2,023	2,181	-33.9	-12.8
기타		283,831	277,597	266,074	279,935	296,080	280,703	4.3	5.8
병어		-	-	-	-	164	-	-	-
합계		767,350	610,794	553,116	604,802	540,021	615,217	-29.6	-10.7

주: 1) 병어는 2019년 2분기(6월 30일)부터 재고현황이 집계됨

2) 2015~2016년 품목별 재고량 자료는 2018년 수산물 유통실태조사(p. 38)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기타는 전체 합계에서 본 표에서 제시된 재고량을 제외한 값임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입출하동향, 2019년 12월 31일 기준.

- 최근 5년간 수산물 품종별 재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4분기 수산물 재고 현황은 54만 톤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어획량 감소세의 영향으로 재고 규모도 줄어들고 있음
 - 삼치, 꽃게를 제외한 고등어, 명태, 조기, 갈치, 오징어 등 주요 대중성 품종의 2019년도 재고량은 2015년 대비 감소함

5. 수산물 감모·폐기 현황

- 감모란 “총공급량 가운데 생산에서 조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에서 손실된 양”을 의미하며, 식품수급표에서는 어패류, 해조류 모두 일괄적으로 5%로 적용되고 있음³³⁾
- 폐기율은 “식용 공급량 중 통상 비가식 부분으로 폐기하는 양의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 2017년 식품수급표 상에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식품성분표를 참조하여 어류, 패류, 해조류 품종별로 폐기율을 제시하고 있음³⁴⁾

<표 3-10> 식품별 감모율표

단위: %

식품별	2017년 식품수급표 명시 식품별 감모율		
	식용공급량에 대한 감모율	생산량에 대한 감모율	이입·수입량에 대한 감모율
설탕류	1	-	-
건과류	2.5	-	-
종실류	2.5	-	-
육류	2	-	-
계란류	2	-	-
우유류	1	-	-
어패류	5	-	-
해조류	5	-	-
식물성 유지류	1	-	-
동물성 유지류	1	-	-

주: 식용공급량=총공급량-(이월+수출+사료+종자+가공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식품수급표」, 2019. 6

33) 식품수급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폐기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34) 식품성분표 자료가 과거 1970~80년대 조사치가 많고, 해외 자료를 인용한 수치도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6. 수산물 수급 현황³⁵⁾

- 수산물 국내생산은 1987년 372만 톤을 정점으로 하락하였지만 2000년대 양식업의 성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0년대 초중반까지 정체된 국내생산은 최근 증가세를 보임
 - 국내소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수출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입은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2018년 수산물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674만 톤이었으며, 국내 소비량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512만 톤을 기록함
 - 2014~2018년 수산물 공급량은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물 생산량과 수입량이 연평균 각각 3.5%, 4.4% 증가하였음

<표 3-11> 연도별 수산물 수급현황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공급			총공급량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1990년	3,275	380	276	3,931	2,583	1,058	290	126.8
1995년	3,348	949	463	4,759	3,216	1,172	372	104.1
2000년	2,503	1,419	586	4,508	2,705	1,292	510	92.5
2005년	2,714	2,062	531	5,307	3,947	848	512	68.8
2010년	3,111	1,938	330	5,379	3,990	1,035	354	78.0
2014년(A)	3,305	2,259	394	5,958	4,541	949	468	72.8
2015년	3,337	2,379	468	6,184	4,605	1,071	508	72.5
2016년	3,270	2,413	481	6,163	4,582	1,250	331	71.4
2017년(B)	3,725	2,529	331	6,585	5,137	1,162	286	72.5
2018년(C)	3,791	2,688	265	6,744	5,128	1,293	323	73.9
전년대비 증감률(C/B)	1.8	6.3	-19.9	2.4	-0.2	11.3	12.9	2.0
연평균 증감률(C/A)	3.5	4.4	-9.4	3.1	3.1	8.0	-8.9	0.4

주: 1) 수출입은 원어 환산량이며, 소금은 제외하고 집계함

2) 자급률은 국내생산량 / 국내소비량 × 100(%)으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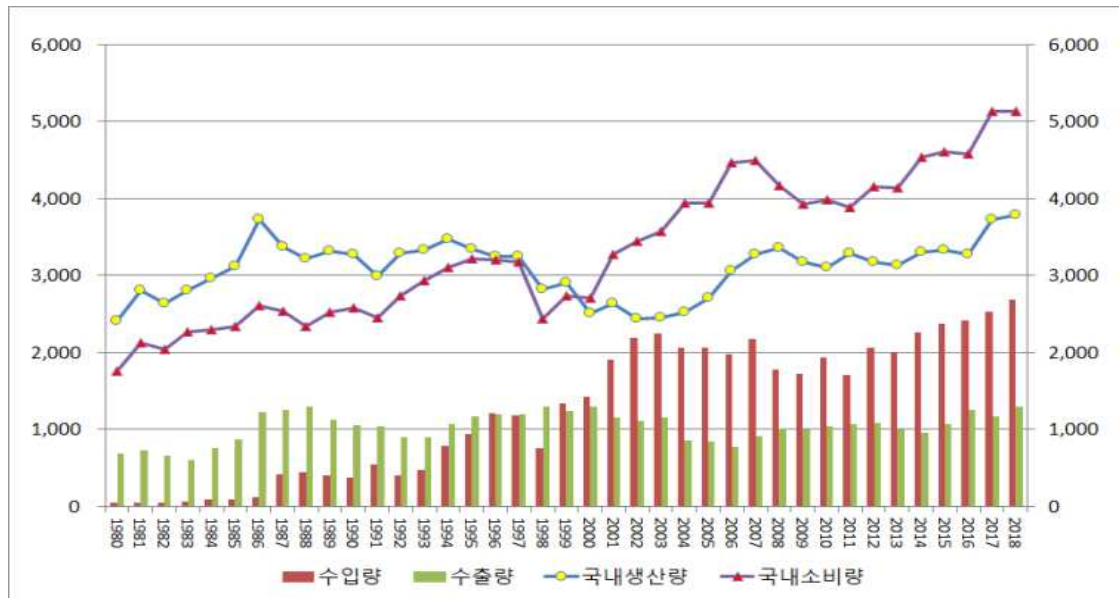
3) 2018년 수급은 KMI가 자체 집계한 추정치로, 향후 확정치 공표 시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35) 본 연구에서는 2017년까지의 자료는 식품수급표를 활용하였으며, 2018년 이후의 자료는 “2020 KMI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제2부 수산(자료집)” 및

<그림 3-2> 수산물 수급(생산-소비-수출입)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및 연구진 추정치

- 2018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 추정량은 2017년 65.9kg에서 소폭 감소한 65.6kg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66.9kg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³⁶⁾
- 2018년 수산물 자급률은 73.9%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72.5%를 기록함³⁷⁾

<표 3-12> 연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동향

단위: 천 톤, %

연도	수산물 소비량	수산물 자급률	연도	수산물 소비량	수산물 자급률
2000년	36.7	92.6	2016년	57.4	71.4
2005년	49.5	68.8	2017년	65.9	72.5
2010년	51.2	78.0	2018년	65.6	73.9
2014년	58.5	72.8	2019년(전망)	66.9	73.8
2015년	57.1	72.5	2020년(전망)	66.9	73.3

주: 수산물 소비량은 수산물 순식용공급량임

자료: 1) 2000~2017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2) 2018년은 KMI 자체 추정치, 2019~2020년은 “2020 KMI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제2부 수산(자료집)”. p.29

3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KMI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제2부 수산(자료집)”. p.29

37) 2018년 수급은 KMI가 자체 집계한 추정치로, 향후 확정치 공표 시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019년 주요 품종별(7개)³⁸⁾의 수급 현황은 <표 3-13>와 같음
 - 고등어: 2018년 대비 생산은 감소한 가운데 소비량은 증가하여 2019년 자급률은 86.0%를 기록, 2018년 144.7%에서 크게 하락함³⁹⁾
 - 명태: 2000년대 초 이후부터 연근해에서의 어획이 급감하면서 명태 수급은 원양산 생산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2019년 자급률은 6.4%에 불과함
 - 오징어: 2015년 이후 동해안 살오징어와 포클랜드 해역의 원양오징어 생산이 급격히 줄면서 자급률도 감소추세로 2019년 자급률은 23.5%로 하락했음
 - 갈치: 2019년 자급률은 70.9%로, 2018년 대비 국내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함
 - 참조기: 2017년 이후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는 감소세로 2019년 자급률은 52.6%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임
 - 양식전복: 전복은 국내 생산과 소비의 증감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2012~2019년간 자급률은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자급률은 102.2%임
 - 양식넙치: 자급률은 매해 100%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9년 자급률은 106.6%임

38) 주요 품종은 대중성품종 5개종과 넙치, 전복을 포함

39) 고등어 수치는 망치고등어를 제외한 값임

<표 3-13> 조사대상 7개 품종의 수급 현황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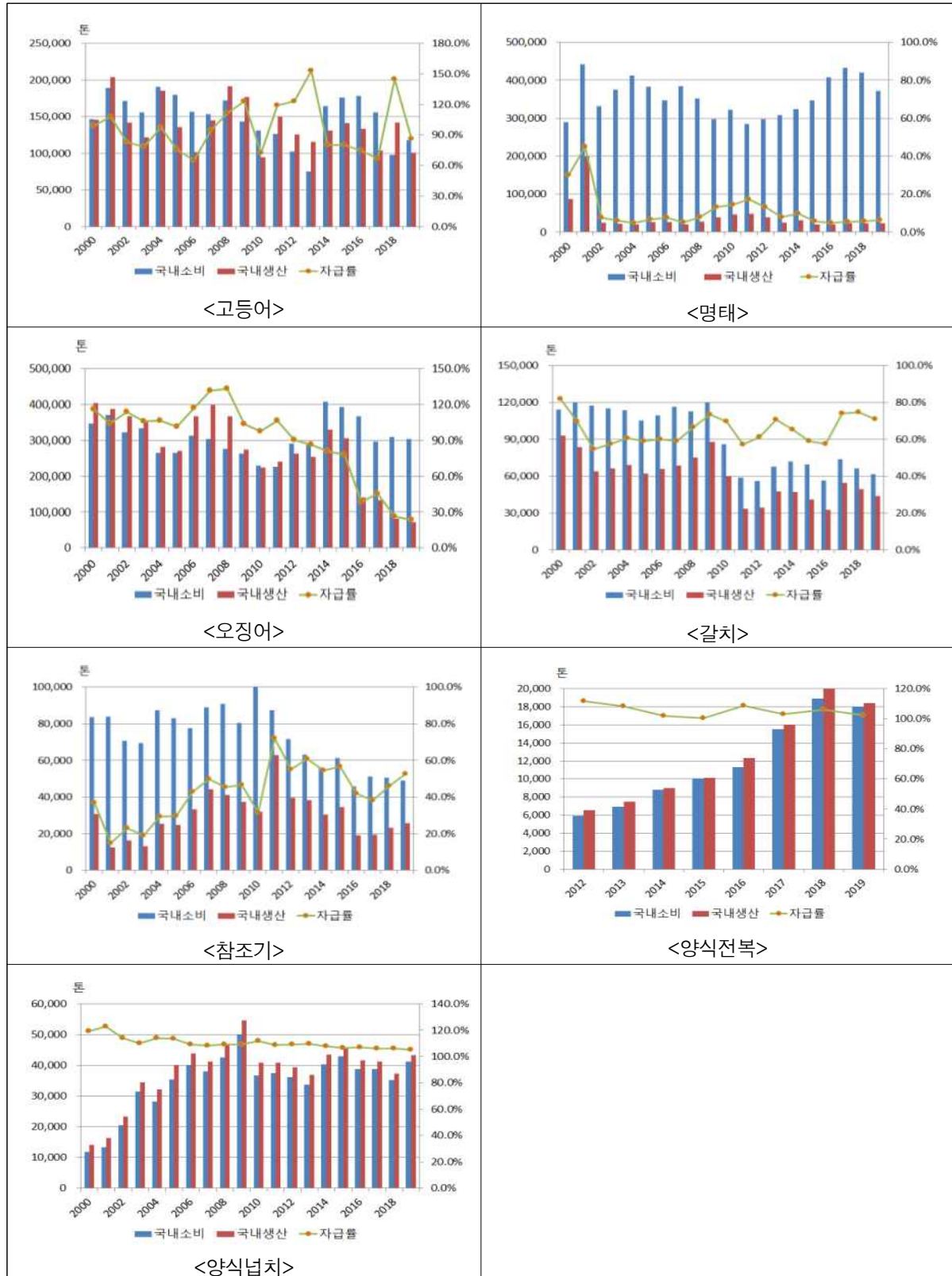
구분		공급			총공급량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고등어	2010년	94,687	42,560	71,132	208,379	131,157	26,029	51,193	72.2
	2016년	133,200	45,134	97,267	275,601	178,175	21,612	75,814	74.8
	2017년	103,870	45,598	75,814	225,282	155,990	16,944	52,348	66.6
	2018년	141,530	42,653	52,348	236,531	97,793	70,818	67,920	144.7
	2019년	101,121	43,608	67,920	212,649	117,524	45,469	49,656	86.0
명태	2010년	46,683	363,460	50,699	460,842	321,497	38,801	100,544	14.5
	2016년	20,129	398,343	110,099	528,571	407,689	17,920	102,962	4.9
	2017년	23,498	417,552	102,962	544,012	432,040	12,573	99,399	5.4
	2018년	24,002	414,650	99,399	538,051	420,071	13,638	104,343	5.7
	2019년	23,915	326,173	104,343	454,431	371,337	15,148	67,946	6.4
오징어	2010년	224,546	49,878	72,661	347,085	229,664	61,912	55,509	97.8
	2016년	141,723	163,257	152,451	457,431	366,805	49,452	41,173	38.6
	2017년	134,052	183,164	41,173	358,389	296,937	24,187	37,265	45.1
	2018년	81,348	243,944	37,265	362,557	309,417	9,358	43,781	26.3
	2019년	71,757	239,706	43,781	355,244	304,748	10,191	40,305	23.5
갈치	2010년	59,822	29,370	12,125	101,317	85,767	1,972	13,578	69.7
	2016년	32,359	28,731	11,570	72,660	56,376	1,540	14,744	57.4
	2017년	54,521	23,432	14,744	92,697	73,774	874	18,049	73.9
	2018년	49,514	17,722	18,049	85,285	66,424	1,758	17,103	74.5
	2019년	43,516	15,659	17,103	76,278	61,357	2,743	12,178	70.9
참조기	2010년	31,931	44,242	46,626	122,799	100,820	343	21,636	31.7
	2016년	19,271	28,478	21,412	69,161	45,892	307	22,962	42.0
	2017년	19,398	23,198	22,962	65,558	51,025	211	14,322	38.0
	2018년	23,274	27,798	14,322	65,394	50,678	90	14,626	45.9
	2019년	25,741	27,450	14,626	67,817	48,892	128	18,797	52.6
양식전복	2012년	6,564	736	-	7,300	5,877	1,423	-	111.7
	2016년	12,342	1,320	-	13,662	11,334	2,328	-	108.9
	2017년	16,027	1,303	-	17,330	15,522	1,808	-	103.3
	2018년	20,053	1,462	-	21,515	18,916	2,599	-	106.0
	2019년	18,436	1,976	-	20,412	18,034	2,378	-	102.2
양식넙치	2010년	40,925	5	-	40,930	36,663	4,267	-	111.6
	2016년	41,619	0	-	41,619	37,456	2,943	-	107.6
	2017년	41,206	34	-	41,240	36,121	2,696	-	106.9
	2018년	37,242	14	-	37,256	33,577	2,475	-	107.1
	2019년	43,319	0	-	43,319	40,063	2,701	-	106.6

주: 1) 넙치·전복은 양성물량 및 활어의 재고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수급에서 이입과 이월을 제외함

2) 전복의 수출입 통계는 HS Code 범위가 세분화된 2012년부터 집계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그림 3-3> 조사대상 7개 품종의 수급 및 자급률 추이



자료: 품종별 생산, 수출입, 재고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2절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

1. 비축사업

-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주생산시기에 수매·비축하여 비생산·성수기에 방출하는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비축사업이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 비축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에 근거하여 시행됨
- 해양수산부는 비축사업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자금의 배정·송금, 판매지침 등을 시달함
 - 수협중앙회는 수매를 실시하고, 수매품의 입고 및 보관, 비축 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수행함. 수매품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림 3-4> 수산물 비축사업 추진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9.12.

- 품목별 주 생산시기에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중성 수산물 수매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설·추석 등 수산물의 가격 상승 시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비축대상 품목은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천일염으로 7개이며, 2019년 수매실적은 16,136톤, 수매금액은 778억 원 수준이었음

<표 3-14> 2019년도 수산물 비축사업 수매실적

단위: 톤, 백만 원

품 목	계획		조정		실적		재고현황 (‘19.12.3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3,985	77,865	16,534	77,865	16,136	77,865	34,981
고등어	1,835	6,777	966	3,207	528	2,165	1,694
오징어	2,025	14,605	1,092	8,505	1,134	9,738	1,130
명 태	7,735	12,933	12,230	31,952	12,422	32,376	16,012
갈 치	583	9,851	939	11,051	938	13,389	902
조 기	608	17,518	1,169	19,688	984	17,103	1,119
멸 치	641	8,241	138	2,262	130	2,046	130
천일엽	-	1,200	-	1,200	-	1,048	13,994
유보금	558	6,740	-	-	-	-	-

주: 천일엽은 기존 재고에 대한 부대비용 예산만 편성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0년 5월 제공)

-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의 비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15> 수산물 비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사업비	74,542	72,305	70,859	70,151	70,151
국 고	74,542	72,305	70,859	70,151	70,151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9.12.

2. 수산물자조금지원

- 정부는 자조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가격안정,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어가소득 증진 및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자조금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
-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은 자조금단체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해 세부사업 작성 시

공급조절과 관련된 사업비를 품목별 자조금사업 예산의 30% 이상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안정화를 도모함

-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의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16>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사업비	7,814	7,032	7,814	7,814	7,814
국 고	3,907	3,516	3,907	3,907	3,907
자부담	3,907	3,516	3,907	3,907	3,907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9.12.

3. 수산물수매지원

- 정부는 저장·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생산자단체 포함)에게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을 지원(융자)하여 주 생산시기에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 명령)에 근거하여 시행됨
 - 산지 가격 안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민간(생산자 단체, 유통·가공업체 등)의 수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의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17> 수산물수매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사업비	158,029	158,029	158,029	158,029	158,029
국 고	126,423	126,423	126,423	126,423	126,423
지방비	-	-	-	-	-
자부담	31,606	31,606	31,606	31,606	31,606

주: 2020년 총사업비 126,423백만 원 중 67,743백만 원은 수산금융이차보전으로 집행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9.12.

제3절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1. 주요 수산물 유통경로 현황

가. 수산물 유통경로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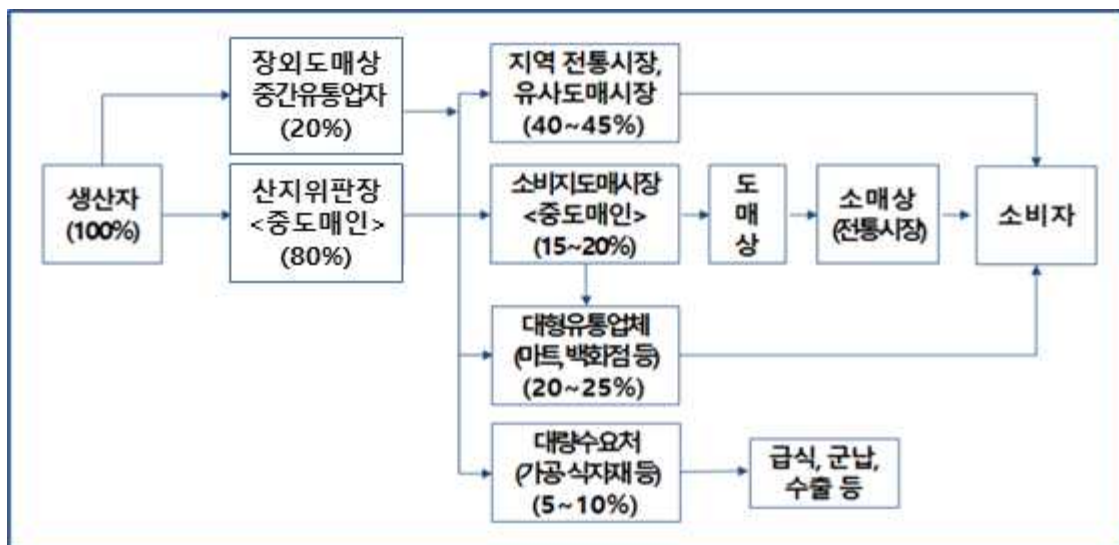
- 수산물 유통경로는 과거 공급자주도시장 하에서는 계통경로가 수산물 공급경로의 주축으로 활용되었으나 수요자주도시장으로 수산물 유통시장구조가 전환되면서 경로 다양성이 자리 잡았음
 - 소비자들은 과거에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던 단순구매 경로에서 다양하게 변한 소매기구(대형소매점, 백화점, 슈퍼마켓, 온라인, 직거래 등)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음
 - 또한, 수입 다변화가 발생하면서 영업용(가정 외 소비, 외식 등) 소비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 역시 다양화 하는 양상임
- 수산물의 생산구조, 생산방식, 품종에 따른 생산규모 등 역시 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높은 산지계통 비율의 일반해면어업) 생산구조에 따라 산지수협 위판장(산지계통) 경유 비율이 높음
 - 어선어업자는 본인이 직접 유통활동에 나서기 보다는 여기에 맞추어 소득 제고를 위해 집중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함으로서 최적의 자본회전(어선 활용)을 통한 최대 수익을 추구
 - 어선어업자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은 대부분이 양륙 이후에 재고관리가 냉동냉장창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선어업자 당사자는 재고관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일부 규모가 큰 어선어업자들은 냉동냉장창고를 가지고 재고관리를 하고 있기는 함)
 - 이에 어항에 입지한 산지수협 위판장은 위탁판매를 통해 어선어업자의 특화분업을 지원하고 있음
- (재고관리가 가능한 양식어업) 일반적인 양식어업자는 어선어업자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고관리가 가능하며, 양륙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비계통 출하 중심임

- (재고관리) 양식어업자는 일반적으로 양식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어선어업자에 비해 일정 수준이상의 재고관리가 가능하므로 산지수협에 위판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음
- (물류비 고려) 양식어업자는 천해나 육상에 퍼져있으며, 산지위판장까지의 거리가 있고, 구매자들이 직접 양식장으로 찾아오는 교통수단(활어차)이 발달하면서 위판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물류비와 위판수수료를 자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생산규모가 큰 원양어업) 원양어업은 판매처가 해외(다랑어류)이거나 내수시장 용이라고 하더라도 생산(거래) 규모가 커서 일반 산지 위판장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해외수출) 원양어업의 주력 생산물인 다랑어는 주로 통조림 원료로 태국 등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국내 **계통 과정에서는** 대부분 제외됨
- (거래규모) 내수 반입이 목적인 원양어업에서 기업별·선별 거래규모는 일반적으로 산지 수협 위판장의 중도매인들의 거래단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대량 거래를 목적으로 거래단위가 큰 1~2차 도매업자에게 입찰을 하고 있음
- (안정공급 1순위 가공원료) 과거에 산지의 잉여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던 수산물 가공업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저렴한 원료가격을 우선하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외에 수입이나 원양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원료 반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음
- (원료공급안정) 예를 들어, 오징어 가공은 연근해 오징어 생산의 불안정성으로 원양산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명태 원료는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원료가격) 과거에 잉여 수산물을 가공하던 산지가공산업의 구조가 원물, 선어에 대한 수산물 가격 상승(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으로 원료로서의 가격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해외의 저렴한 수산물을 선호하게 됨
- 이처럼 수산물 유통은 생산구조, 생산방식, 소매기구의 다양화 등에 따라서 과거의 단순 계통 경로(공급자주도시장)에서 수요자 기호에 맞는 경로가 다수 발생하면서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용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정책 및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어업별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함

1) 일반해면어업의 수산물 유통경로

- (산지 유통) 일반해면어업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중에서 약 80%는 산지수협 위판장을 경유하여 소비지에서는 소비지 법정(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냉동냉장창고,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처로 유통되며, 나머지 20% 정도는 장외도매상(벤더, 중간유통업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 산지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된 수산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는 전통시장, 소비지 도매시장(법정 도매시장 제외), 지역소매시장 등이며, 약 40~45% 정도가 이들 유통기구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법정(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입을 제외하고 국산 수산물 중에서 산지 위판장을 경유한 수산물은 대략적으로 15~20% 수준으로 추정됨

<그림 3-5>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2019년 기준)



주: 산지 계통출하 및 소비지 도매시장 취급 비중은 공식통계(어업생산동향조사, 도매시장 통계연보)를 참조하였으며, 기타 유통경로상의 비중은 유통업체 면담조사 결과를 참조한 추정치임

- 대형유통업체는 1990년대에 수산물 거래규모가 작아 법정(공영)도매시장에서 소매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구매했으나 2000년대부터는 이들 대형유통업체의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산지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대략 20~25% 정도로 추정됨
- 대량수요처(가공, 식자재 등)에서는 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면서 산지수협에서 이들에게 가는 수산물 유통비중은 대략 5~10%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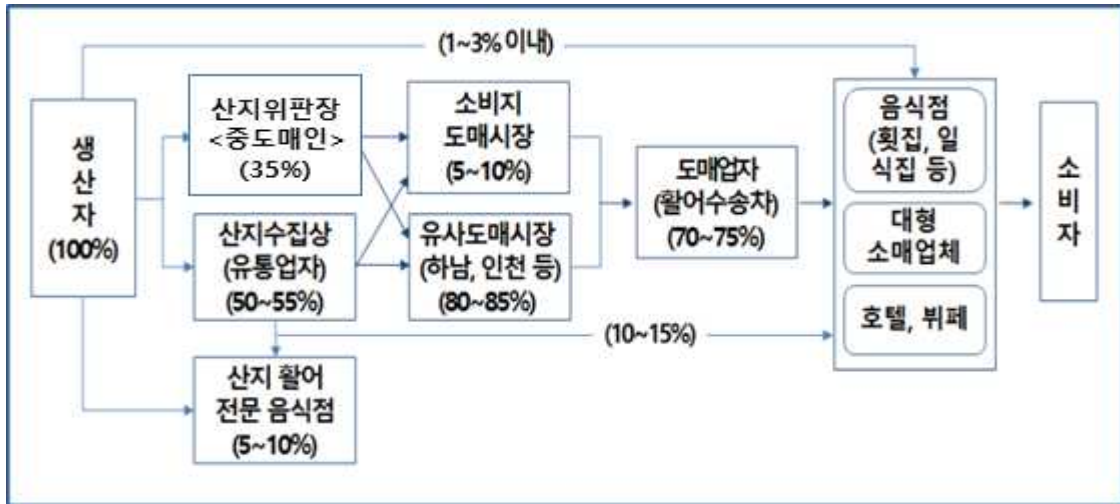
2) 양식산 수산물 유통경로

- 양식 수산물의 전체 계통 비중은 약 34% 정도로 앞선 설명에서와 같이 재고관리의 가능성, 물류비 부담 회피, 양식방법 등에 따라 유통 경로 다양화의 정도가 심하며, 산지 수협에서 이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 비계통 비중이 높음
 - 양식 활어: 계통 비중 약 35%⁴⁰⁾ 정도임(양식어류만 적용)
 - 양식 해조류: 계통 비중은 34%로 다시마와 미역은 전복 먹이용 비중이 높아 계통 비중이 낮음
 - 양식 패류: 계통 비중은 37%로 바지락이 대표적이거나 대부분이 비계통 출하이며, 최근 들어서는 진공포장 등의 가공업체로 납품되는 비중이 높으며, 전복은 산지수집상을 중심으로 하는 비계통 비중이 대부분임
 - 단, 알굴의 경우에는 박신장 등을 거쳐 굴수협에서 위판되는 비중이 높지만, 실태를 놓고 보면, 석화, 가공업체 등의 비계통 출하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양식 수산물은 품종부류에 따라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계통 출하 이후 유통경로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대표적인 양식어류인 넙치 생산자 등의 면접조사를 통해 유통경로를 파악함
- 이 계통 출하량 중에서 법정(공영) 소비지 도매시장으로의 유통비중은 5~10%이며, 나머지인 80~85%는 인천 연안부두, 하남, 대천, 부산(민락동) 등과 같은 비제도권(유사)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음⁴¹⁾
 - 산지→활어 전문점(횃집, 일식집 등)으로 유통되는 물량 비중은 5~10% 이내로 추정되어 전년 유통실태와 거의 변화가 없었음

40) 이 계통비중도 산지수협 위판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래보고만을 하는 것으로 제주해수어류양식의 넙치가 대표적임

41) 수산업관측센터, 활어양식업자 의견 조회

<그림 3-6> 양식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활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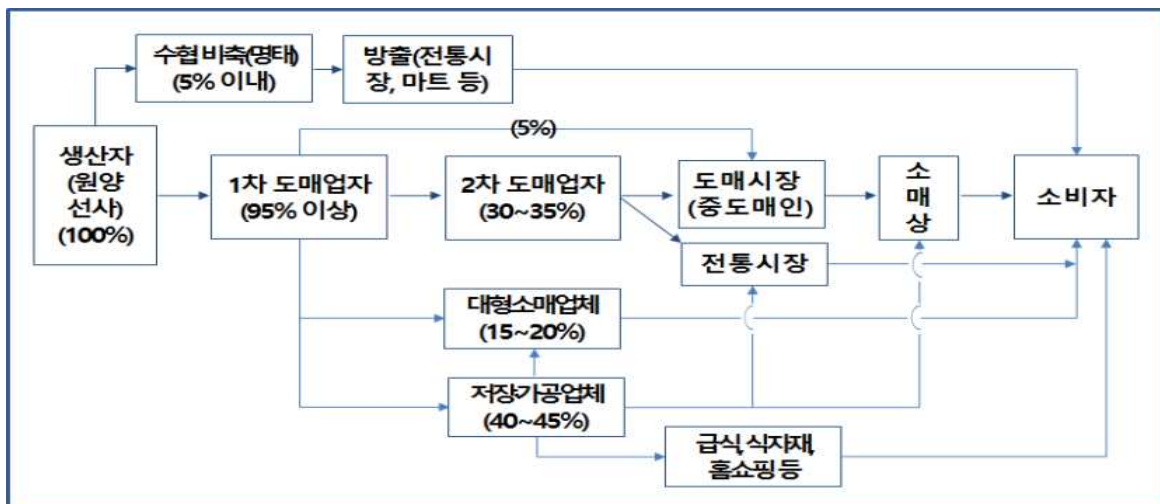


주: 산지 계통출하 및 소비지 도매시장 취급 비중은 공식통계(어업생산동향조사, 도매시장 통계연보)를 참조하였으며, 기타 유통경로상의 비중은 유통업계 면담조사 결과를 참조한 추정치임

3) 원양산 수산물의 유통경로

- 원양 수산물은 앞선 설명처럼 국내로 반입된 물량이 일반적으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양기업이 1차 도매업자들에게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하고, 1차 도매업자와 2차 도매업자들의 거래가 이루어짐
- 원양 수산물은 1차 도매거래 이후 바로 소비지 도매시장,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2차 도매업자를 거쳐 소비지로 출하됨

<그림 3-7> 원양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주: 원양산 수산물 유통경로상의 비중은 원양선사, 유통업계 면담조사 결과를 반영한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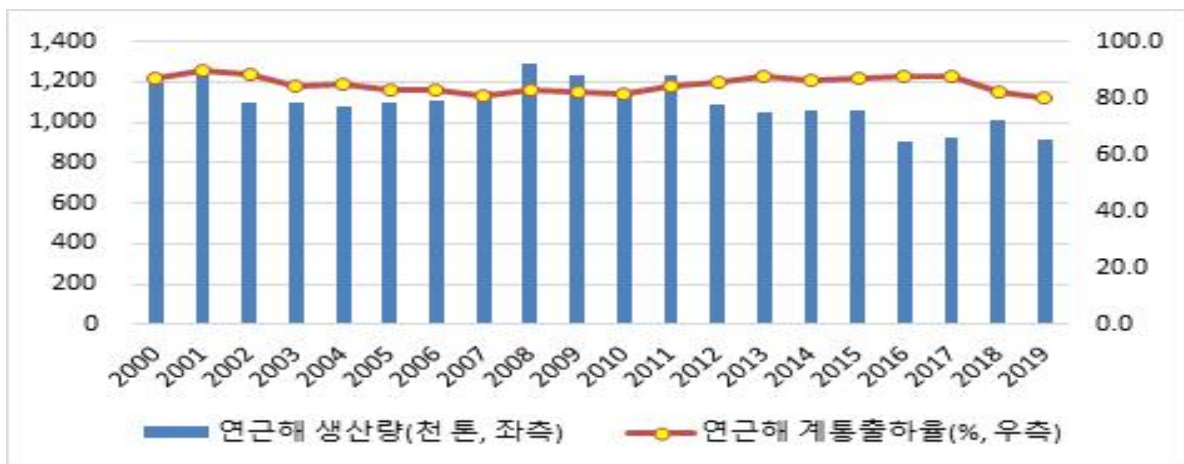
-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선사 및 수입업자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이후 1차 도매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차 도매업자가 2차 도매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물량이 전체의 약 30~3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저장·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물량도 40~4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1차 도매업자가 대형유통업체로 공급하는 물량은 전체 유통량의 15~20% 수준으로 파악됨

나. 유통단계별 수산물 거래동향

1) 산지시장(산지 수협 중심)

- 2011년 이후 국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까지 85~87%대를 유지해온 계통출하율도 2018년 81.9%, 2019년에는 79.9%까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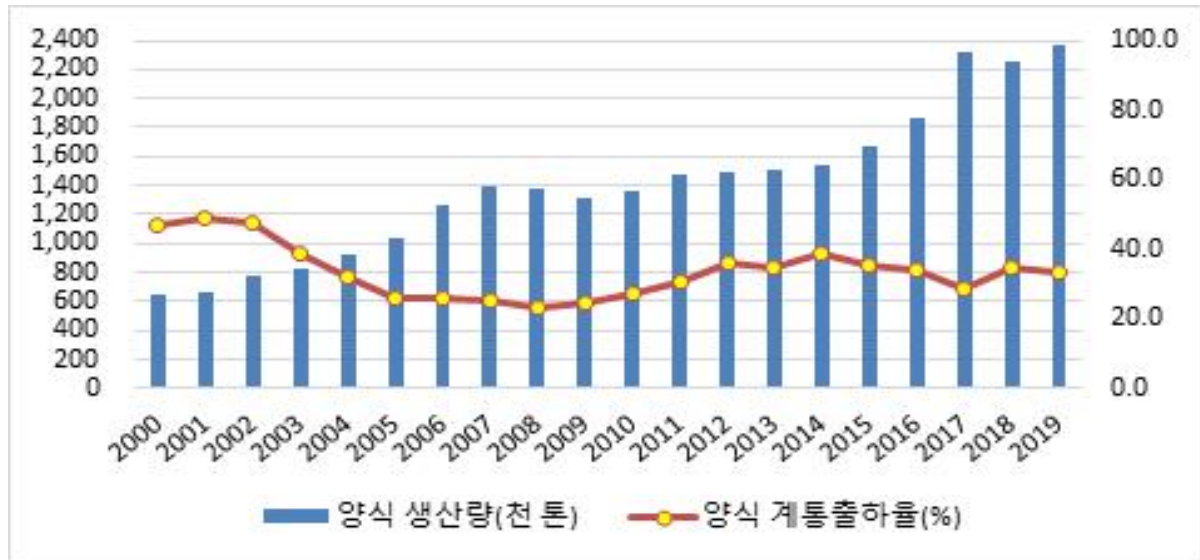
<그림 3-8> 연근해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00년대 이후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김, 굴, 넙치, 명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들이 비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9년 계통출하율은 33.7% 수준임

<그림 3-9> 양식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위판장 수는 총 208개소로 파악되며, 지역별로는 경남이 54개소로 가장 많고, 전남 47개소, 강원 27개소, 충남 24개소, 경북 21개소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3-18> 지역별 위·공판장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합계(비중)	위판장		
		중앙회	조합	기타
합계	208(100.0)	1	205	2
경인	8(3.8)	1	7	-
부산	10(4.8)	-	9	1
울산	2(1.0)	-	2	-
강원	27(13.0)	-	27	-
충남	24(11.5)	-	23	1
전북	6(2.9)	-	6	-
전남	47(22.6)	-	47	-
경북	21(10.1)	-	21	-
경남	54(26.0)	-	54	-
제주	9(4.3)	-	9	-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0년 4월 제공)

- 2019년 지역별 수협계통판매통계를 살펴보면, 위판물량은 전남(40.3%), 경남(22.3%), 부산(14.5%), 충청(6.6%) 등의 순으로 많고, 위판금액은 전남(29.7%), 경남(16.2%),

제주(13.8%), 부산(11.8%) 등의 순으로 많음

<표 3-19> 수협계통판매 지역별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지역	위판물량(톤)	위판금액(백만 원)		
			비중	비중	비중
1	전남	611,329	40.3	1,172,965	29.7
2	경남	338,726	22.3	639,341	16.2
3	제주	68,782	4.5	545,758	13.8
4	부산	220,287	14.5	466,976	11.8
5	경북	68,727	4.5	404,899	10.3
6	충청	99,465	6.6	277,363	7.0
7	강원	34,864	2.3	193,889	4.9
8	경인	42,288	2.8	167,404	4.2
9	전북	32,101	2.1	80,778	2.0
총계		1,516,571	100.0	3,949,375	100.0

주: 수산정보포털의 계통판매통계정보에는 지역별 수산물 계통 판매고 정보를 제공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 2019년 수협 회원조합별 위판실적을 살펴보면, 1,500~1,999억 원에 해당하는 회원조합은 민물장어양식, 여수, 목포 등을 포함한 7개 조합이며, 1,000~1,499억 원에 해당하는 조합은 진도, 한림, 삼천포 등 6개소임
- 제주어류양식수협은 2018년 2,227억 원 이상의 위판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1,500억 원 수준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2019년 한일 외교관계 악화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 2019년도 회원조합의 위판실적은 민물장어양식수협 1,920억 원, 여수수협 1,910억 원, 목포수협 1,800억 원, 부산시수협 1,750억 원, 신안군수협 1,580억원, 고흥군수협 1,570억 원 등의 순임

<표 3-20>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위판실적 규모(2019년 기준)

구분	회원조합명
1,500~1,999억 원	민물장어양식, 여수, 목포, 부산시, 신안군, 고흥군, 제주어류양식
1,000~1,499억 원	진도, 한림, 삼천포, 고창군, 통영, 영광군
500~999억 원	굴수하식, 멸치권현망, 서귀포, 후포, 보령, 구룡포, 성산포, 군산시, 완도금일, 해남군, 죽변, 인천, 제주시, 서천서부, 웅진, 포항, 서산, 마산
200~499억 원	서남해수어류, 서천군, 남해군, 속초시, 울산, 강원고성군, 강릉시, 완도소안, 제1,2구잠수기, 경기남부, 경주시, 모슬포, 강구, 동해시, 삼척, 거제, 옥지, 하동
100~199억 원	영덕북부, 장흥군, 대천서부, 의창, 죽왕, 나로도, 안면도, 거문도, 강진군, 양양, 영흥, 경남고성군, 경인북부
100억 원 미만	추자도, 기장, 원덕, 진해, 경남정치망, 근해통발, 태안남부, 부안, 울릉군, 대포, 멍게수하식, 제3,4구잠수기, 전남동부, 사천, 전남서부어류, 사랑, 패류살포양식, 창원서부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0년 4월 제공)

2) 소비지시장(소비지 공영도매시장)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공영도매시장 33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3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와 같이 총 49개소의 도매시장이 있음⁴²⁾

<표 3-21> 전국 도매시장 현황(2018년 기준)

구분	시장명	
공영 (33개소)	중앙(10개소)	서울가락농수산물, 부산염곡농산물, 부산국제수산물, 대구북부농수산물, 인천구월농산물, 인천삼산농산물, 광주각화농산물, 대전오정농수산물, 대전노은농수산물, 울산농수산물
	지방(23개소)	서울강서농산물, 부산반여농산물, 광주서부농수산물, 수원농수산물, 안양농수산물, 안산농수산물, 구리농수산물, 춘천농수산물, 원주농산물, 강릉농산물, 청주농수산물, 충주농수산물, 천안농수산물, 전주농수산물, 익산농수산물, 정읍농산물, 순천농산물, 포항농산물, 안동농수산물, 구미농산물, 창원팔용농산물, 창원내서농산물, 진주농산물
일반법정 (13개소)	중앙(1개소)	서울노량진수산물
	지방(12개소)	서울양재양곡, 대구축산, 대구한약재, 인천가좌축산물, 광주축산, 목포농산물, 여수농산물, 포항수산물, 경주농산물, 김천농산물, 영천농산물, 영천약초
민영(3개소)	상주민영농산물, 안양민영축산물, 영주민영농산물	

주: 강서 공판장이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9. 9

42)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임. 일반법정도매시장은 민간의 투자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이며, 민영도매시장은 민간인 등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을 말함

- 2018년 기준 전국의 도매시장의 법인은 총 177개소로, 도매시장 법인 121개소, 시장도매인 56개소로 집계됨

<표 3-22> 전국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법인 소계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소계	청과	수산	소계
계	177	88	27	4	-	2	121	52	4	56
공영도매시장	162	81	25	-	-	-	106	52	4	56
일반법정도매시장	12	5	2	3	-	2	12	-	-	-
민영도매시장	3	2	-	1	-	-	3	-	-	-

주: 공영도매시장 법인 수는 법인과 공관장 수의 합계임. 청과81개소(법인48, 공관장33), 수산25개소(법인17, 공관장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9. 9

- 전국의 법정(공영)도매시장 중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분류된 곳은 총 20개소(충주시 도매시장을 제외하면 19개소)로 파악됨
 - 2018년 기준으로 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물량 순위를 살펴보면,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전체의 35.1%로 가장 많으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3.5%,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 14.9%,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7.8% 등의 순으로 집계됨
 -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가락시장이 30.5%로 가장 컸으며,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 19.8%,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16.9% 순이었음

<표 3-23>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현황(2018년 기준)

단위: 톤, 백만 원, %

도매시장		거래물량	비중	거래금액	비중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공영	서울 가락	92,745	23.5	484,395	30.5	강동수산, 서울건해산물, 수협가락(공)
	부산 국제	138,622	35.1	267,865	16.9	부산감천항수산, 삼성아이에프엠, 부산수산물(공), 부산수협감천(공)
	대구 북부	20,723	5.2	125,902	7.9	대구수산, 대구종합수산, 대구신화수산, 매천수산
	광주 서부	3,785	1.0	29,923	1.9	수협광주(공)
	대전 오정	4,822	1.2	28,891	1.8	한발수산
	대전 노은	2,357	0.6	18,998	1.2	대전노은진영수산
	울산시	5,418	1.4	29,597	1.9	울산중앙수산, 울산건해산물, 울산수협(공)
	수원시	5,000	1.3	23,624	1.5	수원수산물시장, 남부수협(공)
	안양시	6,420	1.6	32,372	2.0	안양평촌수산
	안산시	2,206	0.6	10,594	0.7	안산수산
	구리시	30,711	7.8	124,593	7.8	강북수산, 수협구리(공)
	청주시	1,212	0.3	5,645	0.4	청주수산물시장
	충주시	-	-	-	-	-
	천안시	1,094	0.3	7,868	0.5	해랑수산
	전주시	1,387	0.4	7,503	0.5	전주수산물시장, 수협전주(공)
	익산시	2,288	0.6	9,786	0.6	이리수산물시장
	안동시	548	0.1	7,383	0.5	안동수산물시장
일반 법정	서울 노량진	58,738	14.9	314,790	19.8	노량진수산
	포항시	5,471	1.4	11,698	0.7	신포항수산
공판장	강서공판장	11,947	3.0	45,788	2.9	수협강서(공)
합계		395,494	100.0	1,587,215	100.0	-

주: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원수산(주) 영업정지('18.11.2)로 인해 제출 실적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9. 9

- 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거래물량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5년간 평균 도매시장의 농축수산물의 거래물량은 762만 톤, 거래금액은 13조 4,035억 원임

- 2018년 수산부류(수협강서공판장 포함) 거래물량은 38만 3천 톤(39만 5천 톤), 거래 금액은 1조 5,414억 원(1조 5,872억 원)이었고, 도매시장 전체 거래실적에서 수산 부류의 비중은 물량 기준으로는 5.2%(5.3%), 금액 기준으로는 11.1%(11.4%)를 차지함
- 수협강서공판장을 제외한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평년대비 4.8%하락하였으나, 거래 금액은 평년대비 6.6%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거래물량의 감소는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 감소, 유통경로의 다양화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표 3-24> 도매시장 전체 및 수산부류 거래실적

단위: 천 톤, 억 원, %

구분	도매시장 총괄		수산부류		수산부류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0년	6,130	61,549	409	9,019	6.7	14.7
2005년	6,628	85,203	357	10,187	5.4	12.0
2010년	6,873	123,196	395	13,657	5.7	11.1
2011년	7,095	116,224	422	14,504	5.9	12.5
2012년	7,124	125,386	429	13,935	6.0	11.1
2013년	7,467	129,456	393	13,261	5.3	10.2
2014년	7,813	122,940	398	14,269	5.1	11.6
2015년	7,716	131,686	410	14,058	5.3	10.7
2016년	7,630	139,362	414	14,731	5.4	10.6
2017년	7,587	137,402	400	16,007	5.3	11.6
2018년	7,393	138,786	384 (395)	15,414 (15,872)	5.2 (5.3)	11.1 (11.4)
5개년 평균	7,628	134,035	401	14,896	5.3	11.1
전년대비 증감	-2.6	1.0	-4.2	-3.7	-	-
평년대비 증감	-3.3	5.0	-4.8	6.6	-	-

주: 1) 5개년 평균은 2014년~2018년 평균, 평년은 2013년~2017년 평균을 의미함, 강서공판장 물량 제외

2) ()는 강서공판장 포함 시의 실적과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도매시장의 수입 수산물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 평균 18만 2,235톤, 거래금액은 5,429억 원이 거래되었으며, 거래금액은 최근 5년간 상승추세에 있음
- 2018년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물량은 19만 1,057톤, 거래금액은 5,940억 원을 기록함

<표 3-25> 도매시장 수입수산물 거래 실적

단위: 톤, 백만 원, %

구분	계(A+B)		공영도매시장(A)		일반법정도매시장(B)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0년	70,168	167,205	55,269	118,702	14,899	48,503
2005년	103,983	301,957	67,663	177,825	36,320	124,132
2010년	145,543	466,563	118,533	358,829	27,010	107,734
2011년	171,905	479,473	147,749	376,315	24,156	103,158
2012년	201,703	520,804	175,622	424,523	26,081	96,281
2013년	154,002	438,597	128,830	336,797	25,172	101,800
2014년	146,176	453,015	118,838	340,795	27,338	112,220
2015년	169,615	516,919	141,293	395,488	28,322	121,431
2016년	206,206	575,333	184,820	470,196	21,386	105,137
2017년	198,119	575,580	180,705	471,110	17,414	104,470
2018년	191,057	594,031	174,646	484,550	16,411	109,481
5개년 평균	182,235	542,976	160,060	432,428	22,174	110,548
전년대비 증감	-3.6	3.2	-3.4	2.9	-5.8	4.8
평년대비 증감	9.3	16.0	15.7	20.3	-31.4	0.4

주: 5개년 평균은 2014년~2018년 평균, 평년은 2013년~2017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도매단계의 출하선별 수산물 유통실적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의 출하선은 생산자 개인출하물량이 가장 많고, 생산자 공동출하가 가장 적음
- 2018년 기준 도매시장 출하선은 생산자 개인출하가 54.0% 가장 많고, 산지 유통인출하가 37.8%, 수협 계통출하 7.3% 등임
- 생산자 공동출하는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18년 기준 0.3% 비중으로 전년대비 72.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6> 도매시장 출하선별 출하물량

단위: 톤, %

구분	합계	생산자 개인출하	생산자 공동출하	수협 계통출하	산지 유통인출하	기타 출하
2010년 (비중)	394,568 (100.0)	258,505 (65.5)	4,398 (1.1)	2,088 (0.5)	123,616 (31.3)	5,961 (1.5)
2011년	422,523	199,896	754	41,388	176,615	3,870
2012년	429,515	253,883	5,152	3,433	163,689	3,358
2013년	392,617	234,309	1,178	3,888	147,398	5,844
2014년	381,848	185,830	1,599	49,617	136,382	8,420
2015년	391,792	161,073	1,520	52,565	165,857	10,777
2016년	396,962	201,593	10,603	57,522	114,778	12,466
2017년	382,857	210,744	3,373	27,745	136,315	4,680
2018년 (비중)	362,207 (100.0)	195,736 (54.0)	924 (0.3)	26,376 (7.3)	137,058 (37.8)	2,113 (0.6)
5개년 평균	383,133	190,995	3,604	42,765	138,078	7,691
전년대비 증감	-5.4	-7.1	-72.6	-4.9	0.5	-54.9
평년대비 증감	-6.9	-1.5	-74.7	-31.1	-2.2	-75.0

주: 1) 5개년 평균은 2014년~2018년 평균, 평년은 2013년~2017년 평균을 의미함
 2) 수협 계통출하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를 거친 후 중도매인들이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로이며, 산지 유통인 출하는 장외(비계통)시장의 산지유통인들이 출하하는 경로를 의미함
 3) 강서 공판장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전국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실태를 거래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취급규모 '10억 원 이상'의 중도매인이 2009년 34.8%에서 2018년에는 43.1%로 늘어나 규모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산부류의 경우 취급규모 '10억 원 이상'의 중도매인이 2009년 23.4%였으나 2017년 22.2%로 감소함
- 취급 규모 '5억 원 미만'의 중도매인 비중은 2018년 기준 50.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표 3-27> 최근 10년간 도매시장의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18년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1억 원 미만	603	7.5	193	13.0	544	6.8	196	13.5
1~3억 원	1,151	14.4	292	19.7	833	10.4	287	19.8
3~5억 원	1,460	18.3	334	22.6	1,145	14.3	251	17.3
5~10억 원	1,989	24.9	314	21.2	2,047	25.5	394	27.2
10~20억 원	1,609	20.1	226	15.3	1,825	22.7	207	14.3
20~30억 원	571	7.1	67	4.5	731	9.1	60	4.1
30억 원 이상	607	7.6	53	3.6	908	11.3	55	3.8
총계	7,990	100.0	1,479	100.0	8,033	100.0	1,450	100.0

주: 강서공판장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08년도 및 2018년도

2. 수산물 도소매업 현황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및 10차 서비스업조사 자료를 이용, 국내 수산물(식품) 도소매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현황을 파악하였음
- 2018년 기준 사업체수는 수산물 도매업이 13,909개소,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1,086개소, 소매업은 22,365개소로 집계됨

<표 3-28>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2010년(A)	9,639	-	-	649	20,124	-	-
2011년	10,126	-	-	619	20,268	-	-
2012년	11,163	-	-	762	20,821	-	-
2013년	12,349	-	-	807	20,731	-	-
2014년	14,355	-	-	943	21,245	-	-
2015년	15,158	-	-	984	21,451	-	-
2016년	13,854	2,938	10,916	1,065	21,604	6,948	14,656
2017년	13,811	2,829	10,982	1,113	21,581	6,916	14,665
2018년(B)	13,909	2,883	11,026	1,086	22,365	7,109	15,256
전년대비 증감률	0.7	1.9	0.4	-2.4	3.6	2.8	4.0
연평균 증감률(B/A)	4.7	-	-	6.6	1.3	-	-

주: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 2018년 기준 종사자수는 수산물 도매업이 41,644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5,638명, 소매업은 39,145명으로 집계됨

<표 3-29>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2010년(A)	29,874	-	-	4,609	32,533	-	-
2011년	30,221	-	-	4,119	33,001	-	-
2012년	31,998	-	-	4,754	34,446	-	-
2013년	35,613	-	-	5,045	34,284	-	-
2014년	41,745	-	-	5,109	35,770	-	-
2015년	44,369	-	-	5,703	35,599	-	-
2016년	40,050	8,571	31,479	5,740	35,399	11,323	24,076
2017년	41,259	8,417	32,842	6,033	37,255	11,457	25,798
2018년(B)	41,644	8,817	32,827	5,638	39,145	11,964	27,181
전년대비 증감률	0.9	4.8	0.0	-6.5	5.1	4.4	5.4
연평균 증감률(B/A)	4.2	-	-	2.6	2.3	-	-

주: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 2018년 매출액은 수산물 도매업이 24조 6,319억 원,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2조 4,805억 원, 소매업은 4조 1,312억 원으로 집계됨

<표 3-30> 수산물 도소매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2010년(A)	137,279	-	-	11,713	19,249	-	-
2011년	146,854	-	-	12,659	20,705	-	-
2012년	154,241	-	-	13,736	18,963	-	-
2013년	151,931	-	-	14,210	19,161	-	-
2014년	165,311	-	-	15,291	20,010	-	-
2015년	212,301	-	-	20,067	31,897	-	-
2016년	224,617	28,653	195,964	22,161	34,419	9,221	25,198
2017년	243,418	30,612	212,806	24,760	37,907	9,593	28,314
2018년(B)	246,319	31,821	214,498	24,805	41,312	10,652	30,660
전년대비 증감률	1.2	3.9	0.8	0.2	9.0	11.0	8.3
연평균 증감률(B/A)	7.6	-	-	9.8	10.0	-	-

주: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및 서비스업조사, 시도/산업/매출액 규모별 현황

-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에서 수산물 도매업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54.2%, 수산물 소매업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52.2%를 차지함

<표 3-31>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50백만 원 미만	581(4.2)	208	373	60(5.5)	6,646(29.7)	2,565	4,081
50~100	991(7.1)	240	751	50(4.6)	5,028(22.5)	1,638	3,390
100~500	3,795(27.3)	939	2,856	293(27.0)	8,167(36.5)	2,307	5,860
500~1,000	2,161(15.5)	532	1,629	190(17.5)	1,299(5.8)	297	1,002
1,000~5,000	4,225(30.4)	768	3,457	321(29.6)	1,201(5.4)	297	904
5,000~10,000	1,832(13.2)	173	1,659	142(13.1)	24(0.1)	6	18
10,000~20,000	202(1.5)	16	186	18(1.7)	1(0.0)	-	1
20,000~30,000	60(0.4)	4	56	3(0.3)	1(0.0)	-	1
30,000백만 원 이상	62(0.4)	3	59	11(1.0)	-	-	-
계	13,909(100.0)	2,883	11,026	1,086	22,365(100.0)	7,109	15,256

주: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및 서비스업조사, 시도/산업/매출액 규모별 현황

- 수산물 도소매업은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수산물 도매업에서 4인 이하의 사업체 비중은 86.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79.3%, 수산물 소매업에서는 98.7%로 집계됨

<표 3-32> 수산물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1 - 4명	12,065(86.7)	2,528	9,537	861(79.3)	22,077(98.7)	7,033	15,044
5 - 9명	1,359(9.8)	230	1,129	143(13.2)	256(1.1)	64	192
10 - 19명	337(2.4)	81	256	52(4.8)	26(0.1)	10	16
20 - 49명	126(0.9)	40	86	18(1.7)	5(0.0)	1	4
50 - 99명	21(0.2)	4	17	7(0.6)	1(0.0)	1	-
100 - 299명	1(0.0)	-	1	4(0.4)	-	-	-
300 - 499명	-	-	-	-	-	-	-
500 - 999명	-	-	-	1(0.1)	-	-	-
계	13,909(100.0)	2,883	11,026	1,086	22,365(100.0)	7,109	15,256

주: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 주요 식품군별 도소매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과 수산부문을 비교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 87.5%, 종사자당 매출액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에서 수산부문은 사업체당 매출액 117.7%, 종사자당 매출액은 103% 수준으로 나타남
 - 식료품 소매업 평균과 수산부문을 비교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 77.8%, 종사자당 매출액은 84.6% 수준으로, 도매업 대비 지표가 낮게 나타남

<표 3-33> 주요 식품군별 도소매업 규모 비교(2018년 기준)

단위: 개소, 명, 백만 원,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	평균 대비	종사자당 매출액	평균 대비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	44,765	153,412	90,609,590	2,024	100.0	591	100.0
	과실 및 채소	17,177	57,761	30,194,912	1,758	86.8	523	88.5
	육류	11,513	46,312	32,531,739	2,826	139.6	702	118.9
	수산물	13,909	41,644	24,631,886	1,771	87.5	591	100.1
	기타 비가공식품	2,166	7,695	3,251,053	1,501	74.2	422	71.5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	22,351	101,516	43,373,620	1,941	100.0	427	100.0
	육류	1,635	7,809	3,233,772	1,978	101.9	414	96.9
	수산물	1,086	5,638	2,480,493	2,284	117.7	440	103.0
	빵 및 과자	2,330	11,420	4,253,784	1,826	94.1	372	87.2
	낙농품	4,538	16,608	6,062,475	1,336	68.8	365	85.4
	기타 가공식품	12,762	60,041	27,343,096	2,143	110.4	455	106.6
식료품 소매업	평균	101,679	193,624	24,155,116	238	100.0	125	100.0
	곡물	4,962	8,240	1,152,890	232	97.8	140	112.2
	육류	24,160	47,595	9,357,466	387	163.0	197	157.6
	수산물	22,365	39,145	4,131,237	185	77.8	106	84.6
	과실 및 채소	21,927	40,169	3,806,631	174	73.1	95	76.0
	빵 및 과자류	4,734	9,996	632,967	134	56.3	63	50.8
	건강보조식품	8,168	16,818	2,585,655	317	133.3	154	123.2
	기타 식료품	15,363	31,661	2,488,270	162	68.2	79	63.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10차 및 연구진 재가공

3. 수산물 유통종사자 현황

-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수는 11만 5,789명으로 2016년대비 1만명 규모 감소함(2016년 12만 6,863명, 2015년 12만 6,560명)
-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수산업 유통업 종사자는 다시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1만 4,645명,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144명으로 구분됨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 근거한 「해양수산업통계조사」는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수는 중분류(중개 및 도소매업, 운송 및 보관업)까지 제공함

<표 3-34>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수산부문 종사자수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자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
수산물 생산업(A)	477,382	47,474	62,222	346,693	15,457	5,536
어로어업	102,693	32,090	33,409	25,091	9,152	2,951
양식어업	371,467	14,229	28,176	321,127	5,410	2,525
어업 관련 서비스업	418	77	305	18	-	18
소금채취업	2,804	1,078	332	457	895	42
수산물 가공업(B)	45,476	5,946	28,063	7,695	3,414	358
수산물 유통업(C)	115,789	43,021	38,494	11,423	22,530	321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114,645	42,948	37,498	11,391	22,523	285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1,144	73	996	32	7	36
계(A+B+C)	638,647	96,441	128,779	365,811	41,401	6,215

자료: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수, 2019-10-04 갱신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과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으로 구분됨
 -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은 ‘수산물 중개업’, ‘수산물 도소매업’,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으로 분류함
 -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은 ‘수산물 운송업’,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수산물 유통업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수산분야로 한정된 분야는 ‘건어물 및 젓갈류 도소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볼 수 있음
 - 이 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별 범위는 타 산업 분야를 포괄함

<표 3-35>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상의 수산물 유통업 분류체계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수산물 유통업 (6)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61)	수산물 중개업 (611)	수산물 국내 중개업(6111)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수산물 해외 중개업(6112)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611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수산물 도소매업 (612)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6121)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463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46315)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6122)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47213)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47214)
			수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6123)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46322)
				기타 식료품 소매업(47219)
			기타 수산물 가공품 도소매업(6129)	장난감 및 취미, 오락 용품 도매업(46463)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46492)
				비료 및 농약 도매업(4673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47830)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4784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 (613)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6130)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62)	수산물 운송업 (621)	수산물 육상 운송업(62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49301)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49302)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49303)
			수산물 해상 운송업(6212)	외항 화물 운송업(50112)
				내항 화물 운송업(50122)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622)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6220)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및 산업분류 연계표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개정 자료를 통해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의 종사자수를 집계해보면, 2018년 3개 업종 전체 종사자수는 86,427명으로 집계됨(2017년 84,547명)

<표 3-36>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현황(전국사업체조사)

단위: 명

구분	종사자 지위	종사자수		구분	종사자 지위	종사자수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수산물(신선, 단순가공), 도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14,783	14,819	수산물(신선, 단순가공), 소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30,945	32,367
	상용종사자	22,052	22,646		상용종사자	3,718	4,219
	임시 및 일용근로자	4,196	3,949		임시 및 일용근로자	2,543	2,481
	기타종사자	228	230		기타종사자	49	78
	합계	41,259	41,644		합계	37,255	39,145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1,038	1,036	3개 업종 전체 합계	자영업주, 무급가족	46,766	48,222
	상용종사자	4,431	4,073		상용종사자	30,201	30,938
	임시 및 일용근로자	554	486		임시 및 일용근로자	7,293	6,916
	기타종사자	10	43		기타종사자	287	351
	합계	6,033	5,638		합계	84,547	86,42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개정, 시도·산업·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현황

- 수산물 산지 및 도매시장의 수산종사자도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로 볼 수 있음
 - 수협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에서 산지 유통종사자는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부산공동어시장 유통종사자를 포함한 산지유통종사자 수는 4,557명으로 추정됨(2018년 4,455명, 2017년 4,385명)

<표 3-37> 산지 수산물시장의 유통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	합계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	합계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	합계
중앙회	23	6	3	32	23	6	3	32	21	3	3	27
회원조합	3,639	97	513	4,249	3,722	115	482	4,319	3,686	168	572	4,426
부산공동어시장	89	7	8	104	89	7	8	104	89	8	7	104
합계	3,751	110	524	4,385	3,834	128	493	4,455	3,796	179	582	4,557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0년 4월 제공), 부산공동어시장 내부자료(2020년 5월 제공)

- 산지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 이외에도 위판장이나 시장에서 양륙, 배열, 하역, 운반 등을 수행하는 단순 노무인력 또한 상당수 차지함
- 단순 노무인력의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항운노조연맹을 통해

지역별 단순노무인력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제공받았음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서 파악하고 있는 2019년 전국 수산물 유통 관련 단순 노무인력은 1,718명으로 파악됨(2018년 1,716명 2017년 1,695명)

<표 3-38> 수산물 유통업 단순 노무인력 현황(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단위: 명

조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부산	812	877	903	808	799	779	778	753	725	659
인천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45	191
경북	68	65	60	56	58	52	46	46	46	47
울산	25	24	27	25	23	24	23	23	20	19
서울경기	29	29	29	29	29	28	28	28	26	31
경남	138	139	147	106	134	123	120	117	161	153
전남서부	82	89	88	88	87	82	75	69	91	89
전북서부	76	66	55	67	54	48	46	48	46	49
충남서부	73	76	93	92	92	104	81	76	87	84
종합수산	158	158	158	158	158	158	155	155	154	154
농수산	175	164	157	135	127	125	125	125	125	124
속초	19	16	17	18	19	18	16	15	11	17
고성	24	24	23	21	18	19	16	11	12	24
여수수산물	86	88	90	91	89	87	80	70	67	77
합계	1,924	1,974	2,006	1,853	1,845	1,806	1,748	1,695	1,716	1,718

주: 수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비조합원 수치는 제외됨
 자료: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내부자료(2020년 5월 제공)

- 「2018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에는 전국의 도매시장에서 종사하는 유통종사자수를 2,848명으로 집계하고 있음
- 이중 중도매인은 1,450명으로 전체의 50.9%로 가장 많으며, 하역인 581명(20.4%), 도매법인 임직원 489명(17.2%) 순으로 집계됨

<표 3-39> 도매시장 수산부류 유통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매법인 임직원	595	581	454	477	459	526	495	495	489(17.2)
중도매인	1,464	1,447	1,442	1,455	1,462	1,474	1,507	1,458	1,450(50.9)
매매참가인	161	169	161	190	182	198	199	290	295(10.4)
하역인	649	615	566	680	533	820	768	1,083	581(20.4)
관리사무소 (공사) 직원	23	23	24	31	35	34	46	32	33(1.2)
관련상인	1,349	1,329	1,332	1,131	462	438	340	38	-
합계	4,241	4,164	3,979	3,964	3,133	3,490	3,355	3,396	2,848(100.0)

주: 1) 2018년도부터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현황에 관련상인이 제외됨

2) 수산부류 유통종사자 수는 공영도매시장과 일반법정도매시장의 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9. 9

○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수산업 실태조사에서의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수는 11만 5,789명, 수산물 도소매업 통계(전국사업체조사)로 식별되는 종사자수는 8만 4,547명, 산지 및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유통인(단순 노무인력 포함) 종사자수는 9,476명으로 파악됨

<표 3-40> 수산물 유통종사자수 추정결과 비교(2017년 기준)

구분	종사자수	비고
해양수산업통계조사	115,789명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추정
전국사업체조사	84,547명	· 통계자료로 식별되는 수산물(신선, 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 단순가공) 소매업 3개 업종의 종사자수만을 집계한 결과
산지 및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산지: 6,080명 도매: 3,396명 합계: 9,476명	· 산지: 수협 위공판장 현황에서 집계하고 있는 중도매인, 매매인, 경매사 + 전국항운노조연맹의 단순노무인력 · 도매: 도매시장 통계연보에서 집계하는 수산물 유통종사자수

■ 제4장 ■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

제1절 수산물 유통실태의 조사개요

제2절 고등어 유통실태 조사

제3절 명태 유통실태 조사

제4절 오징어 유통실태 조사

제5절 갈치 유통실태 조사

제6절 참조기 유통실태 조사

제7절 양식전복 유통실태 조사

제8절 양식넙치 유통실태 조사

제4장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

제1절 수산물 유통실태의 조사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는 수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법적 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에
 - 본 조사는 수산물의 생산, 도매,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함 (동 법 2조, 8조)
- 실태조사 실시 목적에 따른 조사, 문제점 발굴, 개선을 위해서는 매해 실시되는 조사방법이 통일되어야 가능함
- 이에 따라 표준 실태조사 방법을 확정하여, 향후 실시되는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함

2. 기존 사례 조사 검토

가. 일본 수산물 유통실태조사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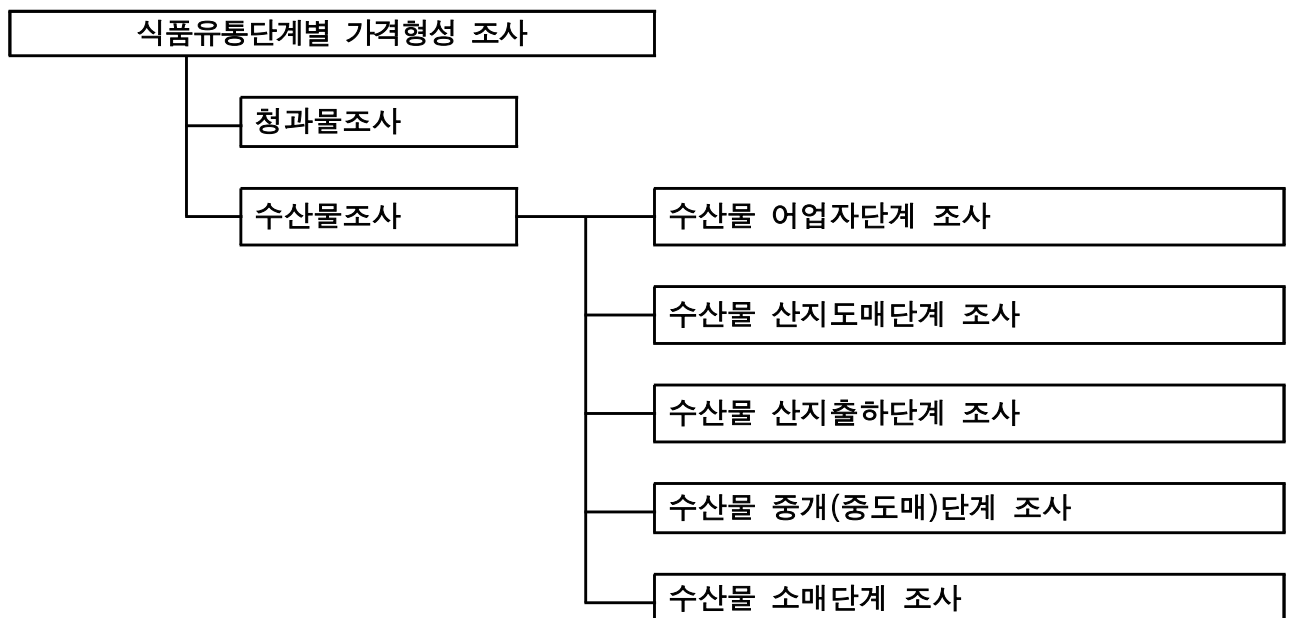
- 일본의 수산물 유통관련 조사는 「수산물 유통조사」, 「산지수산물 유통조사」, 「냉장수산물 유통조사」, 「식품유통단계별 가격형성조사」 등으로 매우 다양한

43)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j/tokei/kouhyou/syokuhin_kakaku/index.html, 검색일: 2019. 7. 9)자료를 정리한 것임

조사체계를 가짐(별표 1 참조)

- 이 중 산지-도매-소매 유통단계별로 가격의 형성과 유통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식품유통단계별 가격형성조사」임
- 「식품유통단계별 가격형성조사」의 방법과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산지~소비지에 이르는 신선 농수산물의 유통 단계별 유통 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
 - 실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가격 형성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식품 유통의 효율화·고도화, 유통구조 개혁 등의 시책을 추진
 - 수산물의 유통에 대해 다양한 유통 경로의 구축에 의한 거래 선택의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를 정비
- 수산물 조사
 - 조사품목: 눈다랑어, 가다랑어,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꽁치, 참돔, 참가자미, 방어, 오징어
 - 조사방법: 5단계로 구성(수산물 어업자단계 조사, 수산물산지 도매단계 조사, 수산물산지 출하단계 조사, 수산물 중간도매단계 조사, 수산물 소매단계조사)

<그림 4-1> 일본 수산물 유통실태조사의 조사 흐름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j/tokei/kouhyou/syokuhin_kakaku/index.html, 검색일: 2019. 7. 9)자료를 정리한 것임

- 일본의 식품유통 단계별 가격 형성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1> 일본 식품유통 단계별 가격 형성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수산물 어업자단계 조사	조사 대상	• 어업센서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업 생산이 있는 경영체를 출하처별, 지역별, 판매규모별로 표본 추출 조사
	조사 내용	• 수산물 전체 연간 판매 금액, 출하처별 판매금액 비율, 품목별 출하업체별 연간판매량 및 금액,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비용
수산물산지 도매단계 조사	조사 대상	• 조사 품목에 대한 비중이 전국의 80%를 초과하는 단계까지의 산지도매시장 선정(단, 품목별 조사 산지도매시장 최소 10개, 최대 20개)
	조사 내용	• 산지도매시장의 취급 수량 및 금액, 수산물 전체의 출하처별 판매금액비율, 판매사업수익, 판매비, 사업관리비 등 품목별 취급물량·금액
수산물산지 출하단계 조사	조사 대상	• 산지 도매단계조사에 선정된 시장에서 신선 수산물을 매수하여 소비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공급업자 가운데 품목마다 취급액이 가장 많은 공급업자
	조사 내용	• 연간구입금액, 연간판매금액, 완납장려금, 출하장려금, 판매비, 일반관리비, 품목별 연간 구입금액 및 판매금액
수산물 중간도매단계 조사	조사 대상	• 전국 도매시장 중 수산물 도매취급액이 전국의 60%를 초과할 때까지의 상위 시장 소속 수산물 취급 중개업자 중 무작위로 100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 내용	• 수산물 전체의 연간 구입금액 및 연간 판매금액, 품목별 구입금액 및 판매금액
수산물 소매단계 조사	조사 대상	• 수산물 판매 사업장 중 무작위 추출 1,292개의 소매업체 대상
	조사 내용	• 수산물 전체의 연간 구입금액 및 연간 판매금액, 연간 구입금액의 품목별 비율, 품목별 포장단위 당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 또는 품목별 연간 구입금액 및 연간 판매금액 등 품목별 연간 구입처별 구입금액 비율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j/tokei/kouhyou/syokuhin_kakaku/index.html, 검색일: 2019. 7. 9)자료
를 정리한 것임

나. aT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 조사목적: 주요 농산물의 유통실태 및 비용을 조사·분석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유통개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조사 대상품목: 33품목, 44종류(매년조사와 격년 조사품목(감자, 포도)으로 구분)

<표 4-2> aT센터의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품목

조사주기		조사품목(부류/품목)
매년조사 (20품목, 26종류)		• 식량작물류(3): 쌀, 콩, 봄감자 • 엽근채류(8): 배추(봄/고랭지/가을/월동), 무(봄/고랭지/가을/월동) • 과채류(2): 수박, 오이 • 조미채소류(3): 건고추, 난지형마늘, 양파 • 과일류(3): 사과, 배, 감귤 • 축산부류(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수산부류(1): 고등어 • 수입(2): 포도, 오렌지
격년조사 (20품목, 26종류)	홀수년	• 과채류(3): 참외, 방울토마토, 딸기 • 화훼류(2): 국화, 장미 • 수입농축산물(4): 키위, 쇠고기, 돼지고기, 망고
	짝수년	• 식량작물류(3): 감자(고랭지, 가을), 고구마 • 과일류(3): 단감, 포도, 복숭아 • 수입농산물(3): 참깨, 체리, 바나나

자료: aT KAMIS 홈페이지(<http://www.kamis.co.kr/customer/circulation/distribution/state.do>, 검색일: 2019. 7. 9)자료를 정리한 것임

○ 조사방법

- 조사대상 품목별로 주출하기에 주산지(2~5개 지역)에서 소비지(서울, 부산)까지의 유통경로 중 단계별 조사
- 출하단계(생산자 및 단체, 산지유통인 등)
- 도매단계(도매상, 중간도매상 등)
- 최종소비단계(소매상) 등 각 단계별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면담청취 및 확인 조사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 직접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비, 상장수수료, 감모비
- 간접비: 임대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 이윤: 유통비용에서 직간접비를 제외한 상업 이윤

○ 특징

- 공산품과 달리 유통과정에서 부패하기 쉽고 선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별비, 감모비, 쓰레기 처리비용 등도 물류비로 포함하여 분석

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유통실태조사⁴⁴⁾

○ 목적

- 1997년부터 매년 생성한 축산물 유통비용 및 유통경로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유통 통계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여러 분야 유통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개요

- 조사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4품목
- 조사주기: 매년
- 조사대상: 출하단계부터 도매·소매단계까지의 축산업 유통관계자

○ 주요 조사 항목

<그림 4-2>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흐름도



○ 유통단계(생산-도매-소매)

- 전국 축산물시장 유통실태 조사(지역내 축산물 수급상황 중심)
-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 유통실태 조사(지역·유형별 반출량, 거래형태 중심)
- 전국 도매시장·공판장 유통실태 조사(지역·유형별 반출량 중심)
- 전국 도축장 도축제경비, 부산물가격 조사
- 전국 소비자 판매가격 및 유통비용 조사

44)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ekape.or.kr/contents/list.do?menuId=menu182580&boardInfoNo=> 검색일 2019. 07. 08) 유통정보조사 자료를 정리한 것임

- 전국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인 분류유형 조사
- 지역별 소비량 추정
- 유통경로: 도매단계까지는 전국 평균값 조사, 최종소비자는 유통비중을 감안하여 대표경로 설정
- 유통주체
 - 생산: 농가, 우시장, 가축거래상인 등
 - 도매: 도매시장·공판장, 도축장, 집하장, 축산물시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조합, 닭고기 대리점, 계란유통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 소매: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정육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 유통비중
 - 도매단계까지는 전국 유통량으로 산출
- 유통비용
 - 직접비: 재료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비, 상장수수료, 감모비 등
 - 간접비: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 이 윤: 순이익

라. 공통점 및 특성

- 목표: 유통 단계별 비용 조사를 통해 유통 효율화 또는 비용 절감 등의 정책 목적 달성
- 유통 경로 중 주 산지~서울을 중심 유통 경로로 설정하여 조사
- 유통 경로를 산지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로 단순화하여, 유통의 흐름과 비용을 조사
- 유통비용을 직접비, 간접비, 이윤으로 구분함
 - 직접비: 재료비, 포장비, 상하차비, 운송비, 상장수수료, 감모비
 - 간접비: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 이 윤: 유통비 - 직접비 - 간접비

- 조사대상 표본을 선택할 때, 취급량이 많은 사업자를 유의추출하는 방식 사용
 - 규모별 층화추출이 표본 추출에서는 더 정교한 방법임. 그러나 개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유통경로, 비용 자료를 협조받기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취급 물량이 많은 사업자 중 조사에 협조적인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

3. 수산물 품목별 유통 실태 조사 체계(안)

가. 대상 품목의 선정

- 전체 수산물 공급(생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대중성 품종, 정부의 수급 관리 대상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선정

나. 유통 실태 조사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

- 유통 실태 기본 조사 설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6단계를 통해 실시
- 1단계: 품목별 기초 자료 수집 - 생산(월별, 업종별), 수출입, 재고, 가격 등
- 2단계: 기초 자료 분석 - 핵심 유통 경로 분석 및 성어기를 반영한 조사 시기 결정
- 3단계: 품목 유통 경로 특징을 반영한 조사표 초안 작성 및 자문
- 4단계: 조사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 5단계: 조사 결과 정리
- 6단계: 전문가 위원회 자료 검증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이러한 6단계의 조사 단계별 주요 내용은 <표 4-3>과 같음

<표 4-3>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의 단계별 내용

구분	내용
<1단계> 기초자료 수집	• 품목별 생산(연도별, 월별, 어업별, 업종별, 지역별) • 주요 생산 크기별 기준, 위판 형태 • 계통 및 비계통 출하량, 수협별 위판 실적(5년, 월별) • 수출입량(연도별, 국가별, HS코드별) • 연도별 수급(이입재고, 생산, 수입 / 국내소비, 수출, 이월재고) • 월별 산지·도매·소비자가격(신선, 냉동, 필요시 활어)
<2단계> 기초자료 분석	• 유통경로 분석 • 품목별·제품별 주된 유통경로 분석 • 유통 실태 현장 조사 시기 결정을 위한 성어기 분석
<3단계> 조사표 초안 작성	• 사전에 파악된 주 유통 경로를 토대로 한 유통 실태 조사표 초안 작성 • 작성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행 • 조사표 최종 확정
<4단계> 조사대상 선정 및 현장조사	<산지단계> • 고등어: 부산공동어시장 • 갈치: 부산(부산공동어시장), 제주(서귀포, 성산포) • 오징어: 국내산 신선·냉장(후포, 구룡포, 속초), 원양(국제수산물도매시장) • 명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 참조기: 제주(한림수협), 목포(목포수협) • 넙치: 제주 • 전복: 완도 <도매단계> •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 노량진수산물시장, 가락시장 • 넙치, 전복: 인천활어시장, 하남활어시장 <소매단계> • 대형소매점 3사, 백화점(롯데, AK, 신세계), 전통시장 등 <현장조사> • 고등어/오징어/참조기: 9~익년 2월 • 갈치/명태: 7~익년 2월 • 넙치, 전복: 익년 2월
<5단계> 결과 정리	• 조사 결과의 집계 및 분석
<6단계> 결과 검증	• 결과 검증: 12월~익년 4~5월 수행 • 산지, 도매, 소매단계의 취급물량이 많은 업체 관계자, 수산물 유통 전문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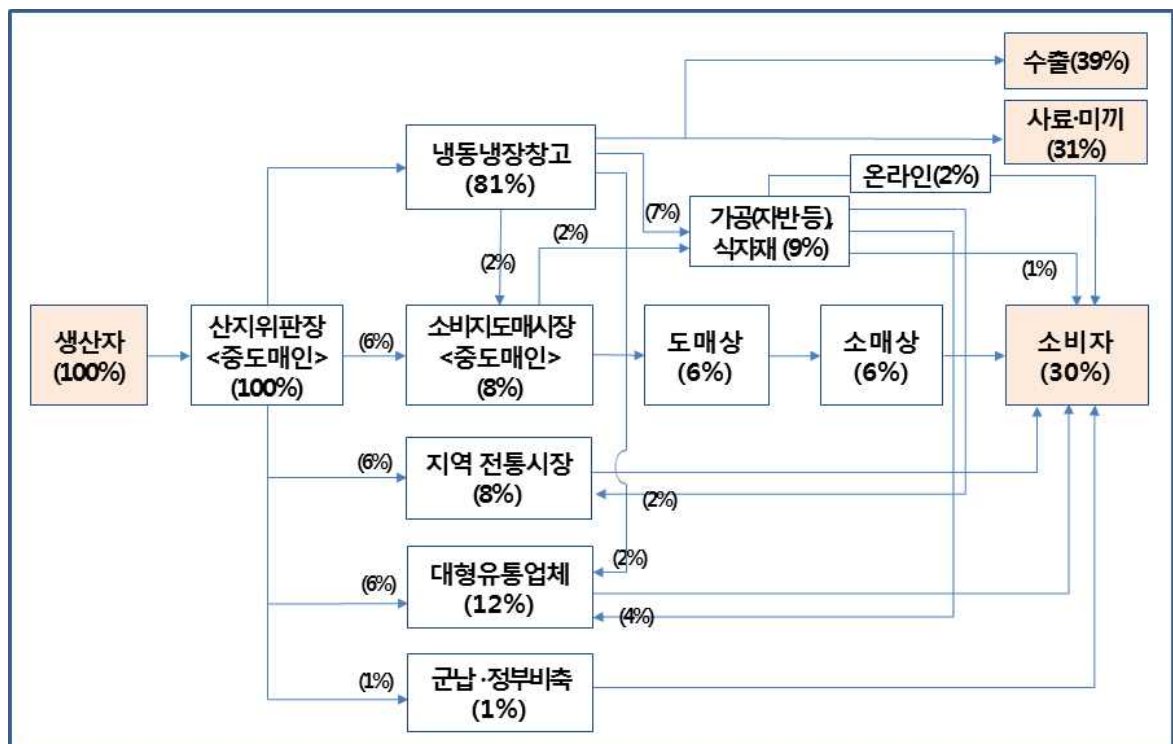
4. 품목별 주요 경로 및 조사 내용

- 다음은 조사대상 7개 품종의 유통경로와 유통단계별 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각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이중 주된 유통경로와 상품 형태에 대해 유통단계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음

가. 고등어

- 유통 경로
 - 고등어는 산지에서 대부분 선어로 위판되는데, 이후 산지위판장에서 경락된 상품을 선어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와 냉동보관 후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최근 고등어를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음

<그림 4-3> 고등어의 유통경로



○ 유통 실태 조사 항목

<표 4-4> 고등어(선어)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고등어(선어) 유통비용
(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자 도매시장)

단위: 원/kg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야간부녀반 노임	
	위판수수료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스티로폼)	
	얼음대	
	노임	선별비(주간부녀반)
		비움작업, 포장, 상차비 등(하조반)
		운반비
		기타(빙운반비 등)
	물류비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산지출하(판매) 가격	
소비자 도매시장	하차비	
	경매수수료	
	경매 낙찰가격	
소비자 중도매인	상차비	
	물류비	
	간접비	
	이윤	
	중도매인 판매가격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
(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야간부녀반 노임	
	위판수수료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스티로폼)	
	노임	선별비(주간부녀반)
		비움작업, 포장, 상차비 등(하조반)
		운반비
		기타(빙운반비 등)
		얼음
	비닐	
	테이프	
	물류비	
	물류 대행비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산지출하(판매) 가격	
대형소매업 체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표 4-5> 고등어(선어→동결), 고등어(수입)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
(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

단위: 원/kg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야간부녀반 노임	
	위판수수료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종이상자)	
	노임 (어시장)	주간부녀반 (선별비 등)
		하조반(남자노임)
		상차비
		상차시 추가노임 (파레트 사용시)
		기타
	비닐	
	파렛트 비용	
	물류비	
	노임 (창고)	상차비
		하차비
	창고 (비용)	동결비
		입고비
		출고비
		발체비
	창고 보관료(90일 기준)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판매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경매수수료	
	경매 낙찰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상차비	
	운반비	
	간접비	
	이윤	
	중도매인 판매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
(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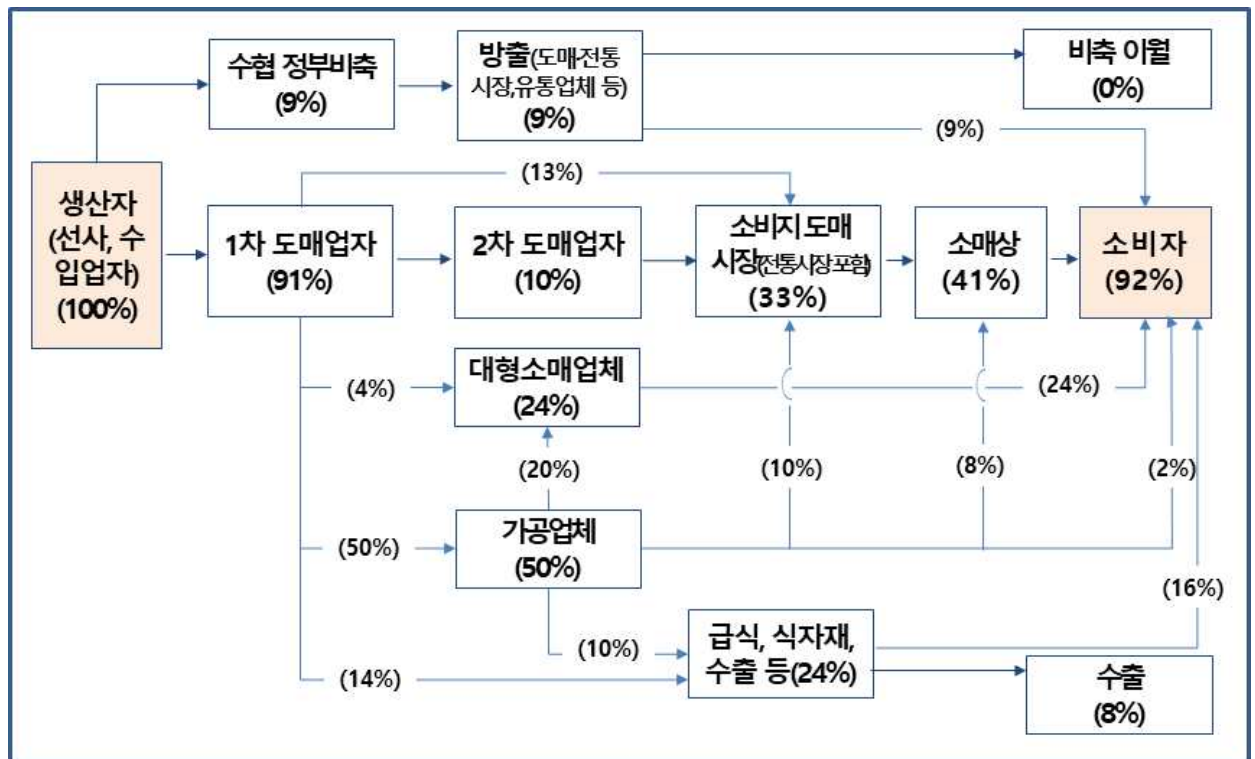
구분			
수입업체	수입원가	CFR 가격	
		수입관세	
		운송서류(BL) 발급비용	
		부두처리비용	
		부두사용료	
		컨테이너 청소비용	
		내륙운송비용	
		관세사 비용	통관수수료
		검역수수료	
		소계	
	LABEL 비용		
	창고 비용	노임	LABEL부착비
			상차비
			하차비
		입고비	
		출고비	
		창고 보관료(90일기준)	
	수입업자 수수료(이윤)		
	판매가격		
도매업자	운송비		
	중도매인 수수료		
	판매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경매수수료		
	경매 낙찰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상차비		
	운송비(물류비)		
	간접비		
	소비지 중도매인 이윤		
	판매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나. 명태

○ 유통 경로

- 명태의 경우 러시아에서 원양으로 생산되거나 수입하는데, 모두 냉동상태로 반입됨
- 따라서 냉동반입 후 도매업자를 거쳐, 소비지도매시장 -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경로를 설정하였음

<그림 4-4> 명태의 유통경로



○ 유통 실태 조사 항목

<표 4-6> 명태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명태(냉동)의 유통비용
(부산 → 노량진수산시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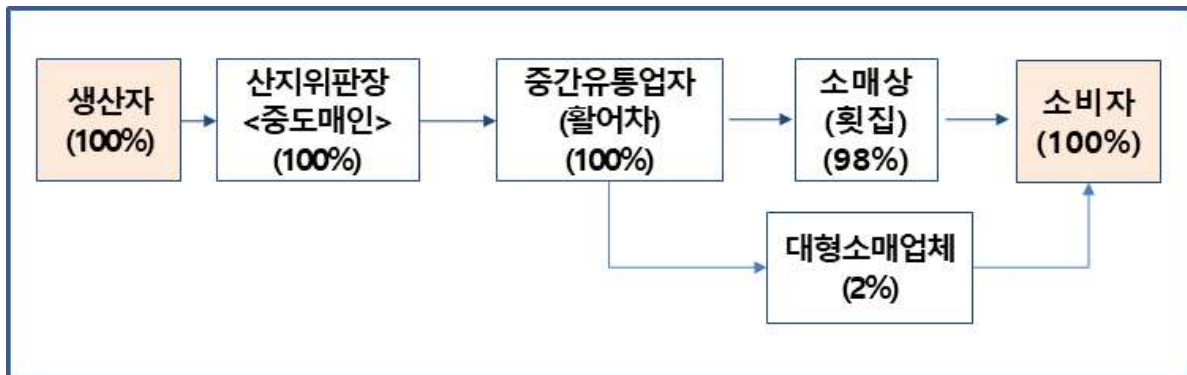
구분	
원양선사 (수입업자)	냉동명태 원가
	부두 하역비
	육상운반비
	검수비
	하차비
	입고비
	냉장료
	위판수수료
	이윤
	선사 판매가격
1차 도매업체	냉장료
	출고비
	상차비
	운송비 (부산→서울)
	간접비
	이윤
	1차 밴더 판매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경매수수료
	소비지도매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상차비
	간접비
	이윤
	소비지 중도매인 판매가격
소비지 소매상	물류비
	간접비
	이윤
	소매상 판매가격

다. 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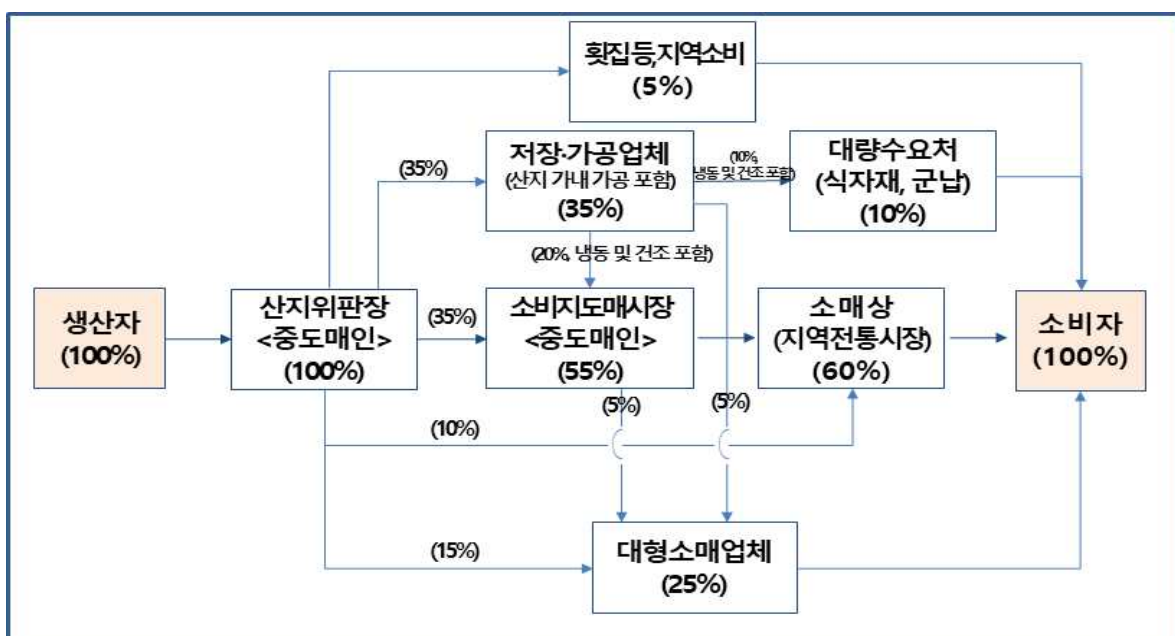
○ 유통 경로

- 오징어의 경우 국내에서 활어와 선어로 주로 생산되며, 수입오징어는 냉동 상태로 반입되어 유통됨
- 따라서 유통경로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오징어(활어), 오징어(선어), 수입오징어(냉동)로 구분하여 조사를 설계하였음

<그림 4-5> 오징어(활어)의 유통경로



<그림 4-6> 오징어(선어)의 유통경로



○ 유통 실태 조사 항목

<표 4-7> 국산 오징어(활어, 선어)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오징어(활어)의 유통비용
(경북 울진 후포항 → 소매상(횃집))

단위: 원/kg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이윤
	산지출하(판매)가격
중간유통 업자 (활어차)	유류비
	물·가스비
	이윤
	중간유통업자 판매가격
소비지 소매상 (횃집)	간접비
	이윤
	소매상 판매가격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
(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단위: 원/kg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비	
	배열비	
	위판수수료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선별비	
	운반비	
	박스작업 (선어화)	스티로폼박스
		얼음
		작업 노임
	상차비	
	운송비(산지→소비지)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산지출하(판매)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경매수수료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상차비	
	간접비	
	이윤	
	소비지 중도매인 판매가격	
소비지 소매상	운송비	
	간접비	
	이윤	
	소매상 판매가격	

<표 4-8> 수입 오징어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
(부산항→ 가락시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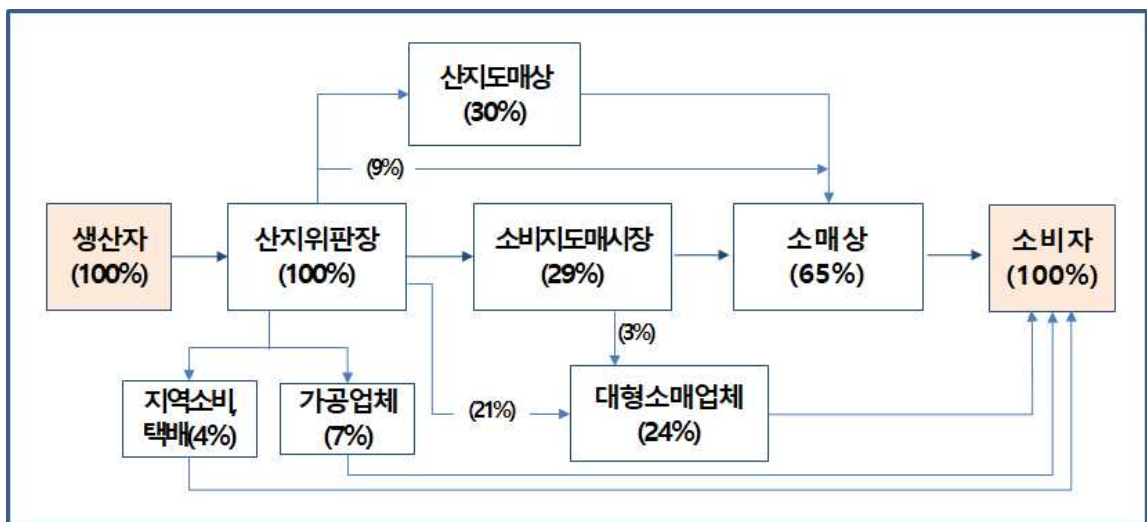
구분	
수입업자	수입원가
	수입관세
	수입가격
	부두하역비
	육상운반비(부두→창고)
	하차비
	창고입고비
	창고출고비
	냉장료
	상차비
	운송비(부산→서울)
	수입업자 이윤
	수입업자 판매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경매수수료
	소비지도매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상차비
	간접비
	이윤
	소비지 중도매인 판매가격
소비지 소매상	운송비
	간접비
	이윤
	소매상 판매가격

라. 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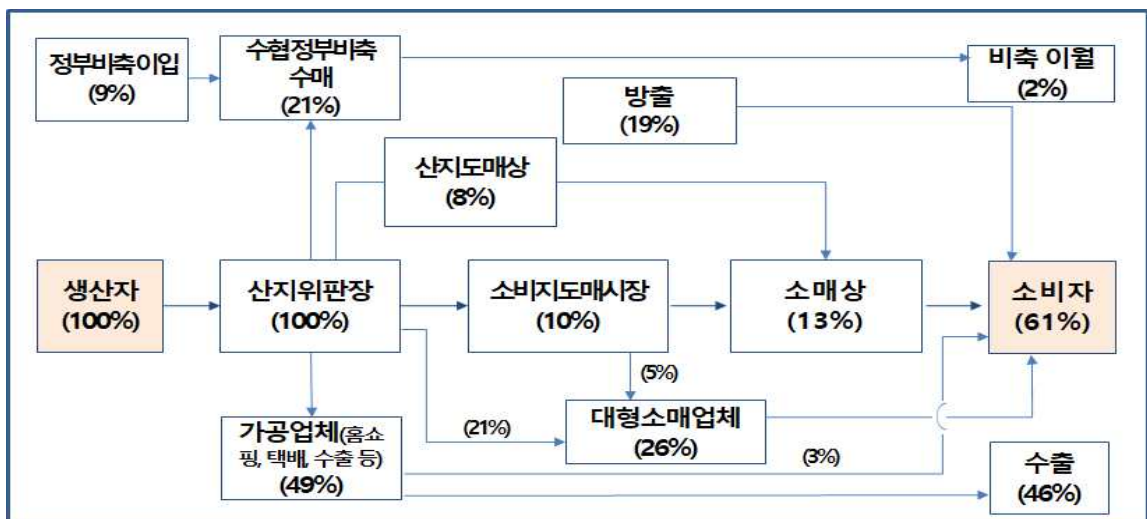
○ 유통 경로

- 갈치는 여타 대중성 품종과 달리 생산단계에서부터 선어와 냉동으로 구분되어 생산됨

<그림 4-7> 갈치(선어)의 유통경로



<그림 4-8> 갈치(냉동)의 유통경로



- 유통실태 조사는 선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지역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과 노량진시장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조사하였음

○ 유통 실태 조사 항목

<표 4-9> 갈치(선어)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갈치(선어)의 유통비용
(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비	
	위판수수료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	
	물류비(운반·운송비)	
	박스작업	얼음, 끈, 테이프, 내피
	인건비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산지 출하(판매)가격	
대형 소매업체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갈치(선어) 유통비용
(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시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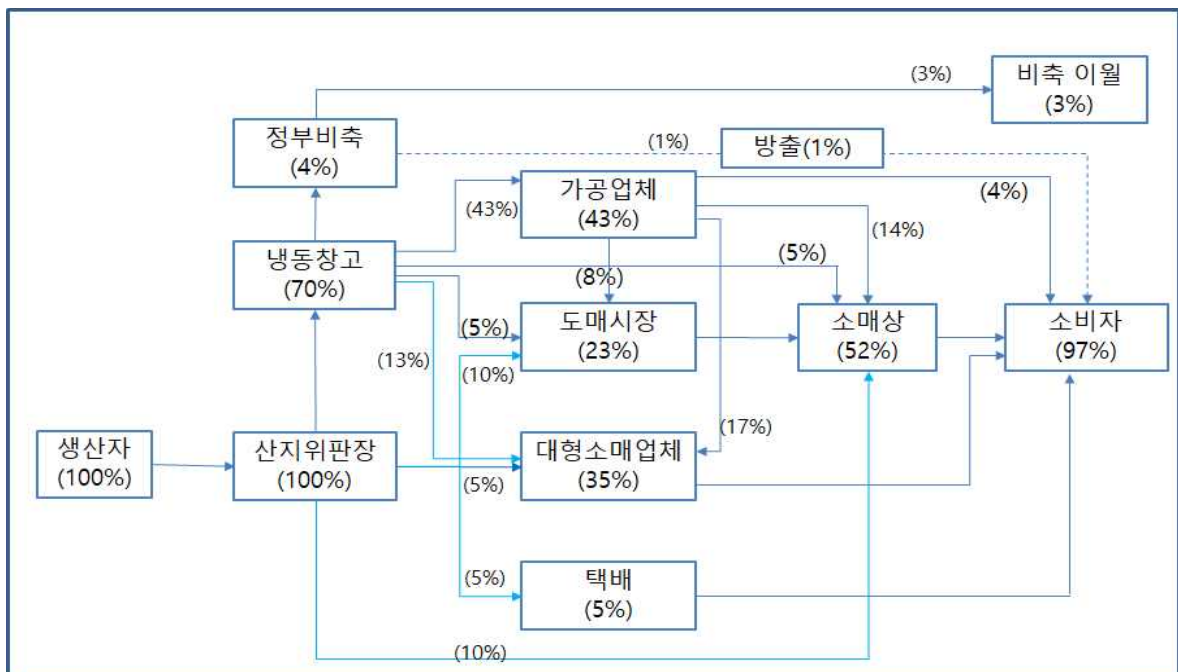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비	
	위판수수료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	
	물류비(운송비)	
	박스작업	
	기타 경비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산지 출하(판매)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경매수수료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상차비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마. 참조기

○ 유통 경로

- 참조기는 굴비로 가공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아니면, 선어상태로 판매되거나, 동결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제주와 목포지역이 주 산지임
- 이에 따라 유통경로도 선어와 냉동으로 구분하고, 실태조사 항목도 이에 맞추어 설계하였음

<그림 4-9> 참조기의 유통경로



○ 유통 실태 조사 항목

<표 4-10> 참조기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참조기(선어)의 유통비용
(목포 → 노량진수산시장)

단위: 원/kg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비	
	선별 작업	입상
		선별
		보조
	어상자대	
	위판수수료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포장 작업	보호틀
		비닐
		얼음
		작업노임
		스티로폼박스
	운송비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산지 출하(판매)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경매수수료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상차비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참조기(선어→동결) 유통비용
(제주, 목포 →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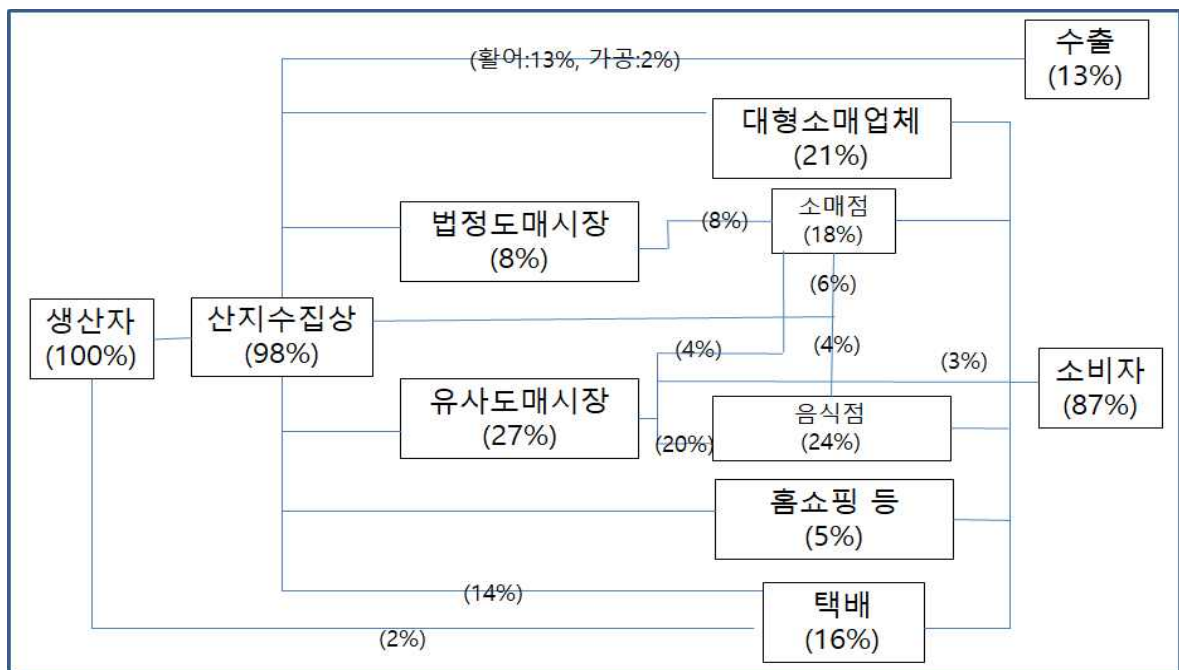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비	
	선별 작업	
	어상자대	
	상자포장비	
	위판수수료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포장 작업	내피
		덧개
		끈
		노임
	냉동 창고	대차
		입출고비
		동결비
		냉동보관 입출고비
		냉동보관료
	운송비(동결 후)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산지 출하(판매)가격	
대형소매 업체	간접비	
	이윤	
	판매가격	

바. 양식전복

○ 유통 경로

- 전복은 앞서 설명된 대중성 품종과 달리 대부분 산지에서 비계통으로 산지수집상에 의해 유통됨
- 이에 따라 활전복 유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는 대형소매점을 기준으로 조사를 설계하였음

<그림 4-10> 양식전복의 유통경로



○ 유통 실태 조사 항목

<표 4-11> 양식 전복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양식전복의 유통비용
(완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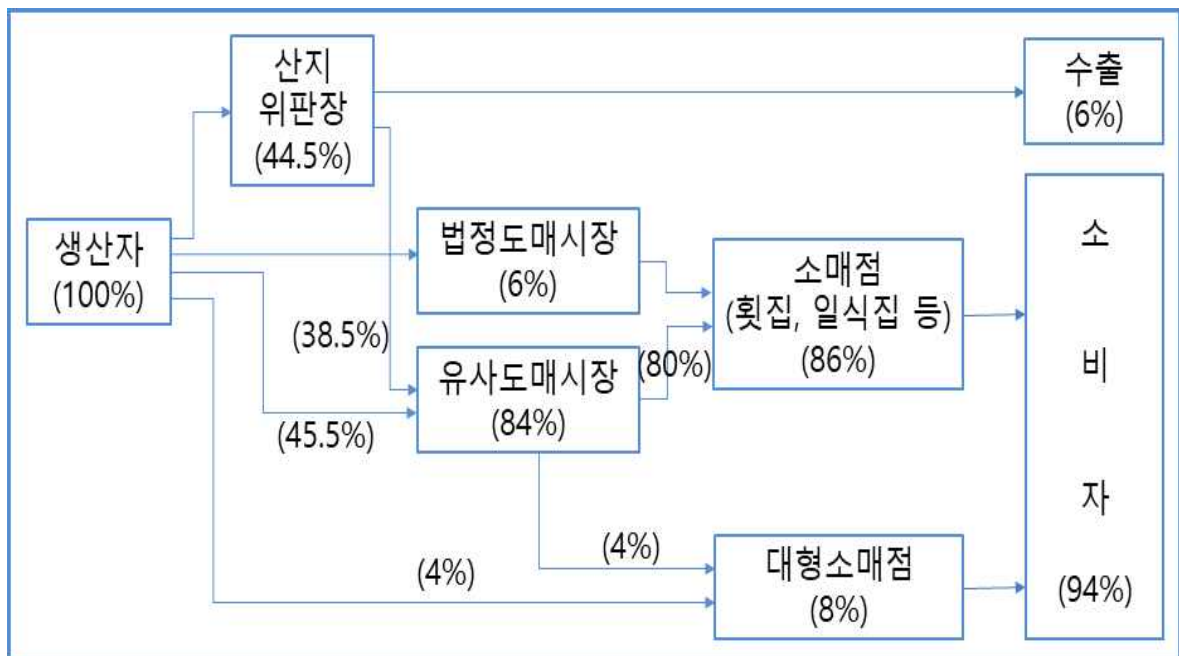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수집상	인건비
	전력비
	운반비
	간접비
	이윤
	산지유통인 판매가격
대형소매업체	간접비
	이윤
	도매가격

사. 양식넙치

○ 유통 경로

- 넙치는 전복과 마찬가지로 산지에서 비계통으로 판매되는 비중이 대중성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국내 최대 산지인 제주도의 경우 계통판매 비중이 높은 편임
- 그러나 유통비용에서의 차이는 산지가격에 위판수수료가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 외에 산지유통인 수수료는 계통판매와 비계통판매간 차이가 거의 없이 물류비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 유통 경로는 산지에서 소비지에 위치한 유사도매시장으로 유통되어 횃집으로 공급되는 구조이며, 일부 대형소매점을 통해 소비되기도 함
- 이에 따라 산지-소비지 유사도매시장-대형소매점과 산지-소비지 유사도매시장-대형소매점의 두 가지 유통경로를 기준으로 조사를 설계하였음

<그림 4-11> 양식 넙치의 유통경로



○ 유통 실태 조사 항목

<표 4-12> 양식 넙치의 유통경로별 실태조사 항목

넙치의 유통비용
(제주도 → 서울 활어횃집)

단위: 원/kg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수수료
	산지출하가격
도매유통단계	물류비
	도매상 간접비
	도매상 수수료(이윤)
	도매가격
소매유통단계	영어비용
	이윤
	소매점 판매가격

넙치의 유통비용
(제주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구분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산지출하가격
도매유통단계	물류비
	도매상 간접비
	도매상 수수료(이윤)
	도매가격
소매유통단계	간접비
	입점수수료
	이윤
	대형소매점 판매가격

제2절 고등어 유통실태조사

1. 고등어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2019년 고등어류 총생산량은 12만 1,624톤으로 2019년 들어 어황이 좋지 않아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으며, 평년보다도 20% 이상 적었음
- 이 중 2019년에 생산이 급증했던 망치고등어 생산량은 전년보다 72.8% 감소한 2만 252톤이었음

<표 4-13>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비중	천해양식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96,297	96,297 -	100.0	-	0.0	-	-
1995년	200,481	200,481 -	100.0	-	0.0	-	-
2000년	145,945	145,908 -	100.0	-	0.0	37	-
2005년	135,806	135,596 -	99.8	80	0.1	130	0.1
2010년	99,890	99,534 (5,203)	99.6	285	0.3	71	0.1
2014년	131,200	129,921 (2,471)	99.0	172	0.1	1,107	0.8
2015년	140,979	140,624 (8,889)	99.7	113	0.1	242	0.2
2016년	156,224	155,444 (22,244)	99.5	247	0.2	533	0.3
2017년	115,913	115,260 (11,390)	99.4	203	0.2	450	0.4
2018년	216,608	215,933 (74,403)	99.7	280	0.1	395	0.2
2019년	121,624	121,373 (20,252)	99.8	230	0.2	21	0.0
5개년 평균	150,270	149,727 (27,436)	99.6	215	0.1	328	0.2

주: 1) 고등어류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망치고등어도 포함됨

2) 일반해면어업의 ()는 망치고등어이며, 천해양식어업은 고등어, 원양어업은 고등어류로 집계하였음

3) 2019년은 잠정치이며,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어업별로는 일반해면어업 생산 비중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천해양식 및 원양어업 생산 비중은 각각 0.2%, 0.0%이었음
- 2019년 평균 국내 고등어 생산금액은 약 1,521억 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해면어업 비중이 97.9%로 가장 높았음
- 양식 고등어 생산금액은 총 생산금액의 2.1%로 물량비중(0.2%)에 비해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주로 횡감용으로 유통되어 판매단가가 높았기 때문임

<표 4-14>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비중	천해양식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54,715	54,715	100.0	-	-	-	-
1995년	130,150	130,150	100.0	-	-	-	-
2000년	148,785	148,771	100.0	-	-	13	-
2005년	168,128	167,382	99.6	724	0.4	22	0.0
2010년	178,587	175,328 (7,452)	98.2	3,232	1.8	27	0.0
2014년	218,600	215,073 (6,574)	98.4	2,516	1.2	1,011	0.5
2015년	219,695	217,747 (5,590)	99.1	1,808	0.8	140	0.1
2016년	190,996	186,647 (19,444)	97.7	4,137	2.2	212	0.1
2017년	146,409	142,732 (6,574)	97.5	3,433	2.3	244	0.2
2018년	216,366	212,012 (55,597)	98.0	4,165	1.9	189	0.1
2019년	152,064	148,817 (19,444)	97.9	3,243	2.1	4	0.0
5개년 평균	185,106	181,591 (21,330)	98.1	3,357	1.8	158	0.1

주: 1) 고등어류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망치고등어도 포함됨

2) 일반해면어업의 ()는 망치고등어이며, 천해양식어업은 고등어, 원양어업은 고등어류로 집계하였음

3) 2019년은 잠정치이며,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2019년 월별 고등어 생산량은 1월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년보다 적었고, 자율휴어기 종료 이후 증가세였으나, 절대량은 전년 및 평년에 비해 줄었음
-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300g 이상 크기의 중·대형어 비중은 26.0%로 전년(36.6%)보다 낮았음

- 금어기 종료 후 10월까지 중·대형어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했음
- 그러나 주 어기인 연말로 갈수록 중·대형어 어획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11~12월에는 20% 내외로 급격히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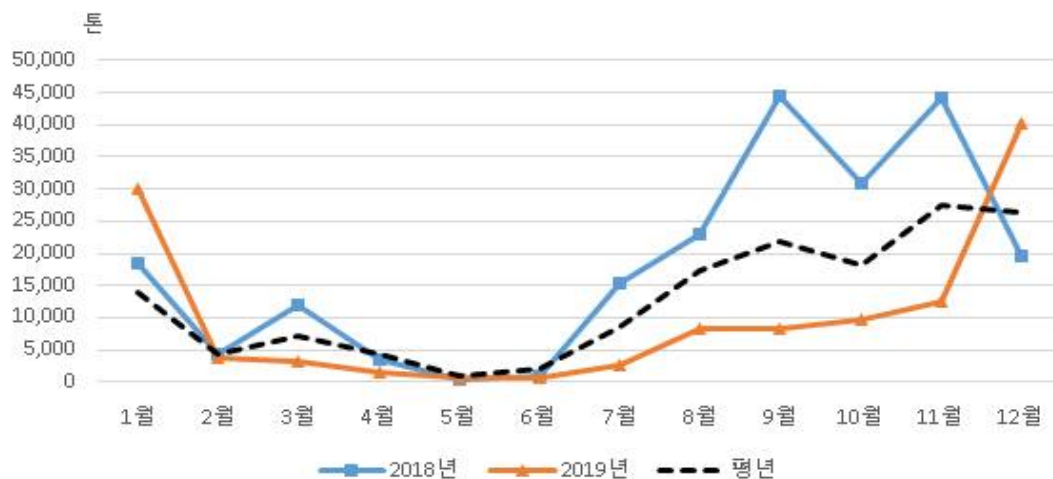
<표 4-15> 연도별·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812	16,550	16,474	10,834	18,319	30,165	18,468	64.7	118.6
2월	4,060	7,554	2,425	3,213	4,438	3,657	4,257	-17.6	-15.7
3월	3,176	14,740	3,762	1,766	11,958	3,152	7,076	-73.6	-55.5
4월	1,762	10,453	5,614	238	3,518	1,644	4,293	-53.3	-61.9
5월	751	368	2,273	863	304	585	879	92.4	-35.8
6월	1,481	3,815	2,253	2,185	908	732	1,979	-19.4	-65.6
7월	5,995	6,905	6,051	8,006	15,284	2,565	7,762	-83.2	-69.6
8월	17,034	17,531	14,097	14,977	22,995	8,188	15,558	-64.4	-52.7
9월	14,890	13,914	21,207	15,125	44,424	8,414	20,617	-81.1	-61.6
10월	12,531	14,852	24,554	8,128	30,801	9,766	17,620	-68.3	-46.3
11월	29,753	15,923	33,386	13,624	44,111	12,588	23,926	-71.5	-54.0
12월	32,955	18,375	24,126	36,957	19,545	40,167	27,834	105.5	52.2
합계	131,200	140,979	156,224	115,913	216,608	121,624	150,270	-43.9	-20.1

주: 1)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고등어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생산량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4-12> 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추이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고등어는 선어로 양륙·위판되는 비중이 98.3%로 가장 높았으며, 활어, 냉동품은 미미했음

<표 4-16>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269	168	301	246	401	328	0.3	289
선어	129,590	138,854	155,261	114,771	215,574	119,595	98.3	148,811
냉동	1,340	1,957	661	896	633	1,701	1.4	1,170
합계	131,199	140,979	156,223	115,913	216,608	121,624	100.0	150,269

주: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2019년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고등어의 97.5%가 계통출하 되었음
 - 부류별로 보면, 선어 및 냉동품이 계통출하 비중은 각각 97.7%, 98.8%이었으나, 활어의 계통출하 비중은 29.6%에 그쳤음

<표 4-17>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활 어	계통	93	52	45	35	114	97	29.6	69
	비계통	176	115	256	211	287	231	70.4	220
	소계	269	168	301	246	401	328	100.0	289
선 어	계통	129,503	138,767	155,144	114,298	212,505	116,818	97.7	147,506
	비계통	87	87	117	473	3,069	2,777	2.3	1,305
	소계	129,590	138,854	155,261	114,771	215,574	119,595	100.0	148,811
냉 동	계통	233	1,715	128	444	238	1,680	98.8	841
	비계통	1,107	242	533	451	395	21	1.2	328
	소계	1,340	1,957	661	896	633	1,701	100.0	1,170
합 계	계통	129,829	140,534	155,317	114,777	212,857	118,595	97.5	148,416
	비계통	1,370	444	906	1,135	3,751	3,029	2.5	1,853
	합계	131,199	140,979	156,223	115,913	216,608	121,624	100.0	150,269

주: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2019년 지역별 고등어류 생산량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총생산량의 82.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7.3%), 제주도(2.8%), 강원도(2.8%) 순이었음

<표 4-18> 연도별 지역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부산광역시	112,122	122,148	133,920	93,906	176,489	100,356	82.5	125,364
인천광역시	6	3	7	2	3	8	0.0	5
울산광역시	22	100	167	211	134	102	0.1	143
경기도	0	0	0	2	0	0	0.0	0
강원도	113,237	257	322	168	5,193	3,352	2.8	1,858
충청남도	14	17	8	11	19	265	0.2	64
전라북도	473	696	891	456	398	844	0.7	657
전라남도	1,647	1,255	938	1,051	940	2,072	1.7	1,251
경상북도	2,296	560	674	1,072	8,282	2,347	1.9	2,587
경상남도	7,647	7,248	9,755	14,312	17,513	8,872	7.3	11,540
제주도	4,751	8,452	9,009	4,272	7,242	3,385	2.8	6,472
원양산	1,107	242	533	451	395	21	0.0	328
합계	131,200	140,979	156,224	115,913	216,608	121,624	100.0	150,270

주: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2019년 어법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대형선망어업 생산량이 총생산량의 8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정치망(5.1%), 소형선망(1.1%), 근해자망(1.0%) 등에서도 일부 생산되었으나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임

<표 4-19> 연도별 어법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대형선망	122,311	133,878	149,253	102,874	194,366	108,087	88.9	137,692
정 치 망	3,344	770	1,010	2,978	12,406	6,257	5.1	4,684
대형트롤	133	289	28	380	226	1,938	1.6	572
소형선망	1,188	1,738	2,536	1,272	2,332	1,357	1.1	1,847
근해자망	849	1,192	631	717	849	1,195	1.0	917
서남해구쌍끌이 이중형저인망	74	145	88	2,840	1,241	675	0.6	998
기타	3,301	2,967	2,678	4,852	5,188	2,115	1.7	3,560
계	131,200	140,979	156,224	115,913	216,608	121,624	100.0	150,270

주: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나. 수출입 현황

- 2019년 고등어 수출량은 4만 4,608톤으로 생산이 크게 줄면서 전년보다 36.3% 감소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43.0% 많았음
 - 수출금액은 4천 9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1% 감소했으나, 수출단가는 소폭 상승했음
- 2019년 고등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4만 2,054톤이었으며,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13.4% 많은 8,143만 달러였음
 - 이 중 노르웨이 냉동고등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3만 4,876톤이었음
 - 이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노르웨이 고등어 TAC⁴⁵⁾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총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임

<표 4-20> 연도별 고등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4년	22,414	26,937	1.2	33,052	71,050	2.1
2015년	25,795	25,808	1.0	50,923	91,599	1.8
2016년	21,046	23,598	1.1	44,300	72,849	1.6
2017년	16,665	20,353	1.2	44,633	74,370	1.7
2018년	70,010	68,574	1.0	41,273	71,837	1.7
2019년	44,608	49,962	1.1	42,054	81,433	1.9
5개년 평균	35,625	37,659	1.1	44,636	78,418	1.8
전년 대비	-36.3	-27.1	14.3	1.9	13.4	11.3
평년 대비	43.0	51.2	1.4	-1.8	6.7	7.6

주: 1) 수출입 중량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원물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19년 제품형태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냉동품이 전체 수출량의 98.0%, 수출금액의 9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음
- 수입의 경우에도 냉동품이 대부분(98.6%)을 차지했고, 선어, 염장·염수장, 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등은 미미하였음

45)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는 자원량 감소와 높은 어획 강도를 이유로 2019년 대서양 고등어 TAC를 40% 이상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세계적으로 북동대서양 고등어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과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8년에 이어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데 그쳤음

<표 4-21> 제품형태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2440000	354	0.8	1,819	3.7	18	0.0	48	0.1
냉동	0303540000	43,879	98.0	45,365	91.6	42,003	98.6	81,212	97.3
염장·염수장	0305695000	180	0.4	1,332	2.7	0	0.0	0	0.0
조제·밀폐용기	1604151000	350	0.8	891	1.8	527	1.2	2,060	2.5
기타	1604159000	16	0.0	114	0.2	32	0.1	173	0.2
합계		44,779	100.0	49,521	100.0	42,580	100.0	83,4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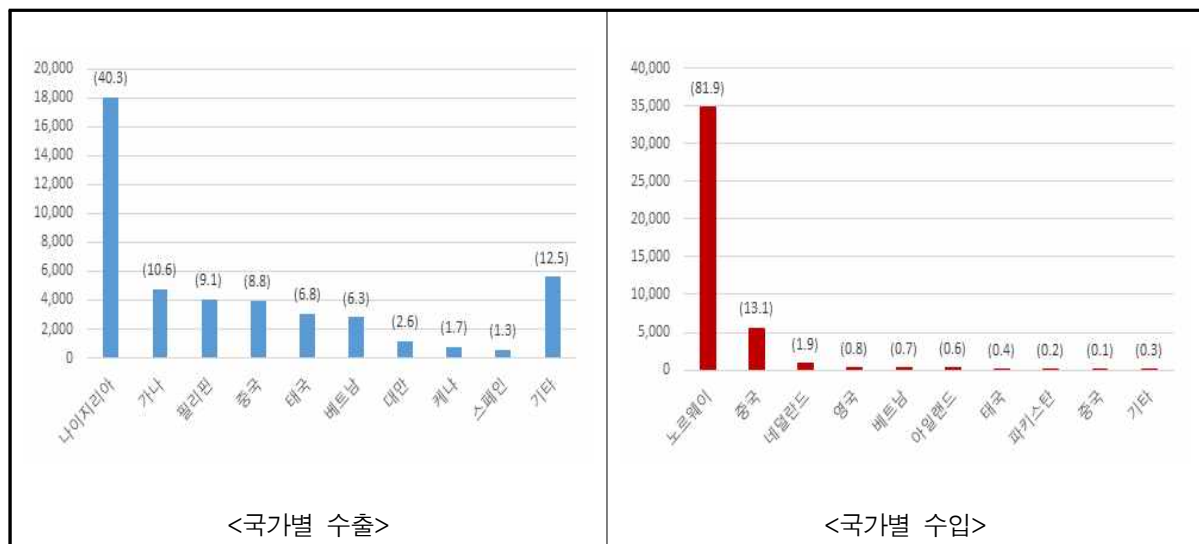
주: 수출입 중량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원물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19년 기준 세계 124개국에 고등어를 수출하였으며, 주요 국가는 나이지리아(40.3%), 가나(10.6%), 필리핀(9.1%), 중국(8.8%), 태국(6.8%) 등이었음
- 수입대상국은 28개국으로 노르웨이(81.9%), 중국(13.1%)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네덜란드(1.9%), 영국(0.9%), 베트남(0.7%) 등에서도 소량 수입되었음

<그림 4-13> 국가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톤,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2019년 고등어 총 공급량은 21만 2,649톤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음. 생산이 전년 대비 30% 정도 줄었으나, 이입 재고가 30% 정도 늘면서 총 공급량 감소 폭은 크지 않았음
 - 총 공급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6%였으며, 수입은 20.5%, 이입 재고는 31.9%였음
- 2019년 국내 고등어 소비량은 11만 7,524톤으로 전년 대비 20.2% 늘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16.6% 적었음
 - 국내 소비가 늘었고, 공급도 많지 않아 재고량은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26.9%, 33.3% 적었음
 - 총 공급량에서 국내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3%, 수출은 21.4%, 이월 재고는 23.4%였음

<표 4-22> 연도별 고등어 수급구조

단위: 톤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4년	127,450	33,724	74,415	235,589	133,396	23,122	79,071	95.5
2015년	131,735	51,756	79,071	262,562	138,938	26,357	97,267	94.8
2016년	133,200	45,134	97,267	275,601	178,175	21,612	75,814	74.8
2017년	103,870	45,598	75,814	225,282	155,990	16,944	52,348	66.6
2018년	141,530	42,653	52,348	236,531	97,793	70,818	67,920	144.7
2019년	101,121	43,608	67,920	212,649	117,524	45,469	49,656	86.0
전년 대비	-28.6	2.2	29.7	-10.1	20.2	-35.8	-26.9	-
평년 대비	-20.7	-0.4	-10.4	-13.9	-16.6	43.1	-33.3	-

주: 1) 국내생산은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생산량의 합이며, 망치고등어는 제외하였음
 2)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3) 국내생산은 참고등어로 집계하였으나, 수출입은 망치고등어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고등어 산지가격은 고등어의 크기 및 품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이에 따라 산지가격은 국내에서 고등어 생산량이 가장 많은 대형선망수협(중품)46) 가격을 추정하였음
- 대형선망수협 위판자료를 기준으로 한 고등어(중품) 산지가격은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상승한 kg당 2,961원에 형성되었음
- 월별 고등어 산지가격은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 이전에 높게 형성되다가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에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하락세를 보이며, 이후 생산이 본격화되고 고품질 고등어의 생산이 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2019년에는 자율휴어기 이전인 4월까지 전년도 생산량 급증으로 재고가 많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한 kg당 3,347원에 형성되었음
 - 한편 7~12월에 산지가격은 어획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높았음

<표 4-23>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동향(대형선망수협)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621	5,147	3,562	4,249	4,196	1,981	3,827	-52.8	-52.3
2월	3,822	4,919	3,825	4,562	4,161	3,486	4,191	-16.2	-18.1
3월	3,979	5,207	4,435	4,013	4,294	3,697	4,329	-13.9	-15.7
4월	4,657	5,201	4,855	-	4,227	4,222	4,626	-0.1	-10.8
5월	4,450	-	5,006	4,512	-	-	4,759	-	-
6월	3,561	4,128	3,333	4,239	-	-	3,900	-	-
7월	2,861	2,720	2,146	3,346	1,545	2,164	2,384	40.1	-14.2
8월	2,297	1,657	1,819	1,803	1,579	2,046	1,781	29.6	11.7
9월	2,368	2,046	1,693	1,984	1,499	2,391	1,923	59.5	24.7
10월	3,692	2,594	1,918	2,318	2,039	2,880	2,350	41.2	14.6
11월	3,680	3,027	2,471	4,869	2,354	3,054	3,155	29.7	-6.9
12월	4,456	2,650	3,022	3,635	2,068	3,689	3,013	78.4	16.5
연평균	3,620	3,572	3,174	3,594	2,796	2,961	3,219	5.9	-11.6

주: 1) 산지가격은 갈고(300~350g), 갈소고(350~450g)의 위판량에 덤비율 39%를 적용한 대형선망수협 위판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대형선망수협 제공 내부자료.

46) 대형선망수협의 고등어 중품가격은 갈고(마리당 300~350g), 갈소고(마리당 350~450g) 크기의 위판량에 덤비율 39%를 적용한 위판가격임

<그림 4-14> 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추이(대형선망수협)



주: 1) 산지가격은 갈고(300~350g), 갈소고(350~450g)의 위판량에 덤비율 39%를 적용한 대형선망수협 위판가격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 통계청의 2019년 고등어 생산단가는 전년 대비 21.9% 상승한 kg당 1,857원이었는데, 이는 대형선망수협 위판단가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임
- 이는 대형선망수협의 위판단가는 마리당 300~450g의 기준으로 산지가격을 추정하나, 통계청 생산단가에는 크기 구분이 없이 총 생산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상품성이 낮은 소형고등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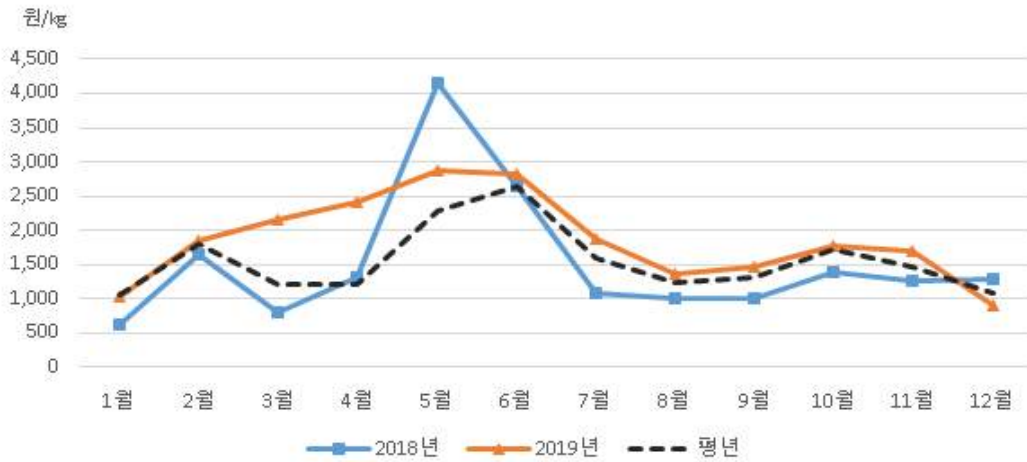
<표 4-24> 연도별·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674	1,347	944	1,067	636	1,030	1,002	61.9	-3.3
2월	2,022	1,480	2,482	1,981	1,658	1,864	1,758	12.4	3.5
3월	2,227	966	1,790	3,112	815	2,158	1,169	164.8	78.1
4월	1,935	981	1,235	3,683	1,314	2,420	1,205	84.2	101.2
5월	3,489	3,653	1,342	2,665	4,143	2,864	2,167	-30.9	24.8
6월	4,889	1,842	2,846	2,693	2,648	2,822	2,397	6.6	6.5
7월	2,656	1,766	1,676	1,437	1,086	1,888	1,455	73.8	18.5
8월	1,511	1,274	1,230	1,139	1,018	1,378	1,187	35.4	11.4
9월	1,398	2,039	1,155	1,490	1,018	1,467	1,321	44.1	11.2
10월	2,216	2,345	1,235	1,851	1,383	1,783	1,636	28.9	3.7
11월	1,850	1,707	1,252	994	1,253	1,704	1,361	36.0	17.0
12월	967	1,628	1,077	930	1,301	903	1,062	-30.6	-17.3
연평균	2,236	1,752	1,522	1,920	1,523	1,857	1,289	21.9	36.6

주: 1)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고등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지가격은 가중평균(생산금액/연간 생산량) 값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15> 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추이



주: 1) 일반해면어업 고등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지가격은 가중평균(생산금액/연간 생산량) 값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도매가격

- 2019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은 생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4.4% 하락한 kg당 3,721원에 형성되었으며, 산지가격에 비해 등락폭이 크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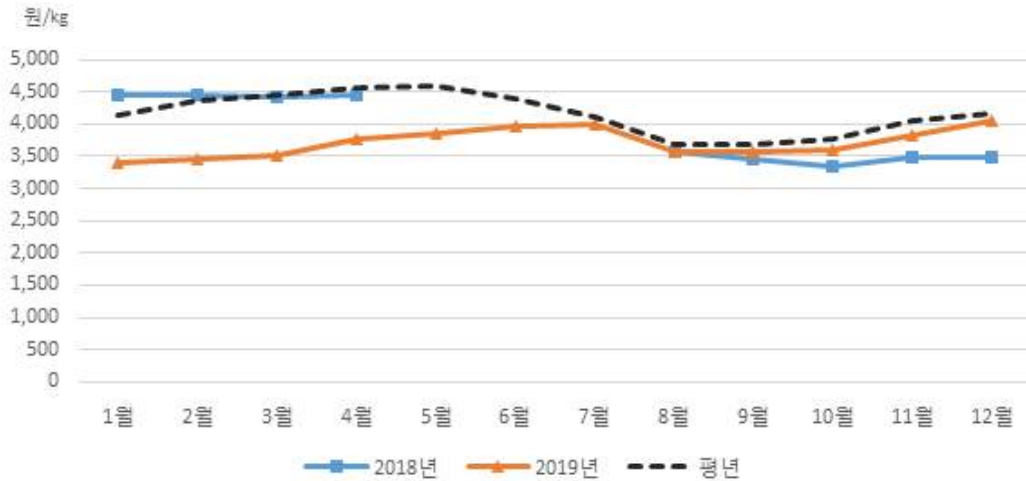
<표 4-25>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223	4,799	3,934	4,298	4,465	3,394	4,178	-24.0	-18.1
2월	3,348	4,986	4,404	4,580	4,460	3,452	4,376	-22.6	-20.7
3월	3,564	4,894	4,620	4,767	4,420	3,524	4,445	-20.3	-20.9
4월	3,502	4,920	4,898	5,040	4,450	3,775	4,617	-15.2	-17.3
5월	3,516	4,980	4,925	4,960	-	3,853	4,680	-	-16.2
6월	3,727	4,798	4,309	4,739	-	3,968	4,454	-	-9.7
7월	3,741	3,866	4,445	4,342	-	4,010	4,166	-	-2.2
8월	3,665	3,457	4,004	3,758	3,560	3,568	3,669	3,560	-3.3
9월	3,772	3,662	3,785	3,807	3,461	3,583	3,660	3.5	-3.1
10월	4,183	3,511	3,879	3,893	3,351	3,595	3,646	7.3	-4.5
11월	4,564	3,817	4,176	4,185	3,482	3,819	3,896	9.7	-5.6
12월	4,875	3,863	4,152	4,441	3,486	4,058	4,000	16.4	-2.5
연평균	3,811	4,286	4,295	4,401	3,893	3,721	4,119	-4.4	-10.1

주: 1)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0kg이며, 마리당 30cm(350~5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16> 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추이



주: 1)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0kg이며, 마리당 30cm(350~5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19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965원으로 전년도 고등어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재고가 많아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6%, 4.0% 하락했음

<표 4-26>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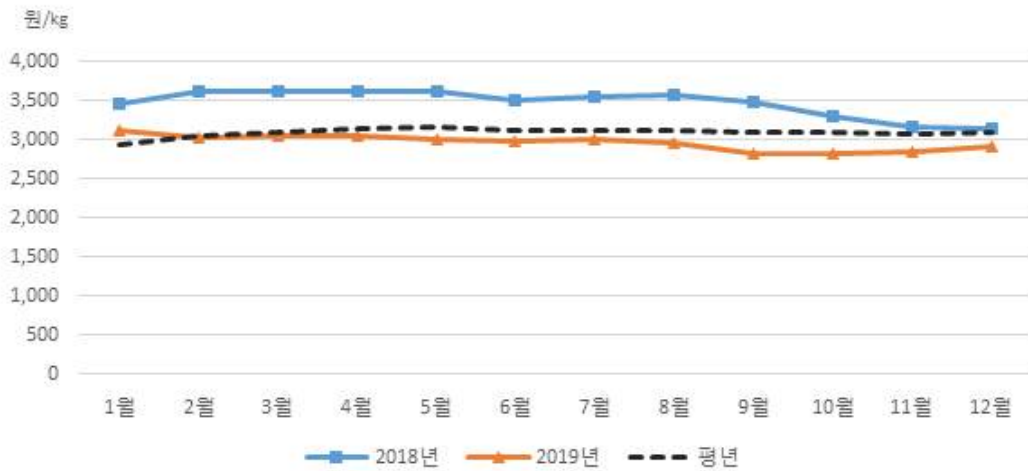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376	2,857	2,820	3,197	3,459	3,111	3,089	-10.1	5.8
2월	2,458	2,951	2,952	3,219	3,617	3,033	3,154	-16.1	-0.2
3월	2,621	3,042	2,944	3,280	3,617	3,040	3,185	-16.0	-2.0
4월	2,646	3,080	2,910	3,467	3,620	3,040	3,223	-16.0	-3.3
5월	2,678	3,080	2,940	3,506	3,620	3,011	3,231	-16.8	-4.9
6월	2,660	3,072	2,940	3,391	3,510	2,980	3,179	-15.1	-4.3
7월	2,720	2,984	2,976	3,365	3,553	2,992	3,174	-15.8	-4.1
8월	2,691	2,869	3,016	3,380	3,580	2,948	3,159	-17.7	-5.1
9월	2,680	2,860	3,027	3,374	3,488	2,830	3,116	-18.9	-8.3
10월	2,788	2,837	3,141	3,360	3,297	2,822	3,091	-14.4	-8.5
11월	2,903	2,820	3,240	3,220	3,151	2,847	3,056	-9.6	-7.2
12월	2,951	2,820	3,206	3,310	3,140	2,922	3,080	-6.9	-5.3
연평균	2,683	2,940	3,012	3,337	3,470	2,965	3,145	-14.6	-4.0

주: 1) 도매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17> 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추이



주: 1) 도매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최근 10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은 생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가격이 낮아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6%, 15.8% 하락한 kg당 7,480원에 형성되었음
 - 상반기 소비자가격은 kg당 6,959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으나, 하반기에는 공급이 줄면서 전년 대비 4.8% 상승한 kg당 8,018원에 형성되었음
- 월별 고등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가을철 성어기에 들어서면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9년에는 생산이 전년 및 평년보다 크게 줄면서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음
 - 2019년 상반기 고등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kg당 6,959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23.4%, 26.3% 낮았음
 - 그러나 하반기 고등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kg당 8,018원으로 공급이 줄어 전년 대비 4.8% 상승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음

<표 4-27>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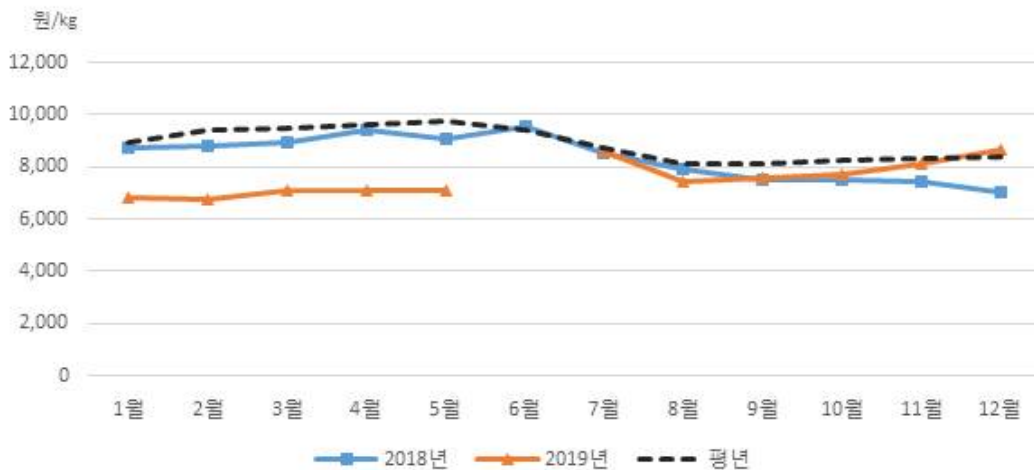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9,440	10,611	8,029	7,900	8,726	6,806	8,414	-22.0	-23.9
2월	10,109	11,420	8,451	8,374	8,786	6,743	8,755	-23.3	-28.5
3월	9,723	11,177	8,769	8,654	8,946	7,074	8,924	-20.9	-25.2
4월	10,943	10,389	9,031	8,434	9,434	7,069	8,871	-25.1	-26.7
5월	10,617	10,243	9,491	9,480	9,054	7,103	9,074	-21.5	-27.3
6월	10,063	10,200	8,403	8,840	9,554	-	9,249	-	-
7월	9,937	8,574	8,480	8,177	8,503	8,594	8,466	1.1	-1.6
8월	9,154	7,420	8,417	7,869	7,906	7,466	7,816	-5.6	-8.4
9월	9,103	7,726	8,374	7,803	7,506	7,543	7,790	0.5	-6.9
10월	9,589	7,777	8,206	8,069	7,523	7,726	7,860	2.7	-6.2
11월	9,880	7,851	8,149	8,163	7,463	8,114	7,948	8.7	-2.3
12월	10,309	8,169	7,989	8,503	6,997	8,663	8,064	23.8	3.2
연평균	9,920	9,274	8,480	8,351	8,371	7,480	8,391	-10.6	-15.8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18> 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19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6,029원으로 전년 대비 5.3%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5.7% 낮았음
- 2019년 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을 살펴보면, 1~4월까지의 재고 물량이 많아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낮았음
- 이후 5월부터 7월까지의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로 생산이 거의 없었고, 이후

성어기에도 생산이 부진했으나 수요도 많지 않아 전년 및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었음

<표 4-28>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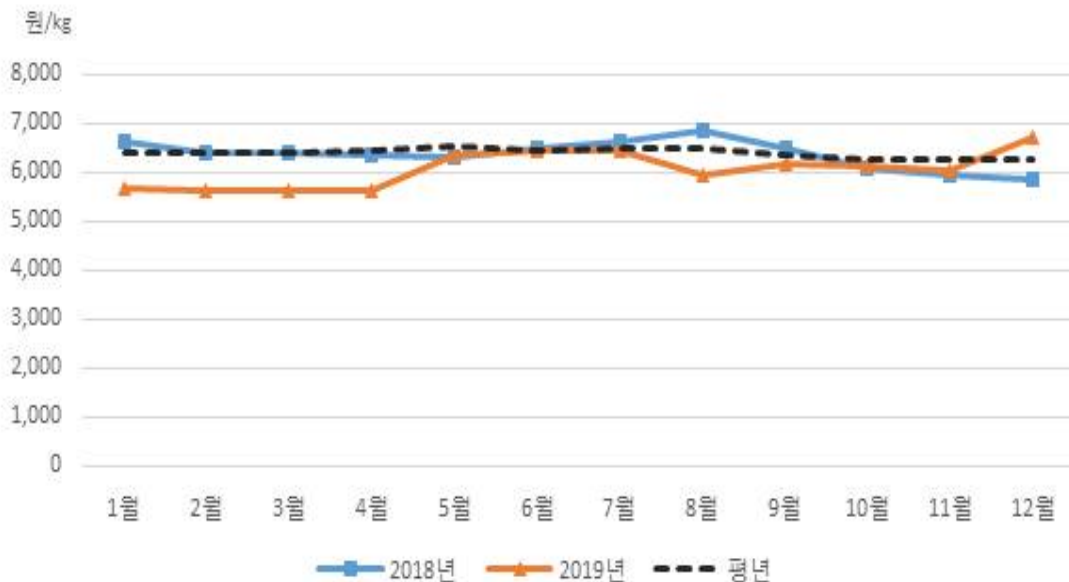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211	6,391	6,480	6,306	6,629	5,660	6,293	-14.6	-11.6
2월	6,286	6,431	6,409	6,403	6,394	5,617	6,251	-12.2	-12.0
3월	6,251	6,520	6,431	6,466	6,397	5,623	6,287	-12.1	-12.3
4월	6,346	6,543	6,409	6,489	6,366	5,614	6,284	-11.8	-12.7
5월	6,371	6,869	6,266	6,743	6,326	6,354	6,512	0.4	-2.5
6월	6,251	6,614	6,223	6,677	6,494	6,437	6,489	-0.9	-0.2
7월	6,614	6,326	6,363	6,423	6,609	6,429	6,430	-2.7	-0.6
8월	6,614	6,289	6,329	6,469	6,829	5,923	6,368	-13.3	-9.0
9월	6,494	6,126	6,334	6,406	6,471	6,171	6,302	-4.6	-3.1
10월	6,297	6,086	6,354	6,523	6,054	6,120	6,227	1.1	-2.3
11월	6,317	6,100	6,317	6,571	5,923	6,009	6,184	1.5	-3.8
12월	6,526	6,126	6,414	6,474	5,854	6,720	6,318	14.8	7.0
연평균	6,383	6,366	6,360	6,494	6,366	6,029	6,323	-5.3	-5.7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19> 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2.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고등어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국내에서 어획되는 고등어는 대부분 선어 형태로 위판하며, 경매 후 선어로 유통되거나 동결저장 또는 가공되어 유통됨
- 산지단계의 고등어 양륙과정 및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이 과정은 장기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어획된 고등어는 운반선의 어창에서 물과 얼음이 함께 적재되어 어항으로 이동된 후 양륙됨
 - 어선의 어창내 고등어는 양배반(양륙·배열반)에 의해 얼음을 제거한 후, 뜰채를 이용하여 어획된 고등어를 건져 올리고, 운반트럭 및 손수레에 담아 배열장으로 이동시킴
 - 배열장으로 이동된 고등어는 야간부녀반에 의해 크기 및 품질에 따라 목상자에 담고, 양배반에 의해 위판장으로 이동·배열된 후 경매를 진행함
 - 운반선에서 어획물을 하역하지 않고 샘플경매 형식의 선상경매가 진행되기도 하나, 그 양은 많지 않음
- 산지위판장에서 양륙·위판된 고등어는 산지 중도매인에 의해 재선별·재포장하여 노량진, 가락 등 수도권과 전국의 도매시장으로 출하됨
 -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입찰된 고등어는 주간부녀반에 의해 크기와 품질에 따라 선별 및 재포장의 과정을 거쳐 배송차량에 적재되며, 이 과정은 하조반 및 운반반이 담당함
 - 이후 배송차량에 적재된 고등어는 사용 용도에 따라, 냉동냉장창고, 가공공장, 도·소매시장, 대형소매점 등으로 이동됨
-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고등어는 대부분 냉동·냉장 기능이 없는 일반트럭을 통해 수송되며, 도매시장의 경매장 내에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진 후 산지에 이어 2차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짐
 - 노량진 및 가락 등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밤 11시~1시 사이에 고등어 경매⁴⁷⁾가

47)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시간은 패류 01:00~, 고급선어 01:30~, 대중부류 00:00~, 고급활어 03:00~, 냉동부류 03:00~ 이며, 가락시장

시작되며, 고급선어, 대중선어, 냉동부류, 패류, 활어 등으로 구분하여 시간대별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낙찰된 고등어는 소매 단계로 유통되기 위해 경매장 내에서 재선별, 재포장, 운반, 수송 과정이 이루어짐
- 정리하면, 고등어(선어)의 제도권 시장 유통경로는 연근해산 수산물의 유통경로와 유사한 생산자 → [<산지 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소비지 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단계를 거침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고등어류 중 선어 형태로 유통되는 물량은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참고등어와 망치고등어에 해당하며, 양식산 및 원양산은 거의 없음
- 2019년 기준 고등어류(선어)의 대부분(97.9%)이 계통출하 형태로 유통되었으며, 비계통 출하 물량은 2.3%에 불과했음
- 고등어류(선어)의 계통출하 물량 중 개별 유통경로별 물량비중은 아래 표와 같이 추정하였음

<표 4-29> 고등어(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계통 출하(산지위판장)		116,818	100.0
냉동 창고	가공(통조림, 자반 등), 식자재 등	9,030	7.7
	수출	45,469	38.9
	사료용, 미끼용	36,187	31.0
	소비지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4,012	3.4
소비지 도매시장		6,934	5.9
지역 전통시장		6,632	5.7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업체, 백화점)		6,984	6.0
군납 및 정부비축		1,570	1.3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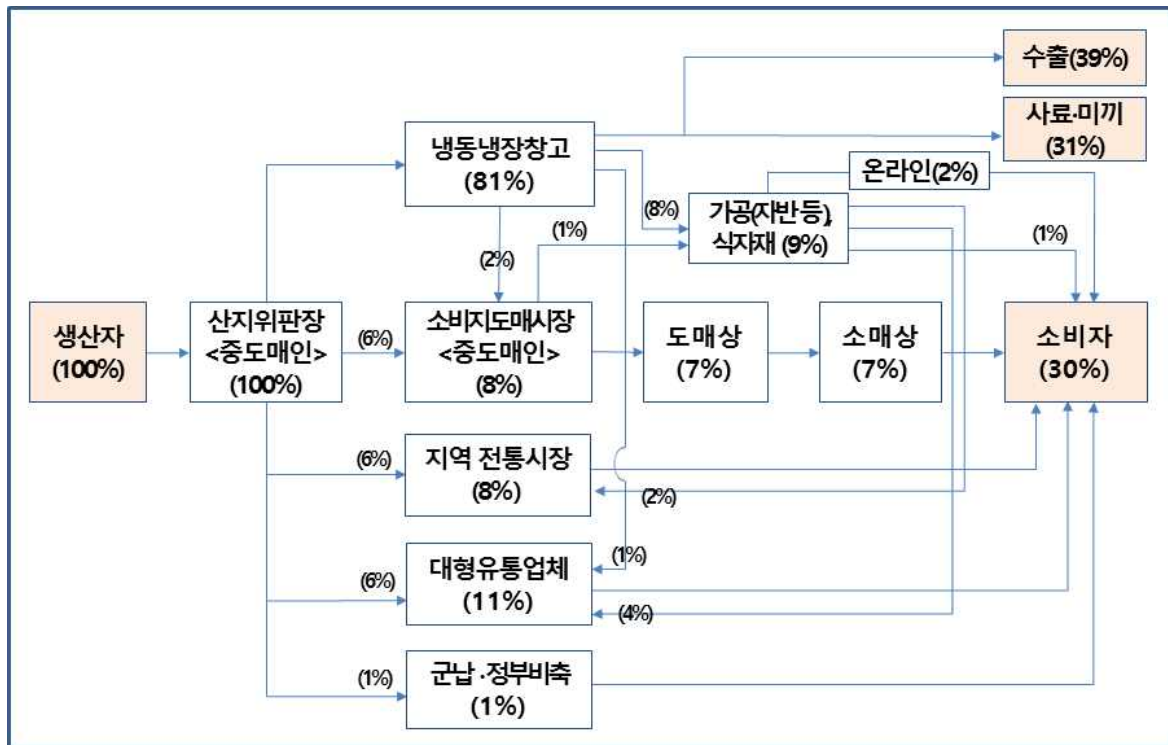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 고등어는 위판 후 80% 이상이 냉동냉장창고에 보관·저장된 후 가공(통조림, 식자재), 양식장 사료용, 어업 미끼용 및 수출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됨

(강동수산)은 대중선어 23:00~, 패류 00:30~, 활어 03:00~ 임

- 특히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소형어 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39%) 및 사료·미끼용(31%) 유통이 비중이 높았고, 이에 따라 생산량 중 국내 소비자가 소비한 비중은 전년(39%)보다 낮은 30%에 그쳤음
- 냉동냉장창고에서 보관·저장된 후 가공용 및 식자재용으로 유통되는 비중은 전체 고등어류 생산량의 8%를 차지했으며, 소비지도매시장을 거쳐 가공 및 식자재로 유통되는 비율은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19년에는 소형어 생산 비중이 높아 전년에 비해 가공용 고등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냉동냉장창고를 거치지 않고 신선냉장 형태로 유통되는 비중은 18%에 그쳤으며, 이 중 6%는 소비지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자에서 판매되며, 6%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6%는 대형유통업체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최근 간편식 및 구매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손질된 고등어 판매가 많은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고등어 생산량 중 약 2%가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계통 출하된 고등어가 산지위판장을 거쳐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비중은 전체 물량의 8%,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로 유통되는 물량도 각각 8%, 11% 내외로 추정됨

<그림 4-20> 고등어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이며, 고등어(선어)의 비계통출하 비율은 2.3%로 유통경로 산정시 제외하였음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3. 고등어 유통비용

가.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자 도매시장)

1) 산지 단계

- 산지 위판장에서는 생산자 및 산지중매인의 비용을 고려하여 유통비용을 결정함
 - 일반적으로 생산자(선사)는 양륙 후 발생하는 양륙·배열비와 위판수수료 등을 부담함
- 양배반(양륙·배열반) 및 야간 부녀반은 어획된 고등어를 양륙~(경매전)배열하는 업무를 담당함
 - 양배반 노임은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항운노동조합, 야간부녀반 노임은 대형선망수협과 부산항운노조 사이의 노임협약(매년 체결)을 통해 결정됨
- 양륙반이 어획된 고등어를 어선에서 육지로 옮기면, 야간부녀반에 의해 목상자에 적재되고, 목상자에 담긴 고등어는 배열반에 의해 경매장까지 이동하여 진열됨
 - 양륙반과 배열반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협조하는 체계를 가짐
 - 2018년 선망어획물 작업 노임부터는 2017년과 달리 양륙·배열비를 각각 부과하지 않고 통합 부과하고 있음
- 2019년 선망어획물 작업노임표에 따르면, 양륙·배열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자 규격인 4호 상자(18kg) 기준 상자당 노임은 전년(493원)에 비해 2.6% 상승한 506원임
 - 건강보험료(총 노임의 3.23%), 퇴직충당금 10%,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 국민연금(총 노임의 4.5%), 복지기금(총 노임의 2.2%) 등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에 따라 양륙·배열 노임은 상자당 506원 이외에 약 142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21> 양배반 및 야간부녀반의 작업 모습



- 야간부녀반 노임은 일당제로 지급되며, 1일 1만 상자 처리 기준 약 70명의 여성 노동자가 작업에 참여함
- 2019년 기준 정조합원의 일당은 1일 83,000원, 비조합원은 70,500원임. 이를 환산하면 정조합원 기준 고등어 1kg을 작업하는데 드는 노임은 약 32원 수준으로 추정됨

<표 4-30> 2019년 야간부녀반 작업 노임

단위: 원/일

구분		비용	비고
일반작업	정조합원	83,000	전년 대비 3,900원 인상
	비조합원	70,500	전년 대비 4,800원 인상
경매이후 추가노임(시간당)	정조합원	14,400	
	비조합원	11,800	
대기비	정조합원	14,400	
	비조합원	11,800	공휴일 대기시 50% 할증

주: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수수료는 위판금액의 3.4%로 이는 생산자(선사)가 부담함
- 경매 이후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산지중도매인이 지불하며 선별비, 운반비, 상차비 등을 포함한 노임과 어상자, 얼음, 비닐 등의 부대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산지위판장에서 발생하는 노임은 항운노조와 중도매인협동조합이 매년 9월말까지 체결하여 다음해 노임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12월 말 기준, 향후 노임에 대한 협약이 완료되지 않아 2019년도 노임은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음
-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입찰된 이후의 작업은 하조반, 운반반, 주간부녀반으로 작업이 나뉘어 진행되며, 유통경로에 따라 포장방법에 차이가 있어 유통 비용은 차이를 보임
- 노임협약서내 하조반 작업종류는 35개, 운반반 21개, 부녀반 25개로 작업별 노임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고등어(선어)가 소비지 도매시장(가락시장)을 경유해 소비지시장으로 유통되는 경로의 유통비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 소비지 도매시장(가락시장, 노량진시장 등)을 경유하는 고등어의 경우 덮개가 없는 스티로폼 어상자(10kg 기준 1,200~1,300원)에 얼음(상자당 400~500원)을 충분히 넣어 운송함
 - 어상자 및 얼음가격은 전년과 비교할 때 거의 변동하지 않았음
-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의 물류비는 10kg 스티로폼 상자당 1,500원이 발생하며, 작년과 차이가 없었음
- 이후 소비지 도매시장에 고등어를 위탁하는 경우 발생하는 하차비, 위탁경매 수수료 등은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하며, 이후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운반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비지 중도매인이 부담함
- 산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 노임도 매년 협약을 통해 갱신하고 있으나, 올해 가락시장(강동수산) 노임은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추가 협약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음
- 가락시장내 강동수산의 경매수수료는 선어 4%, 냉동 2%였음⁴⁸⁾
- 산지에서 출하된 고등어가 소비지 도매시장에 도착하여 경매장까지 운반하는 비용(하차비)은 전년과 동일한 상자당 167원이었음
 - 가락시장은 노량진시장과 달리 노임협약에 따라 운반비(경매장에서 가락시장내 소매시장까지의 운임)를 부과하지 않았음
- 소비지 중도매인은 경매 종료 후 낙찰받은 고등어를 유통시키기 위해 트럭에 적재하는 상차비와 각 점포로의 운반비, 간접비 등을 부담함

3) 소매 단계

- 최종단계인 소비지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얼음, 판매용 봉투, 집기 등 직접비가 3%,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간접비 19%가 발생하며, 이윤은 22% 수준임
 - 2019년 소비지 소매상의 직접비 비중은 3.3%로 전년(2.8%)과 비슷했으나, 간접비는

48) 가락시장내 강동수산의 고등어 위탁 판매수수료는 경락단가의 2~4% 내외(냉동 2~3%, 선어 4%)였음

18.8%로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전년(12.0%)보다 높았음

- 고등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년에 비해 생산이 줄면서 최종 소비자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 소매상의 이윤은 전년(18%)보다 높은 22% 수준이었음

<그림 4-22>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소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모습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트럭 적재 대기 중인 고등어>	<가락시장 경매장>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장>
		
<재래시장에서 판매 중인 고등어>	<재래시장에서 판매 중인 고등어>	<재래시장에서 판매 중인 고등어>
		

<표 4-31>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소비지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385	2,589.2	33.1	-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30.2	36.0	0.5	양배비 노임 506원/18kg 퇴직총당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추가
	야간부녀반 노임		27.7	32.3	0.4	1만개 작업당 70명 고용
	위판수수료		86.0	93.5	1.2	위판금액의 3.4%
	위판가격		2,529	2,751.0	35.1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및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참조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스티로폼)		130.0	120.0	1.5	1,200원/10kg 상자
	얼음대		45.0	49.0	0.6	얼음 1각 4,900원 400~500원/10kg 상자
	노임	선별비(주간부녀반)	63.4	63.4	0.8	1,147원/10kg 상자
		비움작업, 포장, 상차비 등(하조반)	22.3	22.3	0.3	
		운반비	18.6	18.6	0.2	
		기타(빙운반비 등)	10.4	10.4	0.1	
	물류비		150.0	150.0	1.9	1,500원/10kg 상자 (부산→가락시장)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156.3	159.7	2.0	판매가격의 3.3% 이상
	산지출하(판매) 가격		3,125	3,344.4	42.7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16.7	16.7	0.2	167원/10kg 상자
	경매수수료		130.9	138.9	1.8	경매 낙찰가의 4.0%
	경매 낙찰가격		3,273	3,500.0	44.7	중품 고등어(24~30미) 가락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상차비		16.7	16.7	0.2	167원/10kg 상자
	물류비		20.0	10.0	0.1	300원/10kg 상자 (가락시장→서울 소매시장)
	간접비		348.2	639.3	8.2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이윤		192.5	234.0	3.0	판매가격의 3.3% 이상
	중도매인 판매가격		3,850	4,400.0	56.2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58.9	257.8	3.3	얼음, 판매용 봉투, 집기 등
	간접비		688.0	1,475.4	18.9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1,017.1	1,695.8	21.7	판매가격의 3.3% 이상
	판매가격		5,714	7,829.0	100.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주: 마리당 300~450g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2월 초순임

나.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한편 산지에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형소매업체를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우 유통비용은 아래 표와 같음
- 고등어는 어획 후 선어상태로 산지위판장에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로별로 산지위판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소비지소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덮개가 없는 스티로폼 어상자를 사용하지만, 대형소매점을 경유하여 유통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스티로폼 어상자(10kg 기준 1,700~1,800원)를 이용함
 - 운반트럭도 냉동탑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형유통업체로 유통되는 고등어 작업은 비닐(상자당 150원)을 깔고, 스티로폼 박스에 테이핑 작업(상자당 84원)을 하는 등 작업 공정이 복잡해 소비지 도매시장용 포장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상자당 2,108원이 발생됨
- 산지중도매인은 대형소매업체의 자사 물류센터까지 고등어를 납품하며, 물류센터까지 운송비용은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함
 - 한편, 대형소매업체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운반시 발생하는 물류비는 산지중매인이 부담하는 경우와 대형소매업체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산지중매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전자의 경우로 산정하였음

<그림 4-23> 대형소매점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모습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포장 중인 고등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냉동탑차에 적재 중인 고등어>	<대형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고등어>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업체의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마케팅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비 비중은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 전년(19.1%)보다 상승한 23.3%를 차지했음
- 한편 대형소매업체의 이윤은 2,261원으로 전년(2,124원)보다 134원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판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판매가격 대비 이윤 비중은 전년(30.3%)보다 다소 감소한 27.7%로 나타났음

<표 4-32>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385	2,589.2	31.7	-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30.2	36.0	0.4	양배비 노임 506원/18kg 퇴직충당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추가	
	야간부녀반 노임	27.7	32.3	0.4	1만개 작업당 70명 고용	
	위판수수료	86.0	93.5	1.1	위판금액의 3.4%	
	위판가격	2,529	2,751.0	33.7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및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참조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스티로폼)		175.0	180.0	2.2	1,700원~1,800원/10kg 상자 및 뚜껑
	노임	선별비(주간부녀반)	87.4	87.4	1.1	2,108원/10kg 상자 전년 동일(2020년 협약전)
		비움작업, 포장, 상차비 등(하조반)	84.0	84.0	1.0	
		운반비	29.0	29.0	0.4	
		기타(빙운반비 등)	10.4	10.4	0.1	
	얼음		45.0	49.0	0.6	얼음 1각 4,900원 400~500원/10kg 상자
	비닐		15.0	15.0	0.2	150원/10kg 상자
	테이프		8.4	9.0	0.1	84원/10kg 상자
	물류비		150.0	150.0	1.8	1,500원/10kg 상자 (부산→대형소매점 물류센터)
	물류 대행비		249.2	308.0	3.8	납품가격의 7% 내외 (대형소매점 물류센터→지점)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178.0	331.0	4.1	판매가격의 3.3% 이상
	산지출하(판매) 가격		3,560	4,003.8	49.0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소매 업체	간접비		1,340.0	1,899.0	23.3	인건비, 각 지점별 운송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2,124.0	2,261.2	27.7	판매가격의 3.3% 이상
	판매가격		7,000	8,164.0	100.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자 중도매인 조사가격 참조

주: 마리당 300~450g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 12월 초순임

다.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

1) 산지 단계

- 앞서 유통경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냉장창고를 거치지 않고 신선냉장 형태로 유통되는 비중은 18% 수준임
 - 신선냉장으로 유통되지 않는 물량은 동결 처리된 후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사료·미끼용, 수출용 등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대부분임
 - 그 외에도 성어기에 고등어 생산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물량을 전량 선어상태로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결저장 한 후 냉동상태로 유통하거나, 일부는 유통업체는 향후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동결저장한 후 소비지 도매시장 혹은 대형소매업체로 유통함

2) 소비지 단계

- 산지에서 선어상태로 위판된 고등어가 동결저장 된 후 소비지 도매시장(가락시장)을 경유해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경우의 유통비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저장·가공업체 반출을 위해 동결 처리 후 보관되는 고등어는 주로 골판지 상자(20kg 기준 990원)에 비닐(상자당 150원)을 깔아 포장하며, 기타 비용(품명 및 수량 표기, 박스 접기 등)도 상자당 150원이 발생함
- 냉동냉장창고로 운반시 파alle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allet 비용(상자당 1,200원)과 상자비(상자당 234원), 기타 추가 노임(상자당 101원)이 발생함
 - 또한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감천항 냉동냉장창고로 이동시 발생하는 물류비(상자당 450원)와 입출고료(상자당 440원), 동결료(상자당 850원), 발체료(상자당 220원), 창고보관료(90일 보관 가정, kg당 45원) 등이 포함된 창고 비용이 발생함
- 한편, 냉동고등어는 연간 고등어 생산량에 따라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며, 판매시기 및 냉동냉장창고 보관일수 등에 따라 유통비용에 큰 차이를 보임
 - 올해 유통실태조사에서는 전년과 달리 냉동냉장창고 보관일수를 60일로 계산했는데, 올해 하반기 재고가 적어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적극적인 판매를 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3) 소매 단계

- 소비지소매시장의 직접비 비중은 전년(3.1%)과 비슷한 3.9%였으나, 간접비는 전년(11.8%)보다 높은 18.6%를 차지했음
- 한편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은 전년(22.0%)과 비슷한 21.2%로 추정됨

<그림 4-24> 동결저장을 위해 포장 및 운송되는 고등어 모습



<표 4-33>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자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385.0	1,753.6	27.1	-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30.2	36.0	0.6	양배비 노임 506원/18kg (퇴직충당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추가)
	야간부녀반 노임		27.7	32.3	0.5	1만개 상자 작업당 70명 고용
	위판수수료		86.0	64.1	1.0	위판금액의 3.4%
	위판가격		2,529	1,886.0	29.1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및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종이상자)		47.5	49.5	0.8	990원/20kg 상자 및 덮개
	노임 (어시장)	주간부녀반 (선별비 등)	50.4	50.4	0.8	1,007/20kg 상자
		하조반(남자노임)	18.2	18.2	0.3	363/20kg 상자
		상차비	11.7	11.7	0.2	234/20kg 상자
		상차시 추가노임 (파레트 사용시)	10.1	10.1	0.2	101/20kg 상자
		기타	15.0	15.0	0.2	30원/20kg 상자
	비닐		7.5	7.5	0.1	150원/20kg 상자
	파렛트 비용		55.0	60.0	0.9	1,200원/20kg 상자
	물류비		17.0	22.5	0.3	4540원/20kg 상자 (공동어시장→감천항)
	노임 (창고)	상차비	118.1	8.5	0.1	144원/20kg 상자
		하차비		8.5	0.1	144원/20kg 상자
	창고 (비용)	동결비		42.5	0.7	850원/20kg
		입고비		11.0	0.2	220원/20kg
		출고비		11.0	0.2	220원/20kg
		발체비		11.0	0.2	220원/20kg
	창고 보관료		5.0 (5일기준)	45.0 (90일 기준)	0.7	업체평균 10원/일(20kg상자)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120.5	166.3	2.6	납품가격의 3~4% 내외
	판매가격		3,005	2,434.6	37.6	판매가격의 3.3% 이상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15.5	15.4	0.2	307/20kg 상자
	경매수수료		61.5	50.0	0.8	경매 낙찰가의 2%
	경매 낙찰가격		3,082	2,500.0	38.6	가락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상차비		15.5	15.4	0.2	307/20kg 상자
	운반비		19.8	25.0	0.4	395원/20kg 상자
	간접비		67.5	782.0	12.1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115.2	324.9	5.0	판매가격의 3.3% 이상
	중도매인 판매가격		3,300	3,647.3	56.3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60.0	253.0	3.9	얼음, 판매용 봉투, 집기 등
	간접비		619.4	1,202.0	18.6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1,150.6	1,373.7	21.2	판매가격의 3.3% 이상
	판매가격		5,230	6,476.0	100.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주: 마리당 300~450g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 12월 초순임

라.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유통비용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크기는 마리당 400~600g을 대상으로 하였음
 - 노르웨이 고등어는 마리당 400~600g 크기의 수입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500g 크기, 600g 이상 크기순임
 - 최근 세계적으로 1인 가족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가족이 늘면서 마리당 300~500g 크기의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임
 -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마리당 300~500g 크기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마리당 400~600g 크기와 가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수입 고등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은 냉동(HS Code : 0303-54-0000)으로 수입되어 대부분 필렛(순살)이나 자반으로 가공되어 유통됨
 - 수입업체 → 중간 유통업체 → 가공업체를 거쳐 대형할인점, 인터넷 및 홈쇼핑, 소비지 소매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중간 유통업체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지 소매상, 대형할인점, 인터넷 및 홈쇼핑으로 유통되거나,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로부터 대형할인점이 직접 구매하는 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본 조사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강동수산)을 경유하는 경로인 수입업체 → 중간 유통업체 → [<소비지 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소비지 소매상으로의 경로에 대한 유통실태를 살펴보았음

1) 수입 단계

- 노르웨이 냉동고등어의 수입관세는 10%이나, 국내 생산이 많은 고등어는 수입산 고등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 TRQ)⁴⁹⁾을 연간 500톤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 해당 물량은 대형선망수협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TRQ 물량의 대부분은 2019년 12월중 수입이 완료되었음
 - 고등어 TRQ 물량은 총 고등어 수입량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양으로 수입산

49) 국가별로 수입 민감 품목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배정, 관세 부분 감축, 양허 제외 등으로 국내 수산업업을 보호하고 있음

고등어의 대부분은 국가별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관세율인 10%가 적용된 물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노르웨이 고등어의 주 어기는 10월 ~ 익년 1월까지로 2019년 주 어기에 어획된 고등어는 해상으로 운송되어 약 4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로 수입되기 시작함
-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는 상자당 20kg으로 포장되어 수입되며, 40FT 컨테이너⁵⁰⁾당 약 24톤(1,195 상자⁵¹⁾)이 적재되어 수입됨
- 수입업체는 CFR 가격(운임 포함 인도조건)에 관세 및 통관 비용을 추가하여, 이를 수입원가로 취급함
- 2019년 노르웨이 냉동고등어의 CFR 가격은 전년 대비 25% 정도 높았음. 이는 노르웨이 고등어 TAC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총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임
- 수입산 고등어를 통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서류작성비(Document Fee), 부두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s), 부두사용료(Wharfage), 컨테이너 청소비용(Container Cleaning Charges), 내륙운송비용(Trucking Charge)⁵²⁾, 통관수수료(Customs Clearance Fee), 검역수수료(Inspection Fee) 등으로 총 비용은 kg당 약 39원임
- 검색기 셔틀료/상하차료, 검역, 정밀 인지대 등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번 유통비용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 수입된 고등어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물류창고에 도착한 후, 물품의 내역이 기록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냉동 창고에 적재됨. 본 과정에서는 스티커 비용을 포함한 스티커 부착 노임, 상·하차 노임, 입·출고비, 창고보관료⁵³⁾ 등의 비용(kg당 84원)이 발생함
- 냉동냉장창고의 상·하차비는 상자당 각각 144원이 발생하며, 건강보험료, 퇴직충당금,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상자당 각각 170원이 발생함

50) 40피트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12m(가로) X 2.35m(세로) X 2.39m(높이)임

51) 2018년 조사에서는 1컨테이너 당 1,165개를 적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1,195개를 적재한 업체로 변경하였음

52) 도착항으로부터 도착지(즉, 물류창고)까지의 운송비로 컨테이너 픽업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함. 본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컨테이너 육상 운송운임 요율표를 근거하여 결정됨

53) 창고보관료는 상자당 1일 10-20원 수준으로 보관물량 및 수입업체의 신용도에 의해 차이를 보임

- 노르웨이 고등어의 창고 비용은 창고 보관일수가 동일할 경우 연근해 고등어(냉동)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입업체는 중간 유통업체에게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를 판매할 경우 상자당 500~1,000원의 수수료(이윤)를 부과하였음
- 업체에 따라 수입원가에 30일 창고비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판매하기도 함
- 최근 노르웨이 고등어 관련 수입업체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마찬가지로 도매업자 수수료도 전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2) 소비지 도·소매 단계

- 2019년 12월말 ~ 2019년 1월초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노르웨이 냉동고등어 경락단가는 박스 당 60,000~65,000원에 형성되었으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단가도 이와 유사했음

<그림 4-25> 노르웨이 고등어의 냉동냉장창고 보관 모습

<TRQ 고등어>	<냉동고등어 컨테이너>	<노르웨이 고등어 하역 모습>
		
<노르웨이 고등어 상자 외부>	<노르웨이 고등어 상자 내부>	<냉동냉장창고 이동>
		

- 이후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하차비, 운송비, 수수료 등은 국산 연근해 고등어(냉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비지 소매상에서 수입고등어의 이윤은 전년(18.9%)보다 적은 13.9%인 것으로 조사됨
- 수입가격(CFR 가격)은 전년에 비해 25%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소비자가격은 7% 정도 상승하는데 그침에 따라, 유통마진률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4-34>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수입업체	수입원가	CFR 가격		2,041.0	2,547.0	43.2	운임 포함 인도조건 가격 톤당 2,200\$~2,300\$
		수입관세		204.1	254.7	4.3	관세 10%
		운송서류(BL) 발급비용		1.7	1.9	0.0	45,000원/1 컨테이너
		부두처리비용		14.8	14.4	0.2	345,00원/1 컨테이너
		부두사용료		0.4	0.4	0.0	8,840원/1 컨테이너
		컨테이너 청소비용		2.2	2.1	0.0	50,000원/1 컨테이너
		내륙운송비용		11.4	16.2	0.3	387,200원/1 컨테이너
		관세사 비용	통관수수료	4.7	2.5	0.0	59,840원/1 컨테이너
			검역수수료		1.4	0.0	33,000원/1 컨테이너
	소계		2,280.3	2,840.6	48.1		
	LABEL 비용		0.8	1.5	0.0	30원/20kg 상자	
	창고 비용	노 임	LABEL부착비	3.1	2.6	0.0	53원/20kg 상자
			상차비	7.1	8.5	0.1	144원/20kg 상자
			하차비	7.1	8.5	0.1	144원/20kg 상자
		입고비		9.2	9.2	0.2	184원/20kg 상자
		출고비		9.2	9.2	0.2	184원/20kg 상자
		창고 보관료(90일기준)		45.0	45.0	0.8	10원/일(20kg 상자)
		수입업자 수수료(이윤)		123.7	45.0	0.8	500~1,000원/20kg 상자
	판매가격		2,493.0	2,970.0	50.3	조사가격	
도매업자	운송비		150.0	150.0	2.5	3,000원/20kg 상자 (물류비, 감천→서울)	
	중도매인 수수료		138.0	49.6	0.8	500~1,000원/20kg 상자	
	판매가격		2,781.0	3,169.6	53.7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15.5	15.4	0.3	307원/20kg 상자	
	경매수수료		57.1	65.0	1.1	낙찰가의 2%(냉동)	
	경매 낙찰가격		2,854.0	3,250.0	55.1	가락시장 경락가격 65,000원/20kg 상자	
소비지 중도매인	상차비		15.2	15.4	0.3	307원/20kg 상자	
	운송비(물류비)		100.0	25.0	0.4	500원/20kg 상자 (도매시장→서울 소매시장)	
	간접비		370.5	361.0	6.1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소비지 중도매인 이윤		176.7	187.0	3.2	판매가격의 5% 내외	
	판매가격		3,516.0	3,838.4	65.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48.4	215.3	3.6	얼음, 판매용 봉투, 집기 등	
	간접비		808.0	1,026.6	17.4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이윤		1,041.6	820.7	13.9		
	판매가격		5,514.0	5,901.0	100.0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주: 조사대상은 마리당 400~600g 크기이며, 2018년 조사는 11월 중순, 2019년은 12월 말~1월 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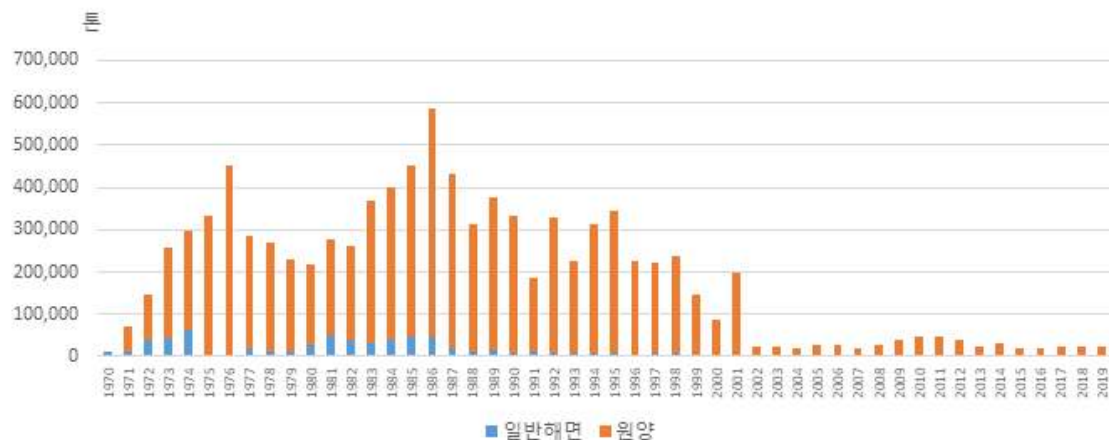
제3절 명태 유통실태조사

1. 명태 생산 및 유통 일반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명태는 연근해에서 약 3~5만 톤 정도가 어획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연근해에서의 어획량이 급감하였고, 이에 2019년부터 연근해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포획을 전면 금지하였음
- 2000년대 이후부터 연근해산 생산이 급감하면서 국내 수급은 연근해산 명태가 아닌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대체되었음

<그림 4-26> 연도별 명태 생산량 추이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생산량은 23,915톤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했음
 - 명태 생산량 대부분은 원양산이며, 연근해 생산량은 0.2톤이었음
- 원양산의 경우 한국-러시아 어업위원회를 통해 매년 명태 조업할당량을 배정받아 원양트롤러선이 3척이 베링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음
 - 2019년 우리나라에 배정된 명태 조업쿼터는 2만 4,000톤이었으며, 추가쿼터는 배정받지 못했음

<표 4-35>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331,974	9,798	3.0	322,176	97.0
1995년	343,713	6,903	2.0	336,810	98.0
2000년	86,832	766	0.9	86,066	99.1
2005년	26,029	25	0.1	26,004	99.9
2010년	46,795	1	0.0	46,794	100.0
2014년	31,626	2	0.0	31,624	100.0
2015년	20,015	3	0.0	20,012	100.0
2016년	20,129	6	0.0	20,123	100.0
2017년	23,498	1	0.0	23,497	100.0
2018년	24,002	9	0.0	23,993	100.0
2019년	23,915	0.2	0.0	23,915	100.0
5개년 평균	22,312	4	0.0	22,308	100.0
전년 대비	-0.4	-100.0	-	-0.3	-
평년 대비	0.3	-100.0	-	0.3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명태 생산금액은 266억 원 수준이었으며, 생산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원양어업 생산이 차지하고 있음

<표 4-36>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70,646	8,812	12.5	61,834	87.5
1995년	112,000	19,626	17.5	92,374	82.5
2000년	75,458	3,585	4.8	71,873	95.2
2005년	26,962	206	0.8	26,756	99.2
2010년	64,378	19	0.0	64,359	100.0
2014년	49,505	26	0.1	49,479	99.9
2015년	33,699	37	0.1	33,662	99.9
2016년	26,133	66	0.3	26,066	99.7
2017년	25,062	38	0.2	25,024	99.8
2018년	25,665	112	0.4	25,553	99.6
2019년	26,550	2	0.0	26,548	100.0
5개년 평균	27,422	51	0.0	27,371	100.0
전년 대비	3.4	-98.6	-	3.9	-
평년 대비	-17.1	-97.1	-	-1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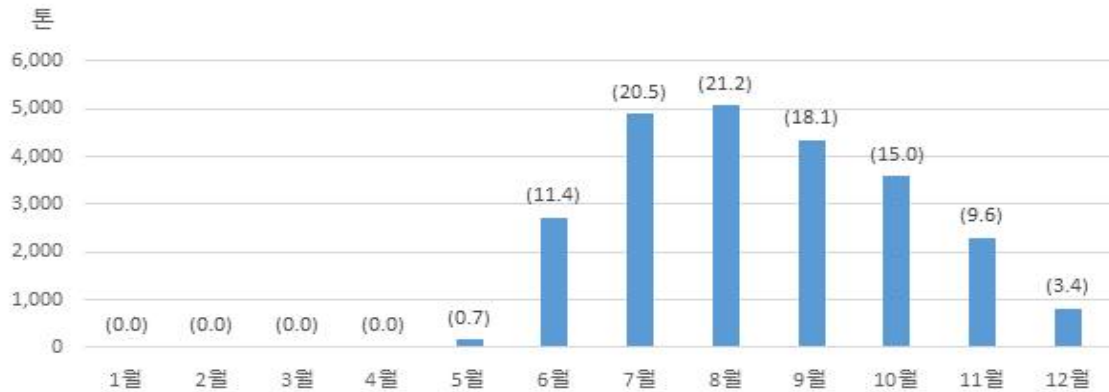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평균 명태의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생산은 주로 5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이루어지며, 7~11월에 어획이 집중되고 있음

<그림 4-27>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원양트롤어업 어획은 비교적 이른 6~7월 동안 매월 4천 톤 이상을 어획했으며, 10월까지 3천 톤 이상 생산한 후 어획량이 점차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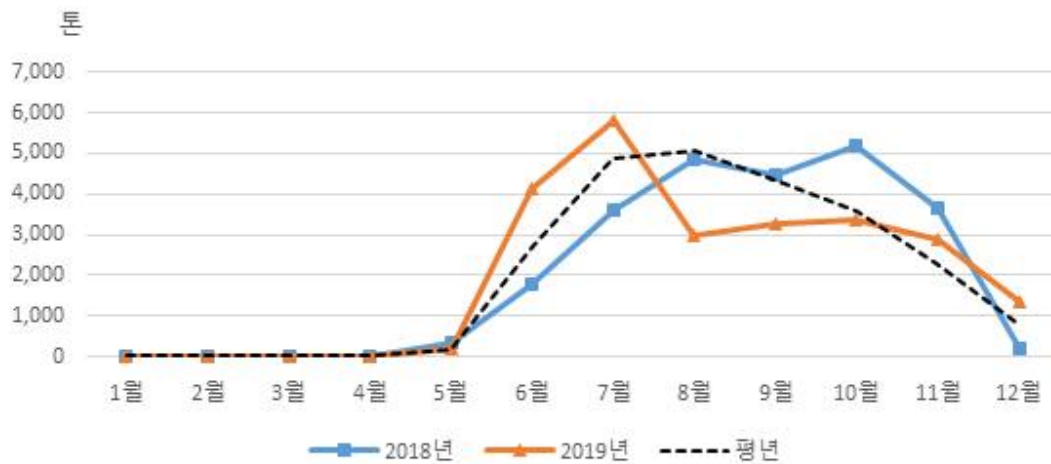
<표 4-37> 연도별·월별 명태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0	1	0	0	0	0	0	-	-
2월	0	1	1	0	0	0	0	-	-
3월	1	1	2	0	0	0	1	-	-
4월	3	0	0	0	0	0	0	-	-
5월	0	178	323	0	325	182	202	-44.0	8.3
6월	1,552	2,725	3,081	3,136	1,754	4,112	2,962	134.4	50.8
7월	5,314	4,800	4,864	4,951	3,622	5,789	4,805	59.8	18.4
8월	7,979	5,568	4,503	4,492	4,847	2,981	4,478	-38.5	-41.1
9월	7,007	4,148	2,942	4,160	4,442	3,280	3,794	-26.2	-24.2
10월	5,213	1,523	3,060	3,120	5,182	3,368	3,251	-35.0	-5.9
11월	2,689	1,070	1,352	2,146	3,654	2,882	2,221	-21.1	25.4
12월	1,868	0	0	1,491	174	1,322	597	659.8	63.4
합계	31,626	20,015	20,128	23,496	24,000	23,916	22,311	-0.4	0.2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28>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전체)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부류별 명태 생산량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원양어업을 통해 어획되어 냉동 상태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9년부터 연근해에서 명태의 포획이 전면 금지되면서 선어 생산량이 없었음

<표 4-38> 연도별 부류별 명태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0	0	0	0	0	0	0.0	0
선어	2	3	6	1	9	0	0.0	4
냉동	31,624	20,012	20,123	23,497	23,993	23,915	100.0	22,308
합계	31,626	20,015	20,129	23,498	24,002	23,915	100.0	22,312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어법별 명태 어획량을 살펴보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는 전량이 원양트롤 어업으로 어획되며, 100% 부산지역으로 반입되어 비계통 출하되고 있음

나.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 명태 수출량은 201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2만 톤 이하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음
- 2019년 명태 수출량은 1만 2,520톤으로 전년에 비해 19.4% 증가했으나, 평년에 비해 42% 감소했음. 수출금액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0.7%, 15.0% 증가한 약 2,363만 달러 수준이었음
 - 최근 국제적인 명태 수요가 증가로 인해 국제 명태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수출 단가 또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5%, 17.8% 상승했음
- 2019년 명태 수입량은 180,354톤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 각각 29.0%, 25.6% 감소했으며, 수입금액은 약 3억 7천만 달러였음
 - 러시아 정부 정책 변화로 합작선사의 쿼터 확보가 어려워 러시아 합작선사의 조업물량이 감소했음. 이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냉동명태 물량이 감소했음
- 수입단가는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22.0%, 21.3% 상승한 1kg당 2.06달러였음
 - 수입단가는 국제 가격 상승 및 러시아산 냉동명태 국내 공급 감소에 따라 전년 및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상반기의 경우 이월된 재고가 많아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반기에는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국내 유통 및 가공업체에 공급이 줄었으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음

<표 4-39> 연도별 명태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4년	22,933	36,219	1.58	215,784	380,898	1.77
2015년	8,436	14,459	1.71	227,821	404,542	1.78
2016년	15,064	19,978	1.33	255,766	419,173	1.64
2017년	8,409	14,001	1.67	259,252	420,285	1.62
2018년	10,487	18,070	1.72	253,951	428,736	1.69
2019년	12,520	23,625	1.89	180,354	371,560	2.06
5개년 평균	12,975	21,059	1.65	232,155	404,199	1.76
전년대비	19.4	30.7	9.5	-29.0	-13.3	22.0
평년대비	-4.2	15.0	17.8	-25.6	-9.5	21.3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19년 제품유형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냉동명태가 11,629톤(9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냉동 필렛, 냉동연육 등의 순이었음
- 2019년 명태 수입의 경우에는 냉동명태가 129,147톤(71.6%)으로 가장 많았으나 작년(196,312톤)에 비해 감소했음
 - 다음으로는 냉동연육 21,781톤(12.1%), 냉동필렛 18,257톤(10.1%)이 수입되었음
 - 한편 금액으로는 냉동이 40.5%, 냉동연육 19.6%, 건조 23.3%, 냉동필렛 14.5% 등의 순이었음

<표 4-40> 제품유형별 명태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2550000	4	0.0	12	0.0	2,240	1.2	6,882	1.9
냉동	0303670000	11,629	92.9	16,118	68.2	129,147	71.6	150,654	40.5
냉동연육	0304941000	140	1.1	517	2.2	21,781	12.1	72,804	19.6
냉동필렛	0304750000	177	1.4	577	2.4	18,257	10.1	54,001	14.5
훈제	0305492000	28	0.2	126	0.5	0	0.0	0	0.0
건조	0305593000	530	4.2	6,237	26.4	8,569	4.8	86,533	23.3
기타	0304949000	12	0.1	38	0.2	360	0.2	686	0.2
합계		12,520	100.0	23,625	100.0	180,354	100.0	371,5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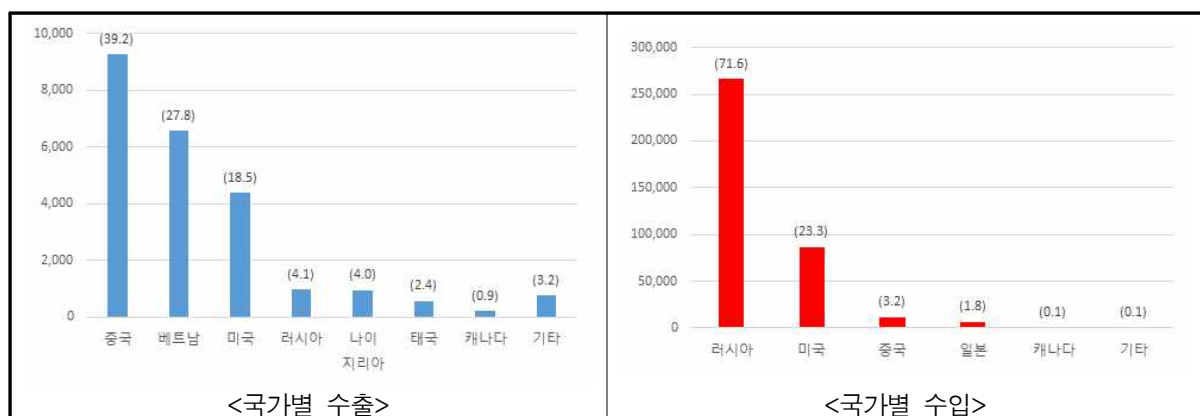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그림 4-29> 국가별 명태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19년 명태 수출대상국은 54개국이었으며, 주요 대상국은 중국(39.2%), 베트남(27.8%), 미국(18.5%), 러시아(4.1%) 등의 순으로 집계됨
- 한편 명태 수입은 10개 국가로부터 이루어졌음. 수입국별 수입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7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23.3%, 중국 3.2% 등의 순이었음

다. 수급 구조

- 명태의 소비는 많은 상황이나 수급은 수입에 의존적이며, 국내 자급률은 낮은 수준을 보임
- 2019년 명태 공급량은 45만 4,431톤으로 러시아산 명태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5%, 9.6% 감소했음
- 2015년 이후 40만 톤 이상이던 명태 소비량은 37만 톤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19년 러시아 합작선사를 통해 수입되는 냉동명태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임
- 국내 소비량은 37만 1,337톤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5%, 4.0% 적었으며, 이월재고 또한 크게 감소한 6만 7,946톤이었음

<표 4-41> 연도별 명태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4년	31,626	335,991	76,031	443,648	337,575	26,525	79,548	9.4
2015년	20,015	358,228	79,548	457,791	337,608	10,084	110,099	5.9
2016년	20,129	398,343	110,099	528,571	407,689	17,920	102,962	4.9
2017년	23,498	417,552	102,962	544,012	432,040	12,573	99,399	5.4
2018년	24,002	414,650	99,399	538,051	420,071	13,638	104,343	5.7
2019년	23,915	326,173	104,343	454,431	371,337	15,148	67,946	6.4
전년 대비	-0.4	-21.3	5.0	-15.5	-11.6	11.1	-34.9	-
평년 대비	0.3	-15.3	11.5	-9.6	-4.0	-6.2	-31.6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명태 산지가격은 부산지역에서 형성되는 원양산 비계통출하 가격이 기준이며, 최근 5년 평균가격은 kg당 1,288원임
 - 산지가격은 주로 원양산 반입이 시작되는 5월부터 형성됨
- 2016년 이후 낮은 가격을 보이던 산지가격은 2019년에 들어 전년보다 4.6% 상승한 1,113원이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18.3% 낮았음
 - 국내 공급 감소 및 수입단가 상승이 명태 산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임

<표 4-42> 연도별·월별 명태 산지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	-	-	-	-	-	-	-	-
2월	-	-	-	-	-	-	-	-	-
3월	-	-	-	-	-	-	-	-	-
4월	1,000	-	-	-	-	-	-	-	-
5월	-	1,206	1,065	-	1,065	1,063	1,100	-0.2	-4.4
6월	1,548	1,206	1,065	1,065	1,065	1,065	1,093	0.0	-10.5
7월	1,527	1,430	1,260	1,065	1,065	1,065	1,177	0.0	-16.1
8월	1,547	1,369	1,300	1,065	1,065	1,143	1,188	7.3	-9.9
9월	1,606	1,371	1,455	1,065	1,065	1,143	1,220	7.3	-12.9
10월	1,627	5,633	1,467	1,065	1,065	1,143	2,075	7.3	-47.4
11월	1,495	1,316	1,251	1,065	1,065	1,143	1,168	7.3	-7.7
12월	1,532	-	-	1,065	1,064	1,143	1,091	7.5	-6.3
연평균	1,485	1,933	1,266	1,065	1,065	1,113	1,288	4.6	-18.3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도매가격

- 냉동명태의 중품 도매가격은 2017년부터 과잉 공급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2019년 하반기에 들어 수입 차질로 인해 하락세가 둔화되었음
- 2019년 냉동명태 도매가격은 1kg당 1,934원으로 전년과는 비슷했으나 평년에 비해서 3.8% 낮았음
 -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연초까지 지속되었음.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공급이 감소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음

<표 4-43> 연도별·월별 명태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884	1,976	2,060	2,021	1,948	1,853	1,972	-4.9	-6.3
2월	1,882	2,031	2,060	2,031	1,930	1,830	1,976	-5.2	-7.9
3월	1,961	2,050	2,124	2,025	1,947	1,830	1,995	-6.0	-9.5
4월	2,010	2,040	2,178	2,027	1,980	1,747	1,994	-11.8	-14.7
5월	1,973	2,040	2,192	2,040	1,980	1,724	1,995	-12.9	-15.7
6월	1,946	2,045	2,133	2,051	1,979	1,690	1,980	-14.6	-16.8
7월	1,947	2,050	2,106	2,068	1,960	1,720	1,981	-12.2	-15.1
8월	1,909	2,041	2,066	2,070	1,960	1,878	2,003	-4.2	-6.5
9월	1,891	2,016	2,050	2,047	1,942	1,950	2,001	0.4	-2.0
10월	1,973	2,022	2,050	2,038	1,960	2,214	2,057	13.0	10.2
11월	1,998	2,029	2,116	2,010	1,905	2,360	2,084	23.9	17.3
12월	1,975	2,045	2,076	1,961	1,830	2,425	2,067	32.5	22.6
연평균	1,947	2,032	2,101	2,033	1,944	1,934	2,009	-0.5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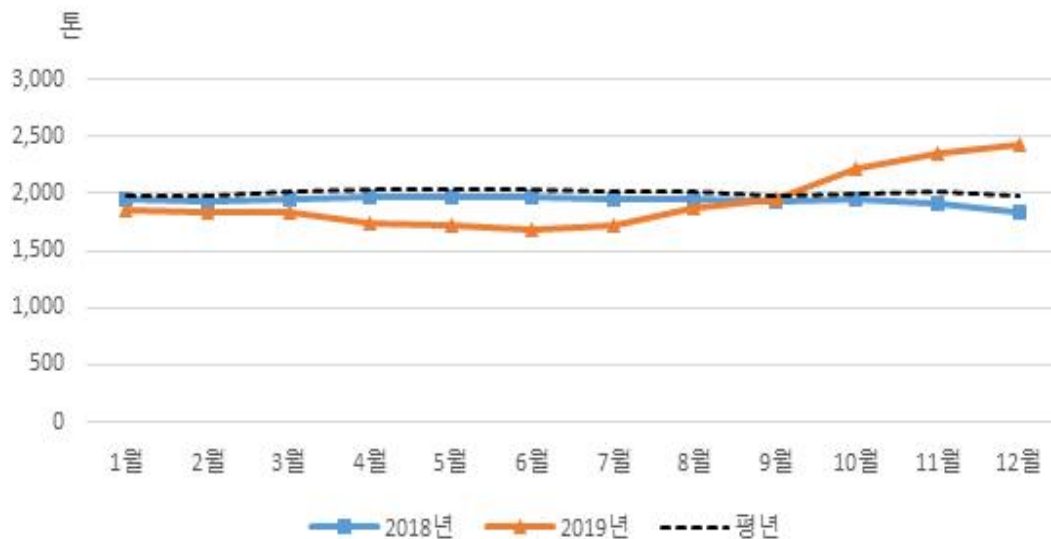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냉동명태 중품(20kg) 도매가격을 1kg 단위로 환산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30> 월별 명태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주: 평년은 2013년~2017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매가격

- 냉동명태 소매가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냉동명태 중품 소매가격은 1kg당 평균 4,112원이었음
- 2019년 냉동명태 소매가격은 산지 및 도매가격과 달리 kg당 4,072원으로 전년보다 8.5% 하락했으나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1~2월에는 많은 채고 및 설성수기 정부비축물량 방출로 인해 낮은 가격을 형성했으며, 이후에도 명태 소비가 많지 않아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음

<표 4-44> 연도별·월별 명태 소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822	3,698	3,924	4,081	4,431	3,722	3,971	-16.0	-6.7
2월	3,847	3,753	3,993	4,171	4,419	3,919	4,051	-11.3	-2.9
3월	3,674	3,816	4,029	4,283	4,471	4,376	4,195	-2.1	7.9
4월	3,790	3,803	3,981	4,272	4,481	4,440	4,196	-0.9	9.2
5월	3,834	3,834	3,560	4,309	4,529	4,360	4,119	-3.7	8.6
6월	3,883	3,840	4,012	4,336	4,767	4,184	4,228	-12.2	0.4
7월	3,867	3,731	3,940	4,386	4,733	4,272	4,212	-9.7	3.4
8월	3,719	3,798	3,905	4,397	4,674	4,017	4,158	-14.1	-2.0
9월	3,510	3,824	3,931	4,317	4,348	3,667	4,018	-15.7	-8.0
10월	3,503	3,866	4,116	4,228	4,276	3,883	4,073	-9.2	-2.9
11월	3,548	3,857	3,976	4,110	4,109	4,010	4,012	-2.4	2.3
12월	3,578	3,921	4,181	4,250	4,129	3,953	4,087	-4.3	-1.5
연평균	3,716	3,812	3,964	4,264	4,450	4,072	4,112	-8.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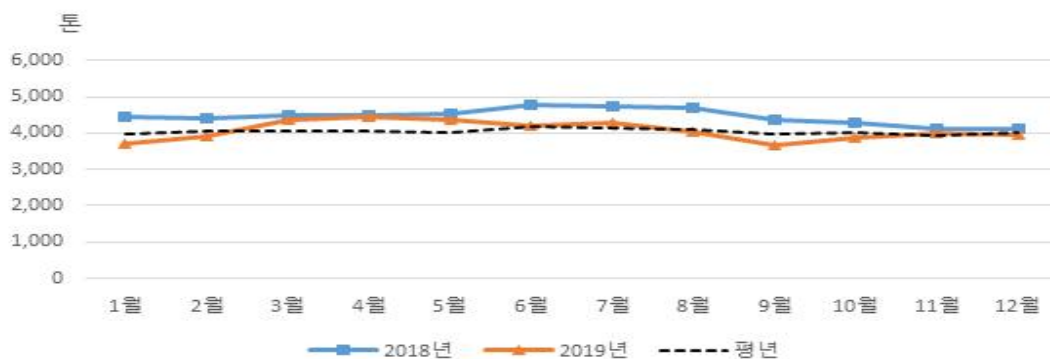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냉동명태(중품) 소매가격은 1마리(580g) 가격으로 제공되며, 이를 1kg 단위로 환산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31> 월별 명태 소매가격 추이(냉동)



주: 평년은 2013년~2017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명태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국내에서 유통되는 냉동명태는 크게 원양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러시아에서 어획되는 명태는 수입(합작)⁵⁴⁾과 반입(원양) 모두 전량 냉동원물로 유통되며, 미국산은 냉동명태, 필렛, 연육 등으로 수입됨
- 국내 명태 수급 대부분 합작에 의한 러시아산에 의존함
 - 평년 기준 냉동명태 공급량 20만 톤 중 원양어업 생산 2만 톤, 러시아 합작 수입 18만 톤으로 대부분 합작에 의한 러시아산에 의존함
- 러시아 해역에서 원양트롤 어선으로 조업 후 국내로 수입 및 반입되는 원양명태는 100% 선상에서 냉동이 이루어지며, 벌크 운반선 또는 본선(마지막 조업 시)을 통해 전량 부산 감천항 부두에서 하역됨
- 원양산은 국내 원양선사가 입어료를 지급하고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하며, 생산량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며 그 물량은 2만 톤 정도임
 - 3~4월경 러시아 어업위원회를 통해 조업할당량이 정해지면 5월말~6월초 베링해에서 조업이 시작되며, 12월 초까지 조업이 이루어짐
- 수입산은 러시아와의 합작 등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고 있음
 - 수입산 냉동명태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연간 약 20~25만 톤 수준이며, 그 중 70%가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냉동명태임
 - 합작선은 매년 1월 1일~4월 9일까지 러시아 오흐츠크 해에서 조업하고, 부산항으로 돌아와 어선 수리, 정비, 선용품 등을 공급받은 후 5월말~6월초 베링 해 조업이 시작됨
 - 2019년의 경우 극동수산, 동남수산 등 10개사 소속 19척의 트롤어선이 합작조업을 하였음
- 한편 미국산 명태 수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수입 쿼터 물량(TRQ)⁵⁵⁾이 2019년에도 적용되었으며, 7,312톤의 물량이 선착순 방식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되었음

5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55) HS코드 0303-67-0000, 0303-69-9000, 0303-99-0000을 대상으로 적용됨

- 원양 및 수입 냉동명태는 국내에 반입 후 2가지 경로를 통해 1차 도매업자에게 유통됨. 2019년의 경우 선사 자체 경매(시장 외 경로)로 51%, 법인도매시장 경매로 49% 유통됨

<그림 4-32> 부산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모습



자료: 직접 촬영

- 명태는 원양선사 또는 수입업자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이후 보세창고에 보관되며, 사내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1차 도매업자로 소유권이 넘어감
- 경매는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며, 합작수산물⁵⁶⁾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에 따라 물가안정 목적에서 관세감면 추천 물량을 사업자별로 배정해서 관세가 감면됨
 - 원양선사 또는 수입업자가 1차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이후, 1차 도매업자는 2차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소비자 도매시장(전통시장 포함), 식자재 업체(명태포, 절단명태),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명태(북어, 황태, 코다리 등) 가공공장 등으로 판매함
 - 1차 도매업자가 냉동명태를 판매한 이후에도 물건 자체는 냉동냉장창고에서 보관되는 경우가 많음. 소규모 가공업체는 1차 중매인을 통해 부산에서 명태 매입 후 부산 냉동냉장창고에서 가공(할복) 전까지 보관을 함
- 러시아산 명태는 팬으로 냉동시켜 BAG에 포장되어 반입 및 수입됨. 팬의 규격은 큰 팬(21.5kg), 작은 팬(11.5kg)으로 나누어짐
 - 작은 팬(11.5kg)을 이용하는 이유는 급속동결 포장에 가능하여 동결 효과 및 선도가 더 좋아지기 때문이나 유통 비용적인 면에서 용이하지 못함

5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50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 일부 대형소매업체에서는 해동 작업 후 상품 진열시, 작은 팬의 손실(LOSS)이 적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함
- 작은 팬의 이용율은 10~20%정도로, 일부 원양선사가 대형소매업체와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음
- 원양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러시아산 명태는 조업시기 및 조업지에 따라 이용 및 가격에 대한 차이가 발생됨
- 전반기 오호츠크 해 조업을 통해 생산된 명태(포란태)는 체장이 베링해 명태보다 긴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 황태용으로 가공·판매됨. 명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비쌈
- 반면 후반기 베링 해 조업 명태는 가공용보다 시판용으로 선호됨
- 명태 규격은 3통~16통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표준적인 규격으로 인식되는 평균 통수는 8통(34~36미)~9통(42~45미) 정도임
- 품질은 팬 단위로 급냉 시 명태의 배열 형태(휩 정도), 글레이징, 선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한편 북양명태의 통수별 사용 용도는 <표 4-45>와 같음
- 특히 합작선사 및 원양선사에서 작업하는 명태는 배열이 일정하게 정리되어 냉동되기 때문에 해외선사에서 작업된 명태보다 국내 유통업자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4-33> 국내 선사 및 해외 선사의 냉동 배열 형태 차이



자료: 유니언포씨 및 원 내 자료

<표 4-45> 북양 명태 통수별 사용 용도

구분(마리수)	오호츠크해 명태	베링해 명태	비고
3통(12)	포	포	베링 제품 선호
4통(16)	포, 시장판매(토막 판매)	포, 시장판매(토막), 묵호태(묵호지역 황태 생산)	베링 제품 선호
5통(20)	황태(채란작업, 제사포)	묵호태	오호츠크 제품 선호
6통(24)	황태(채란작업, 제사포), 시판 일부	묵호태	오호츠크 제품 선호
7통 (29~30)	황태(통말이 판매), 시판일부(식당)	먹태(할복, 기계건조, 뼈제거), 시판일부(식당)	황태: 오호츠크 제품 선호 먹태: 베링 제품 선호
8통 (34~36)	황태(채, 통말이 묶음판매), 시판일부(식당), 깎끔코다리(할복 후 건조)	먹태(할복, 기계건조, 뼈제거), 시판일부(식당)	베링 제품 선호
9통 (42~45)	깎끔코다리(할복 후 건조), 시판일부	깎끔코다리(할복 후 건조), 시판 일부	베링 제품 선호
10통 (52~54)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시판 일부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시판 일부	베링 제품 선호
11통 (59~62)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베링 제품 선호
12통 (70~75)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베링 제품 선호
13통 (80~90)	-	엮걸리(자연풍 건조, 영덕)	-
14~16통 (100 이상)	-	노가리(삼척, 먹태로 대체중)	-

자료: 원양선사 A사 내부자료.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19년 국내에서 유통된 냉동명태는 러시아수역에서 어획된 원양산 23,915톤(잠정치)과 수입산 129,147톤으로 총 153,061톤임
 - 냉동명태 수입을 대부분 차지하는 러시아산의 물량이 크게 줄면서 냉동명태 공급량은 전년 대비 30.5% 적은 상황임
 - 원양산은 러시아 어업위원회를 통해 조업할당량 24,000톤이 배정되었으며, 그 중 99%인 23,915톤을 조업하였음
- 2019년 러시아 정부 정책 변화로 합작선사의 쿼터 확보 어려워짐으로 인해 국내 공급량이 크게 감소했음
 - 작년까지 합작선사의 원활한 쿼터 확보로 인해 명태는 초과 공급되었음. 2018년 명태 수입량은 253,952톤이었으며, 2012년 이후 20~26만 톤 정도를 수입했었음

- 그러나 최근 국제 명태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합작선사 및 타국의 원양선사에게 제공하던 명태 쿼터를 자국 선사에서 모두 소진하도록 권고했음
- 이에 따라 올해 러시아 내 합작선사들은 B시즌 냉동명태 조업 쿼터를 배정받지 못하였으며, 11월 추가 쿼터를 일부 확보했으나 출어하지 못했음
- 2019년 기준으로 냉동명태의 유통물량 153,061톤의 개별 유통경로별 물량비중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음

<표 4-46> 냉동명태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국내 반입 및 수입		153,061	100.0
정부비축 구매 물량		12,442	8.1
군납 구매 물량		2,000	1.3
1차 도매업자 유통	2차 도매업자유통	15,124	9.9
	소비지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19,638	12.8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점, 백화점 등)	6,609	4.3
	가공업체	76,530	50.0
	대량수요처 (급식, 식자재, 수출 등)	20,718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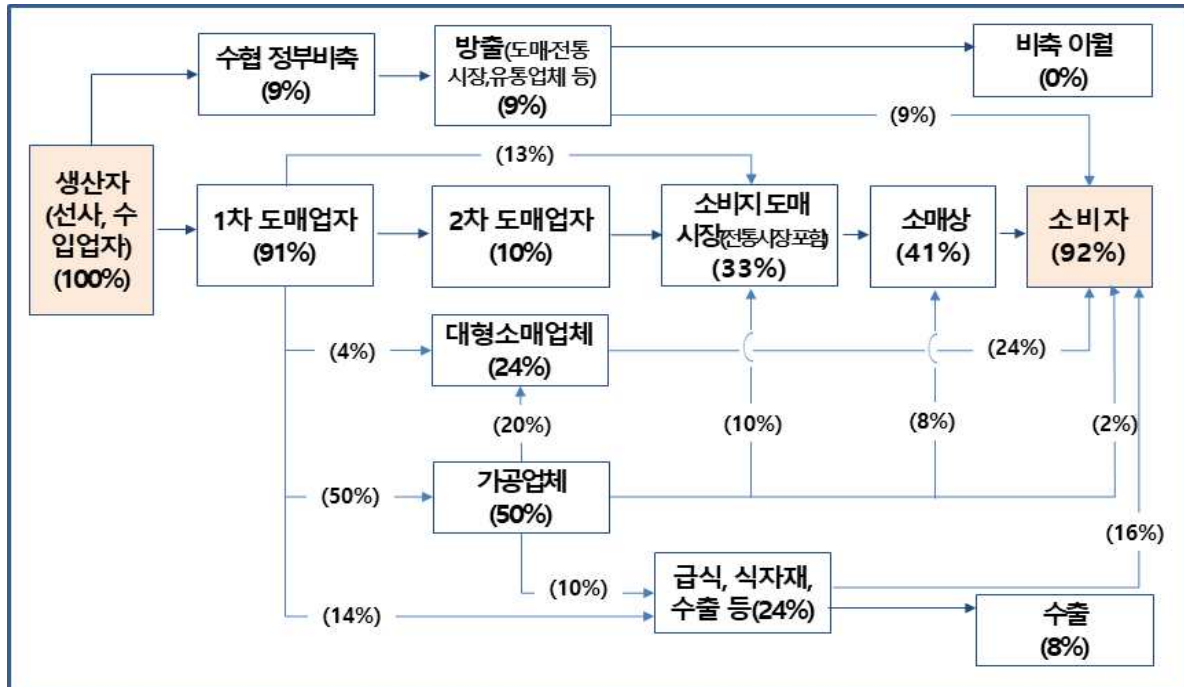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원양선사, 1차·2차 도매업자,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2019년 명태 공급량의 감소에 따라 가공업체 및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유통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에 공급된 명태 중 2019년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위판된 물량은 75,518톤이었으며, 나머지 물량은 선사가 1차 도매업자 및 가공업체 등과 수익계약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됨
- 냉동명태는 수협 비축물량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1차(2차) 도매업자를 통해 유통됨. 정부비축으로 12,422톤, 군납 약 2,000톤이 구매되었으며 이는 냉동명태 유통물량의 약 9% 수준에 불과함
- 주요 유통경로인 1차(2차) 도매업자가 2차 도매업자에게 판매되어 소비지 도매시장(전통시장 포함)으로 유통하는 물량은 약 23% 정도였음
- 명태의 경우 황태, 떡태, 코다리, 북어채 등 가공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 유통물량 중 50% 정도가 가공업체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급식 및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처(수출 11,629톤 포함)로의 유통 물량은 약 14% 정도였음

<그림 4-34>냉동명태의 유통경로 및 배분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명태는 수입 및 반입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원양선사, 1차·2차 도매업자,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명태 유통비용

가. 명태(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노량진수산물시장)

1) 수입 단계

- 세계 명태 공급은 전년과 비슷하나 수요 증가로 국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명태 가격 또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2019년 미국과 러시아의 명태 TAC는 335만 톤으로 작년과 비슷했으나, 최근 유럽과 중국에서 명태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명태 수입 감소로 인해 재고가 전년 및 평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명태 수입단가 및 도매가격 상승세를 보였음
 - 국내 냉동명태 수입단가 또한 국제 가격 상승 및 러시아산 냉동명태 국내 공급

감소에 따라 작년 대비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음

- 11월 냉동명태 수입단가는 kg당 1.35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1.4% 상승했음
-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냉동명태 도매가격 또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11월 명태 도매가격은 kg당 2,36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3.9%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17.3% 높았음
- 도매가격 상승은 식자재 업체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 졌지만, 일반 소비지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아 소매가격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공급이 감소하면서 원양선사 및 1차 도매업체의 이윤은 증가했지만 소비지 도매상은 이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원양산 및 수입산 냉동명태가 부산으로 반입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부두 하역비, 검수비 그리고 부두에서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육상운송비, 냉동 창고에 입고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하차비, 냉동 창고 입고료가 발생됨. 냉동 창고에 입고된 제품은 매일 냉장료가 발생함
 - 하역 및 통관 후 경매 2일 전 샘플 4개로 중도매인들은 견본거래가 가능한 냉동 냉장창고에서 배열, 선도 등을 직접 검품하며, 견본거래 신청서 받아서 경매에 입찰함
 - 경매 및 수의계약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1차 도매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냉동 창고 냉장보관료, 재판매를 위한 출고비, 상차비, 운반비 등이 발생됨

2) 도·소매 단계

- 1차 도매업자가 2차 도매업자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최근 2차 도매업자 유통경로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통비용에서 제외하고 산정했음
- 1차 도매업자는 명태 크기(통수)에 따라 시장에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시판용으로 선호되는 크기는 소비지 도매시장에 위탁을 함. 이때 부산 냉동 창고에서 소비지시장까지 운송료가 발생하며, 소비지시장에서 위탁수수료가 발생됨

<표 4-47> 명태(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노량진수산물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원양선사 (수입업자)	냉동명태 원가	1,127.0	1,660.9	42.8	1kg 기준(간접비 포함)
	부두 하역비	29.9	32.0	0.8	1팬(21.5kg)당 642원
	육상운반비	7.7	9.8	0.3	1팬당 210원
	검수비	0.7	1.6	0.0	1팬당 210원
	하차비	10.0	6.7	0.2	1팬당 144원(수정됨)
	창고 입고비	8.8	9.5	0.2	1팬당 191원
	냉장료	39.1	78.0	2.0	1팬당 1일 27원(부가세 포함), 2개월(60일) 보관 기준
	위판수수료	0.5	15.8	0.4	위판금액의 0.7%
	이윤	61.0	157.8	4.1	판매가격의 5~8% 수준
	선사 판매가격	1,284.7	1,972.1	50.8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42,400원/21.5kg)
1차 도매업체	냉장료	19.5	7.1	0.2	1팬당 1일 5원(부가세 포함), 1개월(30일) 보관 기준
	창고 출고비	8.9	9.5	0.2	1팬당 191원
	상차비	10.0	6.7	0.2	1팬당 144원(수정됨)
	운송비 (부산→서울)	55.8	69.8	1.8	1팬당 1,400~1,500원
	간접비	28.1	94.9	2.4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56.5	83.7	2.2	-
	1차 도매업자 판매가격	1,463.5	2,243.8	57.8	AT 소매가격 및 1차 도매업체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14.4	14.4	0.4	1팬당 309원
	경매수수료	59.0	101.5	2.6	경매 낙찰가의 4.3%
	경락가격	1,536.9	2,360.0	60.8	노량진수산물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14.6	17.5	0.5	1팬당 376원
	상차비	14.4	14.4	0.4	1팬당 309원
	간접비	194.6	201.4	5.2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322.0	120.7	3.1	-
	소비지 중도매인 판매가격	2,082.5	2,714.0	70.0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90.0	97.7	2.5	소매상 조사결과
	간접비	723.0	744.0	19.2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1,065.0	323.3	8.3	-
	판매가격	3,960.5	3,879.0	100.0	AT 소매가격 및 전통시장 소매상 조사가격 참조

주: 8통(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하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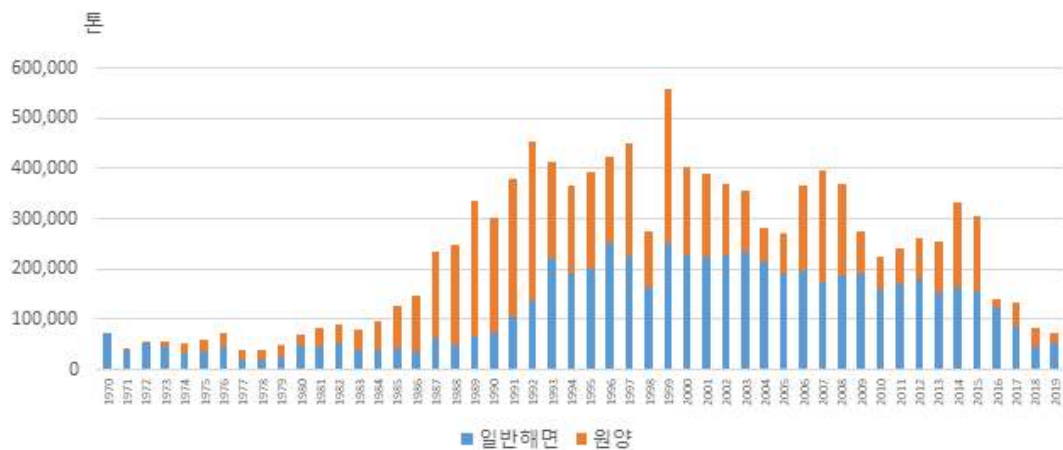
제4절 오징어 유통실태조사

1. 오징어 생산 및 유통 일반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은 크게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으로 생산되어지며, 원양산의 경우 남서대서양에서 조업되어 국내로 반입됨
- 2019년 우리나라 오징어 총 생산량은 71,757톤이었음. 이 중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이 72.2%, 원양어업이 27.8%를 차지했음
 - 우리나라 연간 오징어 생산 변동성은 원양산 생산량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연근해산 생산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원양산의 경우 매년 변동폭이 매우 큼

<그림 4-35> 연도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에도 오징어 생산은 최근의 어획 부진이 계속된 가운데, 연간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었으며,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1.8%, 63.9% 감소했음
 - 연근해산과 원양산 모두 평년에 비해 생산이 적었으며, 특히 원양산 오징어

생산이 더욱 부진했음

- 연근해산 생산량은 51,817톤으로 전년보다 12.0% 증가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54.9% 적었음
- 원양산 생산량의 경우 전년의 절반 수준인 19,940톤에 불과 했으며 평년보다도 76.3% 적었고, 2015년 15만 톤이 생산된 이후 극심한 어획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표 4-48>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303,320	74,172	24.5	229,148	75.5
1995년	394,021	200,897	51.0	193,124	49.0
2000년	404,152	226,309	56.0	177,843	44.0
2005년	270,298	189,126	70.0	81,172	30.0
2010년	224,546	159,130	70.9	65,416	29.1
2014년	330,919	163,896	49.5	167,023	50.5
2015년	306,578	155,743	50.8	150,835	49.2
2016년	141,723	121,691	85.9	20,032	14.1
2017년	134,052	87,024	64.9	47,028	35.1
2018년	81,348	46,274	56.9	35,074	43.1
2019년	71,757	51,817	72.2	19,940	27.8
5개년 평균	147,092	92,510	62.9	54,582	37.1
전년 대비	-11.8	12.0	-	-43.1	-
평년 대비	-63.9	-54.9	-	-76.3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평균 일반해면어업의 오징어 생산금액은 총생산금액 대비 77.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원양어업 23.0%에 불과했음
 - 일반해면은 활어, 신선, 냉장으로 생산되는 것에 비해 원양어업의 경우 냉동으로 전량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금액이 낮았음
 -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서남대서양에서 유례없는 생산량 감소로, 원양어업 생산금액 비중 또한 줄었음
- 2019년 오징어 총생산금액은 4,662억 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0.7%, 23.1% 감소했음

<표 4-49>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286,934	146,372	51.0	140,562	49.0
1995년	383,198	311,038	81.2	72,160	18.8
2000년	490,034	279,595	57.1	210,439	42.9
2005년	523,700	405,949	77.5	117,751	22.5
2010년	712,940	567,828	79.6	145,113	20.4
2014년	699,212	444,528	63.6	254,684	36.4
2015년	596,521	413,217	69.3	183,304	30.7
2016년	532,888	483,122	90.7	49,766	9.3
2017년	680,072	492,658	72.4	187,414	27.6
2018년	521,905	382,055	73.2	139,849	26.8
2019년	466,207	384,354	82.4	81,853	17.6
5개년 평균	559,519	431,081	77.0	128,437	23.0
전년 대비	-10.7	0.6	-	-41.5	-
평년 대비	-23.1	-13.3	-	-49.8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오징어의 월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1~6월까지의 원양어업으로 오징어가 조업되며, 7월 이후로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이 이루어짐
- 연근해 오징어 어한기에 원양선이 반입되면서 부족한 공급량을 채워줌

<그림 4-36>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일반해면어업 오징어 생산의 주어기는 8월부터 이듬해 1월로 동해에서 성장 및 회유하며 북상했던 오징어 어군은 8월부터 1월까지 남하하면서 국내 어장에서 조업되고, 2월부터는 산란을 위해 오징어 어군이 일본해역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4~5월은 금어기⁵⁷⁾로 조업이 원활하지 않음
- 최근 수온상승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는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서해안에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고 있으며, 서해안 오징어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 월별 연근해 생산량을 살펴보면, 연 초에 동해안에서의 생산과 여름철 서해안 생산이 다소 증가했으나, 성어기 동해안에서의 생산이 매우 부진했음
- 1~2월에는 동해안의 오징어 생산 어기가 길어지면서 생산이 전년에 비해 많았으며, 4~5월은 금어기로 생산이 없었음
- 금어기 이후 7~8월에는 서해안에서의 오징어 생산이 전년 및 평년을 웃도는 등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음
- 그러나 성어기에 접어드는 9월부터 동해에서의 어군 형성이 좋지 못하면서 일부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등 생산이 부진했음

<표 4-50>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9151	32,360	20,766	17,984	7,441	9,895	17,689	33.0	-58.0
2월	14030	20,300	7,855	14,190	9,676	8,035	12,011	-17.0	-39.2
3월	25322	38,804	9,101	17,550	15,090	10,217	18,152	-32.3	-51.7
4월	40186	45,964	2,489	9,174	5,078	1,506	12,842	-70.3	-92.7
5월	41825	29,081	811	2,439	2,085	1,027	7,089	-50.7	-93.3
6월	23224	5,835	2,554	1,300	1,675	2,267	2,726	35.3	-67.2
7월	9512	4,004	3,299	6,570	5,374	11,111	6,072	106.8	93.2
8월	5015	11,001	13,124	16,861	5,185	10,881	11,410	109.9	6.3
9월	14649	19,146	10,000	11,383	7,075	6,838	10,888	-3.3	-45.1
10월	37410	20,609	17,992	10,609	12,715	3,594	13,104	-71.7	-81.9
11월	25503	28,969	21,299	12,516	4,123	2,618	13,905	-36.5	-85.8
12월	55093	50,505	32,433	13,478	5,832	3,769	21,203	-35.4	-88.0
합계	330,920	306,578	141,723	134,054	81,349	71,758	147,092	-11.8	-63.9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57)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오징어 포획 금지기간(금어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한해 실시함.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림 4-37>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전체)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부류별 오징어 생산량을 살펴보면, 냉동 비중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선어 33.1%, 활어 8.9% 순이었음
- 냉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올해의 경우 원양산 냉동의 반입이 적어 전년 대비 비중이 감소했음
- 연근해에서 생산된 물량 중에서는 선어가 45.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냉동이 41.9%, 활어가 12.3% 순이었음

<표 4-5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7,165	7,956	7,433	6,353	4,936	6,353	8.9	6,606
선어	135,705	119,095	91,138	50,790	18,003	23,749	33.1	60,555
냉동	188,049	179,527	43,152	76,910	58,410	41,655	58.1	79,931
합계	330,919	306,578	141,723	134,052	81,348	71,757	100.0	147,092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생산량에서 부류별 계통출하 비중은 약 72% 수준임
- 일반해면어업은 활어, 선어, 냉동 모두 99% 이상 계통 출하되고 있는 반면, 원양산 오징어는 냉동으로 100% 비계통 출하되고 있음

<표 4-52>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일 반 해 면	활어	계통	7,124	7,946	7,409	6,282	4,891	6,301	99.2	6,566
		비계통	40	11	24	71	45	53	0.8	41
		소계	7,165	7,956	7,433	6,353	4,936	6,353	100.0	6,606
	선어	계통	135,566	118,962	90,984	50,298	17,888	23,492	98.9	60,325
		비계통	139	134	154	493	115	258	1.1	231
		소계	135,705	119,095	91,138	50,790	18,003	23,749	100.0	60,555
	냉동	계통	21,026	28,692	23,120	29,395	23,336	21,639	99.7	25,236
		비계통	0	0	0	486	0	75	0.3	112
		소계	21,026	28,692	23,120	29,882	23,336	21,715	100.0	25,349
	계	계통	163,716	155,599	121,513	85,975	46,115	51,432	99.3	92,127
		비계통	180	144	177	1,050	160	386	0.7	383
		소계	163,896	155,743	121,691	87,024	46,274	51,817	100.0	92,510
원 양	냉동	계통	0	0	0	0	0	0	0.0	0
		비계통	167,023	150,835	20,032	47,028	35,074	19,940	100.0	54,582
		소계	167,023	150,835	20,032	47,028	35,074	19,940	100.0	54,582
합 계		계통	163,716	155,599	121,513	85,975	46,115	51,432	71.7	92,127
		비계통	167,203	150,979	20,209	48,078	35,234	20,326	28.3	54,965
		합계	330,919	306,578	141,723	134,052	81,348	71,757	100.0	147,092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오징어의 주 생산지는 부산과 경북이었음
 - 원양산을 제외하고 부산이 전체 생산물량의 2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21.2%로 뒤를 이었음
- 2019년 지역별 생산을 살펴보면, 겨울철 동해안 지역은 어황이 좋지 못해 전년 대비 생산이 감소했으나, 서해안의 경우 여름철 어군 형성으로 생산이 증가했음
 - 주요 생산지인 경북의 생산은 전년 대비 12.9% 줄었으며, 부산 또한 7.0% 증가하는데 불과했음
 - 반면 전남과 충남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3> 연도별 지역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부산광역시	83,981	72,764	52,510	31,376	14,343	15,350	21.4	37,269
인천광역시	598	98	29	23	62	46	0.1	52
울산광역시	3,356	2,856	1,086	428	566	222	0.3	1,032
강원도	9,460	7,641	6,745	5,073	4,146	4,022	5.6	5,525
충청남도	1,857	3,214	1,067	2,018	834	2,334	3.3	1,893
전라북도	28	382	795	609	239	806	1.1	566
전라남도	1,302	6,285	6,208	10,307	2,434	6,906	9.6	6,428
경상북도	59,730	54,684	44,203	27,427	15,903	13,858	19.3	31,215
경상남도	2,963	6,528	8,318	8,928	7,229	7,321	10.2	7,665
제주도	621	1,292	730	835	519	952	1.3	866
원양산	167,023	150,835	20,032	47,028	35,074	19,940	27.8	54,582
합계	330,919	306,579	141,723	134,052	81,349	71,757	100.0	147,092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어법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대형트롤어업이 전체 생산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해채낚기 26.7%, 동해구중형트롤 15.5% 등의 순이었음
- 2019년의 경우 근해채낚기에서 조업된 오징어가 14,996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트롤 11,496톤, 쌍끌이대형저인망 9,688톤 등의 순이었음
- 근해자망에서 생산된 오징어의 양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동해구중형트롤의 경우 겨울철 조업을 하지 못해 전년 대비 34.6% 감소했음

<표 4-54> 연도별 어법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일반해면어업)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근해채낚기	34,971	45,063	26,788	22,617	14,007	14,996	24,694	7.1	-47.7
대형트롤	75,030	60,780	45,642	26,596	10,813	11,496	31,065	6.3	-73.7
쌍끌이대형저인망	2,346	6,993	11,578	16,997	8,122	9,688	10,676	19.3	5.2
동해구중형트롤	35,801	22,062	25,641	14,561	5,744	3,755	14,353	-34.6	-81.9
정치망	2,714	5,580	2,416	2,347	1,782	3,487	3,122	95.7	17.5
근해자망	489	644	261	340	484	2,496	845	415.7	462.7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	381	751	912	411	2,230	1,870	1,235	-16.1	99.6
기타	12,164	13,870	8,453	3,155	3,092	4,029	6,520	30.3	-50.5
합계	163,896	155,743	121,691	87,024	46,274	51,817	92,510	12.0	-54.9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 오징어 수출량은 중국의 오징어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연간 7만 톤 정도 수출되었으나 2016년부터 국내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수출량이 급감했음
 - 그러나 수출단가는 2016년 이후 전 세계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오징어 수출량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81.5% 적은 8,206톤이었으며, 수출금액은 전년보다 10.7% 많았으나 평년에 비해 60.5% 감소한 3,422만 달러였음
 - 수출단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1.8%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61.9% 높았음
- 오징어 수입량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10만 톤 이상이 수입되었음
 - 201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오징어 생산 부진에 따라 국내 오징어 수급 또한 불안정하여 대체재로 칠레와 페루산 대왕오징어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임
- 2019년 수입량은 133,515톤으로 전년보다 14.2% 늘어나면서 평년 대비 58.4% 많았으며, 수입 금액은 4억 2,5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6%, 평년 대비 96.7% 늘어남
 - 계속된 생산 부진으로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수입 수요가 많았음

<표 4-55> 연도별 오징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4년	72,766	116,357	1.60	77,465	187,611	2.42
2015년	72,709	95,334	1.31	69,330	164,705	2.38
2016년	46,671	112,467	2.41	75,982	201,776	2.66
2017년	22,680	78,516	3.46	81,906	180,886	2.21
2018년	7,547	30,922	4.10	116,892	347,260	2.97
2019년	8,206	34,223	4.17	133,515	425,701	3.19
5개년 평균	38,430	77,970	2.84	95,525	264,066	2.76
전년 대비	8.7	10.7	1.8	14.2	22.6	7.33
평년 대비	-81.5	-60.5	61.9	58.4	96.7	26.1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19년 오징어 수출에서 제품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냉동(기타)이 6,42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물량의 78.3%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는 냉동 989톤 수출되었으며, 조미오징어 390톤, 기타 327톤 순이었음
- 2019년 수입의 경우도 냉동(기타)이 95,847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71.8%를, 금액기준으로는 58.2%를 차지했음
 - 기타가 24,709톤으로 전체 물량의 18.5%를 차지했으며, 냉동과 조미제품이 각각 6,347톤, 6,363톤으로 약 5% 수준이었음

<표 4-56> 제품유형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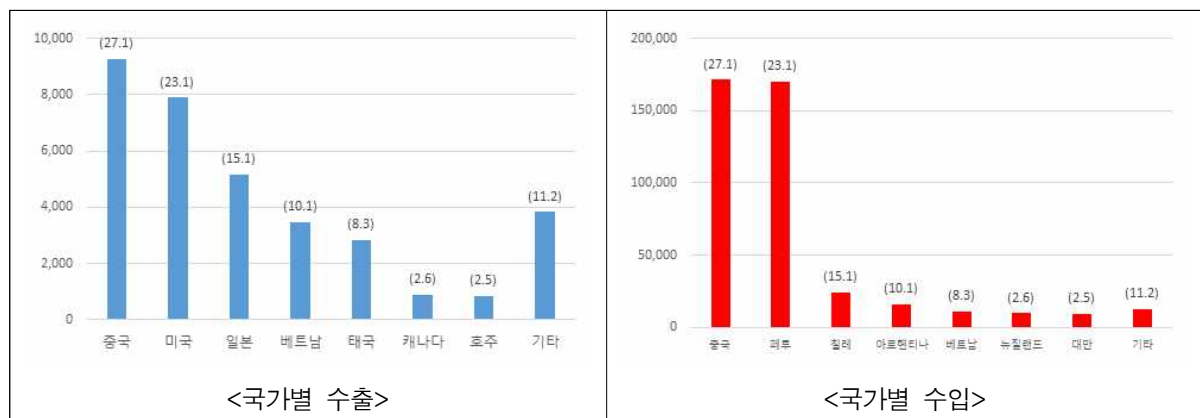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7422010	0	0.0	0	0.0	0	0.0	1	0.0
냉동 ⁵⁸⁾	0307432010	989	12.1	2,804	8.2	6,347	4.8	28,021	6.6
기타(훈제)	0307494090	0	0.0	5	0.0	0	0.0	1	0.0
기타(건조)	0307493090	38	0.5	1,027	3.0	228	0.2	4,565	1.1
조제·저장처리	1605542010	35	0.4	399	1.2	21	0.0	91	0.0
조미	1605542091	390	4.8	6,126	17.9	6,363	4.8	28,705	6.7
냉동(기타)	0307432090	6,427	78.3	21,684	63.4	95,847	71.8	247,947	58.2
신선·냉장(기타)	0307422090	0	0.0	5	0.0	0	0.0	1	0.0
기타	1605542099	327	4.0	2,174	6.4	24,709	18.5	116,370	27.3
합계		8,206	100.0	34,223	100.0	133,515	100.0	425,701	1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그림 4-38> 국가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58) 냉동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 로리고종 · 노토토다루스종 · 세피오투디스종)

- 오징어 수출입 대상국은 다양하나, 중국은 수출과 수입방면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오징어를 세계 52개국에 수출했으며, 중국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23.1%), 일본(15.1%), 베트남(10.1%), 태국(8.3%) 등으로 수출되었음
- 오징어 수입은 31개 국가로부터 이루어졌는데, 2019년 전체 오징어 수입량의 27.1%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됨
 - 그 다음으로 페루(23.1%), 칠레(15.1%), 베트남(8.3%) 등의 순이었음

다. 수급 구조

- 국내 연근해어업과 남서대서양의 생산량 감소 등 세계적인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수입으로도 공급 부족분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국내 오징어 총공급량은 감소 추세에 있음
- 2019년 전체 공급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0%, 23.9% 감소했는데, 이는 원양산 생산 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8% 감소했으며, 수입 또한 전년 수준에 그쳤기 때문임

<표 4-57> 연도별 오징어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4년	330,919	150,239	89,607	570,765	367,333	74,952	128,480	90.1
2015년	306,578	150,022	128,480	585,080	358,088	74,541	152,451	85.6
2016년	141,723	163,257	152,451	457,431	366,805	49,452	41,173	38.6
2017년	134,052	183,164	41,173	358,389	296,937	24,187	37,265	45.1
2018년	81,348	243,944	37,265	362,557	309,417	9,358	43,781	26.3
2019년	71,757	239,706	43,781	355,244	304,748	10,191	40,305	23.5
전년 대비	-11.8	-1.7	17.5	-2.0	-1.5	8.9	-7.9	-
평년 대비	-63.9	34.6	-51.2	-23.9	-10.3	-78.1	-50.0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이며, 원어환산량으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

정보와 다를 수 있음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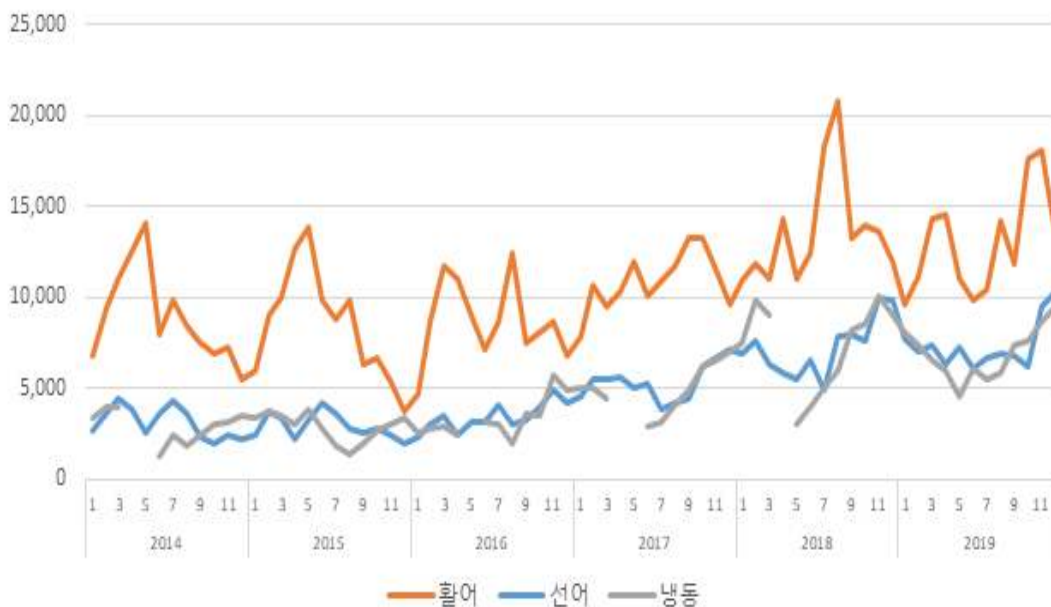
- 공급량이 감소했으나 수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하여, 국내소비는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 1.5%, 10.3% 감소했음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통계청 어업생산 동향조사를 통한 오징어 생산단가(생산금액/생산량)를 살펴보면, 연근해 오징어의 생산단가는 활어, 선어, 냉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음
 - 생산 가장 단가가 높은 활어 가격은 변동성이 컸으며, 3~5월 어한기 및 금어기 시기와 여름철 8월에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어는 활어에 비해 변동성이 크지는 않으나 9월 주 생산어기에 들어서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주 생산어기에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냉동도 선어와 마찬가지로 주 생산어기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오징어 생산단가는 2016년 하반기부터 활어, 선어, 냉동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39>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오징어(선어) 생산단가는 2017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연평균 가격은 kg당 7,328원으로 전년과는 비슷했으나 평년 대비 66.0% 상승했음
- 이는 계속된 공급 부족으로 재고가 적었던 가운데 생산이 여전히 좋지 못했기 때문임

<표 4-58>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동향(선어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640	2,382	2,258	4,593	6,901	7,717	4,770	11.8	105.5
2월	3,640	3,740	3,076	5,480	7,619	7,037	5,390	-7.6	49.4
3월	4,462	3,384	3,506	5,446	6,342	7,405	5,217	16.8	60.0
4월	3,872	2,251	2,381	5,586	5,902	6,276	4,479	6.3	57.0
5월	2,526	3,246	3,170	4,994	5,540	7,201	4,830	30.0	84.9
6월	3,580	4,203	3,125	5,290	6,598	6,125	5,068	-7.2	34.4
7월	4,318	3,566	4,102	3,889	4,893	6,613	4,613	35.1	59.2
8월	3,596	2,791	2,980	4,162	7,829	6,948	4,942	-11.3	62.6
9월	2,286	2,523	3,236	4,434	7,982	6,779	4,991	-15.1	65.6
10월	1,995	2,815	3,966	6,203	7,641	6,245	5,374	-18.3	38.1
11월	2,482	2,391	4,959	6,715	9,970	9,438	6,695	-5.3	78.0
12월	2,207	1,972	4,209	7,101	9,904	10,149	6,667	2.5	99.8
연평균	3,134	2,939	3,414	5,324	7,260	7,328	5,253	0.9	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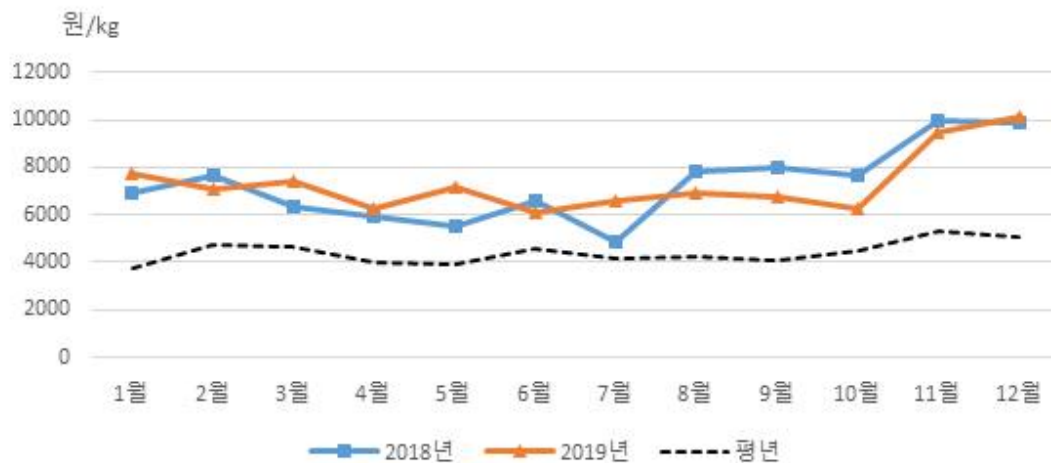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오징어 중 선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40> 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선어 기준)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생산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연중 내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작년과 비슷한 등락 추세를 보였음
 - 4~5월에는 금어기로 가격 형성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6월까지도 생산이 많지 않아 가격 형성이 좋지 못했음
 - 8~9월 서해안 생산 증가로 인해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작년 대비 10~15% 하락했음. 하지만 11월 이후 동해안지역의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상승세로 돌아섰음
 - 한편 12월에는 성어기임에도 생산이 크게 부진하자 가격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kg당 10,149원으로 형성되었음

2) 도매가격

- 선어 오징어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2017년 크게 상승한 이후 2019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져 연평균 kg당 10,967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6.5%, 63.1% 높았음

<표 4-59>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056	4,366	4,410	6,975	9,456	10,718	7,185	13.3	83.1
2월	4,472	4,481	4,580	7,335	9,556	10,571	7,305	10.6	73.7
3월	4,922	4,715	4,682	7,629	9,700	10,890	7,523	12.3	72.0
4월	4,721	4,710	4,710	8,101	9,700	10,500	7,544	8.2	64.4
5월	4,683	4,660	4,852	8,214	9,955	10,500	7,636	5.5	62.2
6월	4,668	5,035	5,331	9,182	10,431	10,711	8,138	2.7	54.6
7월	4,776	4,631	5,615	9,503	10,738	10,796	8,257	0.5	53.1
8월	4,437	4,355	5,486	8,963	10,620	10,676	8,020	0.5	57.6
9월	4,348	4,471	5,986	9,669	10,973	10,532	8,326	-4.0	48.6
10월	4,361	4,359	6,123	9,834	10,649	11,190	8,431	5.1	58.4
11월	4,491	4,568	7,122	9,699	10,954	12,719	9,012	16.1	72.7
12월	4,553	4,377	6,918	9,486	10,932	13,190	8,981	20.7	81.9
연평균	4,547	4,566	5,503	8,707	10,301	10,967	8,009	6.5	63.1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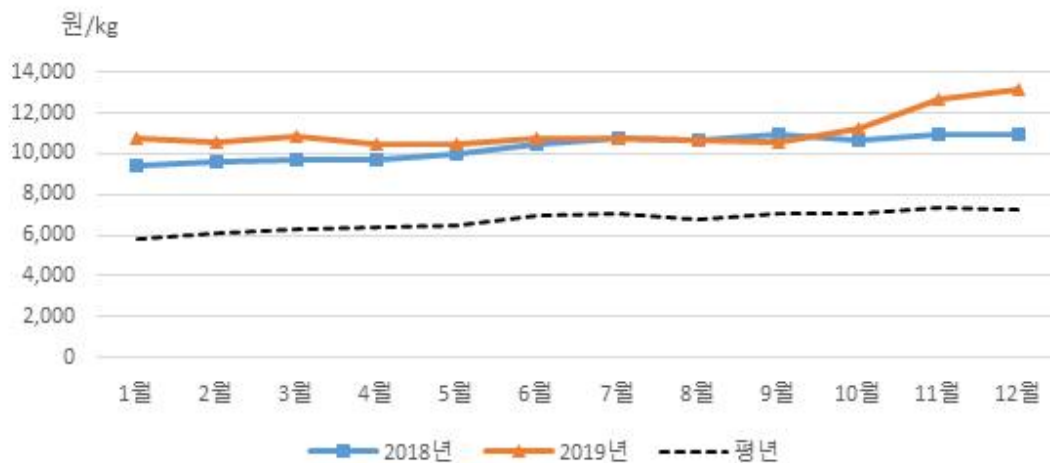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선어 오징어 도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생산이 적은 2월~9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생산이 증가하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하락함
- 반면 2019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높은 가격으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10월 동해안 생산 부진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으며 12월에는 kg당 13,190원까지 상승했음

<그림 4-41>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냉동오징어의 연평균 도매가격 또한 원양산 생산 부진 여파로 2017년에 크게 상승했으며, 이는 2019년까지 이어졌음
- 2016년 선어 오징어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kg당 4,403원이었으나 이듬해 kg당 7,748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음

<표 4-60>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486	3,661	3,691	6,126	8,600	8,609	6,137	0.1	68.4
2월	3,656	3,624	3,820	6,274	8,600	8,400	6,144	-2.3	61.7
3월	3,870	3,640	3,762	6,435	8,600	8,400	6,167	-2.3	59.7
4월	4,056	3,640	3,814	6,985	8,600	8,400	6,288	-2.3	55.0
5월	3,934	3,640	4,041	7,244	8,600	8,495	6,404	-1.2	54.7
6월	3,828	3,632	4,000	8,216	8,663	8,705	6,643	0.5	53.6
7월	3,761	3,592	4,095	8,707	8,800	9,104	6,860	3.5	57.2
8월	3,680	3,540	4,255	8,700	8,800	9,038	6,867	2.7	56.0
9월	3,543	3,540	4,463	8,671	8,800	8,926	6,880	1.4	53.8
10월	3,579	3,545	4,710	8,580	8,838	9,100	6,955	3.0	55.5
11월	3,620	3,560	5,839	8,518	8,664	9,590	7,234	10.7	58.8
12월	3,670	3,560	6,171	8,537	9,000	10,736	7,601	19.3	73.5
연평균	3,727	3,598	4,403	7,748	8,712	8,963	6,685	2.9	59.0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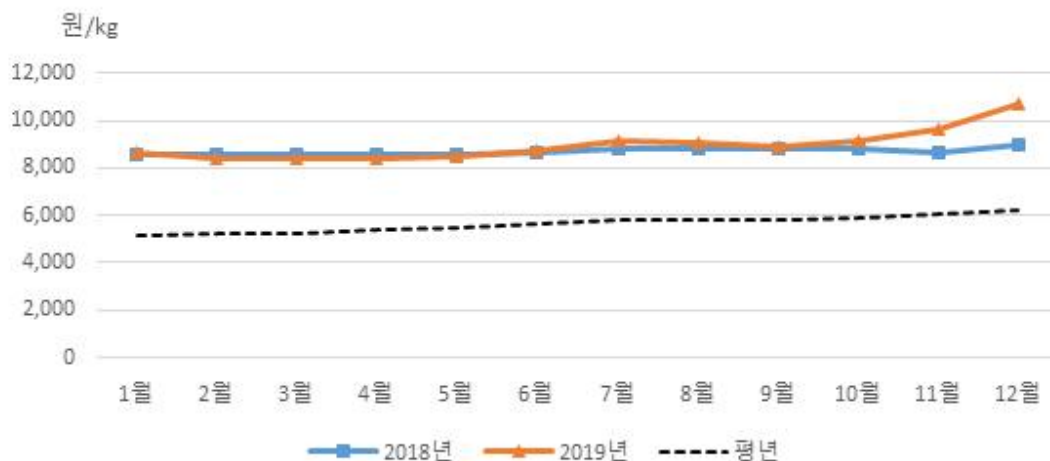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냉동)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냉동오징어 도매가격은 냉동품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지 않으며, 원양산 반입과 겨울철 연근해 생산량에 일부 영향을 받음
- 2019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연중 내내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했으며, 11~12월에는 국내산 생산 부진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음

<그림 4-42>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매가격

- 선어 오징어 소매가격은 2012년 이후 하락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원양산 및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상승세로 돌아섰음
- 2019년 선어 오징어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kg당 14,780원으로 전년보다 14.6% 하락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33.9% 높았음. 생산물량이 적어 가격형성이 원활하지 못했음
- 1~3월에는 전년 및 평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4월 금어기 이후에는 생산이 적어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
- 10월부터는 높은 산지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여 소비자 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었음

<표 4-61>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8,237	8,570	7,900	10,440	14,417	18,427	11,951	27.8	85.9
2월	9,320	9,070	8,550	11,003	14,570	15,403	11,719	5.7	46.7
3월	9,730	9,060	9,127	11,177	14,200	15,303	11,773	7.8	43.6
4월	9,277	8,697	8,397	10,043	-	-	9,046	-	-
5월	8,333	8,333	8,287	10,117	-	-	8,912	-	-
6월	8,170	7,803	8,333	-	-	-	8,068	-	-
7월	8,150	8,000	8,260	10,340	-	-	8,867	-	-
8월	8,650	7,710	7,970	10,010	-	-	8,563	-	-
9월	8,460	8,353	8,643	12,527	-	-	9,841	-	-
10월	8,257	8,337	8,977	14,820	16,620	13,793	12,509	-17.0	21.0
11월	8,860	8,663	10,127	15,893	20,067	-	13,688	-	-
12월	8,660	8,267	10,523	15,190	21,203	20,683	15,173	-2.5	62.0
연평균	8,680	8,397	8,770	12,033	17,313	14,780	12,259	-14.6	33.9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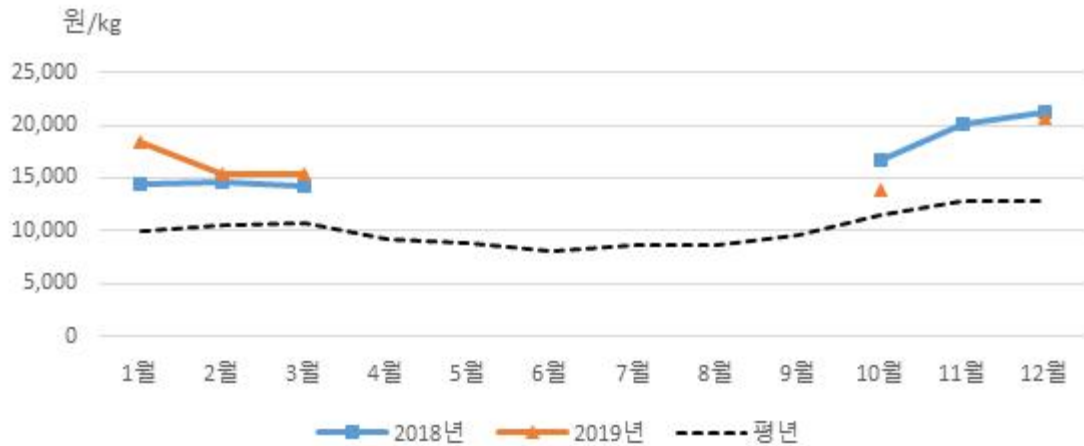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선어)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4) 물량 적어 시장 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43>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4.5%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48.9% 높은 kg당 12,803원이었음

<표 4-62>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863	7,053	6,303	8,200	11,520	12,997	9,215	12.8	62.7
2월	7,113	6,977	6,303	8,907	11,940	12,763	9,378	6.9	54.7
3월	6,863	7,123	6,597	9,483	11,940	12,557	9,540	5.2	49.5
4월	7,133	6,760	6,503	9,947	12,507	12,737	9,691	1.8	48.6
5월	6,977	6,667	6,067	9,837	12,220	12,883	9,535	5.4	54.2
6월	7,157	6,817	6,820	10,713	12,197	13,073	9,924	7.2	49.6
7월	6,850	7,047	6,980	10,730	11,940	13,383	10,016	12.1	53.7
8월	6,983	7,033	6,743	10,143	12,030	12,557	9,701	4.4	46.2
9월	7,100	6,760	6,470	9,990	12,407	12,393	9,604	-0.1	45.0
10월	6,787	6,603	6,857	10,507	12,700	12,447	9,823	-2.0	43.2
11월	7,007	6,847	7,723	10,910	12,823	12,513	10,163	-2.4	38.1
12월	6,987	6,697	8,037	11,833	12,937	13,270	10,555	2.6	42.7
연평균	6,983	6,867	6,800	10,093	12,257	12,803	9,764	4.5	48.9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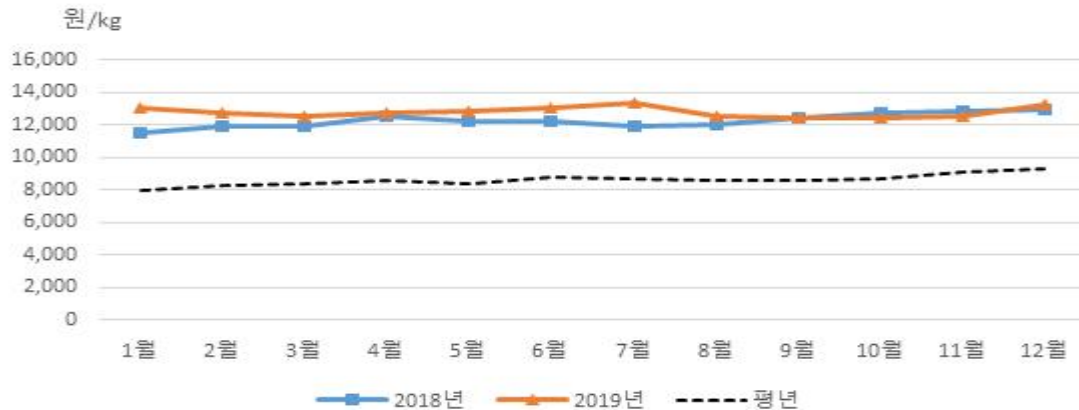
3) 오징어(냉동)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이를 1kg 단위로 환산했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이는 최근 몇 년간 생산 부진으로 이월된 재고량이 적었고, 2019년에도 원양산 뿐만 아니라 연근해 생산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임

- 5월부터 원양산 반입되는 시기이나 물량이 적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7월에는 kg당 13,383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음. 오징어 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2,000~13,0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 4-44>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오징어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오징어의 유통경로는 어획 방법 및 부류별 차이를 보임. 오징어(활어)의 경우 근해채낚기어업을 통해서 대부분이 생산되며, 일부 정치망,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서 생산되고 있음
- 어획 방법 및 부류별에 따른 유통경로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활어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중간유통업자(활어차) → 소매상(횃집) →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임
 - 활어는 선도의 문제 때문에 어창에 있는 상태에서 위판장에서 경매가 진행됨. 경매를 마친 뒤 배에서 10마리씩 담아 활어차로 운반되며, 활어차를 통해 각 지역 소비지로 유통되는 형태임
 - 속초와 주문진 등 강원도 지역의 관광지에서는 활오징어 대부분이 지역 내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오징어 생산이 가장 많은 후포와 구룡포 등 경북지역에서는 지역 내 소비보다는 전국 각 지역 소매점(횃집)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많음

- 활어 상태로 위판된 물량 중 일부는 선어화 되어 스티로폼박스에 담겨져 시중에 유통됨. 그러나 최근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활어는 횃집으로 대부분 유통되며 선어화되어 유통되는 비중은 낮아졌음

<그림 4-45> 활어 오징어의 유통 현황



자료: 현지 출장 자료

- 선어 오징어의 경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등을 통해서 조업되며, 어업방법에 따라서 유통에 차이가 있음
- 채낚기어선에서 조업된 오징어는 선상에서 스티로폼상자에 포장되어 위판되며, 활오징어가 경매 후 판매가 되지 않은 활오징어를 선어화시켜 스티로폼상자에 포장하여 위판되기도 함
 - 스티로폼 상자당 20마리씩 포장되고 무게는 약 6~8kg 정도이며, 채낚기어업 방식으로 어획되어 오징어의 상태와 신선도가 좋음
- 채낚기에서 조업된 오징어는 유통경로는 첫째,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소비지 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로 이어짐
 - 이 유통경로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운반되어 재경매를 통해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형태로서 가장 전통적인 오징어 유통형태임
 -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 도소매상으로 직접적으로 유통되는 경로도 있음
- 둘째,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임
 - 이 유통경로는 산지에서 산지 중도매인을 거쳐 대형소매업체를 통해 오징어를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형태임. 2000년대 이전에는 거의 모든 물량이 소비지도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통해 유통되었으나, 대형소매업체가 출현하면서 이러한 유통형태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대형자본과 소비자들의 높은 접근성에 의한 안정적인 수요로 인해 오징어를 공급하는 산지 중도매인들은 대형소매업체로의 유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전통시장으로의 유통은 다소 긴 유통과정(소비지도매시장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을 가지는 반면, 산지 중도매인을 통한 대형소매업체로의 직접적인 유통 방식은 유통과정이 짧아 오징어의 선도 유지가 용이함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트롤에서 조업된 오징어는 플라스틱상자에 담겨져 선어 상태로 위판이 이루어짐
 - 플라스틱상자 당 무게는 약 50~60kg이며, 채낚기어업에서 어획된 오징어보다 상태 및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조미·건오징어로 가공되어 소비됨
- 플라스틱상자에 위판되는 오징어의 경우,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가공업체(냉동 창고 및 건조장)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경로를 가짐
 - 이 유통경로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가공업체로 직거래 되거나 중간유통업자, 벤더 등을 거친 후 가공업체로 전달됨
 - 이후 가공업체에서는 할복 및 재포장(20kg) 작업을 통해 냉동 창고에 얼리거나 조미, 훈제상품 등으로 가공하여 이를 각 지역 도매시장이나 대형소매업체에 유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임

<그림 4-46>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트롤에서 조업된 선어 오징어 유통 현황



자료: 원 내

- 그 외 일부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군납이나 급식 등의 식자재용으로도 유통되고 있음
- 냉동오징어의 경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근해채낚기뿐만 아니라 원양산으로 생산되는 양이 많음
- 대형트롤과 동해구 중형트롤어선에서 조업된 냉동오징어의 유통경로는 주로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가공업체(냉동 창고 및 건조장)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로 이어짐
-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가공업체로 직거래 되거나 중간유통업자 등을 통해 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비중이 높았으며, 선어오징어와 같이 소비지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업체를 걸쳐 소비자로도 유통됨
- 한편, 포클랜드해역에서 조업되는 원양산 냉동오징어는 원양어선에서 조업 후 20kg/FAN으로 급속 냉동하여 운반선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 연근해산 오징어와 달리 산지위판장을 경유하지 않고 배에서 하역 후 냉동 창고에 보관되며, 아래와 같이 주로 1차 도매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 첫째, 생산자(원양선사) → 1차 도매업체 → 2차 도매업체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둘째, 생산자(원양선사) → 1차 도매업체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
- 셋째, 생산자(원양선사) → 1차 도매업체 → 가공업체 → 소매상 →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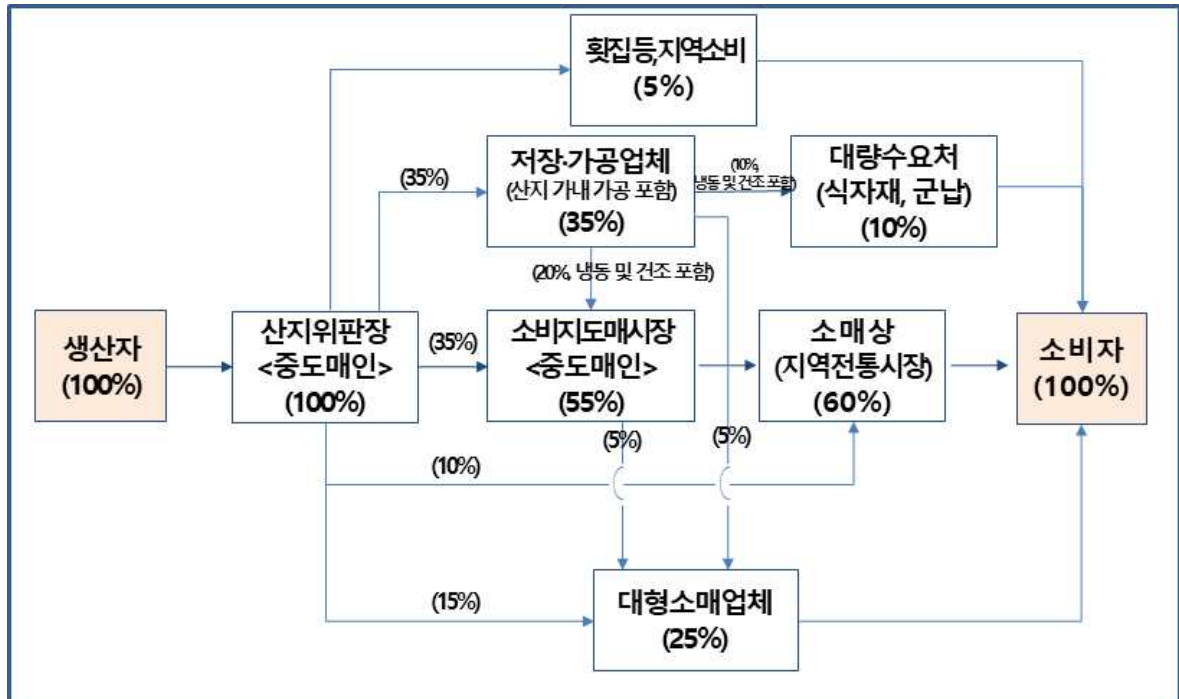
<그림 4-47> 냉동오징어 유통 형태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19년 기준으로 연근해와 원양에서 생산된 오징어는 각각 51,817톤, 19,940톤으로 총 71,757톤이 생산되었음
 - 이를 활오징어, 선어오징어, 냉동오징어로 나누어 유통경로별로 취급물량 비중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활오징어는 거의 대부분 전국의 횡집 및 지역소비로 유통되며, 선어오징어는 소비지 도매시장, 저장·가공업체(가내 소규모 가공 포함)로 유통되는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파악됨
 - 2019년의 활오징어는 97%가 물차를 통해 전국 횡집 및 지역 횡집으로 이동하여 소비되었으며, 일부가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됨
- 선어 오징어의 경우 어업방법에 따라서 유통에 차이가 있었음
 - 선도가 좋은 오징어의 경우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35%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산지중도매인이 대형소매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유통하는 경우가 15% 수준이었음
 - 그 외 시판되지 않은 오징어는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포함)등으로 35%정도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48> 선어오징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주: 1) 선어로 위판된 물량에 대한 유통경로임

2) 오징어(선어)의 경우 비계통출하 비율이 1.1%에 그쳐 전체를 계통출하로 산정

3)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냉동오징어는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였음

- 2019년 또한 국내 연근해 생산이 좋지 못해 대형소매업체에서는 원양선사와의 계약으로 냉동오징어를 중점적으로 유통했으며, 7~8월 서해안에서 생산된 오징어가 냉동상태로 많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됨

- 정부비축 물량은 원양산을 포함하여 1,134톤으로 냉동 유통 물량 중 2.7%를 차지했음

<표 4-63> 오징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활오징어		선어오징어		냉동오징어	
	취급량	비율(%)	취급량	비율(%)	취급량	비율(%)
산지위판장 / 원양선사	6,353	100.0	23,749	100.0	41,655	100.0
전국 횡집(소매), 지역 소비	6,162	97.0	1,187	5.0	-	-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포함)	-	-	8,312	35.0	12,497	30.0
소비지 도매시장	-	-	8,312	35.0	5,123	12.3
소매점포(지역 전통시장 포함)	-	-	2,375	10.0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점, 백화점)	191	3.0	3,562	15.0	22,910	55.0
정부비축 구매 물량	-	-	-	-	1,134	2.7

주: 산지위판장에서 위판 이후 중도매인이 분산한 물량 기준임, 오차범위는 5% 내외임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오징어 유통비용

가. 활오징어의 유통비용(경북 울진 후포 → 소매상(횡집))

- 활오징어는 근해채낚기어선에서 선상경매가 이루어지며, 경매 이후 어창에 있던 활오징어는 바구니를 통해 활어차로 옮겨지게 됨
 - 다른 품종과 달리 배에서 선원들이 오징어를 옮기기 때문에 양륙비, 배열비 등의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수협 위판수수료만 경매금액에서 3%가 발생함
 - 중간유통업자(활어차)는 산지 중도매인에게 마리당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기본 가격인 2,000원 이하는 마리당 1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 이후 마리당 경매가격이 천원 단위씩 상승하게 되면 수수료도 50원씩 올라가게 됨. 그러나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음
 - 활어차에 옮겨진 오징어는 전국의 횡집으로 운반되며, 마리당 가격은 시세에 따라 중간유통업자(활어차)의 의지대로 책정됨. 출하가격에서 마리당 1,000~2,000원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임
- 2019년에도 오징어 어획이 부진했으며, 특히 11월 동해안에서 조업이 좋지 못해 활어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음
 - 활오징어는 마리당 3,200~4,000원에 전년 동월보다 높은 가격에 위판되었으며,

산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음

- 중간유통업자에게서 발생하는 유류비, 물·가스비 등 직접비의 변화는 없었으나 이윤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비자 소매상(횃집)의 경우 간접비는 인건비와 점포세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늘었으나 이윤은 크게 변화가 없었음

<표 4-64> 활오징어의 유통비용(경북 울진 후포 → 소매상(횃집))

단위: 원/마리,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332	9,894	58.9	-
산지	위판수수료	328	306	1.8	위판금액의 3%(수정)
위판장	위판가격	8,660	10,200	60.7	후포수협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700	700	4.2	기본 마리당 가격 2,000원 이하는 150원, 천원 단위가 올라가면 50원씩 상승
	판매가격	9,360	10,900	64.9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중간유통 업자 (활어차)	유류비	300	300	1.8	중간유통업자 면담결과
	물·가스비	150	150	0.9	중간유통업자 면담결과
	이윤	900	1,150	6.8	중간유통업자 면담결과
	중간유통업자 판매가격	10,710	12,500	74.4	산지가격에서 마리당 천원(또는 이천 원) 가산하여 판매
소비자 소매상 (횃집)	간접비	2,000	2,300	13.7	점포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이윤	2,000	2,000	11.9	-
	판매가격	14,710	16,800	100.0	조사가격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나.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 2019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위판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했음
-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도매시장에서의 비용은 변동된 것이 없었음
- 한편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오징어 수요가 적어 소비자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음

- 그러나 운송비 등 직접비 및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는 증가하면서 소비지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1) 산지 단계

- 선어 오징어(s/p, 20미)의 소비지 도매시장 경유 경로의 가격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채낚기에서 조업된 오징어는 선상에서 스티로폼에 담겨져서 양륙됨. 양륙하고 배열하는 과정은 모두 어선 선원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짐. 따라서 오징어의 경우 선상에서 선별 및 상자구성이 되어서 위판되기 때문에 선별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자비용은 위판가격의 3%인 위판수수료만 발생함
 - 구룡포 수협에 등록된 어선은 3%, 그 외의 배들은 4%의 위판수수료가 발생함
- 2019년 산지위판장에서 발생하는 노임인 운반비, 박스 작업비, 상차비 등은 생산 부진으로 인해 2018년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 생산 물량이 적어 산지중도매인의 전체 이윤이 적어짐에 따라 산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항운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동결하였음
 - 경매가 끝난 이후 단계에서는 중도매인 비용으로 근해채낚기어선에서 스티로폼박스에 20마리씩 포장되어 위판되는 경우에는 항운노조에 의해 운반비 200원, 상차비 400원이 발생함
 - 단, 어선에서 활오징어 상태로 위판되어 선어화를 시키는 경우에는 스티로폼박스 1,400원, 얼음 300원, 작업 노임비 440원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중도매인이 비용을 부담함

2) 소비지 도매 단계

- 산지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운송 시 상자 당 가격으로 비용이 청구되며, 2018년에 비해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운송비는 상자 당 1,400원으로 올랐음
 - 이와 함께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하차비, 경매수수료는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함

- 경매수수료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도매시장에 직접 상장 시 위탁수수료인 4%만 지불하면 되지만 수의계약 시 위탁수수료뿐만 아니라 상외수수료(4~5%)가 추가적으로 발생함

3) 소매 단계

- 소비지 중도매인은 경매로 오징어를 낙찰 받은 이후 상차비, 간접비와 함께 이윤을 고려하여 소매상으로 판매함
 - 소비지 중도매인은 낙찰 받은 가격에 소매상으로 5% 이윤을 붙여 판매함
 -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소매상으로 운반 시 운반비가 발생하지만, 가락시장에서는 운반비가 부과되지 않음

<표 4-65>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3,370.0	13,395.7	62.0	빙장(중품) 기준
산지 위판장	양륙비	-	-	-	해당사항 없음
	배열비	-	-	-	해당사항 없음
	위판수수료	534.0	414.3	1.9	위판금액의 3%(수정)
	위판가격	13,904.0	13,810.0	63.9	구룡포수협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선별비	-	-	-	해당사항 없음
	운반비	33.0	33.3	0.2	200원/6kg 박스
	박스작업 (선어화)	스티로폼박스	-	-	1,400원/6kg 박스
		얼음	-	-	300원/6kg 박스
		작업 노임	-	-	440원/6kg 박스
	상차비	46.7	46.7	0.2	280원/6kg 박스
	운송비(산지→소비지)	217.0	233.3	1.1	1,400원/6kg 박스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411.0	617.0	2.9	판매가격의 약 4% 내외
	산지출하(판매)가격	14,611.7	14,740.3	68.2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26.5	26.5	0.1	159원/6kg 박스
	경매수수료	643.0	615.0	2.8	경락가격의 4%
	경락가격	15,281.2	15,381.8	71.2	도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IS 도매가격 참조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65.2	-	-	가락시장 운반비 없음
	상차비	26.5	26.5	0.1	159원/6kg 박스
	간접비	900.0	922.0	4.3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813.0	859.5	4.0	약 5% 수준
	판매가격	17,085.9	17,189.8	79.6	조사가격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87.0	167.0	0.8	운송비 등
	간접비	2,024.1	2,010.0	9.3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2,911.0	2,233.2	10.3	-
	판매가격	22,108.0	21,600.0	100.0	소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IS 소매가격 참조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다.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선어 오징어(s/p, 20미)가 산지에서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경로의 가격형성 과정은 산지단계까지는 동일함
 - 산지중도매인이 산지에서 부담하는 비용 중 상차단계까지의 비용은 동일하며, 이후 산지에서 유통센터로 이동하는 운송비와 중도매인 수수료는 대형소매업체에서 정해진 비용이 청구됨
 - 일반적으로 중도매인 수수료는 3.3~3.5% 부과하여 대형소매업체로 납품함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업체에서는 유통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운송 시 발생하는 비용과, 인건비, 홍보비, 운영관리비, 소모품비 등 간접비가 발생됨
 - 대형소매업체에서는 다른 유통경로에 비해서 이윤 비중을 높게 책정함
 -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단계에서 생기는 감모비용인 할인, 폐기, 시식 등이 포함되기 때문임
- 2019년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경로의 경우 대형소매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위판가격 및 산지출하(판매)가격은 하락했으나 대형소매점에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임
 - 한편 올해의 경우 연근해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aT 조사가격이 없었음. 따라서 주요 대형소매업체의 판매가격을 통해 판매가격을 산정하였음

<표 4-66>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3,370.0	13,395.7	67.7	빙장(중품) 기준
산지 위판장	양륙비	-	-	0.0	해당사항 없음
	배열비	-	-	0.0	해당사항 없음
	위판수수료	534.0	414.3	2.1	위판금액의 3%(수정)
	위판가격	13,904.0	13,810.0	69.7	구룡포수협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운반비	33.0	33.3	0.2	200원/6kg 박스
	박스작업 (선어화 시 추가 비용)	스티로폼박스	-	-	1,400원/6kg 박스
		얼음	-	-	300원/6kg 박스
		작업 노임	-	-	300원/6kg 박스
	상차비	47.0	47.0	0.2	280원/6kg 박스
	운송비(산지→유통센터)	217.0	250.0	1.3	납품가격의 3~4% 내외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511.0	520.0	2.6	납품가격의 3.3~3.5%
	산지출하(판매)가격	14,712.0	14,660.3	74.0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 소매업체	간접비	1,742.0	1,749.0	8.8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3,022.0	3,390.7	17.1	-
	판매가격	19,476.0	19,800.0	100.0	aT KAMIS 대형소매업체 소매가격 참조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라.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가락시장)

1) 수입 단계

- 수입산 오징어는 20kg씩 팬(PAN)으로 냉동되어 BAG에 포장되어 냉동상태로 수입되며, 대부분 수산물은 CFR⁵⁹⁾조건이며, 오징어도 동일함
 - 컨테이너 1대 당 24톤 물량이 선적 가능하며 20kg BAG 1,100~1,200개 선적되며, 일반적으로 24톤 전량을 컨테이너에 채워서 수입함
 - 수입된 냉동오징어는 수입관세 22%가 부과되며, 부두 하역비가 발생함
 - 통관 이후 부두에서 냉동 창고까지의 운반비가 발생하며, 창고상하차비, 창고입출고비, 창고보관비 1일당 14원 정도가 발생하게 됨. 창고보관료의 경우 수입업자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일부 있음
 -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가격의 3%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1BAG당 2,700~3,000원 수준임

59) CFR(Cost and Freight)이란 운임포함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

- 부산 냉동냉장창고에서 소비지도매시장까지 운송비는 1BAG 당 1,500~1,600원이 발생하며, 작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2019년 11월 기준 소비지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경락된 수입산 오징어 1BAG의 경락가격은 85,000~90,000원이었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하차비가 1BAG당 309원이 부과되며, 경매수수료 3%가 발생함. 경락된 수입산 오징어는 소비지 중도매인에 의해 5% 이윤이 부과되어 각 소매상으로 판매됨
- 2019년의 경우 냉동 오징어 물량이 적고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수입가격이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금액 또한 11,29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운송비 등 직접비 및 간접비는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지 중도매인 및 소비지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7>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가락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수입업자	수입원가	3,000.0	3,304.3	29.3	24톤 컨테이너 1대 20kg BAG 1,200개 선적 1 BAG 기준 66,000원
	수입관세	770.0	1,017.5	9.0	냉동오징어 관세 22%
	수입가격	3,770.0	4,321.8	38.3	-
	부두하역비	25.2	15.5	0.1	1 BAG 기준 309원
	육상운반비(부두→창고)	7.2	11.3	0.1	1 BAG 기준 225원
	하차비	7.0	7.2	0.1	1 BAG 기준 144원
	창고 입고비	9.5	9.5	0.1	1 BAG 기준 191원
	창고 출고비	9.5	9.5	0.1	1 BAG 기준 191원
	냉장료	14.8	14.9	0.1	1일 9.9원(부가세 포함) 1개월(30일) 보관 기준
	상차비	7.0	7.2	0.1	1 BAG 기준 144원
	운송비(부산→서울)	75.0	80.0	0.7	1 BAG 당 1,500~1,600원
	수입업자 이윤	150.0	148.0	1.3	1BAG 당 3% 내외
	수입업자 판매가격	4,075.0	4,624.8	41.0	수입업자 조사가격
소비자 도매시장	하차비	15.5	15.5	0.1	1 BAG 기준 309원
	경매수수료	157.0	208.5	1.8	경락가격의 3%
	경락가격	4,248.0	4,849.0	42.9	도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S 도매가격 참조
소비자 중도매인	운반비	25.5	-	-	가락시장은 운반비 없음
	상차비	15.5	15.5	0.1	1 BAG 기준 309원
	간접비	870.0	977.6	8.7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813.0	658.0	5.8	약 5% 수준
	소비자 중도매인 판매가격	5,972.0	6,500.0	57.6	조사가격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103.0	125.0	1.1	운송비 등
	간접비	1,641.0	1,711.0	15.2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이윤	3,059.0	2,954.3	26.2	-
	소매상 판매가격	10,775.0	11,290.3	100.0	소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S 소매가격 참조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제5절 갈치 유통실태조사

1. 갈치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2019년 갈치 총 생산량은 43,516톤이며, 이 중에서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이 전체의 99.9%인 43,479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갈치 생산량은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2019년 들어 갈치 총 생산량은 전년보다 12.1% 줄었고, 평년보다 3.1% 적은 수준이었음
- 2019년 들면서 연초부터 8월까지 어황이 좋지 못해 갈치 생산은 전년 및 예년에 비해 부진했음
- 성어기들면서 생산이 회복세를 보였고, 특히 10월과 11월의 생산량이 중국 정부가 시행 중인 자원보호정책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상반기 동안 어획 부진의 영향이 커, 연간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게 되었음

<표 4-68>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112,166	103,736	92.5	8,430	7.5
1995년	102,019	94,596	92.7	7,423	7.3
2000년	93,185	81,050	87.0	12,135	13.0
2005년	62,151	60,086	96.7	2,065	3.3
2010년	59,822	59,242	99.0	580	1.0
2014년	47,118	46,930	99.6	188	0.4
2015년	41,085	41,049	99.9	36	0.1
2016년	32,359	32,331	99.9	28	0.1
2017년	54,521	54,481	99.9	40	0.1
2018년	49,514	49,450	99.9	64	0.1
2019년	43,516	43,479	99.9	37	0.1
5개년 평균	44,199	44,158	99.9	41	0.1
전년 대비	-12.1	-12.1	-	-42.2	-
평년 대비	-3.1	-3.1	-	-48.0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2018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갈치 생산금액은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4.1%, 5.0% 적은 3,026억 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해면어업의 생산금액이 전체에서 거의 100%를 차지했음

<표 4-69>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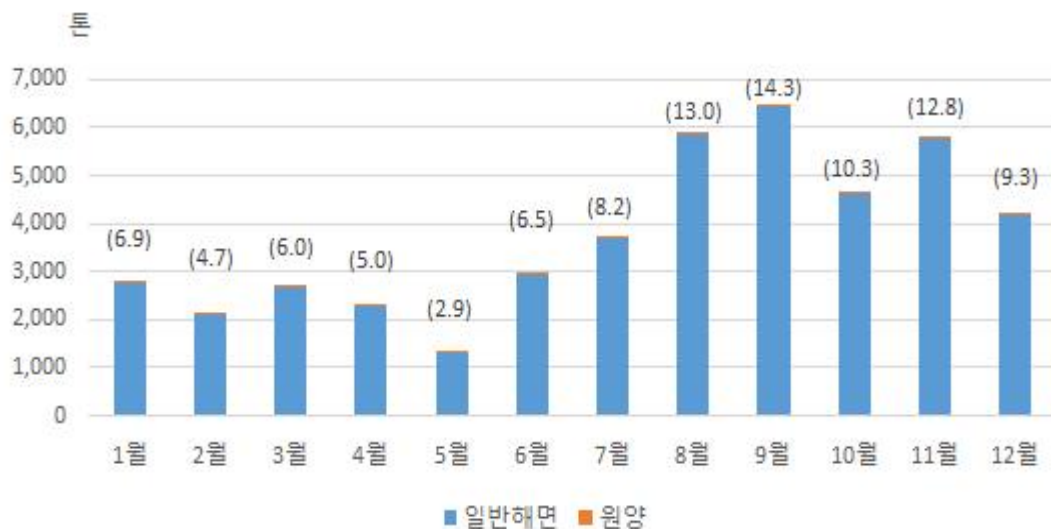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126,755	123,689	97.6	3,066	2.4
1995년	223,500	220,684	98.7	2,816	1.3
2000년	217,077	203,707	93.8	13,370	6.2
2005년	226,950	225,004	99.1	1,946	0.9
2010년	301,922	300,903	99.7	1,019	0.3
2014년	283,962	283,545	99.9	417	0.1
2015년	244,197	244,135	100.0	62	0.0
2016년	274,254	274,201	100.0	53	0.0
2017년	438,835	438,739	100.0	96	0.0
2018년	352,148	351,995	100.0	153	0.0
2019년	302,637	302,600	100.0	37	0.0
5개년 평균	322,414	322,334	100.0	80	0.0
전년 대비	-14.1	-14.0	-	-75.8	-
평년 대비	-5.0	-5.0	-	-76.3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2018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49> 최근 5년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평균 갈치의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주 어획시기는 금어기가 끝나는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그 중 9월이 14.3%로 어획량이 가장 많았음
-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 8월, 9월의 생산량 비중이 줄어들고, 10월~12월의 생산량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70> 연도별·월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942	2,177	3,576	2,017	2,920	3,111	2,760	6.5	-0.4
2월	2,110	1,957	2,872	915	1,725	499	1,594	-71.1	-70.3
3월	4,027	1,754	2,575	1,931	3,173	1,562	2,199	-50.8	-37.6
4월	3,967	1,851	694	2,578	2,288	1,180	1,718	-48.4	-43.6
5월	2,080	208	653	2,099	1,438	808	1,041	-43.8	-33.5
6월	1,738	503	1,691	5,623	5,108	3,057	3,196	-40.2	3.5
7월	3,522	2,255	1,991	5,984	4,762	3,765	3,751	-20.9	1.4
8월	3,431	8,811	3,224	9,506	4,336	4,605	6,096	6.2	-18.5
9월	6,249	7,065	4,010	8,369	6,650	4,197	6,058	-36.9	-31.1
10월	4,792	5,048	3,716	3,786	5,879	5,855	4,857	-0.4	20.8
11월	6,425	5,390	3,800	7,274	6,096	8,695	6,251	42.6	38.5
12월	3,832	4,066	3,558	4,442	5,140	6,182	4,678	20.3	36.3
합계	47,118	41,085	32,359	54,521	49,514	43,516	44,199	-12.1	-2.6

주: 1)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의 합계이고,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2018년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상반기 동안 작년 및 평년에 비해 어획이 부진했으나, 하반기 들면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11월과 12월에 급격하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음
- 2019년 1월의 갈치 생산량은 3,111톤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전년에 비해 7% 정도 많았음
- 그러나 2월부터 7월까지 갈치 어획은 어황 등이 좋지 않아, 전년에 비해 부진했음
- 8월에 생산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하여 전년 및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

- 10월부터 갈치 중국의 자원보호정책 등의 영향으로 어황이 호전되면서 어획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1월과 12월의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음
- 그렇지만 상반기 동안의 어획 부진으로 인해 연간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줄어듸었음

<그림 4-50> 2019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부류별로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갈치 선어의 생산량은 82.6%인 36,526톤이었고, 냉동은 7,564톤으로 17.0%를 차지하였음. 활어 생산은 2016년부터 없었음
- 2014년과 2015년의 갈치 냉동의 생산량 비중은 각각 22.1%, 25.3%였는데, 2016년 13.3%로 축소되었음
- 2017년에도 13.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 들어 16.0%, 2019년 18.5%로 갈치 냉동의 비중이 최근 들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표 4-71>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0	6	0	0	0	0	0.0	1
선어	36,697	30,681	28,063	47,373	41,067	35,445	81.5	36,526
냉동	10,421	10,398	4,296	7,148	7,907	8,071	18.5	7,564
합계	47,118	41,085	32,359	54,521	49,514	43,516	100.0	44,199

주: 1)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의 합계이고,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부류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갈치의 98.2%가 계통출하되었음. 이 중에서 일반해면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98.3%였고, 원양어업은 전량 비계통으로 출하되었음
- 2019년의 계통출하 비율 97.2%였음.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선어의 계통판매 비중은 96.6%였는데, 냉동은 전량 계통 판매였음

<표 4-72> 연도별 부류별 갈치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일반 해면	활 어	계통	-	3	-	-	-	-	-	3
		비계통	-	3	-	-	-	-	-	3
		소계	-	6	-	-	-	-	-	1
	선 어	계통	36,599	30,561	27,924	47,108	40,771	34,248	96.6	36,122
		비계통	98	120	140	265	835	1,197	3.4	511
		소계	36,697	30,681	28,063	47,373	41,067	35,445	100.0	36,526
	냉 동	계통	9,426	9,889	3,975	6,750	7,843	8,034	100.0	7,298
		비계통	806	473	292	358	-	-	-	225
		소계	10,233	10,362	4,268	7,108	7,843	8,034	100.0	7,523
	계	계통	46,025	40,453	31,899	53,859	48,615	42,282	97.2	43,422
		비계통	904	596	433	623	835	1,197	2.8	737
		소계	46,930	41,049	32,331	54,481	49,450	43,479	100.0	44,158
원 양	냉 동	계통	-	-	-	-	-	-	-	-
		비계통	188	36	28	40	64	37	100.0	41
		소계	188	36	28	40	64	37	100.0	41
합계		계통	46,025	40,453	31,899	53,859	48,615	42,282	97.2	43,422
		비계통	1,092	632	461	663	899	1,234	2.8	778
		합계	47,118	41,085	32,359	54,521	49,514	43,516	100.0	44,199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계통출하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지판매량⁶⁰⁾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20,041톤으로 지역별 비중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9,916톤(22.4%), 전라남도 6,173톤(14.0%), 경상남도 5,998톤(13.6%) 등의 순이었음
- 2019년에도 제주도가 전체 판매량의 48.9%인 21,281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20.6%인 8,958톤이었고, 전라남도가 16.9%인 7,366톤이었음
- 한편 경상남도는 9.6%인 4,182톤으로 생산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됨

<표 4-73> 연도별 지역별 갈치 산지판매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부산광역시	7,780	12,416	8,424	11,840	7,940	8,958	20.6	9,916
인천광역시	436	214	192	260	612	360	0.8	328
울산광역시	20	36	28	103	9	22	0.1	40
강원도	0	0	1	1	0	0	-	0
충청남도	236	240	281	265	763	442	1.0	398
전라북도	1,406	958	1,195	1,569	1,333	759	1.7	1,163
전라남도	5,577	5,819	3,806	5,494	8,378	7,366	16.9	6,173
경상북도	7	1	351	50	4	110	0.3	103
경상남도	14,017	7,506	4,124	8,640	5,536	4,182	9.6	5,998
제주도	17,450	13,858	13,929	26,261	24,874	21,281	48.9	20,041
원양산	188	36	28	40	64	37	0.1	41
합계	47,118	41,085	32,359	54,521	49,514	43,516	100.0	44,199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지역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평균 어법별 갈치 생산량을 살펴보면 근해연승이 전체 생산량의 23.9%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선망(14.6%), 연안복합(14.1%), 근해안강망(13.2%) 등의 순이었음
- 2019년에도 근해연승어업의 생산량이 26.3%인 11,447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안복합어업이 14.1%인 6,116톤, 기타가 13.9%인 6,032톤, 근해안강망어업이 12.8%인 5,581톤 등이었음
- 한편 대형트롤어업의 생산량은 5,312톤으로 예년보다 비중이 크게 늘어 12.2%를

60) 지역별 생산량은 통계청 기준인데, 실제 갈치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위판 혹은 소매매로 판매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차지했는데, 쌍끌이대형저인망은 1,897톤으로 4.4%에 그쳐 전년 및 평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음

<표 4-74> 연도별 어법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쌍끌이대형저인망	12,166	5,336	3,304	4,343	3,008	1,897	4.4	3,578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316	248	151	251	190	134	0.3	195
대형트롤	904	1,566	713	1,033	1,438	5,312	12.2	2,012
대형선망	4,982	10,090	6,435	8,373	4,969	2,426	5.6	6,459
근해채낚기	1,628	1,438	2,741	4,931	3,830	3,235	7.4	3,235
근해자망	1,229	1,046	1,219	1,575	2,130	1,299	3.0	1,454
근해안강망	6,117	5,420	4,301	6,199	7,739	5,581	12.8	5,848
근해연승	9,684	7,778	6,569	13,193	13,892	11,447	26.3	10,576
연안복합	5,372	3,943	4,487	9,684	7,025	6,116	14.1	6,251
일반해면어업기타	4,531	4,184	2,412	4,900	5,229	6,032	13.9	4,552
원양어업(트롤)	188	36	28	40	64	38	0.1	41
합계	47,118	41,085	32,359	54,521	49,514	43,516	100.0	44,200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2019년 갈치 수출량은 1,755톤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수출금액도 95.8% 증가한 약 1,065만 달러였음. 수출단가는 kg당 2.8달러로 전년보다 0.3달러 정도 하락했음

<표 4-75> 연도별 갈치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4년	1,410	4,631	3.3	27,786	116,878	4.2
2015년	876	3,740	4.3	28,136	118,824	4.2
2016년	1,533	4,729	3.1	28,731	142,311	5.0
2017년	871	3,216	3.7	23,432	114,014	4.9
2018년	1,755	5,438	3.1	17,722	75,153	4.2
2019년	3,739	10,649	2.8	15,659	59,505	3.8
5개년 평균	1,755	5,554	3.4	22,736	101,961	4.4
전년 대비	113.0	95.8	-9.7	-11.6	-20.8	-9.5
평년 대비	190.1	144.8	-17.2	-37.8	-47.5	-15.7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2018년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9년 갈치 수입량은 25,659톤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1.6%, 37.8% 적었는데 수입금액은 5,951만 달러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0.8%, 47.5%로 수입량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 수입단가는 전년보다 0.4달러 낮은 3.8달러였음
- 갈치 수출입은 대부분 냉동품 위주로 이루어짐
 - 2019년의 경우, 갈치 냉동품은 수출에서 중량 기준으로 99.43%, 금액은 98.1%, 수입은 중량으로 97.3%, 금액으로 93.3%를 차지했음

<표 4-76> 제품유형별 갈치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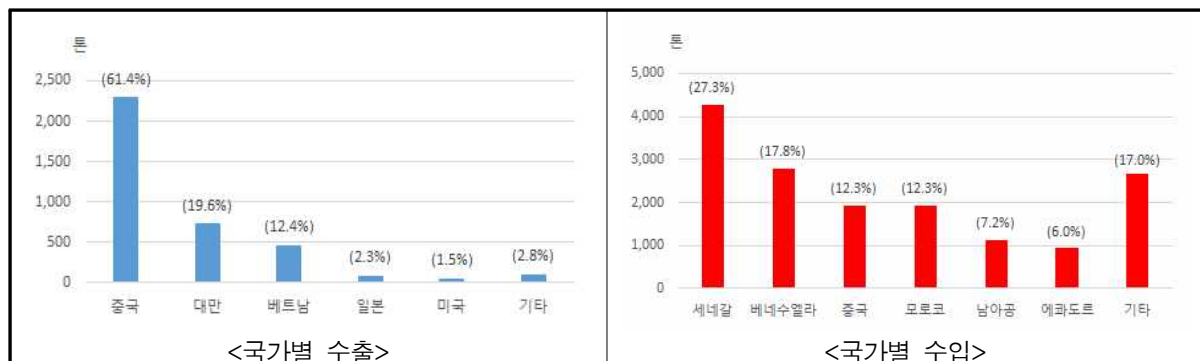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2892000	7	0.2	16	0.2	419	2.7	4,016	6.7
냉동	0303892000	3,715	99.4	10448	98.1	15,240	97.3	55,489	93.3
염장·염수장	0305693000	17	0.5	185	1.7	0	-	0	-
합계		3,739	100.0	10649	100.0	15,659	100.0	59,505	100.0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갈치는 중국(47.3%)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다음으로 대만(19.6%), 베트남(12.4%), 일본(2.3%), 미국(1.5%) 등으로 수출되었음
- 갈치 수입국별 비중을 살펴보면, 세네갈에서 가장 많은 27.3%의 갈치가 수입되었고, 다음으로 베네수엘라가 17.8%, 중국과 모로코가 각각 12.3%, 남아프리카공화국이 7.2%, 에콰도르가 6.0%를 차지했음

<그림 4-51> 국가별 갈치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톤, %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 수급 구조

- 국내 갈치 생산은 2014~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 크게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였음
- 2019년에는 국내 생산 및 수입이 모두 줄어, 국내 총공급이 전년 대비 11% 정도 줄었고, 수요 측면에서 소비는 8% 정도 감소하는데 그쳤고, 수출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이월 재고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음

<표 4-77> 연도별 갈치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4년	47,118	27,786	15,875	90,779	72,223	1,422	17,134	65.2
2015년	41,085	28,136	17,134	86,355	73,897	888	11,570	55.6
2016년	32,359	28,731	11,570	72,660	56,376	1,540	14,744	57.4
2017년	54,521	23,432	14,744	92,697	73,774	874	18,049	73.9
2018년	49,514	17,722	18,049	85,285	66,424	1,758	17,103	74.5
2019년	43,516	15,659	17,103	76,278	61,357	2,743	12,178	70.9
전년대비	-12.1	-11.6	-5.2	-10.6	-7.6	56.0	-28.8	-
평년대비	-3.1	-37.8	10.5	-10.8	-10.5	111.6	-22.5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재고량 동향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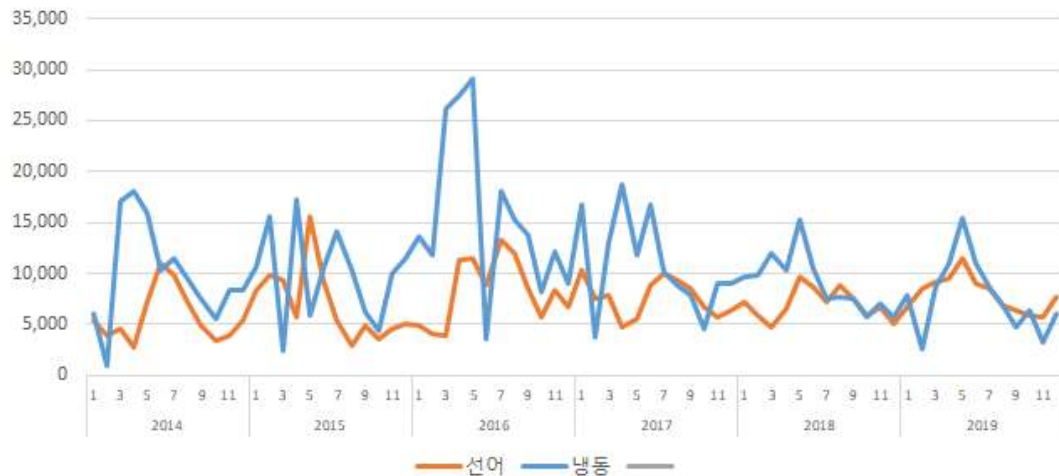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국내 연근해에서 어획된 갈치는 선어, 냉동으로 구분되어 생산 및 위판되며, 부류별로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kg당 생산단가는 <그림 4-8>과 같음
- 이 생산단가는 냉동갈치의 가격이 냉장갈치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데⁶¹⁾, 이는 갈치 선어의 경우, 가격이 낮은 풀치 등의 어린 갈치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7년 이후 최근까지 갈치의 생산단가는 선어 및 냉동 모두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었음

61) 동일한 크기의 가격을 비교하면 냉장갈치의 가격이 냉동갈치에 비해 높게 형성됨. 예를 들어 2019년 서귀포수협 30-33마리의 경우, 냉장갈치의 연평균가격은 14,931원으로 냉동갈치의 10,000원에 비해 50% 정도 높게 형성되었음

<그림 4-52>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단가 추이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갈치 선어의 2019년 연평균 갈치 가격은 kg당 7,096원이었으며, 전년에 비해 4% 정도 높게 형성되었음

<표 4-78>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5,427	8,280	4,874	10,323	7,179	6,771	7,145	-5.7	1.7
2월	3,876	9,853	4,086	7,571	5,948	8,476	6,292	42.5	50.9
3월	4,595	9,287	3,873	7,926	4,751	9,118	6,182	91.9	72.3
4월	2,673	5,653	11,358	4,659	6,585	9,576	6,471	45.4	100.7
5월	7,204	15,659	11,522	5,612	9,619	11,535	8,688	19.9	47.3
6월	10,969	9,285	8,774	8,776	8,604	8,946	8,773	4.0	-0.5
7월	9,829	5,382	13,361	10,036	7,254	8,500	8,928	17.2	-7.1
8월	7,215	2,889	11,925	9,417	8,871	6,894	7,250	-22.3	-5.6
9월	4,815	4,822	8,485	8,520	7,529	6,300	7,252	-16.3	-10.1
10월	3,478	3,637	5,602	6,760	5,897	5,937	5,535	0.7	17.7
11월	3,961	4,491	8,326	5,683	6,685	5,731	6,062	-14.3	0.2
12월	5,392	4,981	6,728	6,300	5,110	7,647	6,175	49.6	34.8
연평균	5,209	4,731	7,610	7,827	6,847	7,096	6,911	3.6	8.6

주: 1)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갈치 중 선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 2019년 수치는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제주 서귀포수협 선어 갈치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14,931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하락했음
- 그런데 어획량이 많은 10~12월 동안 2019년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면서 갈치 선어의 2019년 산지가격은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됨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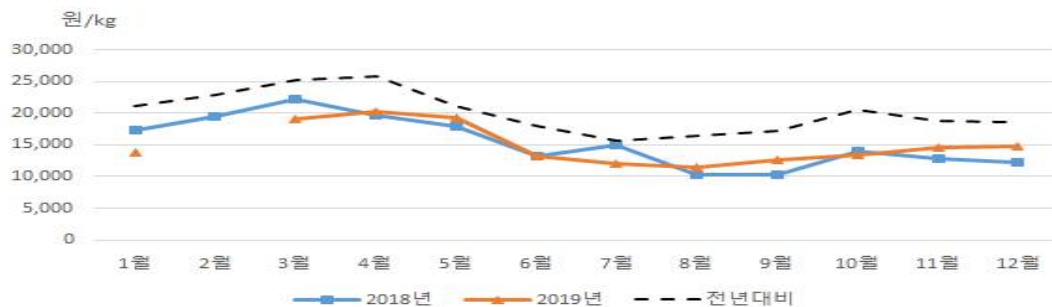
<표 4-79>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0,109	21,494	23,278	23,864	17,278	13,784	19,940	-20.2	-35.0
2월	22,466	20,070	24,757	27,324	19,465	-	22,904	-	-
3월	21,164	24,559	27,275	31,054	22,292	19,067	24,849	-14.5	-24.5
4월	21,592	24,128	30,991	32,965	19,758	20,266	25,622	2.6	-21.7
5월	15,790	-	27,341	23,365	17,917	19,213	21,959	7.2	-9.0
6월	13,600	23,004	24,967	15,132	13,173	13,145	17,884	-0.2	-26.9
7월	13,852	21,528	17,729	10,283	14,933	11,995	15,294	-19.7	-23.4
8월	17,907	18,145	22,826	13,245	10,329	11,483	15,206	11.2	-30.4
9월	18,386	17,460	23,953	16,271	10,248	12,669	16,120	23.6	-26.6
10월	23,619	20,816	25,765	18,802	14,075	13,354	18,562	-5.1	-35.2
11월	19,965	22,654	22,815	15,934	12,751	14,579	17,747	14.3	-22.6
12월	18,090	22,319	23,750	16,498	12,140	14,685	17,878	21.0	-20.9
연평균	18,878	21,470	24,620	20,395	15,363	14,931	19,393	-2.8	-25.8

주: 1) 신선·냉장갈치 30~33미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서귀포수협

<그림 4-53> 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추이



주: 1) 신선·냉장갈치 30~33미 기준 가격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서귀포수협

62) 월별 산지가격은 일자별 위판단가를 단순평균한 것이고, 연평균은 월평균의 단순평균치임. 따라서 위판물량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평균가격과 차이가 있음

○ 2019년 제주 서귀포수협 냉동 갈치의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10,00원으로 작년보다 15.1% 높았음

- 갈치 재고의 지속적인 감소세로 인해 갈치 냉동의 산지가격이 전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음

<표 4-80>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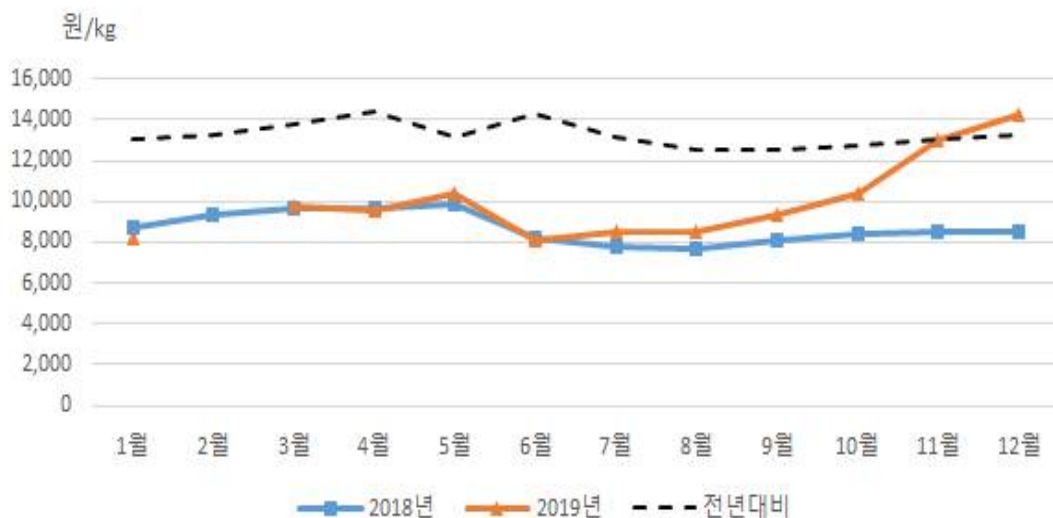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1,450	11,994	16,324	16,830	8,689	8,234	12,414	-5.2	-36.9
2월	11,571	11,897	16,839	16,654	9,325	-	13,679	-	-
3월	11,885	11,962	17,724	17,436	9,679	9,775	13,315	1.0	-28.8
4월	12,804	12,855	19,401	17,444	9,633	9,604	13,787	-0.3	-33.4
5월	13,090	-	-	16,457	9,865	10,347	12,223	4.9	-21.2
6월	12,429	14,545	19,653	16,784	8,221	8,123	13,465	-1.2	-43.3
7월	11,035	15,602	18,891	12,696	7,762	8,489	12,688	9.4	-35.7
8월	10,972	15,847	18,372	9,641	7,632	8,474	11,993	11.0	-32.2
9월	11,130	15,702	18,404	9,316	8,045	9,306	12,155	15.7	-25.7
10월	11,644	16,120	17,560	10,040	8,362	10,427	12,502	24.7	-18.2
11월	11,936	17,220	17,774	9,726	8,528	12,954	13,240	51.9	-0.6
12월	12,408	17,789	18,223	9,340	8,552	14,264	13,634	66.8	7.5
연평균	11,863	14,684	18,106	13,530	8,691	10,000	12,941	15.1	-24.7

주: 1) 냉동갈치 30~33미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서귀포수협

<그림 4-54> 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추이



주: 1) 냉동갈치 30~33미 기준 가격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서귀포수협

2) 도매가격

- 2019년 냉장 갈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0,542원으로 전년 대비 3.0% 하락했으나, 평년 대비 4.5% 높았음
- 2017년 이후 냉장 갈치의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었음

<표 4-81>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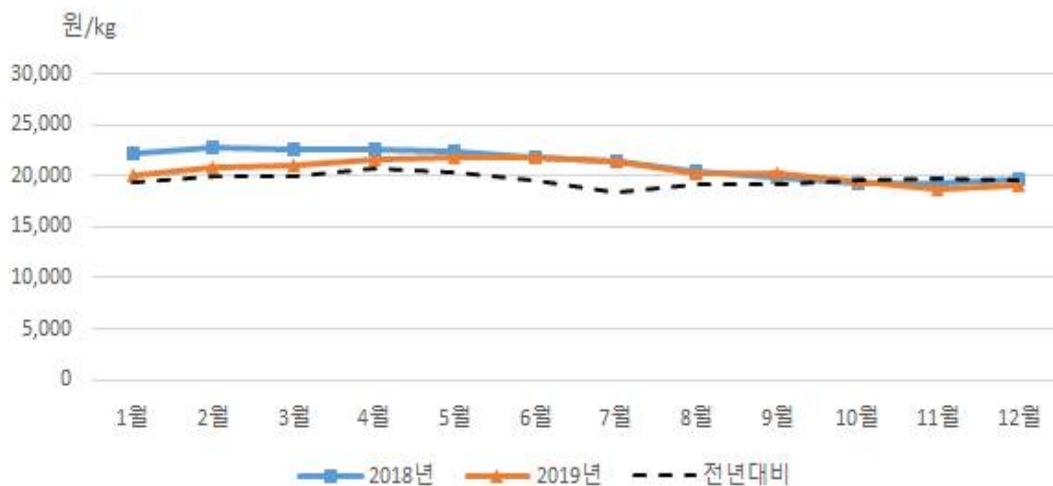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7,360	18,357	18,460	21,020	22,182	19,991	20,002	-9.9	2.6
2월	18,180	18,312	18,178	22,280	22,767	20,847	20,477	-8.4	4.5
3월	18,114	18,509	18,191	22,882	22,600	21,000	20,636	-7.1	4.7
4월	17,945	18,491	19,230	25,850	22,600	21,636	21,561	-4.3	3.9
5월	16,695	18,500	19,210	25,126	22,400	21,800	21,407	-2.7	6.9
6월	16,105	18,382	18,876	22,733	21,737	21,800	20,706	0.3	11.4
7월	16,265	18,026	19,057	17,510	21,400	21,470	19,493	0.3	16.4
8월	17,432	18,220	20,045	19,550	20,418	20,333	19,713	-0.4	6.3
9월	17,989	18,480	19,105	20,238	19,882	20,295	19,600	2.1	6.0
10월	18,405	17,762	21,200	20,750	19,343	19,448	19,701	0.5	-0.2
11월	18,410	18,105	22,391	20,309	19,200	18,781	19,757	-2.2	-4.6
12월	18,490	17,343	21,800	20,968	19,579	19,100	19,758	-2.4	-2.7
연평균	17,619	18,202	19,676	21,569	21,175	20,542	20,234	-3.0	4.5

주: 1) 갈치(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5> 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추이



주: 1) 갈치(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300g 정도)의 중품 기준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19년 냉동 갈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2,623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3%, 3.1% 낮았음

- 냉장 갈치와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 도매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음

<표 4-82>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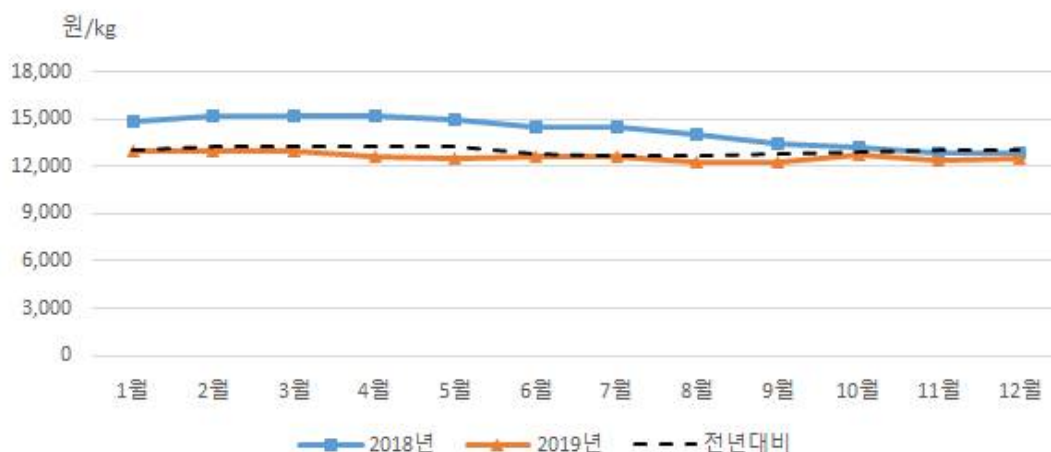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1,960	12,000	11,800	14,720	14,909	13,000	13,286	-12.8	-0.6
2월	12,310	12,000	11,800	14,800	15,200	13,000	13,360	-14.5	-1.7
3월	12,400	12,000	11,873	14,800	15,200	13,000	13,375	-14.5	-1.9
4월	12,400	12,073	12,000	14,800	15,200	12,627	13,340	-16.9	-5.0
5월	12,332	12,200	11,990	14,800	14,920	12,524	13,287	-16.1	-5.5
6월	11,532	11,618	11,800	14,800	14,500	12,600	13,064	-13.1	-1.9
7월	11,435	11,400	12,162	13,905	14,500	12,600	12,913	-13.1	-0.6
8월	11,558	11,400	12,600	14,000	14,064	12,276	12,868	-12.7	-3.5
9월	12,000	11,720	12,811	14,286	13,406	12,242	12,893	-8.7	-4.7
10월	12,176	11,800	13,100	14,600	13,200	12,781	13,096	-3.2	-1.5
11월	12,170	11,800	14,000	14,445	12,818	12,362	13,085	-3.6	-5.2
12월	12,000	11,800	14,371	14,400	12,832	12,487	13,178	-2.7	-4.5
연평균	12,023	11,810	12,541	14,523	14,234	12,623	13,145	-11.3	-3.1

주: 1) 갈치(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300g 정도)의 중품 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6> 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추이



주: 1) 갈치(냉동)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300g 정도)의 중품 기준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2019년 냉장 갈치의 kg당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24,888원으로 전년 대비 17.3%, 평년에 비해 27.6% 낮았음

<표 4-83>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소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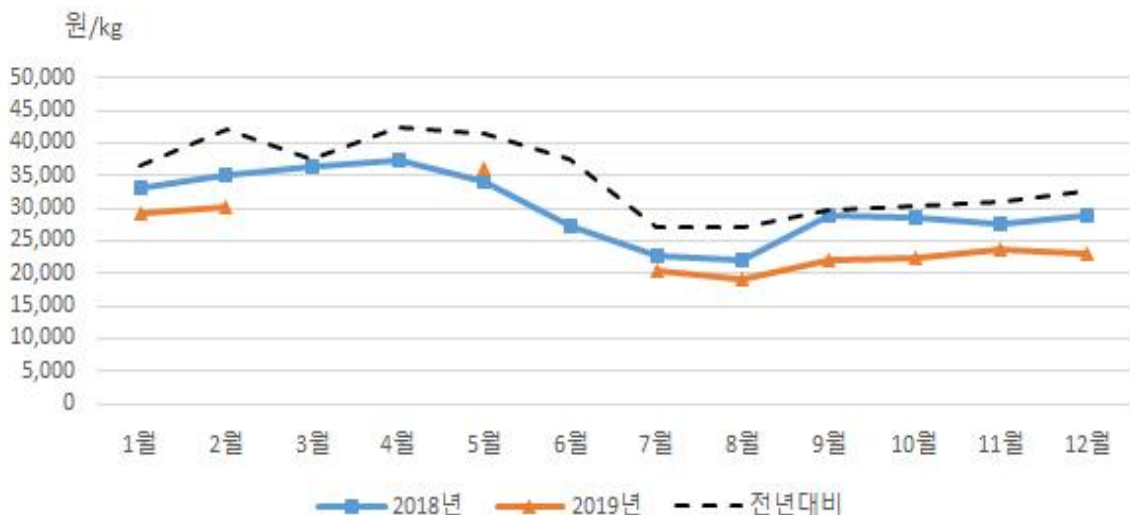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0,716	41,868	25,504	41,216	33,272	29,156	34,203	-12.4	-20.2
2월	41,724	45,820	-	45,748	35,128	30,032	39,182	-14.5	-28.7
3월	40,712	44,560	19,920	46,548	36,276	-	36,826	-100.0	-100.0
4월	46,048	45,120	35,920	47,464	37,484	-	41,497	-100.0	-100.0
5월	41,324	44,788	-	45,396	34,204	35,960	40,087	5.1	-13.2
6월	38,244	45,856	33,168	43,188	27,120	-	37,333	-	-100.0
7월	33,060	20,368	32,416	27,132	22,676	20,508	24,620	-9.6	-24.4
8월	36,684	19,656	31,204	25,324	22,104	18,988	23,455	-14.1	-29.7
9월	35,280	21,660	33,304	28,992	28,872	21,904	26,946	-24.1	-26.1
10월	36,844	23,128	32,712	30,852	28,432	22,316	27,488	-21.5	-26.6
11월	34,480	24,992	34,820	33,376	27,624	23,496	28,862	-14.9	-24.3
12월	38,620	25,260	37,488	32,544	28,876	23,088	29,451	-20.0	-29.1
연평균	38,664	33,396	33,240	37,300	30,092	24,888	31,906	-17.3	-27.6

주: 1) 갈치(선어)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이며,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7> 월별 냉장 갈치 소매가격 추이



주: 1) 갈치(선어)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이며,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19년 냉동 갈치의 kg당 연평균 소비자가 가격은 18,656원으로 전년보다 4.9%, 평년 대비 27.0% 낮았음

<표 4-84>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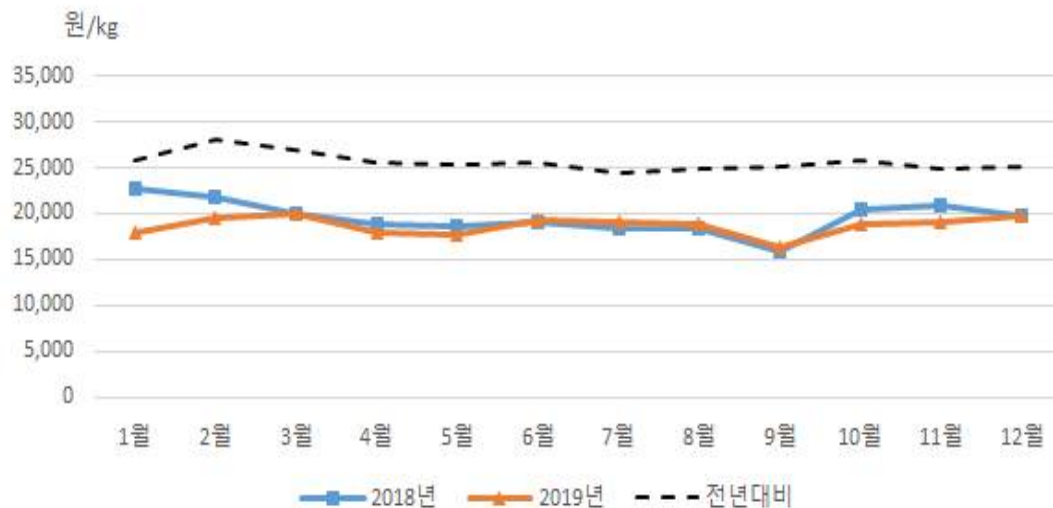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	24,664	30,072	22,624	17,920	23,820	-20.8	-30.5
2월	-	27,052	35,608	21,828	19,420	25,977	-11.0	-31.0
3월	-	24,932	36,252	19,872	19,932	25,247	0.3	-26.2
4월	-	28,040	29,624	18,732	18,036	23,608	-3.7	-29.2
5월	-	28,508	28,820	18,684	17,764	23,444	-4.9	-29.9
6월	22,800	29,912	30,368	19,008	19,224	24,262	1.1	-24.7
7월	18,492	30,636	30,480	18,480	18,980	23,414	2.7	-22.6
8월	21,652	28,236	31,440	18,468	18,896	23,738	2.3	-24.3
9월	23,460	29,312	31,960	15,916	16,424	23,414	3.2	-34.7
10월	22,092	30,716	29,808	20,416	18,884	24,383	-7.5	-26.7
11월	22,680	29,356	26,756	20,968	19,172	23,786	-8.6	-23.1
12월	23,840	33,980	22,520	19,796	19,780	23,983	-0.1	-21.0
연평균	22,028	28,792	30,392	19,612	18,656	24,060	-4.9	-27.0

주: 1) 갈치(냉동)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5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8> 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갈치(냉동)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갈치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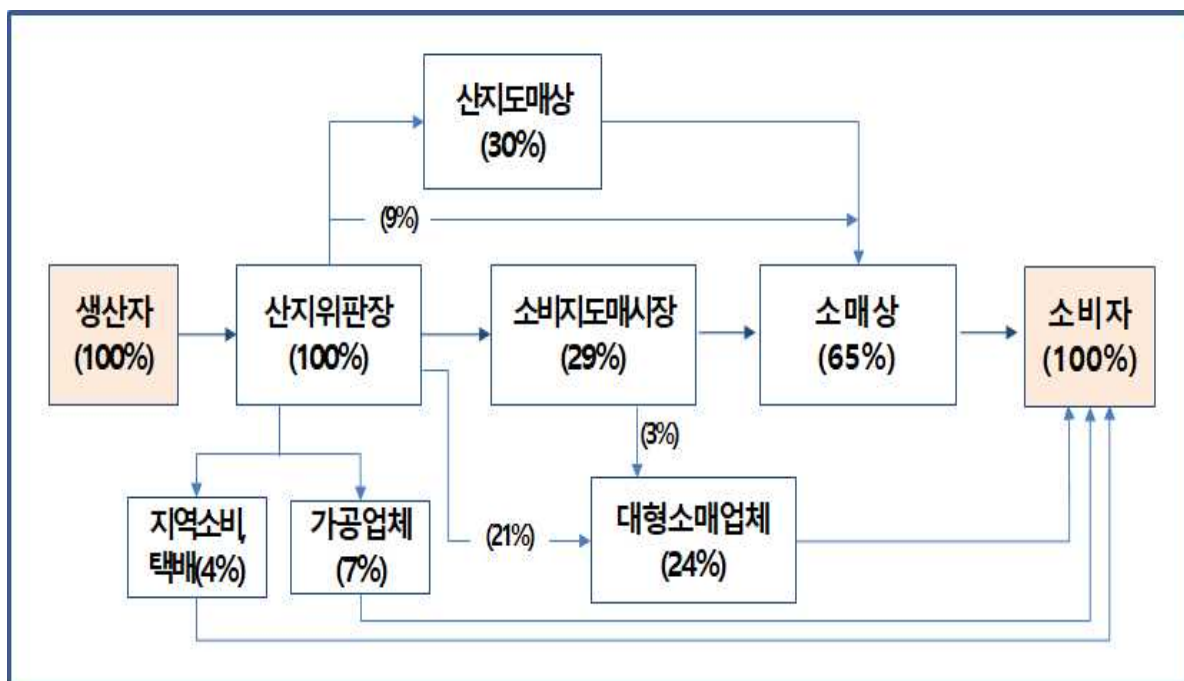
- 갈치는 다른 대중성 품종들과 다르게 어획 단계부터 선어와 냉동품으로 구분되며, 유통단계 또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어와 냉동품의 유통경로를 각각 나누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선어 갈치는 1~2일 동안 연안에서 조업하는 채낚기어업에서 주로 어획되며, 냉동 갈치는 먼 바다에서 15일 이상 조업하는 근해연승어업을 통해 생산됨
 - 특히 선어는 일정한 시간 내에 모두 판매해야 하지만, 냉동갈치는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로 활용할 수 있음⁶³⁾
- 2019년의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는 2018년 조사와 달리,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음
 - 2018년의 조사는 제주지역의 생산량에 국한하여 분석했지만,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를 조사 및 분석했음
 - 제주지역에서 위판되는 갈치 선어는 주로 근해연승어업이나 채낚기어업을 통해 어획되며, 상품성이 좋아 최근 대형소매업체로 판매되는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반해 제주이외 지역에서 위판되는 갈치 선어는 주로 근해안강망어업이나 대형트롤어업에서 어획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낮은 갈치 선어의 비중이 크며, 전통시장 등의 소매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였음
- 냉동갈치는 통계청 기준으로 2018년 이후 산지에서 비계통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선어는 비계통 출하가 있으나, 그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했음. 이에 일반해면어업의 2019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유통구조를 분석하였음
- 먼저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2019년 일반해면어업의 갈치 선어 어획량인 35,445톤을 기준임
 - 대형소매업체→소비자: 대형소매업체를 거치는 경로를 통한 거래 물량은

63) 단 냉동 갈치의 유통실태 분석에서 재고는 제외함

제주지역에서 위판된 물량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9년 조사 결과,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거래 비중이 약 24%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음

- 산지도매상→소매상→소비자: 전통시장 등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비지의 소매점들이 취급하는 물량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경로의 물량 비중은 약 30%로 추정됨
- 소비자 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 소비자 소매상들을 통한 거래물량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산지의 중도매인들과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산지도매상을 거치는 경로에 비해 물량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적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9년 조사결과, 이 경로를 통한 거래 물량의 비중은 29% 정도로 추정되었음
- 이외에 산지 지역 내 소비 및 택배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의 비중은 4%, 가공업체 등에 판매된 물량은 약 7%로 조사되었음

<그림 4-59>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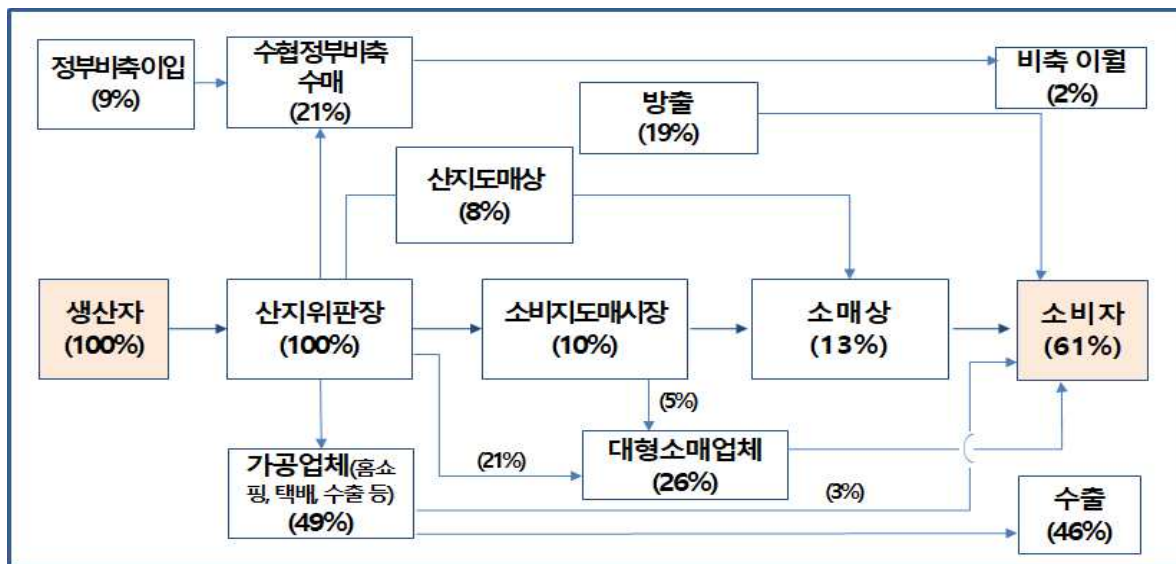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일반해면어업의 갈치 선어 기준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 선어의 유통경로 이외에 수협이 정부비축수매 및 방출사업으로 인한 물량의 이동이 추가됨
- 2019년 일반해면어업의 냉동 갈치 생산량인 8,034톤 기준임
- 정부비축물량 수매 및 방출: 2018년도에 이월된 물량이 2019년 생산량의 약 9%였고, 2019년 수매한 냉동 갈치의 비중이 12%였고, 방출된 물량의 비중은 19%, 2020년으로 이월된 비축 물량은 2% 수준이었음
- 2019년에는 수출량이 3,739톤으로 생산량의 46%나 차지하면서 2019년 생산된 냉동 갈치의 중에서 국내에서 유통된 물량의 비중은 53%에 그쳤음
- 2019년에 이월된 정부비축물량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최종 소비된 냉동 갈치의 비중은 62%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림 4-60>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2018년 기준 냉동갈치는 전량 계통출하 되었음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대형소매업체: 대형소매업체를 거치는 경로를 통한 거래 물량은 선어와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에서 위판된 물량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2019년 조사 결과,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냉동 갈치의 거래 비중이 약 28%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음
- 산지도매상→소매상: 전통시장 등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비지의 소매점들이

취급하는 물량의 비중은 8% 수준으로 갈치 선어의 유통 비중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소비지 도매시장→소매상: 산지도매상을 거치는 경로 또한 그 비중은 5% 정도로 추정되어, 선어에 비해 낮았음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전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제주지역의 중도매인들은 상품성이 좋은 중·대형어를 대형소매업체에 유통시키려는 물량을 더 늘리려는 경향이 조사되었음
 -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갈치 유통은 도매시장 등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등이 요구되지만, 판매대금이 바로 결제되는 등 신용도가 높고 제주지역의 갈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음
 - 이에 반해 소비지의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결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통한 갈치 거래량을 줄이려는 경향이 컸음
- 제주 이외 지역에서 위판되는 갈치는 채낚기어업, 연승어업 등의 방법 아닌 안강망어업, 트롤어업 등으로 어획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소매업체에 유통시키는 갈치의 물량이 적고,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하거나 직접 전통시장 등에 판매하는 비중이 컸음
- 갈치 선어의 위판량이 제주보다 이외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갈치보다, 전통시장 등의 소매상을 통해 판매되는 물량이 많았음
 - 2019년 계통 출하된 35,445톤의 갈치 선어 중에 산지도매상→소매상에게 유통된 물량이 10,633톤으로 전체에서 30% 정도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음
 - 다음으로 소비지 도매시장→소매상의 경로로 유통된 물량이 9,216톤으로 그 비중이 26.0%로 추정됨
 - 대형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된 갈치 선어는 8,507톤이었고, 비중은 24.0%였음
 - 가공업체 등에 판매된 선어는 2,481톤으로 7% 정도였고, 지역 내 소비 혹은 택배 등으로 유통된 물량은 1,418톤으로 전체에서 약 4%로 추정되었음

<표 4-85>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생산자 → 산지위판장(계통출하 물량)		35,445	100.0
산지 중도매인 유통	지역소비, 택배 등	1,418	4.0
	가공업체(홈쇼핑 등)	2,481	7.0
	대형소매업체	8,507	24.0
	산지도매상→소매상	10,633	30.0
	소비지 도매시장→소매상	9,216	26.0
	소매상	3,190	9.0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한편 2019년 일반해면어업의 냉동갈치 생산량은 8,034톤으로 전량 계통으로 출하되었고, 원양어업으로 생산된 37톤은 비계통이었음. 그리고 원양어업의 비계통으로 생산된 물량이 미미하여, 2019년 냉동갈치 국내 유통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 이에 2019년 냉동갈치 유통비중을 분석하기 위한 총생산량은 8,071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 갈치는 냉동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함. 그런데 갈치는 선어의 위판가격이 냉동 갈치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선어를 냉동시켜 판매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냉동품으로 수출되는 갈치는 국내에서 냉동으로 위판된 물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에 2019년에 어획된 냉동갈치의 46.3%인 3,739톤이 수출되었는데 2018년에 비해 수출량이 두 배 가량 늘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
- 2019년 들어 수출 이외에 국내에서 유통된 냉동갈치는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물량이 28.0%인 2,260톤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됨

- 산지의 중도매인들이 대형소매업체를 선호하는 선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어와 달리 제주지역의 냉동갈치 위판량이 많고, 냉동보관 비용 등의 이유로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냉동갈치 유통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리고 갈치 선어는 보관 및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비축 대상은 냉동갈치이며, 2019년 정부비축을 위한 수매된 냉동 갈치는 938톤으로 11.6%를 차지했음
-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물량을 포함하여 2019년에 방출된 냉동 갈치는 1,495톤이었음
- 산지도매상→소매상을 통한 냉동 갈치의 유통량은 7.5%인 2,260톤이었고, 소비지 도매시장→소매상의 유통경로를 거쳐 냉동 갈치는 410톤으로 비중이 약 5.1%로 추정됨
- 이외에 가공업체 등으로 유통된 물량은 3.1%인 247톤으로 추정되었음

<표 4-86>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8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생산자 → 산지위판장(계통출하 물량)		8,071	100.0
산지 중도매인 유통	수출	3,739	46.3
	정부비축물량 수매	938	11.6
	정부비축물량 이월	-128	-1.6
	가공업체(홈쇼핑, 택배 등)	247	3.1
	대형소매업체	2,260	28.0
	산지도매상→소매상	605	7.5
	소비지 도매시장→소매상	410	5.1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정부비축물량 수매 및 방출 실적, 한국무역협회(www.kati.net)

3. 갈치 유통비용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갈치 선어를 대상으로 제주지역에서 서울 대형소매업체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유통되는 과정의 비용을 조사하였음

가.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먼저 제주 서귀포수협에서 위판된 10kg당 30~33마리의 갈치 선어가 서울의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자고 함
 - 2019년 11월 중순 기준으로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14,799원으로 최종 판매가격의 57.4%였는데, 산지 위판가격이 전년보다 높아져 수취가격의 비율이 상승했음
 - 갈치 선어는 어획된 이후 산지 위판장에 양륙 및 위판되는데, 양륙비용은 전년과 동일했으나, 위판수수료는 위판가격을 기준으로 4.3%가 적용되는 구조로 인해 전년보다 상승했음
 - 위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중도매인들이 대형소매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포장 및 운반 등의 소요되는 비용은 전년과 동일했음
 - 2019년에도 어상자 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kg당 303원이 소요되었고, 항공운임도 kg당 600원, 박스 작업 비용 또한 kg당 50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음

<표 4-87> 스티로폼 어상자 품목별 규격 및 단가(2019년 기준)

단위: 톤, %

품 목	호 수	외 경	내 경	중 량	납품단가	수협 판매가
선 어 10kg (대)	6-1호	645x400x160	590x350x 98	380g	2,350	2,440
갈 치 상 자(중)	6-3호	665x370x145	615x320x 85	335g	2,250	2,330
선 어 10kg	6-5호	765x315x145	715x270x 90	330g	2,590	2,690
선 어 20kg (대)	7-1호	670x440x220	615x380x190	470g	3,250	3,360
선 어 20kg (소)	7-2호	670x440x200	615x380x150	450g	2,930	3,030
선 어 20kg	7-3호	670x440x142	615x380x114	380g	2,680	2,770

자료: 성산포수협 판매과

- 그리고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의 kg당 600원 수준이 2019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중도매인들의 이윤폭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위판가격 상승률만큼 판매가격이 형성되면, 판매물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위판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중도매인들의 이윤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중도매인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얼음, 끈, 테이프, 내피 등 박스 작업비는 대략 10kg 박스 당 약 500원 수준임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점에서는 간접비의 증가에 반해 이윤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음
- 간접비에는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면, 2018년의 1,757원/kg에서 5,550원/kg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이 주 요인으로 파악됨
- 이윤은 4,300원/kg에서 2,365원/kg으로 줄었는데, 이는 갈치 조달 원가, 간접비 상승이 높아 이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통해 수요 조절한 것으로 보임

<표 4-88>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0,702	14,799	57.4	-
산지 위판장	양륙비	25	25	0.1	250원/10kg 상자(서귀포수협 기준) ※ 성산포수협 300원/상자(10kg)
	위판수수료	482	666	2.6	위판금액의 4.3%(서귀포수협 기준) ※ 성산포수협 4.3%
	위판가격	11,209	15,490	60.0	서귀포수협 30~33미 기준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	303	303	1.2	<7-2호> 규격의 스티로폼 박스 기준 (2,690원/상자(10kg))
	물류비(운반·운송비)	600	600	2.3	항공운임 6,000원/10kg 박스 (도내 운송비용 포함, 해상은 kg당 3,500원)
	박스 작업	50	50	0.2	500원/상자(10kg)
	얼음, 끈, 테이프, 내피	50	50	0.2	500원/상자(10kg)
	인건비	900	900	3.5	중도매인당 3명 내외 고용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1,296	542	2.1	산지 출하가격의 3~4% 수준
산지 출하(판매)가격		14,358	17,885	69.3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 소매업체	간접비	1,757	5,550	21.5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4,300	2,365	9.2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판매가격	20,415	25,800	100.0	aT KAMIS 소매가격 참조

주: 상자(10kg)당 30~33미의 중품 기준, 조사시기는 2019년 11월 중순임

나.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1) 산지 단계

- 제주 서귀포수협에서 10kg당 30~33마리의 갈치 선어가 노량진수산물시장을 거쳐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경로의 유통비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9년 조사결과, 산지에서 갈치 선어가 위판된 이후에 중도매인들이 10kg 단위로 유통하는 비중이 커, 이를 기준으로 이후 단계를 진행하였음
 - 이에 산지 중도매인들이 소분과정에서 소요되는 기타경비가 제외되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도매시장의 상하차 비용은 산지에서의 소분과정이 확대되면서 박스당 10kg 기준으로 조사되어, kg당 비용이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남
 - 이외에 산지는 인건비 등의 변화가 크게 없었고, 갈치(선어)의 산지가격 상승으로 소비지도매시장의 경매수수료도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남
- 소비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단계에서는 이윤을 제외한 제반 비용이 상승함
 - 운반비, 상차비, 간접비 등이 2018년에 비해 각각 45.0%, 75.8%, 1.6%씩 상승했는데, 이는 산지에서의 소분포장(10kg) 확산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이윤은 반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소비지로 갈수록 현재 가격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여 비용 상승에 따른 기존 가격 유지를 위해 이윤을 줄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3) 소매 단계

- 소매단계에서도 이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상승함
 - 직접비와 간접비가 각각 48.8%와 403.5%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산지에서 소분 포장 확산과 인건비 상승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반해 이윤은 25.5% 줄었는데, 이 역시 높아진 비용에 따라 소비자 수요 조절의 목적에서 이윤을 줄인 것으로 조사됨

<표 4-89>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0,702	14,799	55.9	10kg 상자, 30~33미 기준
산지 위판장	양륙비	25	25	0.1	250원/상자(10kg)
	위판수수료	482	666	2.5	위판금액의 4.3%
	위판가격	11,209	15,490	58.5	서귀포수협 30~33미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	600	269	1.0	2,690원/상자(10kg)
	물류비(운송비)	600	600	2.3	항공운임 6,000원/1박스 (도내 운송비용 포함)
	박스작업	100	100	0.4	약 500원/상자(10kg) (얼음, 끈, 테이프, 내피)
	기타 경비	330	330	1.2	소분작업 및 포장비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992	609	2.3	산지 출하가격의 3~4% 수준
	산지 출하(판매)가격	13,831	17,398	65.7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33	35	0.1	352원/상자(10kg)
	경매수수료	636	783	3.0	경락가격의 4.3%
	경락가격	14,500	18,216	68.7	노량진수산물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40	58	0.2	576원/상자(10kg)
	상차비	33	58	0.2	583원/상자(10kg)
	간접비	709	720	2.7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1,318	1,216	4.6	노량진수산물시장 중도매인 면담결과
	판매가격	16,600	20,268	76.5	중도매인 조사가격 및 aT KAMIS 도매가격 참조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68	250	0.9	운반비 등
	간접비	695	3,500	13.2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3,347	2,482	9.4	서울 전통시장 소매상 면담결과
	판매가격	20,810	26,500	100.0	소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IS 소매가격 참조

주: 상자(10kg)당 30~33미의 중품 기준, 조사시기는 2019년 11월 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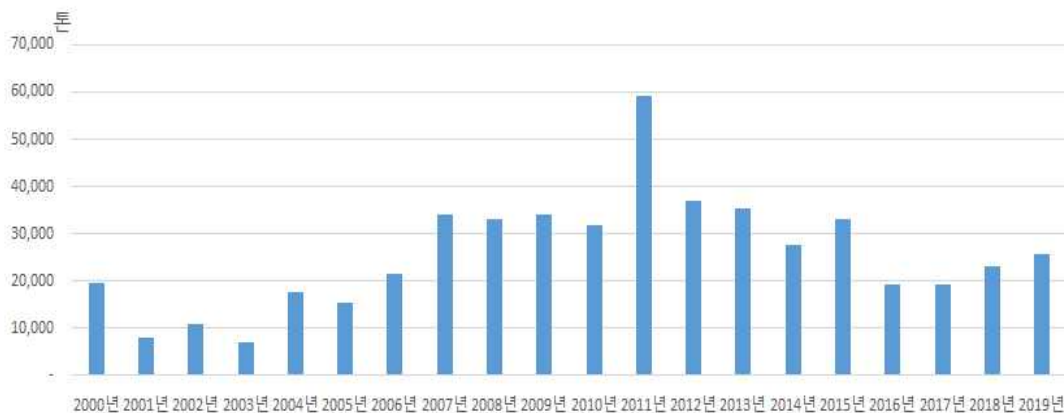
제6절 참조기 유통실태조사

1. 참조기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참조기 생산량⁶⁴⁾은 2000년 대 초반 이후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2011년 약 6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했으나, 2012년부터 다시 3만 톤대로 줄어들었고, 2016년과 2017년에 모두 2만 톤에 미치지 못했음
- 그러나 2018년 들어 참조기는 다시 2만 톤 이상 생산되었고, 2019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했음

<그림 4-61>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참조기 생산량은 25,741톤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0.6%, 4.8% 증가했음
- 생산금액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3.5%, 8.4% 적은 2,067억원이었음
 - 이렇게 2019년 생산량은 늘었으나 생산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작은 크기들의 어획량이 늘었기 때문임

64) 양식어업의 참조기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일반해면어업 생산량만으로 대상으로 함

<표 4-90>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백만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27,890	85,651
1995년	25,173	164,640
2000년	19,630	119,055
2005년	15,272	77,093
2010년	31,931	160,686
2014년	27,621	167,687
2015년	33,254	256,948
2016년	19,271	179,484
2017년	19,398	196,350
2018년	23,274	215,070
2019년	25,741	186,059
5개년 평균	24,188	206,782
전년 대비	10.6	-13.5
평년 대비	4.8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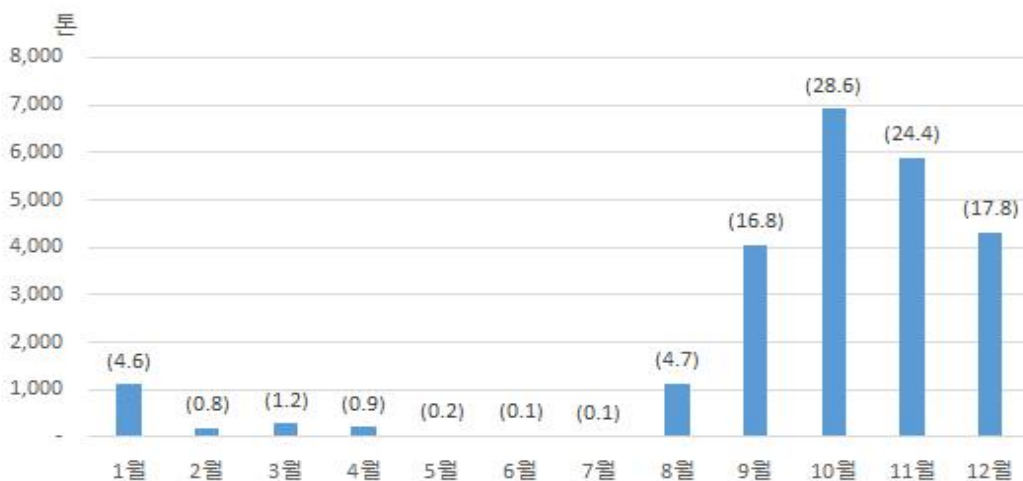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동안 참조기의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1월부터 어획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유자망어업 금어기(4월 22일~8월 10일)까지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어기는 금어기 종료 이후인 8월부터 12월까지임
- 9월~12월까지 어획량이 연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음

<그림 4-62> 최근 5년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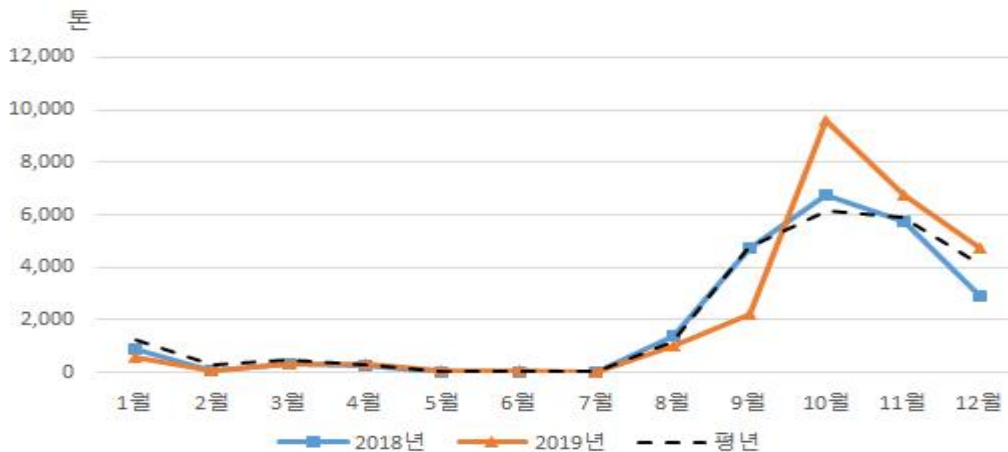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연초부터 금어기 종료까지 예년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고, 금어기 이후인 8, 9월 어획량 부진했으나, 10월부터 어획량이 급증했고 12월까지 어획이 좋았음

<그림 4-63> 2019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91> 연도별·월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353	1,006	2,686	395	891	559	1,107	-37.3	-55.9
2월	655	356	358	36	98	78	185	-20.4	-74.1
3월	1,362	425	313	43	347	331	292	-4.6	-33.5
4월	673	319	123	31	239	317	206	32.6	14.4
5월	25	53	46	46	34	72	50	111.8	76.5
6월	19	32	39	22	29	40	32	37.9	41.8
7월	40	79	8	17	12	16	26	33.3	-48.7
8월	1,266	1,227	1,249	755	1,404	1,002	1,127	-28.6	-15.1
9월	5,711	6,516	2,989	3,823	4,758	2,193	4,056	-53.9	-53.9
10월	5,772	9,467	4,207	4,499	6,779	9,601	6,911	41.6	56.2
11월	6,851	7,233	4,120	5,595	5,750	6,765	5,893	17.7	14.5
12월	3,895	6,541	3,133	4,135	2,933	4,767	4,302	62.5	15.5
합계	27,621	33,254	19,271	19,398	23,274	25,741	24,188	10.6	4.8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평균 참조기의 부류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선어가 전체 생산량의 98.5%인 25,359톤으로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냉동이 381톤으로 1.5%를 차지하였고 활어 생산은 1톤에 불과했음

<표 4-92>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0	0	1	0	0	1	0.0	0
선어	25,483	30,749	18,776	18,912	22,676	25,359	98.5	23,294
냉동	2,138	2,506	494	486	598	381	1.5	893
합계	27,621	33,254	19,271	19,398	23,274	25,741	100.0	24,188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부류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참조기의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어획된 참조기의 거의 대부분인 99.8%가 계통출하되었는데, 이 중에서 참조기 선어의 계통출하율은 96.1%였고, 냉동 참조기는 모두 계통으로 출하되었음

<표 4-93> 연도별 참조기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계통	0	0	1	0	0	0	0.0	0
	비계통	0	0	0	0	0	1	0.0	0
	소계	0	0	1	0	0	1	0.0	0
선어	계통	25,452	30,714	18,759	18,903	22,612	25,289	98.2	23,255
	비계통	32	35	17	10	64	70	0.3	39
	소계	25,483	30,749	18,776	18,912	22,676	25,359	98.5	23,294
냉동	계통	2,138	2,506	494	486	598	381	1.5	893
	비계통	0	0	0	0	0	0	0.0	0
	소계	2,138	2,506	494	486	598	381	1.5	893
계	계통	27,590	33,220	19,254	19,389	23,210	25,670	99.7	24,149
	비계통	32	35	17	10	64	71	0.3	39
	소계	27,621	33,254	19,271	19,398	23,274	25,741	100.0	24,188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계통·비계통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참조기는 다른 대중성 품종들에 비해 계통출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참조기가 다른 품종들에 비해 크기별로 가격 차이가 커서 비계통으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임
- 또한 다른 품종들에 비해 작은 크기별로 구분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위판장의 선별기능을 필요하기 때문임
- 비계통 출하의 경우, 위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별기능을 대체하기 힘들
- 최근 5년간 참조기의 지역별 산지판매량⁶⁵⁾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5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도 32.5%, 전라북도 3.3%, 부산광역시 3.2% 등이었음
- 전라남도과 제주도의 비중이 전체에서 90% 이상을 차지했음
- 전라남도는 주로 목포수협, 영광수협, 제주도는 한림수협, 모슬포수협, 추자도수협, 성산포수협 등을 통해 위판됨
- 최근 부산공동어시장 등, 이 지역을 통해 판매되는 참조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94> 연도별 지역별 참조기 산지판매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전라남도	15,756	20,115	10,969	11,165	13,707	13,537	52.6	13,899
제주도	7,975	9,129	6,587	6,552	7,744	9,327	36.2	7,868
부산광역시	1,035	919	386	474	567	1,510	5.9	771
전라북도	1,281	1,339	714	699	512	679	2.6	789
인천광역시	893	479	133	134	313	337	1.3	279
충청남도	123	581	254	243	245	266	1.0	318
경상남도	557	684	212	129	186	83	0.3	259
울산광역시	3	8	15	1	0	0	0.0	5
경기도	0	0	0	0	2	1	0.0	1
경상북도	0	0	0	0	0	0	0.0	0
계	27,621	33,254	19,271	19,398	23,274	25,741	100.0	24,188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지역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65) 지역별 생산량은 통계청 기준인데, 실제 참조기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위판 혹은 소매매로 판매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최근 5년 평균 어법별 참조기 생산량을 살펴보면, 근해자망어업이 6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해안강망어업 17.7%, 연안자망어업 5.7%,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5.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2.8% 등의 순이었음
- 2019년 들어, 근해자망어업과 연안자망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각각 32.8%, 31.5% 증가했으나 자망 이외의 어업인 근해안강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은 전년에 비해 각각 9.5%, 68.2% 감소했음

<표 4-95> 연도별 어법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근해자망	17,322	19,137	13,326	12,356	14,036	18,642	72.4	15,499
근해안강망	6,385	7,647	3,264	4,072	3,372	3,053	11.9	4,282
연안자망	1,459	1,702	1,024	1,093	1,329	1,747	6.8	1,379
외끌이대형저인망	388	1,327	518	483	2,973	946	3.7	1,249
연안개량안강망	758	1,735	109	474	718	326	1.3	672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151	169	81	236	205	359	1.4	210
쌍끌이대형저인망	983	1,352	303	172	275	293	1.1	479
대형트롤	78	54	40	116	28	174	0.7	82
근해채낚기	5	0	375	317	57	150	0.6	180
연안복합	38	111	121	7	212	24	0.1	95
기 타	54	20	110	72	69	27	0.1	60
계	27,621	33,254	19,271	19,398	23,274	25,741	100.0	24,188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2019년 참조기 수출량은 114톤으로 전년 대비 51.5% 늘었고, 수출금액도 12.4% 증가한 약 96만 달러였음. kg당 수출단가는 8.5달러로 전년에 비해 25.8% 하락했음
- 2019년 참조기 수입량은 27,450톤으로 전년에 비해 1.2% 감소했지만 평년에 비해 5.9% 많은 수준이었음
- 수입금액은 수입단가가 약 0.1달러 하락함에 따라, 수입량 감소폭보다 더 큰 전년 대비 3.2% 감소한 123만 달러였음

<표 4-96> 연도별 참조기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4년	309	1,786	5.8	25,433	117,200	4.6
2015년	156	1,280	8.2	24,724	119,507	4.8
2016년	285	1,138	4.0	28,437	118,378	4.2
2017년	184	1,358	7.4	23,198	109,430	4.7
2018년	75	855	11.4	27,798	128,291	4.6
2019년	114	961	8.5	27,450	122,677	4.5
5개년 평균	163	1,118	6.4	26,321	119,657	4.6
전년 대비	51.5	12.4	-25.8	-1.2	-4.4	-3.2
평년 대비	-43.6	-25.1	32.9	5.9	3.5	-2.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9년 제품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조기 수출은 냉동품의 중량이 가장 많은 70.2%였으나, 건조(굴비)는 수출 단가가 높아 물량 비중이 28.1%였지만 금액 기준으로 43.6%를 차지했음
- 2019년의 참조기 수입의 경우, 건조(굴비)가 21톤 수입되었고, 나머지 99.8%는 냉동 참조기였음

<표 4-97> 제품유형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냉동	0303895000	80	70.2	525	54.6	27,429	99.9	122,427	99.8
건조(굴비)	0305594000	32	28.1	419	43.6	21	0.1	250	0.2
염장·염수장	0305696000	1	0.9	10	1.0	0	0.0	0	0.0
내장	0305204020	0.2	0.2	8	0.8	0	0.0	0	0.0
합계		114	100.0	961	100.0	27,450	100.0	122,67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9년의 우리나라 참조기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이 4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31.2%), 싱가포르(11.3%), 베트남(2.0%) 등의 순이었음
- 참조기 수입의 경우, 중국에서 전량 수입되었음

<그림 4-64> 국가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톤,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 수급 구조

- 참조기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공급이 2019년 들어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4% 정도 증가했음
- 수입과 이입 재고량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국내 생산이 전년 대비 11% 가량 증가했기 때문임
- 2017년의 생산량 및 수입량 저조로 인해 2019년에 이입된 재고량이 적었으나, 2019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됨에 따라 2020년에 이월된 재고량이 전년에 비해 30% 정도로 크게 늘었음

<표 4-98> 연도별 참조기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4년	27,621	25,438	23,279	76,338	54,943	343	21,052	50.3
2015년	33,254	24,724	21,052	79,030	57,428	190	21,412	57.9
2016년	19,271	28,478	21,412	69,161	45,892	307	22,962	42.0
2017년	19,398	23,198	22,962	65,558	51,025	211	14,322	38.0
2018년	23,274	27,798	14,322	65,394	50,678	90	14,626	45.9
2019년	25,741	27,450	14,626	67,817	48,892	128	18,797	52.6
전년 대비	10.6	-1.2	2.1	3.7	-3.5	42.2	28.5	-
평년 대비	4.8	5.9	-29.0	-4.6	-6.0	-43.9	-0.4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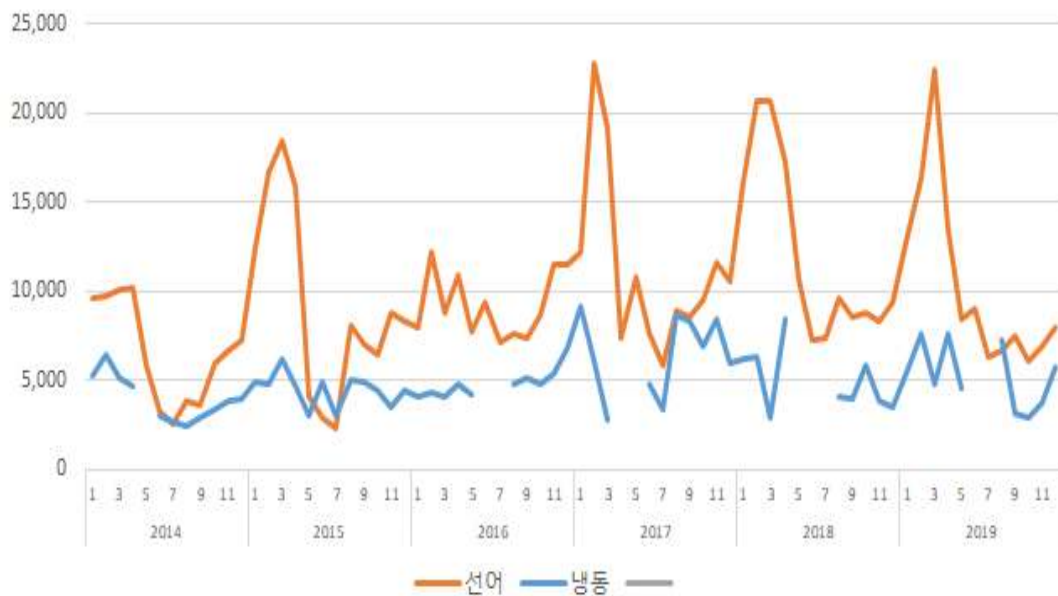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다.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통계청 기준으로 생산단가(생산금액/생산량)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어획되는 참조기는 선어가 냉동참조기에 비해 연중 가격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냉동 참조기는 어획되는 물량이 적고 상품성도 좋지 않아, 참조기 선어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며 연중 변동성이 선어에 비해 크지 않음
 - 참조기 선어는 어한기에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은 상승하지만 어획량이 집중되는 9~12월에 생산단가가 낮게 형성되는 패턴을 매년 반복하고 있음

<그림 4-65>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단가 추이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참조기 생산단가(생산금액/생산량)는 kg당 7,279원이었으며, 2018년 이후 생산 증가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생산단가를 월별로 살펴보면, 평년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음
 - 그러나 금어기가 종료되는 8월부터 연말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음

<표 4-99>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9,595	12,402	7,975	12,221	16,234	12,838	10,910	-20.9	22.5
2월	9,769	16,665	12,208	22,803	20,709	16,345	15,503	-21.1	26.3
3월	10,047	18,409	8,739	19,099	20,635	22,456	17,809	8.8	70.6
4월	10,255	15,793	10,848	7,392	17,267	13,525	14,567	-21.7	3.9
5월	5,826	4,082	7,755	10,765	10,665	8,410	8,631	-21.1	1.2
6월	3,295	2,855	9,392	7,570	7,314	9,061	7,515	23.9	39.4
7월	2,521	2,348	7,173	5,879	7,383	6,294	4,313	-14.8	75.8
8월	3,895	8,050	7,603	8,871	9,652	6,677	8,217	-30.8	-11.8
9월	3,603	7,044	7,411	8,527	8,579	7,437	7,793	-13.3	8.6
10월	5,969	6,440	8,708	9,436	8,767	6,123	7,477	-30.2	-19.7
11월	6,661	8,816	11,498	11,642	8,362	6,940	9,206	-17.0	-24.2
12월	7,283	8,356	11,442	10,523	9,362	7,915	9,256	-15.5	-14.4
연평균	6,246	8,023	9,424	10,203	9,359	7,279	8,701	-22.2	-14.1

주: 1)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참조기 중 선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

2) 2019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참조기 위판량이 많은 제주 지역 한림수협을 기준으로 참조기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2019년 선어의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17,199원으로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9% 하락했으나 평년 대비 12.3% 높았음

<표 4-100>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산지가격 동향(한림수협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8,163	13,384	15,428	17,925	21,279	20,141	17,631	-5.3	32.2
2월	7,990	15,148	16,983	19,487	22,608	21,268	19,099	-	-
3월	9,556	15,720	19,896	24,526	22,554	21,678	20,875	-3.9	17.5
4월	10,740	14,765	22,247	-	24,502	18,337	19,963	-25.2	1.5
5월	-	-	-	-	-	-	-	-	-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6,483	10,182	12,805	14,391	14,299	12,951	12,926	-9.4	11.3
9월	6,320	11,855	14,452	14,552	14,519	14,047	13,885	-3.3	13.8
10월	9,093	15,154	15,710	16,783	15,803	13,571	15,404	-14.1	-6.5
11월	10,997	16,566	15,735	20,463	15,202	15,140	16,621	-0.4	-4.1
12월	11,931	15,840	15,813	18,858	17,244	17,661	17,083	2.4	10.8
연평균	9,030	14,290	16,563	18,373	18,668	17,199	16,988	-7.9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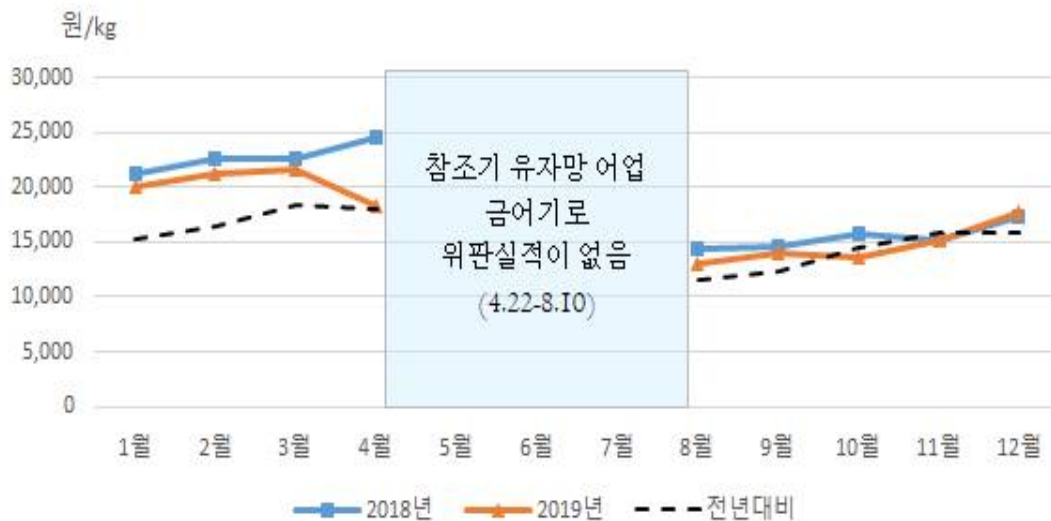
주: 1) 선어 참조기 상자당 130~160미 평균가격임. 5~7월은 참조기 금어기로 생산량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음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 월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의 어획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었던 가격이 2019년 연초까지 이어졌음
- 이에 2019년 1월부터 금어기 이전까지 한림수협이 산지가격은 2018년에 비해 낮게 형성되었음
- 그러나 어획이 저조했던 2016년과 2017년에 높게 형성되었던 가격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 금어기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어획이 시작됨에 따라 산지가격은 금어기 이전에 비해 25% 정도 낮게 형성되기 시작하여,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연말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음

<그림 4-66> 참조기 산지가격 추이(선어 기준)



주: 1) 선어 참조기 상자당 130~160미 평균가격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도매가격⁶⁶⁾

- 2019년 참조기 선어의 도매가격은 kg당 18,059원으로 전년보다 8% 하락했으나, 평년 대비 약 12% 높게 형성되었음

66) 참조기의 도매가격은 고등어·갈치 등과 달리 Kamis에서 조사되고 있지 않아,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참조기 선어가격을 기준으로 추정된 값을 활용함

<표 4-101>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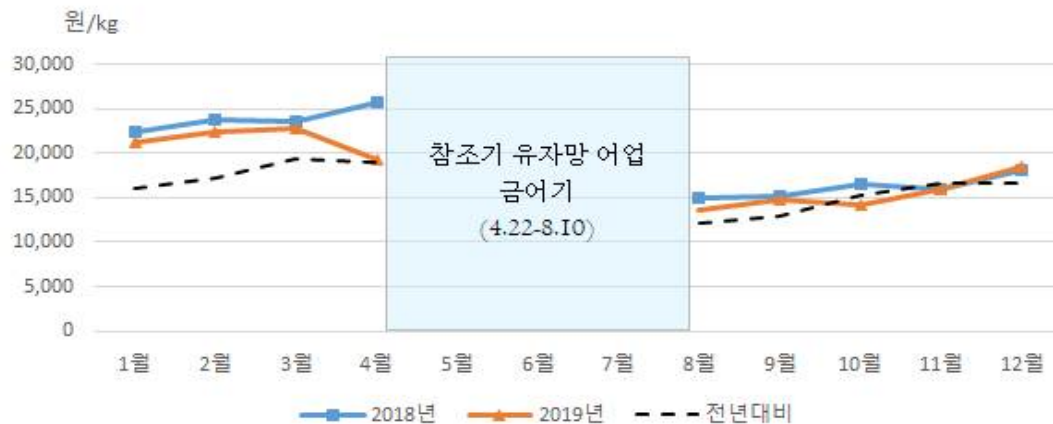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8,572	14,053	16,199	18,821	22,343	21,148	18,513	-5.3	32.2
2월	8,390	15,905	17,832	20,461	23,739	22,331	20,054	-5.9	29.3
3월	10,034	16,506	20,890	25,753	23,681	22,762	21,918	-3.9	17.5
4월	11,277	15,503	23,359	-	25,727	19,254	20,961	-25.2	1.5
5월	-	-	-	-	-	-	-	-	-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6,807	10,691	13,445	15,111	15,014	13,599	13,572	-9.4	11.3
9월	6,636	12,447	15,175	15,280	15,245	14,749	14,579	-3.3	13.8
10월	9,548	15,912	16,496	17,622	16,593	14,249	16,174	-14.1	-6.5
11월	11,547	17,394	16,521	21,486	15,962	15,897	17,452	-0.4	-4.1
12월	12,527	16,632	16,604	19,801	18,106	18,544	17,937	2.4	10.8
연평균	9,482	11,254	17,391	19,292	19,601	18,059	17,837	-7.9	12.3

주: 1) 선어 참조기 상자당 130~160미 평균가격임. 5~7월은 참조기 금어기로 생산량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음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그림 4-67> 월별 참조기(선어) 도매가격 추이



주: 1) 선어 참조기 상자당 130~160미 평균가격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3) 소비자가격⁶⁷⁾

○ 2019년 참조기의 kg당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25,662원으로 전년 대비 11.7% 하락하였음

- 2018년에 이어 어획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12% 가량 하락했으나 평년 대비 여전히 14.0% 높은 수준을 보였음

67) 참조기 소비자가격은 대형소매업체에서 해동하여 판매하는 참조기를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조사한 것임

<표 4-102> 월별 냉동 참조기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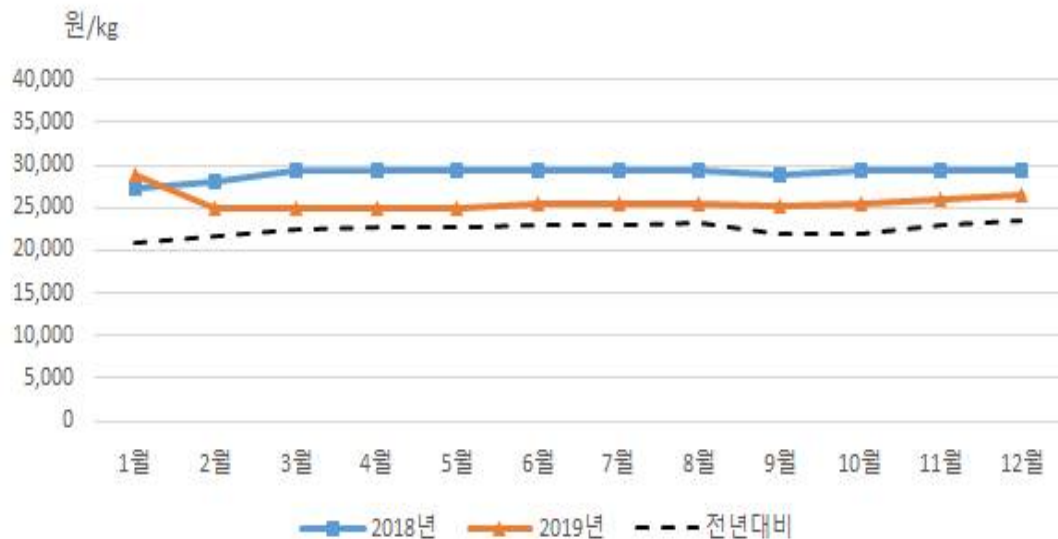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5,800	15,800	20,991	24,861	27,332	28,877	23,572	5.7	37.8
2월	15,800	18,670	21,467	24,900	28,094	24,900	23,606	-11.4	14.3
3월	15,800	19,900	22,622	24,900	29,400	24,900	24,344	-15.3	10.5
4월	15,800	19,900	23,074	24,900	29,400	24,900	24,435	-15.3	10.1
5월	15,800	19,540	23,920	24,713	29,400	24,957	24,506	-15.1	10.1
6월	15,800	19,900	24,400	24,847	29,400	25,500	24,809	-13.3	11.5
7월	15,800	19,900	24,400	24,800	29,400	25,500	24,800	-13.3	11.5
8월	15,375	19,900	24,400	27,300	29,400	25,500	25,300	-13.3	9.6
9월	13,920	19,460	24,144	23,760	28,800	25,089	24,251	-12.9	14.0
10월	14,435	19,879	24,400	21,613	29,400	25,429	24,144	-13.5	15.9
11월	15,800	20,900	24,350	24,800	29,400	26,000	25,090	-11.6	12.8
12월	15,800	21,150	24,025	26,884	29,400	26,386	25,569	-10.3	12.5
연평균	15,494	19,575	23,516	24,856	29,069	25,662	24,536	-11.7	14.0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80~100g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그림 4-68> 월별 참조기(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80~100g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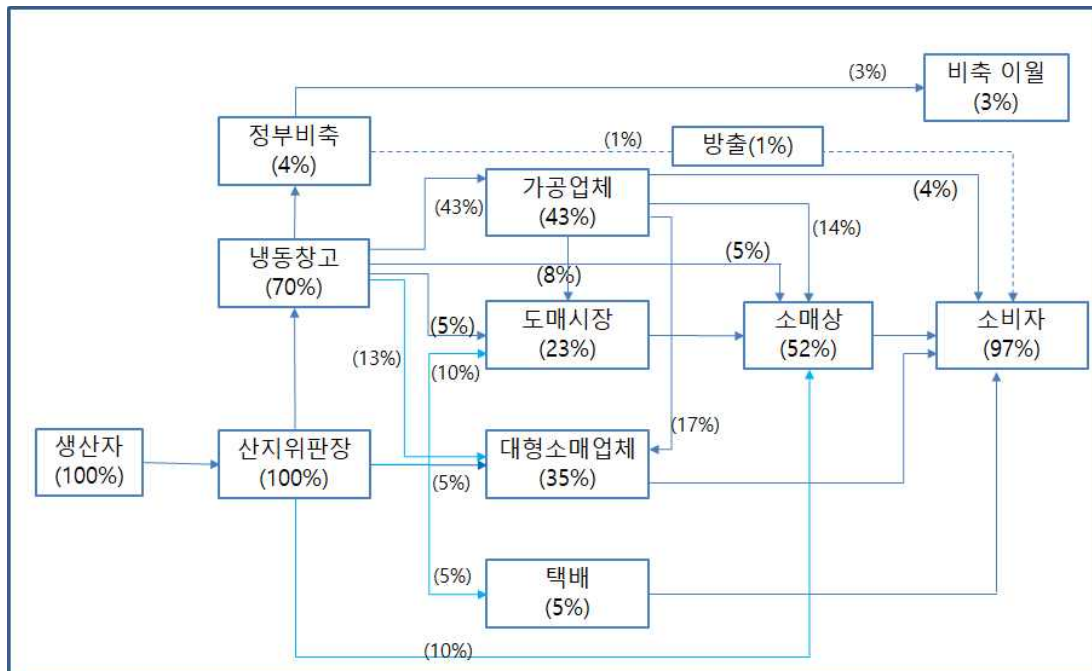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참조기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참조기는 비계통 출하의 비중이 0.3%에 불과하고, 수출량 또한 전체 생산량에서 0.5%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참조기는 냉동품으로 위판되는 물량도 2019년 기준으로 1.5% 정도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조기 유통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참조기 생산량은 계통-비계통, 국내 유통-수출, 선어-냉동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생산량인 25,741톤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함
- 참조기는 위판량 규모가 큰 수협은 제주도의 한림수협과 전라남도의 목포수협과 영광수협임
 - 한림수협에 위판되는 참조기는 주로 근해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등으로 어획되어, 대체로 상품성이 높음
 - 목포에서 위판되는 참조기는 근해자망어업과 연안자망어업 이외에 근해안강망어업 등에서 어획되어 위판되는 물량 또한 많음
 - 영광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는 대부분 제주도와 목포 등의 타 지역에서 양륙된 후에 영광까지 운반되어 위판이 됨. 영광수협에서 위판된 참조기는 주로 굴비 가공용으로 유통됨
- 어획된 참조기는 대부분 선어 상태로 위판되지만, 위판 물량 중에 70% 정도는 바로 냉동 참고에 입고됨
 - 참조기는 굴비 가공용 수요가 많은데, 참조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어획되지만 영세한 규모의 굴비 가공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어획된 참조기를 냉동보관할 필요가 있음
- 굴비로 가공된 참조기는 대형소매업체, 도매시장 등을 통하거나 소비지의 소매상에 직접 유통되기도 함
- 2019년 정부비축을 위한 참조기 구매량은 984톤으로 그 비중이 4% 정도였는데, 방출된 물량은 333톤으로 약 1%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69> 참조기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정부비축물량
수매 및 방출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추정치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19년 참조기 생산량 25,741톤 중에서 위판 이후에 냉동처리 되어 유통된 물량은 70%인 18,019톤이었고, 선어 상태로 유통된 물량은 30%인 7,722톤으로 추정됨
- 냉동처리된 참조기 중에서 가공업체로 유통된 물량은 약 43%인 11,069톤으로 추정됨
 - 굴비로 가공된 참조기는 17% 정도인 4,376톤이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었고, 14%인 3,604톤은 소비지의 소매상에 판매되었으며, 4% 정도인 1,030톤이 인터넷 구매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지 도매시장은 가공업체에서 유통된 굴비, 냉동 참조기 등을 포함하여 물량 비중이 23% 5,920톤 규모를 유통했던 것으로 추정됨
- 대형소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참조기는 굴비, 냉동품, 선어 등으로 생산량 대비 35%인 9,009톤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 중에서 굴비가 비중이 총 생산량 대비 17%인 4,376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냉동된 참조기를 해동하여 판매하는 물량이 13% 정도인 3,346톤,

산지에서 선어 상태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물량은 약 5%인 1,287톤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됨

3. 참조기 유통비용

- 2018년 참조기의 유통비용은 선어 상태와 냉동품 모두 목포수협에서 위판된 물량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나, 2019년 조사에서 냉동품의 경우, 한림수협에서 위판된 참조기를 추가하였음
- 굴비 이외에 대형소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참조기는 제주산 참조기를 해동한 물량이 많아, 냉동 참조기의 국내 유통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한림수협에서 위판된 물량의 비용을 추가로 조사했음
- 2019년의 목포→노량진수산물시장까지 유통경로를 거치는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은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이 있었음
- 먼저 양륙 이후부터 위판 이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위판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양륙비와 위판수수료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전년과 다르지 않았음
- 그러나 위판된 물량을 산지중도매인들이 소비지 도매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에 포장 작업을 위한 보호틀 비용과 노임이 모두 15kg 상자당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소폭 상승했음
- 소비지 도매시장 및 소매상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모두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가.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목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1) 산지 단계

- 목포수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지 단계의 유통비용은 어상자대, 포장작업에 필요한 보호틀, 작업노임을 제외하고는 2018년과 동인한 비용 수준이었음
- 위판수수료와 중도매인 수수료가 상승한 이유는 대상 수산물의 산지가격이 오르면서 위판수수료와 중도매인 수수료 역시 정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임
- (비용 상승 항목) 어상자대(외부 유입)와 포장작업 중 작업 노임 등은 아웃소싱 분야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면서 비용이 상승했음

- 그러나 산지수협의 자체 비용(입상, 선별, 보조 등)은 산지수협이 조합원(생산자)들에게 비용 상승을 최소화 하여 가처분 소득을 제고하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조사됨

2) 소비지 도매 단계

- 소비지 도매 단계에서 유통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경매수수료, 간접비이며, 이 외 항목은 2018년 수준이었음
- 도매시장의 경매 수수료는 2018년 대비 2019년의 산지가격과 소비지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정률적으로 상승한 것임
- 소비지 중도매인의 2019년 간접비(인건비 등)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018년 900원/kg에서 11.1% 상승한 1,000원/kg이었음
- 소비지 중도매인의 이윤은 2018년의 843원/kg에서 2019년에는 31.6% 감소한 577원/kg이었는데, 이는 소비지로 갈수록 가격의 변동 폭을 줄이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됨

3) 소매 단계

- 소매 단계에서는 이윤을 제외한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비용이 상승했음
- (직접비) 운반비 등이 포함된 직접비는 2018년의 173원/kg에서 2019년에는 15.6% 상승한 200원/kg이었는데, 이는 중도매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비용이기 때문에 2019년 사회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간접비) 간접비에는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2018년의 1,364원/kg에서 2019년에는 43.0% 상승한 1,950원/kg이었고, 대체로 인건비 상승이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음
- (이윤) 거래 단위당 이윤은 2018년의 2,693원/kg에서 2019년에는 49.5% 감소한 1,361원/kg이었는데, 소비지일수록 가격 변동 폭을 줄이려는 관성과 더불어 소비자 수요 유지를 위해 상승한 비용 분을 이윤 축소로 상쇄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이유의 실증 자료로서 소비지 중도매인의 2018년과 2019년 판매가격은

각각 15,470원/kg과 16,489원/kg으로 그 차액은 1,019원/kg이나 소매상의 판매가격은 300원/kg(20,000원/kg-19,700원/kg)으로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낮은 것에서 알 수 있음

<표 4-103>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목포 → 노량진수산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1,074	12,099	60.5	15kg 상자 당 160미(85g) 기준
산지 위판장	양륙비		206	228	1.1	위판금액의 1.692%
	선별 작업	입상	98	98	0.5	입상(16만원), 선별(13만원), 작업보조(14만원) ※어선용 어상자(25kg) 60~70개 기준
		선별	80	80	0.4	
		보조	86	86	0.4	
	어상자대		58	62	0.3	875→935원/상자(15kg)
	위판수수료		547	596	3.0	위판금액의 4.5%
	위판가격		12,148	13,249	66.2	목포수협 160미 위판가격 (182,222원/상자(15kg))
산지 중도매인	포장 작업	보호틀	87	93	0.5	1,300원→1,400원/상자(15kg)
		비닐	10	10	0.05	150원/상자(15kg)
		얼음	27	27	0.1	400원/상자(15kg)
		작업노임	87	93	0.5	1,300원→1,400원/상자(15kg)
		스티로폼 박스	200	200	1.0	3,000원/상자(15kg)
	운송비		100	100	0.5	1,500원/상자(15kg)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393	426	2.1	산지 출하가격의 3%
	산지 출하(판매)가격		13,052	14,198	71.0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21	21	0.1	313원/상자(15kg)
	경매수수료		600	639	3.2	경락가격의 4.3%
	경락가격		13,673	14,858	74.3	노량진수산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33	33	0.2	200원/상자(6kg) 박스
	상차비		21	21	0.1	313원/상자(15kg)
	간접비		900	1,000	5.0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843	577	2.9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면담결과
	판매가격		15,470	16,489	82.4	중도매인 조사가격 참조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73	200	1.0	운반비 등
	간접비		1,364	1,950	9.8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2,693	1,361	6.8	서울 전통시장 소매상 면담결과
	판매가격		19,700	20,000	100.0	서울 전통시장 조사가격 및 수산업관측센터 소매가격 참조

주: 상자(15.5kg)당 160마리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12월 상순임

나.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업체)

- 참조기(선어→동결, 제주→대형소매업체)는 2019년 유통실태 조사에서 처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가 어려움. 이에 2019년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산지 단계

- (산지위판장) 한림수협을 대상으로 산지 위판장 유통비용 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륙비, 선별비, 어상자비, 상자포장비, 위판 수수료 등이 있었음
 - 위판수수료는 위판가격에 정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판 수수료의 증감이 비용 증감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이 외의 비용항목은 사회적 물가나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해당상품의 경락가격과 상관없이 변동이 가능한 항목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지 수협에서는 조합원(생산자)의 가처분 소득 제고를 위해서 직접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화 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 양륙비, 선별비, 포장비이며, 외부 비용을 분류되는 것이 어상자비임
- (산지 중도매인) 동 품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은 동결 및 보관과 관련한 비용임
 - 따라서 동결과 보관 과정에서는 대차비, 상하차비, 동결비, 입출고비, 보관료를 냉동냉장창고에 산지 중도매인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 산지 중도매인이 본인 소유의 냉동냉장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하차비는 일반적으로 항운노조에게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동결비와 보관료에는 적어도 전기료를 지불하고, 입출고비에는 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불되어야 함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점 조사는 주로 해당 품목의 단위당 간접비, 직접비, 이윤 등으로 구성되며, 다른 조사 품목과 동일한 항목 구조임

<표 4-104>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9년 (한림수협)		비고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0,397	57.8	상자(13kg) 당 155마리(84g)의 평균가격
산지 위판장	양륙비		50	0.3	13kg 상자당 650원
	선별 작업		215	1.2	입상, 선별, 보조: 2,800원/상자(13kg)
	어상자대		154	0.9	2,000원/상자(13kg)
	상자포장비		31	0.2	상자포장비(얼음, 간지, 식대 등) : 400원/상자(13kg)
	위판수수료		476	2.6	위판금액의 4.2%
	위판가격		11,323	62.9	한림수협 위판가격 (원/13kg 상자)
산지 중도매 인	포장 작업	내피	8	0.04	100원/상자(13kg)
		덧개	23	0.1	300원/상자(13kg)
		끈	38	0.2	500원/상자(13kg)
		노임	38	0.2	500원/상자(13kg)
	냉동 창고	대차	15	0.1	200원/상자(13kg)
		입출고비	31	0.2	400원/상자(13kg)
		동결비	38	0.2	500원/상자(13kg)
		냉동보관 입출고비	31	0.2	400원/상자(13kg)
		냉동보관료	12	0.07)	150원/상자(13kg) (15원/일 × 10일 가정함)
	운송비(동결 후)		154	0.9	2,000원/상자(13kg)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425	2.4	산지 중도매인 면담결과
	산지 출하(판매)가격		12,136	67.4	산지출하가격의 5%
대형소 매업체	간접비		3,500	19.4	인건비, 점포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등
	이윤		2,364	13.1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판매가격		18,000	100.0	수산업관측센터소비자가격 참조

주: 1) 한림수협에서 위판된 참조기의 유통비용은 2019년부터 조사됨
 2) 상자(13kg)당 155마리의 평균가격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12월 상순임

다.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목포 →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목포수협에서 위판된 이후에 동결처리되어 대형소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참조기의 유통과정 중에서 포장작업과 관련된 비용만 상승했음
 - 냉동 참조기는 위판된 선어를 동결처리하여 냉동창고에 입고하기 때문에 양륙이후에 중도매인에게 위판되기 전까지 비용은 냉동 참조기와 선어가 서로 동일함
 - 전년 대비 2019년의 참조기 위판가격 상승으로 인해 냉동 참조기 또한 위판가격과 연동된 양륙비, 위판수수료도 증가했음
 - 목포수협에서 위판된 참조기는 주로 선어로 위판되고, 동결처리하여 냉동창고에 입고되는 물량은 대형소매업체 판매용이 아니라, 대체로 굴비 가공업체에 판매하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19년 조사에서 새로 추가한 제주→대형소매업체의 유통비용 분석결과, 냉동참조기 산지 유통비용은 한림수협이 목포수협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⁶⁸⁾
 - 한림수협은 참조기를 자동선별하고, 위판 이후 바로 수협 내 동결처리 후 냉동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목포수협에 비해 비용구조가 더 낮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림수협은 목포수협과 달리 양륙된 참조기를 수작업이 아니라 자동선별기를 통해 선별하기 때문에 13kg 박스당 2,800원의 비용이 소요됨
 - 따라서 kg당 목포수협은 선별작업에 kg당 264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한림수협은 kg당 215원(상자포장비 포함하면 246원)의 비용으로 참조기를 선별할 수 있음
 - 더구나 위판 이후 대형소매업체에 판매되기 전까지 포장작업 및 동결 및 냉동창고 보관 비용이 목포수협에서 위판된 참조기는 kg당 483원이 소요되지만, 한림수협은 234원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한림수협은 자체적으로 동결시설 및 냉동창고를 완비하여, 위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임

68) 참조기 한림수협의 참조기 위판가격이 목포수협보다 낮게 형성되는데, 이는 한림수협은 정량거래지만 목포수협은 덩이 포함되기 때문임

- 그러나 한림수협이 물량은 해상운송의 문제로 인해 냉동된 참조기의 운송비가 kg당 154원으로 목포수협의 80원에 비해 높았음

2) 대형소매점 단계

- 목포수협에서 위판된 냉동 참조기의 대형소매업체 판매가격은 조사시점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아, 대형소매업체에서 판매하는 제주산 참조기의 가격으로 분석했음⁶⁹⁾
- 이에 따라 대형소매업체의 간접비는 제주→대형소매업체의 것을 준용하여, 이윤이 낮게 추정되었음

<표 4-105>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목포 →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금액	2019년 금액	비율	비고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1,074	12,099	67.2	15kg 상자 당 160미(94g) 기준
산지 위판장	양륙비		206	228	1.3	위판금액의 1.692%
	선별 작업	입상	98	98	0.5	입상(16만원), 선별(13만원), 작업보조(14만원) ※어선용 어상자(25kg) 60~70개 기준
		선별	80	80	0.4	
		보조	86	86	0.5	
	어상자대		58	62	0.3	875→935원/상자(15kg)
	위판수수료		547	596	3.3	위판금액의 4.5%
	위판가격		12,148	13,249	73.6	목포수협 160미 위판가격 (182,222원/상자(15kg))
산지 중도매인	포장 작업	보호틀	87	93	0.5	1,300원→1,400원/상자(15kg)
		비닐	10	10	0.1	150원/15kg 박스
		골판지	20	20	0.1	300원/15kg 박스
		마대	23	23	0.1	350원/15kg 박스
		작업노임	150	150	0.8	1,800원/상자(15kg)
	냉동 창고	운송비	27	27	0.2	400원/15kg 박스
		입출고비	87	87	0.5	1,300원/15kg 박스
		동결비	73	73	0.4	1,100원/15kg 박스
		운송비(동결 후)	80	80	0.4	1,200원/15kg 박스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394	427	2.4	산지출하가격의3%
	산지 출하(판매)가격		13,099	14,239	79.1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소매 업체	간접비		1,142	3,500	19.4	인건비, 점포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등
	이윤		3,659	261	1.5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판매가격		17,900	18,000	100.0	대형소매업체판매조사가격 및 수산업관측센터소매가격참조

주: 조사시기는 12월 상순 경임. 조사 당시 목포수협의 선어가 판매되고 있지 않아 제주산 마리당 160미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함

69) 굴비를 제외한 대형소매업체에서 판매되는 냉동 참조기는 대부분 제주지역에서 위판된 것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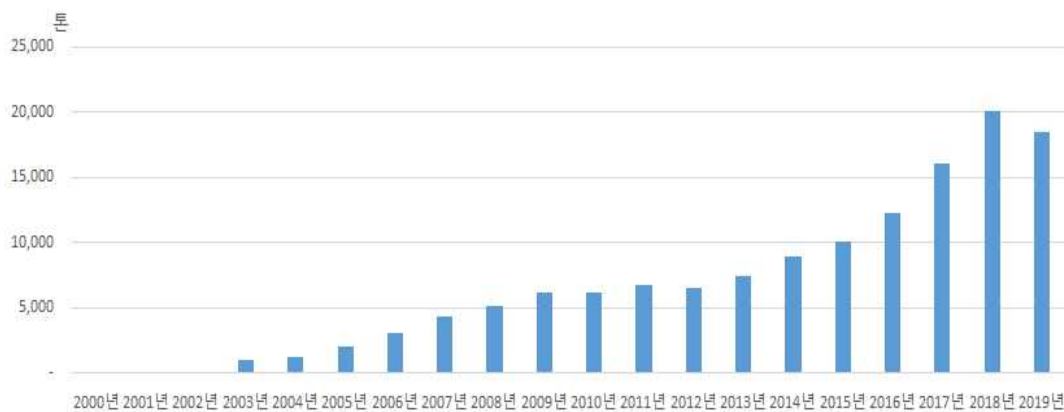
제7절 양식전복 유통실태조사⁷⁰⁾

1. 양식전복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동향

- 1990년대 양식전복은 해상은 채룽식, 육상은 수조식의 방법으로 생산되었고, 출하량은 100톤 미만 수준이었음
- 2000년에 전복의 해상가두리 양식방법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상가두리에서 양식된 전복이 대량으로 출하되었음
 - 2003년 전복 생산량은 1,063톤을 기록하였고, 이후 생산량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음
- 2012년 불라벤 등 태풍으로 해상가두리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전복이 유실되면서,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음

<그림 4-70>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그러나 피해가 발생했던 해상가두리 시설이 대부분 복구되었고, 시설량 증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복 생산량은 2015년에 1만 톤에 이르렀고, 2018년 2만 톤을 기록했음

70) 일반해면어업으로 분류되는 ‘자연산’ 전복이 생산되고 있으나, 그 양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유통실태 조사는 양식 전복을 대상으로 함

- 기존 양식업자들이 꾸준히 시설을 늘린데다, 2010년 이후 전복 양식업에 신규 진입한 어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복 시설량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 이에 따라 2018년 해상가두리 전복 시설량이 약 1백만 칸⁷¹⁾을 기록했음
- 2019년 전복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태풍 피해가 컸던 2012년을 제외하고 해상가두리를 통한 전복 양식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이었음
- 밀식 등으로 전복 폐사율이 높아지면서, 생산자들이 2015~2016년경부터 칸당 입식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⁷²⁾ 전복 입식량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감소했음
- 또한 2018년 전복 산지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생산자들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전복 출하를 서둘렀기 때문임

<표 4-106>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단위: 톤, 백만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2	59
1995년	61	2,884
2000년	20	1,941
2005년	2,062	92,813
2010년	6,228	233,145
2014년	8,977	296,840
2015년	10,090	324,670
2016년	12,342	347,395
2017년	16,027	577,368
2018년	20,053	607,142
2019년	18,436	591,742
5개년 평균	15,390	489,663
전년 대비	-8.1	-2.5
평년 대비	36.6	37.4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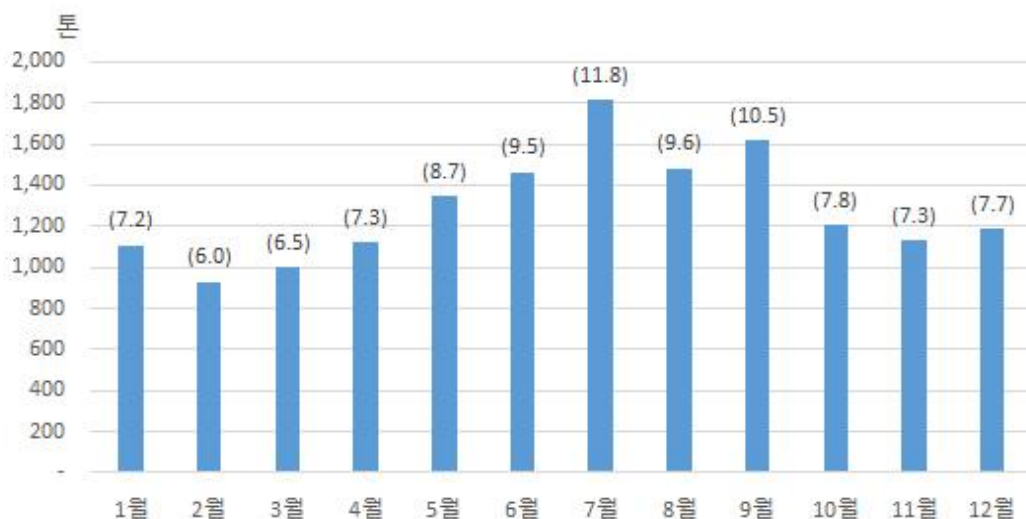
- 2000년에 약 20억원 수준이었던 전복 생산금액은 2018년 약 6,1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음

71) 1칸은 내경 2.4m × 2.4m 기준임

72) 전복의 입식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임

- 그러나 2019년 들어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금액은 전년에 비해 줄어든 약 5,900억 정도에 그쳤음
- 최근 5년 동안 전복의 월별 생산량의 변동을 살펴보면, 상반기 동안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7~9월 연중 출하량이 가장 많았으며, 10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전복은 1월 말~2월 초의 설 명절을 대비한 출하가 1월에 집중되는 반면, 2월은 명절 이후에 수요 감소로 출하량 또한 줄어듦
 - 3월부터 봄철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수요 영향으로 출하량이 증가했음
 - 6월은 고수온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온이 높게 형성되기 이전에 출하되는 전복이 많았음
 - 7~8월은 여름철 보양식 수요로 인해 전복 출하가 많았고 9월은 추석 선물용 출하가 많아, 연중 전복 출하량의 30% 이상이 집중되는 시기임
 - 10월~11월은 추석 이후 수요가 감소하고 전복 먹이가 연중 가장 부족한 시기로 전복 출하가 감소했음
 - 12월은 일본의 연말연시로 인한 수출 수요 등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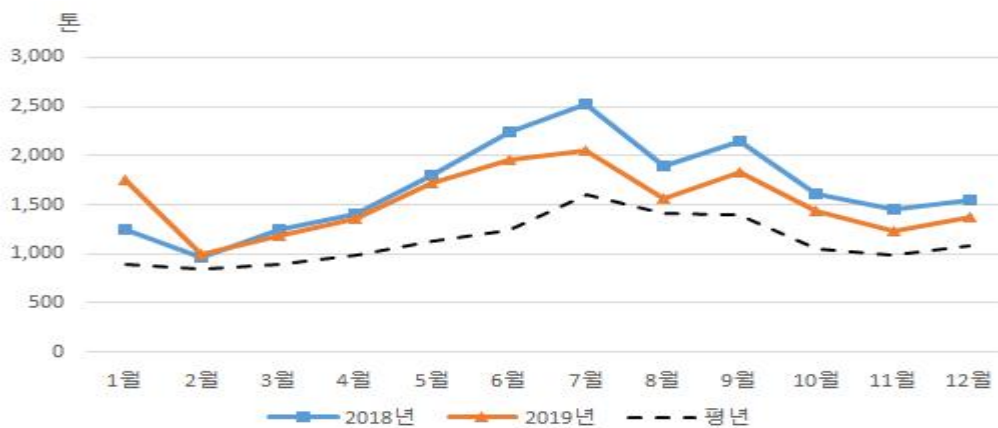
<그림 4-71> 최근 5년간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전복의 월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1월과 2월은 전년보다 출하량이 많았으나, 3월부터 연말까지 전년보다 적은 출하량을 기록했음
-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8년 산지가격 급락의 영향과 생산자들의 입식량 조절 등의 이유로, 출하 가능한 전복이 전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었음

<그림 4-72> 2019년 월별 양식전복 출하량 추이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07>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63	738	710	1,098	1,241	1,751	1,108	41.1	96.7
2월	554	819	998	871	962	992	928	3.1	18.0
3월	636	610	887	1,071	1,244	1,179	998	-5.2	32.5
4월	637	868	828	1,157	1,406	1,351	1,122	-3.9	38.0
5월	639	899	1,044	1,246	1,807	1,724	1,344	-4.6	53.0
6월	891	764	1,020	1,322	2,236	1,959	1,460	-12.4	57.1
7월	1,010	1,229	1,498	1,767	2,521	2,055	1,814	-18.5	28.0
8월	1,235	923	1,184	1,842	1,895	1,557	1,480	-17.8	10.0
9월	702	1,027	1,462	1,621	2,141	1,836	1,617	-14.2	32.0
10월	629	608	1,199	1,180	1,603	1,431	1,204	-10.7	37.1
11월	552	809	777	1,379	1,446	1,232	1,129	-14.8	24.1
12월	831	797	737	1,471	1,553	1,369	1,185	-11.8	27.0
합계	8,977	10,090	12,342	16,027	20,053	18,436	15,390	-8.1	36.6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전복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전복은 모두 활어 상태로 출하되며, 대부분 비계통으로 산지 거래가 이루어짐
- 최근 5년 동안 계통 출하는 1.2%에 그쳤고, 98% 이상의 물량이 비계통으로 판매되었음

<표 4-108> 연도별 양식전복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계	계통	187	213	267	190	91	152	0.8	183
	비계통	8,790	9,878	12,075	15,836	19,962	18,284	99.2	15,207
	소계	8,977	10,090	12,342	16,027	20,053	18,436	100.0	15,390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전복의 연간 생산량과 계통·비계통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09> 연도별 지역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전라남도	8,837	9,971	12,201	15,904	19,905	18,237	98.9	15,244
경상남도	15	7	13	22	48	114	0.6	41
충청남도	47	40	47	24	30	36	0.2	35
제주도	23	23	32	27	23	22	0.1	25
울산광역시	35	38	36	34	40	21	0.1	34
경상북도	17	9	10	12	5	4	0.0	8
강원도	0	0	0	0	0	2	0.0	0
부산광역시	2	2	3	2	2	0	0.0	2
합계	8,977	10,090	12,342	16,027	20,053	18,436	100.0	15,390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4년~2018년 평균, 평년은 2013년~2017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전복의 연간 생산량과 지역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지역별 전복 생산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전라남도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생산 비중이 99%였고, 이외 지역은 1%에 불과했음
- 최근 통영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의 생산량이 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임

나. 수출입 현황

- 세계적으로 전복은 많은 국가들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 대부분 소비되며, 이외 국가들의 경우에도 화교권, 우리나라 교포 등의 소비가 주류임⁷³⁾
- 전복 수출은 국내 생산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 중국은 전복의 최대 생산국임과 동시에 수입국임. 그런데 2016년에 중국 내 전복 치패 공급 문제로 전복 생산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국 내 전복 초과 수요가 발생했음
- 이에 2016년 들어 600톤의 전복이 중국에 수출되었음

73)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굴, 홍합 등의 이매패류를 선호하는 반면, 전복과 같은 일매패류의 소비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표 4-110> 연도별 양식전복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4년	1,167	45,505	39.0	402	6,934	17.2
2015년	1,125	38,568	34.3	438	7,905	18.0
2016년	2,301	66,237	28.8	529	9,226	17.4
2017년	1,738	52,181	30.0	523	9,191	17.6
2018년	2,379	62,936	26.5	585	9,349	16.0
2019년	2,174	61,529	28.3	797	13,887	17.4
5개년 평균	1,943	56,290	29.6	574	9,912	17.3
전년 대비	-8.6	-2.2	7.0	36.2	48.5	9.0
평년 대비	24.8	15.9	-7.1	60.9	63.0	1.3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7년 들어 중국 내 전복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서 수출량이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 기존에 전복 수출은 일본을 대상으로 활전복 수출이 중심이었으나, 싱가포르, 베트남의 화교권과 미국 등에 활전복 뿐만 아니라 냉동 및 가공전복을 수출하는 등, 수출국 및 수출품 다변화를 통해 수출량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 이에 2019년의 전복 수출 중에서 활어의 비중은 89.7%로 여전히 높았으나, 밀폐용기 6.8%, 냉동품 2.0%, 밀폐용기 이외 기타의 형태⁷⁴⁾가 1.2%를 차지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수출형태가 다양해졌음
- 전복 수입의 경우, 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자숙된 냉동 전복의 형태로 대부분 수입됨
 - 수입된 전복은 주로 전복죽용으로 죽전문점 혹은 간편식에 사용됨
 - 국내산 전복과 품질 및 가격 차이로 인해 대체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음

74) 주로 자숙하여 냉동한 것임

<표 4-111> 제품유형별 전복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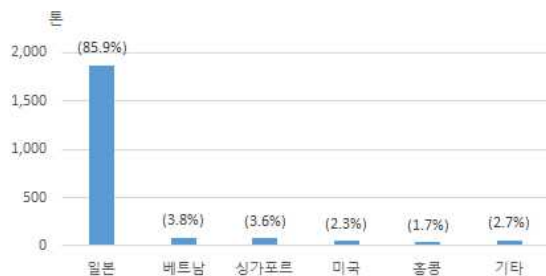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활어	0307810000	2,002	92.1	55,194	89.7	5	0.6	44	0.3
냉동	0307830000	37	1.7	1,250	2.0	6	0.8	33	0.2
건조	0307871000	0.30	0.0	35	0.1	0.001	0.0	0.4	0.0
염장	0307872000	0.40	0.0	18	0.0	0	0.0	0	0.0
훈제	0307873000	0.02	0.0	1	0.0	0	0.0	0	0.0
밀폐용기	1605571000	108	5.0	4,164	6.8	8	1.0	413	3.0
기타	1605579000	26.0	1.2	867	1.4	778	97.6	13,396	96.5
합계		2,174	100.0	61,529	100.0	797	100.0	13,8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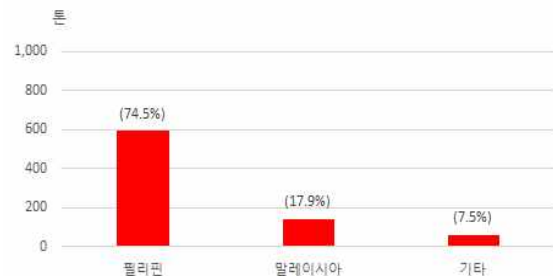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4-73> 국가별 전복 수출입 실적(2019년 기준)

단위: 톤, %



<국가별 수출>



<국가별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 수급 구조

- 전복 수급 구조⁷⁵⁾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국내 생산량, 국내 소비량, 수입량, 수출량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음
 - 전복은 국내 총공급 중에서 수입의 비중이 약 10% 정도인데, 수출은 12% 정도로 수입보다 많아 국내 자급률은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달성했음
- 전복 수급구조의 특징은 t기의 가격은 국내 수요 및 수출 수요에 대부분 의존할

75) 전복은 활어로 출하되고, 이후에도 대부분 활어 상태로 유통됨. 유통 단계에서 재고 상태의 활전복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재고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냉동 및 자숙처리 등의 가공 전복의 재고가 있겠으나, 그 물량이 많지 않고 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전복의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급구조를 살펴보았음

수박에 없는 구조임

- 전복은 t기의 생산량이 t-2기 전에 이미 결정날 수박에 없기 때문에, 태풍 혹은 대량 폐사 등의 외부적인 공급 충격 이외에 t기의 가격은 국내 및 수출 수요에 의해 결정됨
- 2019년의 전복 수급은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35%나 증가했고 수출은 9%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내 생산량이 약 8% 감소함에 따라 국내 소비가 5%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음

<표 4-112> 연도별 전복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4년	8,977	1,000	9,977	8,793	1,184	102.1
2015년	10,090	1,085	11,175	10,031	1,144	100.6
2016년	12,342	1,320	13,662	11,334	2,328	108.9
2017년	16,027	1,303	17,330	15,522	1,808	103.3
2018년	20,053	1,462	21,515	18,916	2,599	106.0
2019년	18,436	1,976	20,412	18,034	2,378	102.2
전년 대비	-8.1	35.2	-5.1	-4.7	-8.5	-
평년 대비	36.6	60.1	38.6	39.6	31.2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다.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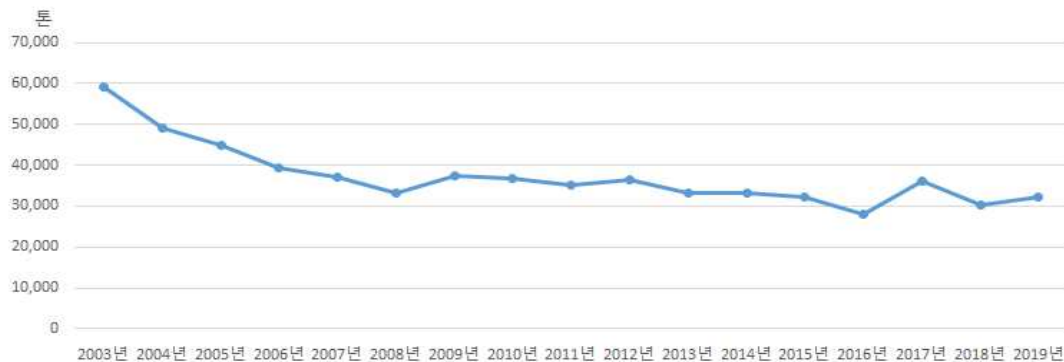
1) 산지가격

- 통계청 기준으로 전복의 생산단가(생산금액/생산량)는 해상가두리에서 양식 전복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부터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음
- 전복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생산단가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2003년에 kg당 6만원 정도였던 생산단가가 불과 5년 만인 2008년에 3만원 초반대로

50% 가량 하락했음. 이는 수요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자들이 전복 해상가두리 시설량을 늘리는 등, 공급 확대에 치중했기 때문임

- 2008년부터 소비촉진 행사 등으로 전복 수요 확대됨에 따라 이후에도 지속된 전복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가는 이전에 비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음

<그림 4-74>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추이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전복의 생산단가 kg당 32,097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상승하여,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음
 - 2018년 전복 가격 급락의 영향으로 생산자들의 선출하 경향과 입식량 감소 등으로 2019년 전복 출하가격이 반등했기 때문임
- 최근 전복 양식의 구조적인 문제, 즉 낮은 생산성과 초과공급에 따른 낮은 생산단가로 인해 많은 전복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입식량 조절 등으로 양식 전복의 생산성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어장 노후화, 밀집시설 등으로 전복 폐사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또한 시설량이 많아, 초과공급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큰 상황임

<표 4-113>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6,179	35,924	32,429	44,681	32,777	34,551	36,073	5.4	-4.2
2월	33,121	38,645	30,550	40,319	31,947	33,044	34,634	3.4	-4.6
3월	34,370	32,274	28,034	37,947	30,283	31,312	32,014	3.4	-2.2
4월	33,384	31,627	27,150	35,418	27,549	31,370	30,664	13.9	2.3
5월	32,370	30,430	27,330	33,397	25,132	31,003	29,221	23.4	6.1
6월	30,945	28,667	25,829	33,722	26,569	30,183	28,950	13.6	4.3
7월	27,895	29,733	24,829	33,651	27,491	30,819	29,309	12.1	5.1
8월	31,510	31,617	25,386	33,156	28,667	31,975	30,324	11.5	5.4
9월	33,780	34,319	30,595	34,660	33,694	32,039	33,031	-4.9	-3.0
10월	35,889	31,960	28,649	36,377	34,657	33,571	33,267	-3.1	0.9
11월	35,877	31,621	28,678	37,639	34,502	33,601	33,857	-2.6	-0.8
12월	36,032	30,271	31,265	36,593	34,316	33,022	33,659	-3.8	-1.9
연평균	33,059	32,174	28,143	36,029	30,274	32,097	31,817	6.0	0.6

주: 1) 천해양식어업의 전복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함

2) 2019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14>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동향(kg당 15마리 기준)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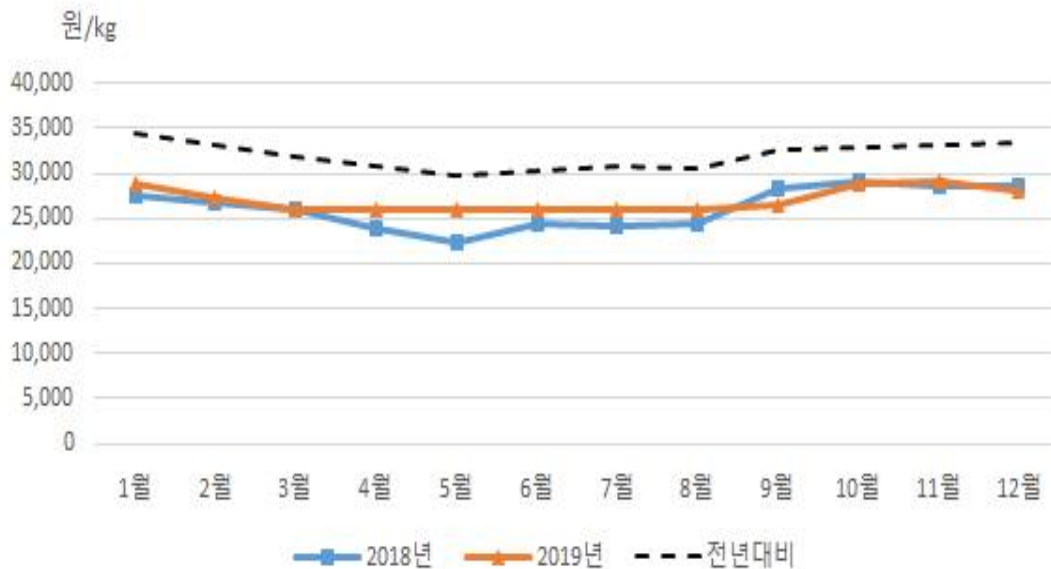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5,333	40,333	32,500	36,900	27,567	28,800	33,220	4.5	-16.6
2월	36,333	38,667	31,333	32,900	26,667	27,233	31,360	2.1	-17.9
3월	38,167	33,833	31,000	30,667	26,000	26,000	29,500	0.0	-18.6
4월	36,167	33,833	30,917	29,233	23,933	26,000	28,783	8.6	-15.6
5월	34,500	34,167	30,167	28,000	22,333	26,000	28,133	16.4	-12.8
6월	35,167	33,167	29,500	28,767	24,433	26,000	28,373	6.4	-13.9
7월	35,500	35,833	29,500	28,900	24,100	26,000	28,867	7.9	-15.5
8월	34,667	36,167	29,000	28,233	24,500	26,000	28,780	6.1	-14.8
9월	39,500	36,333	30,000	28,667	28,233	26,533	29,953	-6.0	-18.5
10월	38,500	37,000	30,000	29,500	29,000	28,867	30,873	-0.5	-12.0
11월	38,833	35,500	30,200	32,200	28,700	29,000	31,120	1.0	-12.4
12월	40,500	33,500	33,333	30,833	28,500	28,000	30,833	-1.8	-16.0
연평균	36,931	35,694	30,621	30,400	26,164	27,036	29,983	3.3	-15.4

주: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 전복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조사하는 kg당 15마리 크기를 대상으로 함
- kg당 15마리 기준으로 전복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2019년의 연평균가격은 가격은 kg당 27,036원으로 전년에 비해 3.3% 상승했으나, 평년에 비해 15.4% 낮은 수준이었음
- 2019년 전복 산지가격은 상반기 동안 전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전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 2018년의 하반기부터 적체된 물량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산지의 전복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음. 이 영향으로 산지가격은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9년 들어 8월까지 평년에 비해 여전히 낮게 형성되었음
 - 그러나 추석 이후,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복 수요가 줄면서 산지가격은 대체로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음

<그림 4-75> 2019년 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추이(kg당 15마리 기준)



주: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도매가격

- 2019년 전복의 연평균 도매가격⁷⁶⁾은 kg당 30,167원으로 전년보다 3.7% 높았지만, 평년에 비해 12.4% 낮았음

<표 4-115>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동향(kg당 15마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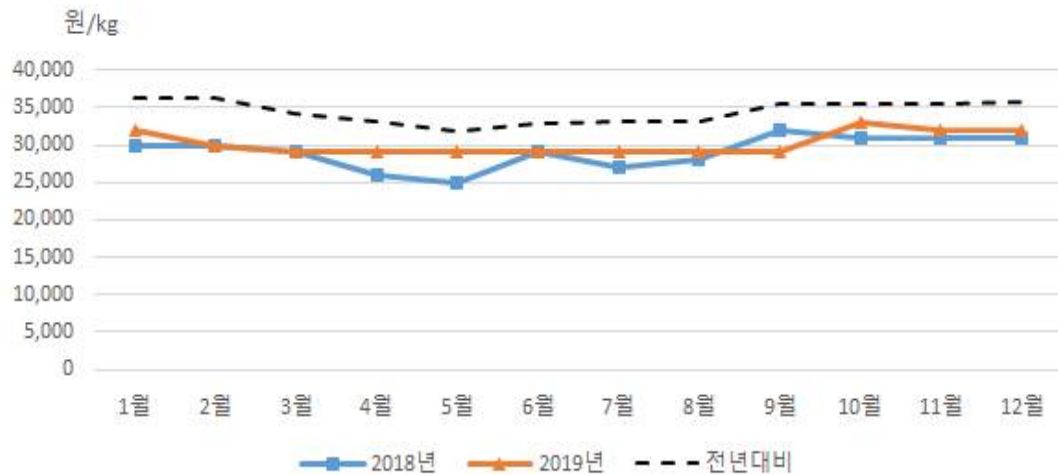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7,000	43,000	35,000	37,000	30,000	32,000	35,400	6.7	-12.1
2월	40,000	41,000	34,000	36,000	30,000	30,000	34,200	0.0	-17.1
3월	42,000	35,000	33,000	32,000	29,000	29,000	31,600	0.0	-15.2
4월	39,000	37,000	33,000	31,000	26,000	29,000	31,200	11.5	-12.7
5월	35,000	36,000	32,000	31,000	25,000	29,000	30,600	16.0	-8.8
6월	39,000	35,000	31,000	31,000	29,000	29,000	31,000	0.0	-12.1
7월	38,000	39,000	31,000	31,000	27,000	29,000	31,400	7.4	-12.7
8월	36,000	39,000	32,000	31,000	28,000	29,000	31,800	3.6	-12.7
9월	41,000	39,000	33,000	32,000	32,000	29,000	33,000	-9.4	-18.1
10월	41,000	40,000	33,000	32,000	31,000	33,000	33,800	6.5	-6.8
11월	42,000	38,000	33,000	34,000	31,000	32,000	33,600	3.2	-10.1
12월	43,000	35,000	37,000	33,000	31,000	32,000	33,600	3.2	-10.6
연평균	39,417	38,083	33,083	32,583	29,083	30,167	32,600	3.7	-12.4

주: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76) 전복의 경우, 도매가격이 산지 출하가격보다 낮게 조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산지 출하시 유통단계의 폐사를 고려한 15% 내외의 덤이 존재하지만, 도매업체는 정량 거래를 하기 때문임. 즉 산지 가격은 실 거래 기준으로 1.15kg의 가격이지만, 도매가격은 1kg의 가격임

<그림 4-76> 2019년 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추이(kg당 15마리 기준)



주: 평년은 2014년~2018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3) 소비자가격

- 전복 소비자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16년 11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 대상의 전복은 kg당 14~15마리이고 개당 60~70g 크기임
- 2019년 kg당 14~15마리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은 연평균 51,723원으로 산지 및 도매가격과 달리 전년에 비해 5.9% 하락했음
 - 이는 대형소매업체들이 판매하는 전복은 산지와 같이 엄격하게 kg당 동일한 마리수로 구분하지 않고, 산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작은 크기의 구성비를 높여 소비자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혹은 오히려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표 4-116>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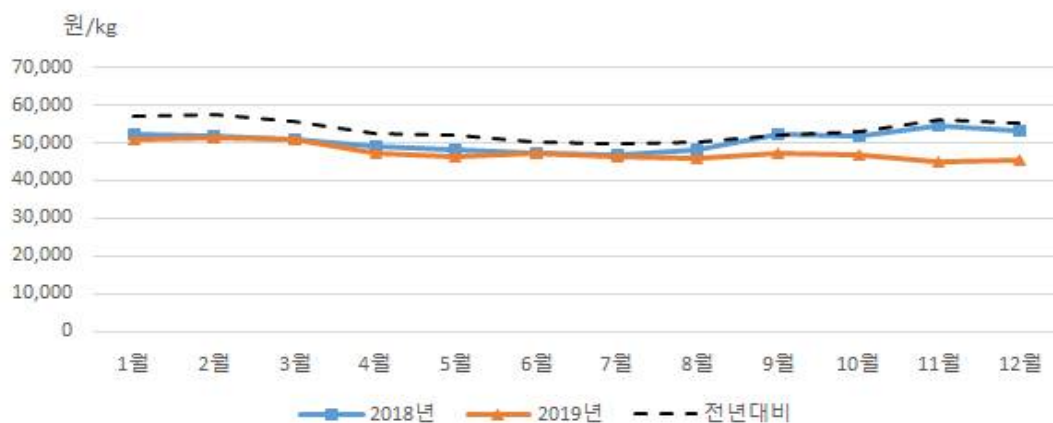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	62,083	52,086	50,948	55,039	-2.2	-10.8
2월	-	62,575	52,058	51,326	55,320	-1.4	-10.5
3월	-	61,089	50,714	51,068	54,290	0.7	-8.6
4월	-	56,222	48,889	47,446	50,852	-3.0	-9.7
5월	-	55,428	48,375	46,431	50,078	-4.0	-10.5
6월	-	52,889	47,182	47,335	49,135	0.3	-5.4
7월	-	52,778	46,871	46,378	48,676	-1.1	-6.9
8월	-	52,471	48,357	45,948	48,925	-5.0	-8.9
9월	-	51,705	52,403	47,412	50,507	-9.5	-8.9
10월	-	54,215	52,065	46,674	50,985	-10.4	-12.2
11월	59,074	54,409	54,772	45,058	53,328	-17.7	-19.7
12월	58,646	53,197	53,422	45,468	52,683	-14.9	-17.5
연평균	58,865	55,757	50,566	47,566	51,723	-5.9	-11.3

주: 1) 소비자가격은 kg당 14~15마리, 개당 60~70g 크기의 가격은 kg 단위로 환산함

2) 3개년 평균은 2017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77> 2019년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소비자가격은 kg당 14~15마리, 개당 60~70g 크기의 가격은 kg 단위로 환산함

2) 평년은 2016년~2018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양식전복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전복의 산지 유통은 대부분 비계통 출하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음
 - 전복은 2003년경부터 해사가두리 양식방법으로 전복이 대량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비계통 출하가 이미 보편화되면서 산지 수협이나 생산자 모두 계통 출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음
 - 특히 우리나라 전복은 활어 상태로 소비되므로 산지 위판장은 일반적인 선어나 냉동 수산물 위판장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왜냐하면 위판을 대하기 위해 대규모 육상 저장시설인 수조가 필요하며, 이렇게 위판된 이후 산지 중도매인들의 저장시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임⁷⁷⁾
 - 그러나 해사가두리의 전복을 양륙단계에서 바로 선별하여 산지수집상들의 활어차로 이동하는 것이 위판이라는 단계를 줄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복은 위판장을 통한 계통 출하 방식이 도입되기 어려웠음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본력이 있는 몇몇 산지수집상이 완도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전복 산지유통은 비계통 출하가 일반화되었음
 - 그동안 전복수협을 설립하여 계통출하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기존의 방식에 비해 이점이 크지 않아 이에 동의하는 생산자들이 많지 않았음
- 전복의 주요 산지는 완도를 비롯하여 해남, 진도, 신안 등인데, 산지수집상들은 완도에 집중되어 있음
 - 전복 생산량은 완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해남, 진도, 신안 등의 지역에서 나머지 30%를 생산하고 있는데, 산지수집상들의 대부분은 완도에 위치함
 - 이는 양식전복이 완도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서 산지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임
 - 이후에 전복 산지유통에 진입한 수집상들 또한 기존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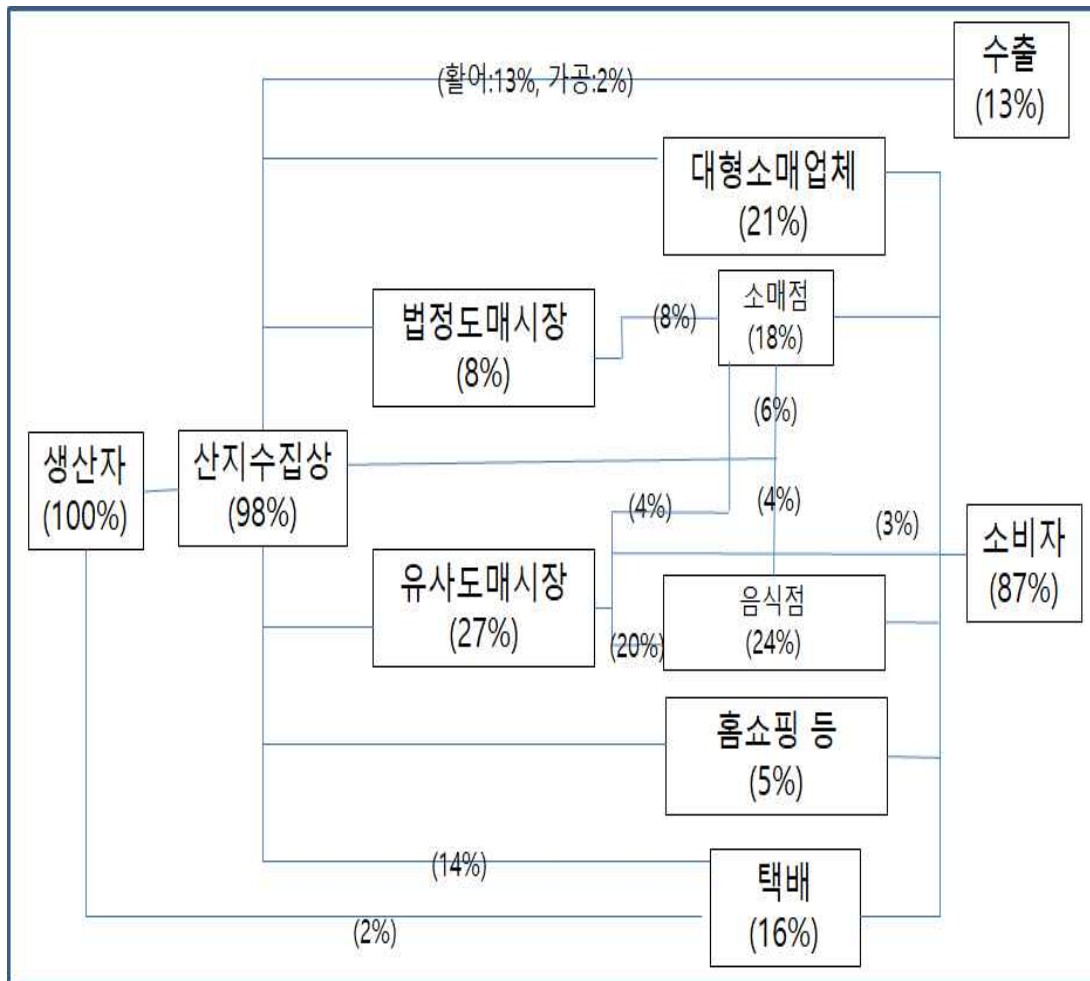
77) 이 과정에서 전복 폐사가 발생할 확률도 커짐

있거나, 거래할 전복을 확보하기 상대적으로 유리한 완도 지역 출신들이 전복 산지 유통업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임

- 해상가두리에서 양식된 전복의 98% 정도가 산지수집상에게 출하되고, 약 2%의 물량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유통됨⁷⁸⁾
- 양식전복은 산지수집상이 직접 수출업을 겸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출되는 물량이 13% 정도임
 - 물론 전문적인 수출업자가 생산자 및 산지수집상을 통해 확보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수출 물량 확보하고, 유통단계 단순화를 통한 수출원가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산지수집상의 경쟁력이 높음
- 산지에서 산지유통인들에게 출하된 양식전복은 이후 소비지의 대형소매업체, 유사도매시장, 법정도매시장 등을 경유하게 됨
 - 이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 활어 시장의 중심인 하남 및 인천 활어시장 같은 유사도매시장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약 27%의 전복이 이 시장을 통해 소비지에 공급됨
 -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과 같은 법정도매시장을 통한 물량은 약 8% 정도인데 반해, 하남 및 인천 활어시장과 같은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소비지의 소매점, 음식점 등에 대부분의 전복을 공급함
- 전복 소비가 대중화됨에 따라 대형소매업체들이 전복을 판매하는 물량이 늘면서, 최근 이를 통한 전복의 비중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소비지 판매의 경우, 양식전복을 직접 판매하는 소매점의 비중은 18% 정도로 추정되는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전복의 비중이 24%를 차지했음
 - 여름철 보양식으로 전복이 본격적으로 소비됨에 따라, 전복회 및 전복죽 이외에 탕, 구이 등의 판매가 늘면서 음식점들의 전복 취급량이 늘었음
 - 또한 전복이 횡집의 맛보기용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졌음

78) 계통출하되는 물량이 있지만 물량 비중이 1% 미만인 수준이기 때문에, 유통경로 분석은 이를 제외한 물량을 대상으로 함

<그림 4-78> 양식전복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산지수집상, 도매상인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나. 주요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19년 기준으로 전복의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⁷⁹⁾
 - 2019년 계통으로 출하된 양식전복의 비중이 1% 미만인 152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물량 또한 산지수집상에게 비계통으로 출하된 유통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음
 - 이에 2019년 양식전복 생산량인 18,436톤을 기준으로 유통단계별 물량을 추정하였음
 - 국내 유통량 중에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택배 등으로 통해 판매한

79) 산지수집상이 직접 유통되는 물량 기준임.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산지수집상에게 직접 구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물량은 제외함

물량은 2.0%인 363톤이었음

- 이를 제외하고 생산자가 산지수집상에게 출하한 물량한 18,073톤으로 98.0%를 차지했음
- 이 중에서 산지유통인이 유통시킨 물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유사도매시장으로 26.9%인 4,960톤이었음
- 다음으로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유통물량이 20.9%로 3,860톤이었고, 산지유통인이 직접 택배 혹은 지역 내에 판매한 물량은 14.1%인 2,600톤이었음
- 법정도매시장을 통한 물량은 8.0%인 1,470톤이었고, 홈쇼핑을 통해서도 5.0%인 930톤이 거래되었음
- 그리고 산지수집상이 음식점, 소매점 등에 직접 유통시킨 전복은 1,875톤으로 10.2%였던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소비지에서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통해서 4,338톤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국내 유통량 중에서 24%에 달했음.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들이 구입한 전복은 18%인 3,253톤으로 추정되었음

<표 4-117> 양식전복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9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계		18,436	100.0
생산자 → 소비자(택배)		363	2.0
산지수집상	수출	2,378	12.9
	지역소비, 택배 등	2,600	14.1
	대형소매업체	3,860	20.9
	유사도매시장	4,960	26.9
	법정도매시장	1,470	8.0
	홈쇼핑	930	5.0
	기타(소매점, 음식점)	1,875	10.2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산지수집상, 도매상인, 수산바이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양식전복 유통비용

- 양식 전복의 유통비용 실태조사는 2019년 유통실태 조사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전년도 비교분석이 불가능함
- 해상가두리에서 양식된 전복이 출하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거치게 되는 유통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자→산지수집상→대형소매업체→소비자의 경로를 조사했음⁸⁰⁾
 - 지역별 생산량이 가장 많고, 산지수집상이 집중되어 있는 완도에서 출하된 전복이 판매되는 경로를 추적했음
 - 소비자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kg당 14~15마리, 산지가격은 kg당 15마리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했음

1) 산지 단계

- 2019년 전복 유통비용 조사결과, 생산자들은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64.4%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자가 전복을 출하한 이후, 산지수집상이 대형소매업체에 판매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 운영을 위한 제반 간접비 kg당 2,048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건비, 운반비, 전력비 등의 순이었음. 그리고 산지수집상의 이윤은 kg당 502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1.1%의 비중을 차지했음
 - 산지유통인의 비용 구성 중에서 제반 간접비 이외에 주된 비용 발생 요인은 인건비로서 kg당 1,270원으로 2.8%의 비중이었음. 이는 구매한 전복을 수조에 보관 및 저장하면서 관리해야 하고, 전복 폐각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전복은 양식장 인근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출하를 위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짐. 이에 산지유통인들은 직접 작업장까지 활어차를 이용하여 구매한 전복을 운반해야함. 또한 섬 지역에 분포한 전복 양식장들이 많기 때문에 선박 이용료

80) 음식점을 거치는 유통 경로는 전복은 식재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용 산출의 어려움이 존재함. 그리고 소비자의 소매점은 다수의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어 비용 조사 및 산출이 용이하지 않음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반비 또한 주요한 비용 구성 요소임. 이 운반비는 kg당 284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0.6%를 차지했음

- 그리고 산지수집상의 비용 중에 전력비가 kg당 246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0.6%를 차지했음. 이는 전복이 폐사하지 않게 적정한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임

2) 대형소매 단계

- 대형소매업체의 비용 중에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등으로 세부 항목별로 직접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움. 따라서 전복 판매를 위한 제반 비용과 이윤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각을 추정하였음
- 대형소매업체의 전복 판매를 위한 제반 비용은 kg당 7,572원, 이윤은 kg당 4,078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각각 16.8%, 9.1%의 비중을 차지했음

<표 4-118> 양식전복(활어)의 유통비용(완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9년		비고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9,000	64.4	kg당 15마리
산지수집상	인건비	1,270	2.8	산지수집상 조사결과
	전력비	246	0.6	
	운반비	284	0.6	
	간접비	2,048	4.6	
	이윤	502	1.1	
	산지 판매가격	33,350	74.1	kg당 15마리
대형소매업체	간접비	7,572	16.8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4,078	9.1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소비자 판매가격	45,000	100.0	대형소매업체 현지 조사

주: 1) 산지판매가격은 kg당 15마리 활전복 기준이고, 대형소매업체 판매가격은 kg당 14~15마리 기준임
2) 조사 시기는 2019년 11월 초순임

제8절 양식넙치 유통실태조사⁸¹⁾

1. 양식넙치 생산 및 유통 일반현황

가. 입식

- 치어의 입식은 연중 이루어지나, 봄철(3~5월)과 가을(10~11월)에 입식이 집중되며, 가을보다는 봄철 입식량이 많은 편임

<그림 4-79> 월별 양식넙치 입식량 추이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년 해양수산전망대회 자료집」

- 입식된 치어는 지역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12~14개월 정도 양성하면 1kg 전후의 크기까지 성장하며, 활어차를 이용하여 소비지 도매상으로 배송됨

<그림 4-80> 양식넙치 생산 관련 사진



81) 양식넙치를 대상으로 함

나.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2019년 우리나라 양식넙치 총 생산량은 4만 3,320톤으로 전년에 비해 16.3%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3.6% 많았음
- 2019년 생산량이 많았던 것은, 전년 출하 부진의 영향으로 출하가 적체되어, 이를 판매하기 위한 산지의 출하의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 연간 양식넙치 생산은 2009년 5만 4,674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4만 톤 전후가 생산되고 있으나 연도별 변동성이 큰 편임
- 최근 10년 동안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최대가 4만 5,759톤이었으며, 최소가 3만 6,944톤으로 그 차이가 8,815톤에 달해 평균 생산량의 21.5%의 진폭을 보였음

<표 4-119> 연도별 양식넙치 생산량 및 생산금액 현황

단위: 톤, 백만 원, %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	1,037	19,998
1995	6,733	78,390
2000	14,127	190,091
2005	40,075	353,585
2010	40,925	489,793
2014	43,413	415,077
2015	45,759	504,182
2016	41,620	534,130
2017	41,207	584,138
2018	37,241	495,391
2019	43,320	430,685
5개년 평균	41,829	509,705
전년 대비	16.3	-13.1
평년 대비	3.6	-15.5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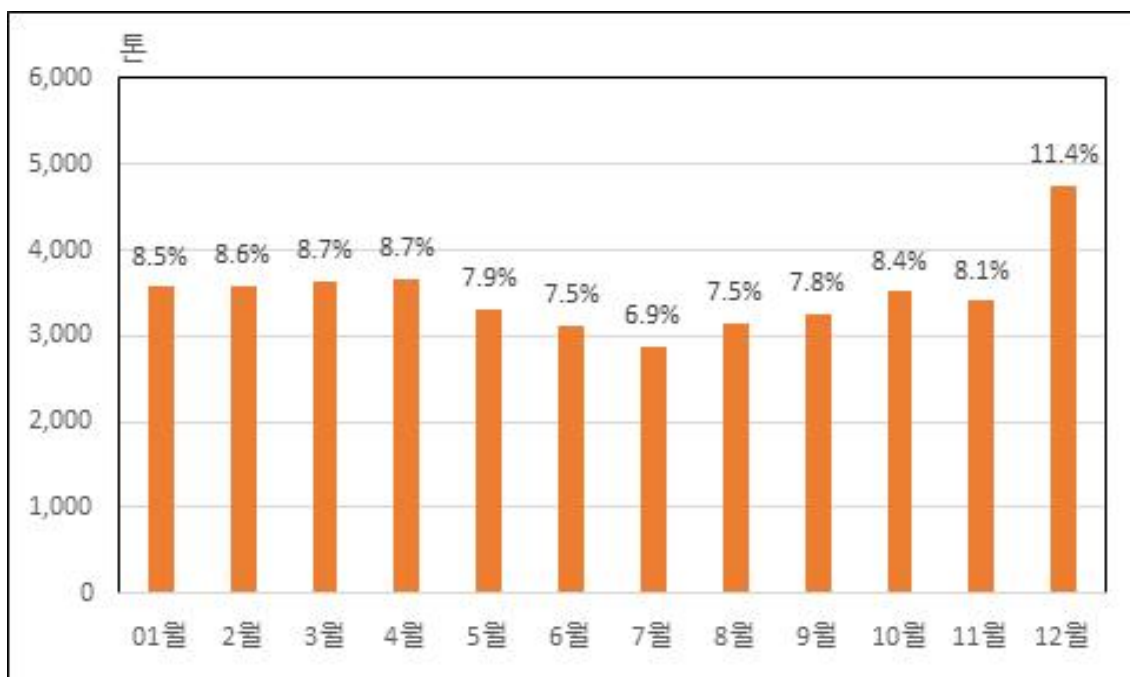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양식넙치 생산량은 터бот을 포함한 넙치류 생산 통계로 발표되고 있음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양식넙치 총생산금액은 약 4,30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1%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5.5% 적었음
 - 2019년에는 전년부터 발생했던 출하적체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생산금액 감소폭이 컸으며, 이로 인해 평년 대비 생산량은 3.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금액은 15.5% 크게 감소하였음
 - 2009년 5,457억 원에 달하던 양식넙치 생산금액은 2019년에는 1,000억 원 이상 감소했으며, 생산금액 변동폭 또한 35.3%로 생산량 변동폭 21.5%보다 컸음
- 월별 양식넙치 생산량은 연중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보이나, 여름철 생산비중이 소폭 감소하며, 12월 생산비중이 다른 시기보다 높은 특징이 있음
 - 여름철의 경우 장마와 더위 등으로 수요가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출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2월은 여타의 활수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말연시 외식수요가 증가하면서 출하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4-81> 최근 5년 평균 양식넙치 월별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20> 월별 양식넙치 생산현황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721	4,128	3,842	3,544	2,932	3,390	3,567	15.6	-1.3
2월	3,287	4,127	3,685	3,642	3,224	3,263	3,588	1.2	-9.2
3월	3,606	3,808	3,817	3,781	3,112	3,647	3,633	17.2	0.6
4월	3,506	3,678	3,831	3,713	3,217	3,848	3,657	19.6	7.2
5월	3,865	3,322	3,577	3,354	2,970	3,324	3,309	11.9	-2.8
6월	3,761	3,105	3,432	3,226	2,776	3,044	3,117	9.7	-6.6
7월	3,391	3,305	3,004	2,784	2,265	3,066	2,885	35.4	3.9
8월	3,129	3,733	2,937	3,113	2,618	3,341	3,148	27.6	7.6
9월	3,546	4,053	2,084	3,351	3,391	3,393	3,254	0.1	3.3
10월	3,875	3,746	3,026	3,402	3,531	3,854	3,512	9.1	9.6
11월	3,389	3,246	3,223	3,211	3,275	4,064	3,404	24.1	24.3
12월	5,337	5,506	5,161	4,085	3,931	5,085	4,755	29.4	5.8
합계	43,413	45,759	41,620	41,207	37,241	43,320	41,829	16.3	3.5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아,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 월별 생산량 자료를 작성했으며, 합계는 연도별 생산량 값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9년 부류별 생산량 동향을 살펴보면, 전량이 활어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양식넙치의 경우 생선회로 주로 소비되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생선회=활어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임

<표 4-121> 부류별 양식넙치 생산현황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43,413	45,759	41,616	41,207	37,241	43,320	100.0	41,828
냉동	0	0	4	0	0	0	0.0	1
합계	43,413	45,759	41,620	41,207	37,241	43,320	100.0	41,829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년도.

- 2019년 부류별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활어의 경우 계통출하비중이 37.5%로 나타났으며, 비계통출하의 경우는 62.5%로 나타났음
- 냉동넙치의 경우는 2016년 매우 적은 양(4톤)이 비계통출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하된 경우가 없어서 계통 또는 비계통출하 비중이 '0.0%'으로 나타났음

<표 4-122> 부류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현황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비중	
양 식	활어	계통	15,522	19,437	21,171	18,804	17,482	16,253	37.5	18,629
		비계통	27,819	26,322	20,445	22,403	19,759	27,067	62.5	23,199
	냉동	계통	0	0	0	0	0	0	0.0	0
		비계통	0	0	4	0	0	0	0.0	1
합계			43,413	45,759	41,620	41,207	37,241	43,320	100.0	41,829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년도.

- 활어의 계통판매는 많은 제약조건이 따름. 원칙적으로는 활어 보관을 위한 수조시설을 갖춘 위판장이 있어야 하며, 위판장을 갖춘 수협에 등록된 중매인이 존재해야 함
 - 활어 위판 시설의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활어를 위판장에 하역하고 상차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음
 - 또한 산지수집상의 경우 다양한 산지에서 활어를 구매해야하는데, 산지마다 중도매인으로 등록할 경우 중도매인이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큼
 - 따라서 양식넙치의 경우 계통판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을 한 뒤 수협에서 직원을 해당 양식장에 파견하여 이를 확인하는 형태로 계통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고 어느 정도 물량이 규모화되지 않으면 계통판매를 위한 기반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 2019년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은 제주도, 전라남도 두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93.6%를 차지했음
 - 제주도 생산량은 전체의 51.8%인 2만 2,445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라남도로 전체 생산량의 41.7%인 1만 8,058톤이었음

- 그 외 경상남도(2.9%), 경상북도(2.5%), 부산광역시(0.6%), 울산광역시(0.5%), 강원도(0.1%)의 순이었음

<표 4-123> 연도별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부산광역시	267	181	168	219	136	229	0.5	187
울산광역시	150	272	236	225	128	225	0.5	217
강원도	107	119	126	72	68	21	0.1	81
전라남도	14,349	15,420	13,286	13,867	12,900	18,058	41.7	14,706
경상북도	952	1,297	831	840	914	1,090	2.5	994
경상남도	1,304	1,328	876	892	925	1,252	2.9	1,055
제주도	26,283	27,142	26,098	25,092	22,171	22,445	51.9	24,590
계	43,413	45,759	41,620	41,207	37,241	43,320	100.0	41,829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2019년 계통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완도에 위치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0.6%를 점했음

<표 4-124> 산지 위판장별 양식넙치 생산현황

단위: 톤,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5개년 평균
제주어류양식수협	15,004	19,001	20,764	18,263	17,267	16,159	99.4	18,290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511	436	407	541	215	94	0.6	339
거제수협	7	0	0	0	0	0	0	0
합계	15,522	19,437	21,171	18,804	17,482	16,253	100.0	18,629

주: 2019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다.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 양식넙치 수출량은 2019년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최근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국내 수급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양식넙치의 90% 정도가 수출되는 일본의 수요 감소 때문임
- 넙치 수입량은 2017년과 2018년에 소량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상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음
 - 수출입 통관코드인 HS코드 분류에 의하면 수입량이 100톤 이상 집계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 물량 중은 대부분이 넙치가 아닌 터봇, 강도다리 등의 물량으로 실제 활넙치 수입량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함
 -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는 수입활어 검역검사 실적을 기초로 수입량을 다시 조회한 결과 최근 5년 평균 기준 약 10톤의 물량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25> 연도별 양식넙치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4년	3,350	41,711	12.5	0	0	-
2015년	2,980	40,193	13.5	1	6	10.8
2016년	2,943	43,997	14.9	0	1	8.0
2017년	2,696	43,962	16.3	34	282	8.3
2018년	2,475	40,199	16.2	14	123	8.7
2019년	2,701	34,867	12.9	0	0	-
최근 5년 평균	2,759	40,644	14.7	10	82	8.2
전년 대비	9.1	-13.3	-20.4	-100.0	-100.0	-
평년 대비	-6.5	-17.0	-11.0	-100.0	-100.0	-

자료: 수출은 한국무역협회(<http://www.kati.net/>), 수입은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활넙치 수입 검사실적

라. 수급 구조

- 국내 양식넙치 총공급량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들어 다시 증가하였음

- 수입량은 거의 없어 전체 공급을 국내 생산이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연간 총공급량의 변화 또한 국내 생산에 의해 좌우됨
- 수요 측면에서는 양식넙치 국내 소비량의 10% 정도가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였으나, 최근 일본의 수요 감소로 인해 그 비중이 소폭 줄었으며, 공급과 마찬가지로 국내소비 또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다시 증가했음

<표 4-126> 연도별 양식넙치 수급현황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4년	43,413	0	43,413	40,063	3,350	108.4
2015년	45,757	1	45,758	42,778	2,980	107.0
2016년	41,619	0	41,619	38,676	2,943	107.6
2017년	41,206	34	41,240	38,544	2,696	106.9
2018년	37,242	14	37,256	34,781	2,475	107.1
2019년	43,319	0	43,319	40,618	2,701	106.6
전년 대비	16.3	-100.0	16.3	16.8	9.1	-
평년 대비	3.5	-100.0	3.5	4.2	-6.5	-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한국무역협회, 식약처 활넙치 수입 검사실적

마.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양식넙치의 산지 출하가격은 출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12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한 가격이 외식수요가 증가하는 3월부터 상승하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6~8월에 소폭 하락하며, 이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임
- 2019년 양식넙치 산지가격은 연평균 kg당 8,887원으로 전년에 비해 2,000원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양성물량 적체로 연중 산지의 출하의향이 컸기 때문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공급이 줄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8년 중순 넙치에서 수은이 발견되었다는 보도 이후 출하가 줄면서 출하적체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으며, 2019년에는 출하 적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

<표 4-127>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추이

단위: 원/kg

구분	2015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0,415	9,547	11,200	11,816	12,369	8,650	10,716	-30.1	-21.9
2월	10,139	9,500	10,771	11,421	11,687	8,869	10,450	-24.1	-17.1
3월	9,784	10,617	11,372	14,047	13,809	9,240	11,817	-33.1	-22.5
4월	9,528	10,488	12,613	12,958	13,327	9,958	11,869	-25.3	-15.5
5월	9,142	10,193	12,795	12,751	13,355	8,640	11,547	-35.3	-25.8
6월	8,237	9,795	12,492	13,000	13,150	8,465	11,380	-35.6	-25.3
7월	8,053	9,791	13,012	12,957	12,449	9,350	11,512	-24.9	-16.9
8월	8,043	10,383	13,025	12,997	10,537	9,767	11,342	-7.3	-11.2
9월	8,011	11,802	12,903	14,370	11,155	9,156	11,877	-17.9	-21.4
10월	8,352	13,318	11,799	16,358	11,494	8,497	12,293	-26.1	-30.7
11월	9,079	12,803	10,678	15,724	10,580	8,134	11,584	-23.1	-30.9
12월	9,078	11,946	11,624	13,550	9,074	7,923	10,823	-12.7	-28.3
연평균	8,988	10,849	12,024	13,496	11,916	8,887	11,434	-25.4	-22.4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제주어류양식수협

2) 도매가격

- 양식넙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산지가격과 같은 추세를 보였음. 통상 활넙치의 경우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의 연동성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강함
- 월별 가격 추이 또한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외식수요가 증가하는 봄가을에 높게 형성되며, 출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12월~익년 2월까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양식넙치 도매가격은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22.2%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8.8% 낮았음
 - 연중 kg당 11,000원을 전후로 형성되었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5월에는 최대 5,000원 이상 하락하는 등 매우 낮은 상황을 연중 보였음

<표 4-128>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추이

단위: 원/kg

구분	2015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2,250	11,583	13,219	13,582	15,469	10,992	12,969	-28.9	-16.9
2월	12,667	11,292	13,188	13,883	14,542	11,125	12,806	-23.5	-15.2
3월	11,469	12,292	13,698	15,625	15,729	11,167	13,702	-29.0	-18.9
4월	11,250	12,438	15,438	15,600	15,813	11,500	14,158	-27.3	-18.5
5월	11,406	12,266	14,708	15,460	16,008	10,842	13,857	-32.3	-22.4
6월	10,844	12,313	14,667	15,083	15,646	10,906	13,723	-30.3	-20.5
7월	10,844	11,938	14,742	14,892	14,167	10,969	13,342	-22.6	-17.6
8월	10,438	12,245	15,013	15,015	12,458	11,025	13,151	-11.5	-15.4
9월	10,375	13,469	14,708	16,792	12,469	11,115	13,711	-10.9	-18.0
10월	10,625	14,792	14,208	18,174	13,808	11,192	14,435	-18.9	-21.9
11월	11,125	14,781	13,328	16,975	12,490	10,969	13,709	-12.2	-20.2
12월	10,906	14,177	13,427	15,813	11,604	10,604	13,125	-8.6	-19.6
연평균	11,183	12,799	14,195	15,575	14,184	11,034	13,557	-22.2	-18.8

주: 1) 2019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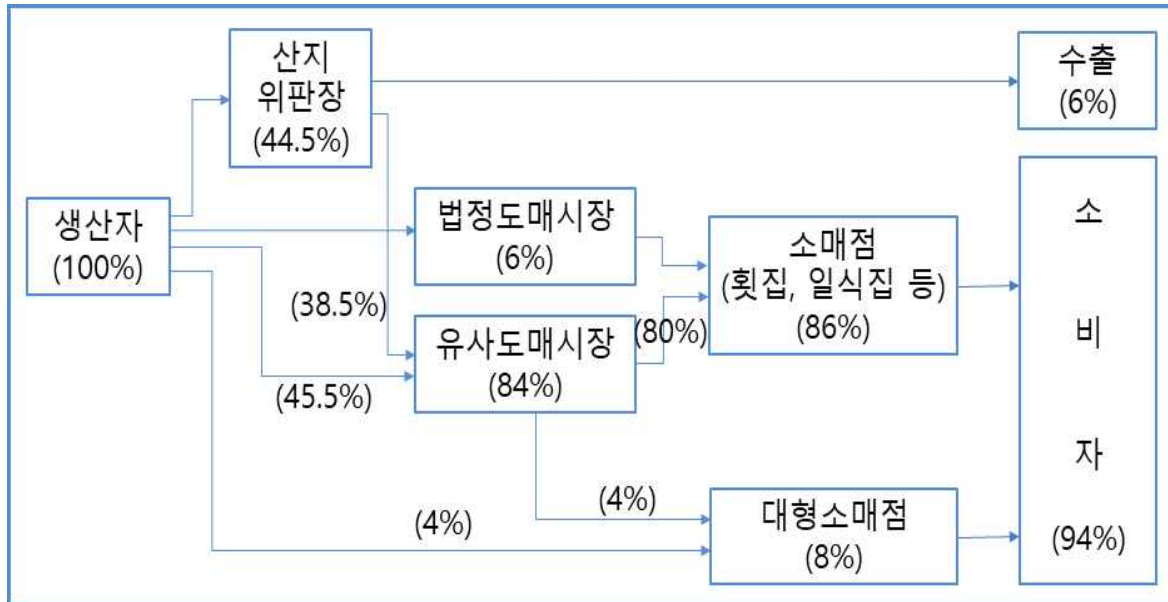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5년~2019년 평균, 평년은 2014년~2018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수산업관측센터

2. 양식넙치 유통경로

- 일반적인 양식넙치(활어)의 유통경로는 생산자 → 유사도매시장 → 소매상(횃집, 일식집) →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임
- 활양식넙치 대부분이 이 경로에 따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통상 소비지에 위치한 유사도매시장의 도매상의 위탁 또는 직영으로 산지에 위치한 양식장에서 유사도매시장으로 활어차로 수송된 양식넙치는 도매상에서 소매상(횃집, 일식집)으로 배송되며,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외식의 형태로 주로 소비하고 있음
- 유사도매시장 중 규모가 큰 곳은 인천, 하남,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과 부산시장은 제주산, 하남시장은 완도산 넙치의 유통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4-82> 양식넙치(활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 양식넙치는 산지의 양식장에서 활어차에 바로 옮겨져 소비지시장으로 운송됨
 - 통상 산지에서 수집상에 의해 운영되는 활어차는 5톤 크기로 1차당 2.5톤의 넙치를 운송하는데, 최근에는 3.5톤까지도 운송하는 경우도 있음
 - 제주항에서 카페리로 완도항으로 입항 후 이를 인천이나 하남시장으로 육로를 따라 운송하는데, 제주-인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육상운송을 하는 이유는 운송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새벽에 소비지도매시장에 배송하기 위해서임
 - 익일 새벽에 소비자 (유사)도매시장에 새벽에 배송된 넙치는 오전 중에 횃집이나 일식집으로 배송이 되는 구조가 가장 일반적임
- 수출의 경우는 크게 일본으로 활어차를 이용하여 해상운송하는 경우, 그 외지역의 경우 항공운송과 활어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출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으로의 운송은 활어차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운송한 후 카페리 편으로 일본으로 수출됨
 - 그 외 지역은 활어차를 이용하여 인천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항공을 이용하거나, 거제와 부산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활어차를 이용하여 배송된 넙치를 활어컨테이너에 담아 화물선을 이용하여 해상운송함

- 넙치 유통이 일반 수산물 유통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양식 활어의 일반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계통판매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제주지역의 경우는 계통판매비중이 7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 외 지역은 계통판매비중이 5% 이하로 낮은 편임
 - 둘째, 일반적인 수산물의 경우와 달리 법정도매시장 경유율이 10% 이하로 매우 낮음

3. 양식넙치 유통비용(제주 기준)

- 국내소비를 기준으로 한 양식넙치의 유통경로는 크게 산지-유사도매시장-횃집-소비자의 구조와 산지-대형소매점-소비자의 경로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유통경로에 따른 유통비용을 제주산 양식넙치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가. 제주 → 횃집

1) 산지 단계

- 먼저 산지수집상과 양식장과의 거래를 위한 구두 계약이후, 양식업체에서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위탁판매를 요청함
 - 이후 항생제에 대한 잔류검사를 통과하면 중도매인은 넙치양식업체와 가격을 결정한 후 활어차에 운송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협에서 파견한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1%의 수협 위판수수료가 발생함
- 활어차에 상차된 넙치(5톤 활어차에 2.5톤)는 소비지로 운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kg당 1,000원의 물류비가 발생함
 - 여기에는 운송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2.5톤 당 180만 원)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중도매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 산지유통인(중도매인) 수수료는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를 하는 경우나 비계통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임

2) 도매 단계

- 도매상은 대형소매점에 물류비와 도매상 운영을 위한 간접비, 도매마진을 더해 횃집에 양식넙치를 납품함
- 이 과정에서 도매상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간접비가 kg당 650원 정도가 소요되며, 도매마진(이윤)이 kg당 500원이 발생함

3) 소매 단계

- 횃집에 납품된 넙치는 인건비, 자가 및 가족인건비, 결들이 안주 등 기타 식재료비, 임차료, 세금공과, 기타비용이 더해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비용과 마진구조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29>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횃집 기준)

단위: 원/마리, %

구분		금액	비율	비고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801	29.3	
산지	위판수수료	89	0.3	위판금액의 1%
위판장	산지출하가격	8,890	29.6	
도매유통단계	물류비	1,000	3.3	2.5톤에 2,500,000원 (산지유통인(중도매인) 수수료 포함)
	도매상 간접비	650	2.2	
	이윤	500	1.7	
	판매가격	11,040	36.8	
횃집	영업비용	18,050	60.2	인건비, 임대료 등이 포함된 비용임
	이윤	910	3.0	
	판매가격	30,000	100.0	

주: 횃집의 유통마진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제주 → 대형소매점

1) 산지 단계

- 먼저 소비지도매상이 산지수집상에 구입물량을 통보하면, 산지수집상은 양식장에서 의뢰받은 물량을 활어차에 상차작업을 시작함

- 활어차에 상차된 양식넙치(5톤 활어차에 2.5톤)는 소비지도매상으로 운송되며, 소비지도매상은 산지수집상에게 물류비를 지급하는데, 통상 지급되는 물류비는 2.5톤을 기준으로 250만원임(kg당 1,000원)
- 여기에는 운송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2.5톤 당 180만 원)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중도매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2) 도매 단계

- 도매상은 대형소매점에 물류비와 도매상 운영을 위한 간접비, 도매마진을 더해 대형소매점에 양식넙치를 납품함
- 이 과정에서 도매상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간접비가 kg당 650원 정도가 소요되며, 도매마진(이윤)이 kg당 500원이 발생함

3)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점에 납품된 양식넙치는 인건비 등 간접비와 입점수수료에 이윤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비용과 마진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30>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점 기준)

단위: 원/마리, %

구분		금액	비율	비고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801	29.7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89	0.3	위판금액의 1%
	산지출하가격	8,890	30.0	
도매유통단계	물류비	1,000	3.4	2.5톤에 2,500,000원 기준 (산지유통인(중도매인) 수수료 포함)
	도매상 간접비	650	2.2	
	이윤	500	1.7	
	판매가격	11,040	37.3	
대형소매점	간접비	11,000	37.2	
	입점수수료	4,500	15.2	
	이윤	3,050	10.3	
	판매가격	29,590	100.0	

주: 조사시기: 2019년 12월 중순, 등급(품질)기준: 1kg 기준

■ 제5장 ■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품목별 유통비용 조사결과

제2절 품목별 유통비용 구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품목별 유통비용 조사결과

1. 품목별 유통비용

- 유통실태 조사에서 대중성품종 7개 품목(신규품목 양식 전복, 양식 넙치 포함)에 대해 유통경로와 유통비용을 파악하였음
- 유통비용은 비용(직접비, 간접비)과 이윤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산물 유통교육과정(대학 컬리큘럼)이나 업계에서는 유통마진이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통비용=유통마진으로 이해하면 됨
 - 직접비는 양륙·배열비, 선별비, 포장재비, 운송비, 상하차비, 수수료 등과 같이 거래물량의 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 간접비는 점포 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와 같이 거래물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비용임
 - 이윤은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임

<표 5-1> 국산 조사대상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비교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비용별			단계별		
		생산자 수취	유통 마진	생산자 수취	유통 비용	직접비	간접비	이윤	산지	도매	소매
고 등 어	선어(부산→가락)	41.7	58.3	33.1	66.9	13.2	27.0	26.7	9.6	13.5	43.8
	선어(부산→서울 대형소매)	34.1	65.9	31.7	68.3	13.3	23.2	31.8	17.3	-	51.0
	냉동(부산→가락)	45.6	54.4	27.1	72.9	13.5	30.6	28.8	10.5	18.7	43.7
명 태	냉동(부산→노량진)	32.4	67.6	42.8	57.2	12.7	26.8	17.7	8.0	19.2	30.0
오 징 어	선어(구룡포→가락)	60.5	39.5	62.0	38.0	7.2	13.6	17.2	6.2	11.4	20.4
	활어(울진후포→횃집)	56.6	43.4	58.9	41.1	8.6	13.7	18.8	6.0	9.5	25.6
	선어(구룡포→서울 대형소매)	68.6	31.4	67.7	32.3	3.7	8.8	19.8	6.3	-	26.0
갈 치	선어(제주→노량진)	51.4	48.6	55.8	44.2	12.0	15.9	16.3	9.9	10.8	23.5
	선어(제주→서울 대형소매)	52.4	47.6	57.4	42.6	6.3	25.0	11.3	11.9	-	30.7
참 조 기	선어(목포→노량진)	56.2	43.8	66.2	33.8	13.5	11.0	9.3	11.0	12.0	10.8
	동결(목포→서울 대형소매)	61.9	38.1	73.6	26.4	9.9	8.4	8.1	12.4	-	14.0
	동결(제주→서울 대형소매)	-	-	62.9	37.1	7.6	8.4	21.1	10.1	-	27.0
양식 전복	활어(완도→서울 대형소매)	-	-	64.4	35.6	1.2	24.2	10.2	9.7	-	25.9
양식 넙치	활어(제주→서울 대형소매)	-	-	29.7	70.3	18.9	39.4 ¹⁾	12.0	0.3	7.3	62.7
	활어(제주→횃집소매)	-	-	29.3	70.7	66.0 ²⁾		4.7	0.3	7.2	63.2

주: 1) 대형소매점에 입점하는 횃집은 직영과 임대 가 있는데, 여기서는 횃집들이 주로 임대를 하므로 임대기준 적용
 2) 횃집의 간접비와 직접비 구분을 할 수 없어 활어 소매횃집 경로는 '직접비+간접비'로 적용

- 품목별로도 유통경로(도매시장, 대형소매)별, 판매형태(활, 선어, 냉동)별 유통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각 품목별 비교 편의를 목적으로 산지수협위판장~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선어(명태는 냉동) 기준의 생산자수취율 및 유통비용율의 조사결과를⁸²⁾ 다음과 같이 요약했음

<표 5-2> 조사대상 주요 수입 수산물의 유통비용율 비교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비용별			단계별		
		수입 원가	유통 비용	수입 원가	유통 비용	직접비	간접비	이윤	수입	도매	소매
고등어	수입냉동(부산→서울 소매업체)	37.0	63.0	43.2	56.8	15.5	23.5	17.8	7.2	14.6	35.0
오징어	수입냉동(부산→가락시장)	27.8	72.2	29.3	70.7	13.6	23.8	33.3	11.7	16.6	42.4

2. 평균 유통비용

- 7개 조사 대상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전제) 조사대상 7개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중치가 필요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두고 분석하였음
 - 첫째, 갈치,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는 통계청 KOSIS의 어업생산동향의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 중에서 계통 출하량을 기준으로 함
 - 둘째, 명태(원양산 냉동)은 명태의 원양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 셋째, 양식 넙치와 전복은 양식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분석의 결과) 조사대상에 각각의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유통비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평균 생산자수취율) 평균 생산자수취율은 45.7%였으며, 2018년(47.7%)에 비해 2.0%p 내려갔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양식 전복과 양식 넙치가 추가되면서 특히 양식 넙치의 적용 가중치가 높은 데 비해 생산자수취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82) 생산자수취율=(생산자수취가격/소비자가격)×100, 유통비용율=(소비자가격-생산자수취가격)/소비자가격×100

현상임

- (평균 유통비용율) 평균 유통비용율은 54.3%로 2018년의 52.3%에 비해 2.0%p 올라갔으며, 이는 유통비용율이 높은 양식넙치의 신규 조사품목 포함과 인건비 등의 간접비 상승 등이 원인임
- (유통비용별: 직접비) 평균 직접비는 12.2%로 2018년의 12.8%에 비해 0.6%p 내려감
- (유통비용별: 간접비) 평균 간접비는 23.6%로 2018년의 26.9%에 비해 3.3%p 내려감
- (유통비용별: 이윤) 평균 이윤율은 18.6%로 2018년의 26.9%에 비해 8.3%p 내려감
- (유통단계별: 산지) 평균 산지 유통비용율은 7.7%로 2018년의 11.6%에 비해 3.9%p 줄었음
- (유통단계별: 도매) 평균 도매 유통비용율은 11.3%로 2018년의 13.4%에 비해 2.1%p 줄었음
- (유통단계별: 소매) 평균 소매 유통비용율은 35.3%로 2018년의 27.3%에 비해 8.0%p 올라감

<표 5-3> 7개 품목 수산물의 생산자수취율 및 유통비용율 평균(2019년)

구분		고등어 (선어)	명태 (원양)	오징어 (선어)	갈치 (선어)	참조기 (선어)	전복 (양식)	넙치 (양식)	평균 유통비용률
가중치 산정기준	19년 생산량 (톤)	98,343	23,915	51,432	42,282	25,670	18,436	43,320	303,398
	적용 가중치	0.324	0.079	0.170	0.139	0.085	0.061	0.143	1.000
생산자수취율		33.1	42.8	62.0	55.9	60.5	64.4	29.7	45.7
유통비용률		66.9	57.2	38.0	44.1	39.5	35.6	70.3	54.3
유통 비용별 (%)	직접비	13.1	12.7	7.2	11.9	12.9	4.0	18.9	12.2
	간접비	27.1	26.8	13.6	15.9	14.8	21.4	39.4	23.5
	이윤	26.7	17.7	17.2	16.3	11.8	10.2	12.0	18.6
유통 단계별 (%)	산지단계	9.5	8.0	6.3	9.8	10.4	9.7	0.3	7.7
	도매단계	13.5	19.2	11.3	10.8	11.5	-	7.3	11.3
	소매단계	43.9	30.0	20.4	23.5	17.6	25.9	35.3	35.3

주: 1) 생산자수취율 및 유통비용률은 산지에서 서울 도매시장 유통경로 기준, 양식 전복과 넙치는 산지에서 대형소매점 기준임
 2) 가중치는 7개 품목의 생산량(갈치,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는 연근해산 계통 출하량, 원양명태 생산량, 양식 넙치와 전복은 양식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표 5-4> 조사대상 7개 품목의 유통비용 구조와 가격

단위: %, 원/kg

	생산자 수취율 (%)	유통 비용율 (%)	비용별(%)			단계별(%)			가격(원/kg)	
			직접비	간접비	이윤	산지 (출하)	도매	소매	생산자 수취	소비자
고등어 (선어,kg)	33.1	66.9	13.1	27.1	26.7	9.5	13.5	43.9	2,389	7,829
명태 (냉동,kg)	42.8	57.2	12.7	26.8	17.7	8.0	19.2	30.0	1,661	3,879
오징어 (선어,kg)	62.0	38	7.2	13.6	17.2	6.3	11.3	20.4	13,396	21,600
갈치 (선어,kg)	55.9	44.1	11.9	15.9	16.3	9.8	10.8	23.5	14,799	26,500
참조기 (선어,kg)	60.5	39.5	12.9	14.8	11.8	10.4	11.5	17.6	12,099	20,000
전복 (활어,kg)	64.4	35.6	4.0	21.4	10.2	9.7	-	25.9	29,000	45,000
넙치 (활어,kg)	29.7	70.3	18.9	39.4	12.0	0.3	7.3	62.7	8,801	29,590
수산물 평균	45.7	54.3	12.2	23.5	18.6	7.7	11.3	35.3	-	-

제2절 품목별 유통비용 구조

1. 고등어

- 고등어는 선어를 대상으로 산지(부산)에서 서울의 가락동 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점을 경유하는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2018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생산자수취율) 생산자수취율은 두 경로 모두 하락하였고, 반대급부적으로 유통비용율은 두 경로 모두 올라갔음
 - 서울 대형소매점 경로는 2018년의 34.1%에서 2019년의 31.7%로 2.4%p 하락
 - 가락동 수산시장 경로는 2018년의 41.7%에서 2019년의 33.1%로 8.6%p 하락
- (원인분석) 고등어의 산지 가격은 2018년에 비해 10% 미만의 변화를 보인 반면에 각 유통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산지위판장 → 소비자 법정(공영) 도매시장 기준)
 - (산지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양륙 배열비(30.2원/kg→36.0원/kg), 야간부너반 노임(27.7→32.3),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얼음대(45.0→49.0), 산지 중도매인 수수료(낙찰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 (도매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경매 수수료(경매가격에 따른 정률적 변동), 간접비(348.2원/kg→639.3원/kg), 이윤(판매가격에 따른 정률적 변동)
 - (소매단계) 직접비(158.9원/kg→257.8원/kg), 간접비(688.0→1,475.4), 이윤(1,017.1→1,695.8)

<그림 5-1> 고등어의 유통비용 구조



2. 명태

- 명태는 우리 원양선사 혹은 합작 수입을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2018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생산자수취율) 생산자수취율은 2018년의 32.4%에서 2019년의 42.8%로 10.4%p 상승함
 - 생산자(원양 및 합작수입업자) 가격은 2018년의 1,127.0원/kg에서 2019년 1,660.9원/kg으로 47.7% 상승했으나 소매가격(소비자 소매상)은 3,960.6원/kg에서 3,879.0원/kg으로 2.1% 하락함
- (원인분석) 대체적으로 명태(냉동)의 생산자 가격 상승은 생산자수취율을 올린 반면에 각 단계에서의 직·간접비(특히, 인건비 상승) 상승은 도소매 단계 유통주체들의 이윤율을 낮추는 현상으로 이어짐
 - 단, 이러한 현상은 조사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일 가능성으로 배제할 수 없음
 - (원양선사 유통비용 상승 항목) 부두 하역비(29.9원/kg→32.0원/kg), 육상운반비(7.7→9.8), 검수비(0.7→1.6), 창고 입고비(8.8→9.5), 냉장료(39.1→78.0), 위판수수료(판매액에 따른 정률 변동)

<그림 5-2> 명태의 유통비용 구조



- (1차 도매업자의 비용 상승 항목) 창고 출고비(8.9원/kg→9.5원/kg), 부산-서울간 운송비(55.8→69.8), 간접비(28.1→94.9)

- (소비지 도매) 경매수수료(낙찰가에 따른 정률 변동), 운반비(14.6원/kg→17.5원/kg), 간접비(194.6→201.4)
-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90.0원/kg→97.7원/kg), 간접비(723.0→744.0)

3. 오징어

- 오징어는 산지(경북 구룡포)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과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생산자수취율) 생산자수취율은 2018년에 비해 가락동 수산물 도매시장 경유는 올랐지만, 대형소매점 경유는 하락했음
 - (가락동 도매시장 경유) 생산자 수취율은 2018년의 60.5%에서 2019년의 62.0%로 1.5%p 상승함
 - (대형소매점 경유) 생산자 수취율은 68.6%에서 67.7%로 0.9%p 내려감
- (원인분석) 오징어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산지가격과 소매가격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가락동 도매시장 경유에서는 소매점들의 이윤율이 감소한 반면에 대형소매점에서는 이윤과 간접비 모두 상승하면서 생산자수취율에 영향을 가져옴
 - (가락동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중도매인 운송비(산지→소비지, 217.0원/kg→233.3원/kg),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판매가격에 따른 정률 변동), 소비지 중도매인 간접비(900.0→922.0),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87→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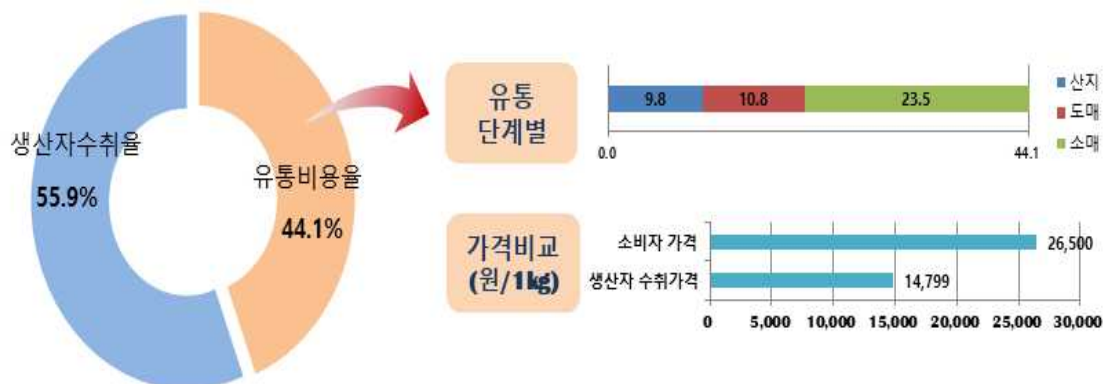
<그림 5-3> 오징어의 유통비용 구조



4. 갈치

- 갈치는 산지(제주)에서 서울의 노량진 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점을 경유하는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2018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생산자수취율) 생산자수취율은 두 경로 모두 상승하였고, 반대급부적으로 유통비용율은 두 경로 모두 내려갔음
 - 서울 대형소매점 경로는 2018년의 52.4%에서 2019년의 57.4%로 5.0%p 상승
 - 노량진 수산시장 경로는 2018년의 51.4%에서 2019년의 55.8%로 4.4%p 상승
- (원인분석) 산지의 갈치(선어) 가격 상승(약 30% 이상)과 함께 소매부분에서의 간접비(인건비 등) 상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산지의 가격 상승(위판가격 기준)은 2018년의 11,209원/kg에서 14,799원/kg으로 32.0% 상승함
 - 산지, 도매 단계에서의 비용은 전년도와 크게 변화가 없으나 대형소매점에서 간접비(특히, 인건비)가 1,757원/kg에서 5,550원/kg으로 약 3.2배 증가함
 - 이에 반해 대형소매점 이윤은 4,300원/kg에서 2,365원/kg으로 45.0% 감소함
 - 따라서 산지 가격의 상승과 대형소매점의 인건비 상승을 소매가격에 반영할 경우에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형소매점에서는 이윤을 줄였음

<그림 5-4> 갈치의 유통비용 구조



- 수산물 산지가격의 상승은 산지단계에서 유통비용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수취율을 높인 반면에 소매단계에서는 간접비(특히,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은 증가함
- 이러한 현상은 노량진 수산시장 경로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음

5. 참조기

- 참조기는 산지(제주, 목포)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과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생산자수취율) 생산자수취율은 목포→노량진(선어), 목포→대형소매점(선어→동결) 모두 10% 이상 상승함
 - (노량진 수산시장 경유: 선어) 생산자수취율은 2018년의 56.2%에서 2019년의 66.2%로 10.0%p 상승함
 - (대형소매점 경유: 선어→동결) 생산자수취율은 61.9%에서 73.6%로 11.7%p 상승함
- (원인분석) 참조기의 산지 가격 상승은 생산자수취율을 올리는 원인이 되었으나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대형소매점의 간접비(특히, 인건비 상승) 상승은 이들 유통주체들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있음
 - (노량진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장의 양륙비(206원/kg → 228원/kg) · 어상자대(58→62) · 위판수수료(낙찰가에 따른 정률 변동), 산지 중도매인의 포장비(411→423) · 수수료(판매가격의 정률변동), 소비지 도매시장의 경매수수료(경매가에 따른 정률 변동), 소비지 중도매인의 간접비(900 → 1,000), 소매상의 직접비(173→200)와 간접비(1,364→1,950)

<그림 5-5> 참조기의 유통비용 구조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장의 양륙비·어상자대·위판수수료 등은 노량진 도매시장 경로와 같으며, 대형소매점의 간접비(1,142원/kg→3,500원/kg)

6. 양식전복

- 양식전복은 산지(완도)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으며, 2019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 품목으로 도입되어 2018년과의 비교는 불가능함
- (생산자수취율) 생산자수취율은 64.4%에 유통비용율은 35.6%였음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율) 유통단계별로는 대형소매점에서의 유통비용율이 가장 높았음
 - (산지의 유통비용) 산지의 유통비용율은 9.7%
 - (도매의 유통비용) 도매의 유통비용율은 13.5%
 - (소매의 유통비용) 대형소매점의 유통비용율은 25.9%
- (항목별 유통비용율) 항목별로는 간접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임대료와 같은 비용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직접비) 직접비 비율은 1.2%
 - (간접비) 간접비 비율은 24.2%
 - (이윤) 이윤율은 10.2%

<그림 5-6> 양식전복의 유통비용 구조



7. 양식넙치

- 양식넙치는 산지(제주)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으며, 2019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 품목으로 도입되어 2018년과의 비교는 불가능함
- (생산자수취율) 생산자수취율은 29.7%에 유통비용율은 70.3%였음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율) 유통단계별로는 대형소매점에서의 유통비용율이 가장 높았음
 - (산지의 유통비용) 산지의 유통비용율은 7.3%
 - (소매의 유통비용) 대형소매점의 유통비용율은 62.7%
- (항목별 유통비용율) 항목별로는 간접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임대료와 같은 비용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직접비) 직접비 비율은 18.9%
 - (간접비) 간접비 비율은 39.4%

<그림 5-7> 양식넙치의 유통비용 구조



8. 종합평가

- 2019년 유통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당 품목의 산지가격(명태는 원양선사나 수입단계의 가격) 상승은 생산자 수취율이 높아지는 것과 연동하고 있음
 - (산지 위판장의 비용 절감 노력) 산지수협에서 운영하는 산지 위판장은 조합원이 해당 품목의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위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전년 대비 절감 또는 동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둘째,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대형소매점(혹은 일반 소매점)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상승한 인건비(간접비 포함)를 대신하여 이윤 혹은 이윤율을 낮추었음
 - 기본적으로 수산물의 산지 가격에 비해 소비지 가격은 연중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는데, 그 이유는 물가 변동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임
 - 산지에서 결정된 가격의 변동 폭이 그대로 소매에서 반영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함
 - 최근에는 기본임금의 상승에 따라서 직·간접비 모두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가 고려하는 해당 품목의 가격 수준과 변동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윤 혹은 이윤율을 낮추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셋째, 각 유통단계에서 외주 관련 비용은 상승하고 있음
 - 얼음대, 작업비(부녀자 선별 작업 등), 운송비, 포장비 등과 같이 각 유통주체들이 외부에 맡긴 물류비 등은 2018년에 비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났음
 - 예를 들어, 부녀자 작업비(선별 등), 운송비, 포장비 등이 이에 속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가기술표준원, 신선물류 산업 현황 및 표준화 동향, KATS 기술보고서, Vol 107, 2018.02., pp. 4.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넙치 양식 표준 지침서」, 2006.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 2016.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입출하동향, 2019년 12월 31일 기준
- 김대영 외, 20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2018. 3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농림수산성, 도매시장의 품질관리 고도화 규범책정을 위한 매뉴얼, 2016년도 도매 시장정비신기본방침실시상황실태조사위탁사업, 2016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간편식시장」, 2019. 8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2019.12.
- 법제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 식품안전나라, 식중독 예방홍보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2018. 11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주방 음식점 위생관리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이현동 외, 2018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2019. 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년 해양수산전망대회 자료집」, 202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동향분석 제 167호, 2020.03.31.

해양수산부, 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 기준

해양수산부, “2020년도 수산물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9.12.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017.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접속일 2020. 3. 1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통계청, 온라인 쇼핑몰 판매매체별/상품군별거래액(<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통계청, 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통계청, 시도/산업/매출액 규모별 현황(<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및 서비스업조사(<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0차개정, 시도·산업·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현황(<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통계청, 추계인구 및 추계가구(<http://kosis.kr>, 접속일 2020. 4. 29)

한국무역협회(<http://www.kati.net>, 접속일 2020. 4. 2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Australian Cold Chain Guidelines 2017,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2017)

FAO, Food Outlook, 각 연도.

FAO, Food price index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8

부록

농수산물 유통비용 현황

부록

<부록 표 1> 농수산물 유통비용 현황

구분	생산자 수취율	유통 비용 율	비용별			단계별			가격	
			직접	간접	이윤	산지 (출하)	도매	소매	생산자 수취	소비자
수 산 물	수산물 평균	45.7	54.3	12.2	23.6	18.6	7.7	11.3	35.3	-
	고등어(선어,kg)	33.1	66.9	13.1	27.1	26.7	9.5	13.5	43.9	2,389
	오징어(선어,kg)	62.0	38.0	7.2	13.6	17.2	6.3	11.3	20.4	13,396
	갈치(선어,kg)	55.9	44.1	11.9	15.9	16.3	9.8	10.8	23.5	14,799
	명태(냉동,kg)	42.8	57.2	12.7	26.8	17.7	8.0	19.2	30.0	1,661
	참조기(선어,kg)	60.5	39.5	12.9	14.8	11.8	10.4	11.5	17.6	12,099
	전복(활어,kg)	64.4	35.6	4.0	21.4	10.2	9.7	-	25.9	29,000
	넙치(활어,kg)	29.7	70.3	18.9	39.4	12.0	0.3	7.3	62.7	8,801
농 산 물	농축산물 평균	53.3	46.7	16.8	16.6	13.3	16.8	16.6	13.3	-
	쌀(20kg)	75.7	24.3	10.4	9.4	4.5	10.4	4.0	9.9	43.151
	콩(1kg)	60.2	39.8	6.9	18.2	14.7	10.0	6.5	23.3	3,766
	고구마(1kg)	37.3	62.7	33.8	15.4	13.5	27.5	6.7	28.5	1.921
	봄감자(1kg)	34.0	66.0	19.9	11.5	34.6	12.6	10.0	43.4	852
	가을무(단)	33.4	66.6	40.5	9.6	16.5	28.8	10.5	27.3	1,507
	가을배추(포기)	27.6	72.4	29.3	11.3	31.8	20.3	11.9	40.2	734
	고랭지무(개)	45.6	54.4	19.8	10.4	24.2	11.2	10.0	33.2	1,701
	오이(kg)	55.1	44.9	14.0	8.5	22.4	5.6	6.8	32.5	1,804
	난지형마늘(kg)	46.1	53.9	19.5	9.4	25.0	23.8	7.9	25.2	3.744
	양파(kg)	23.8	76.2	37.2	12.2	26.8	23.9	22.4	29.9	326
축 산 물	계란(30개)	48.8	51.2	14.4	28.6	8.2	5.8	18.2	27.2	2,438
	닭고기(수)	44.7	55.3	15.0	29.7	10.6	0.1	35.0	20.2	2,134
	돼지고기(두)	55.7	44.3	13.5	23.8	7.0	1.3	17.4	25.6	381,154
	쇠고기(두)	52.4	47.6	10.5	16.2	20.9	1.6	10.0	36.0	8,627.609